

定本退溪全書

— 書簡5 —

社團法人
退溪學研究院

退溪學研究院 院 長：李佑成

副院長：李東歡

研究責任者：金彦鍾

共同研究員：李允熙, 李俸珪, 文錫胤

研究專擔人力

資料・編輯：鄭錫胎

校 勘：崔秉準, 姜麗眞, 辛泳周

標 點：李相夏

* 이 결과물은 정부(교육인적자원부-한국학중앙연구원)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定本退溪全書(書簡5) 目錄

書-鄭惟一-1	答鄭子中[乙卯]	35
書-鄭惟一-2	與鄭子中[丙辰]	36
書-鄭惟一-3	答鄭子中[惟一○丙辰][見自省錄]	37
書-鄭惟一-4	答鄭子中[見自省錄]	38
書-鄭惟一-5	答鄭子中[見自省錄]	43
書-鄭惟一-6	答鄭子中別紙[見自省錄]	45
書-鄭惟一-7	答鄭子中[見自省錄]	48
書-鄭惟一-8	答鄭子中別紙[見自省錄]	53
書-鄭惟一-9	答鄭子中[見自省錄]	60
書-鄭惟一-10	答鄭子中[見自省錄]	63
書-鄭惟一-11	答鄭子中[見自省錄]	71
書-鄭惟一-12	與鄭子中	84
書-鄭惟一-13	與鄭子中[丁巳]	85
書-鄭惟一-14	與鄭子中	86
書-鄭惟一-15	答鄭子中[丁巳]	90
書-鄭惟一-16	與鄭子中[戊午]	94
書-鄭惟一-17	答鄭子中	97
書-鄭惟一-18	答鄭子中	101
書-鄭惟一-19	答鄭子中	104
書-鄭惟一-20	答鄭子中	106

書-鄭惟一-21	答鄭子中	109
書-鄭惟一-22	答鄭子中[戊午]	111
書-鄭惟一-23	答鄭子中	113
書-鄭惟一-24	答鄭子中[己未]	114
書-鄭惟一-25	答鄭子中[己未]	116
書-鄭惟一-26	答鄭子中	118
書-鄭惟一-27	答鄭子中	120
書-鄭惟一-28	鄭子中與奇明彥論學， 有不合，以書來問， 考訂前言，以答如左.[庚申]	122
書-鄭惟一-29	與鄭子中	129
書-鄭惟一-30	答鄭子中	130
書-鄭惟一-31	答鄭子中	132
書-鄭惟一-32	與鄭子中	134
書-鄭惟一-33	答鄭子中	135
書-鄭惟一-34	與鄭子中	137
書-鄭惟一-35	答鄭子中別紙	139
書-鄭惟一-36	答鄭子中	140
書-鄭惟一-37	答鄭子中別紙	143
書-鄭惟一-38	答鄭子中	146
書-鄭惟一-39	與鄭子中	148
書-鄭惟一-40	答鄭子中[辛酉]	149
書-鄭惟一-41	答鄭子中講目	151

書-鄭惟一-42	答鄭子中	156
書-鄭惟一-43	與鄭子中別紙	158
書-鄭惟一-44	答鄭子中	160
書-鄭惟一-45	答鄭子中別紙	163
書-鄭惟一-46	與鄭子中	172
書-鄭惟一-47	與鄭子中	174
書-鄭惟一-48	答鄭子中	176
書-鄭惟一-49	與鄭子中	178
書-鄭惟一-50	答鄭子中	179
書-鄭惟一-51	答鄭子中	180
書-鄭惟一-52	與鄭子中[壬戌]	182
書-鄭惟一-53	與鄭子中	183
書-鄭惟一-54	答鄭子中[壬戌]	185
書-鄭惟一-55	答鄭子中	187
書-鄭惟一-56	答鄭子中別紙	189
書-鄭惟一-57	與鄭子中	193
書-鄭惟一-58	與鄭子中	194
書-鄭惟一-59	答鄭子中	195
書-鄭惟一-60	答鄭子中[癸亥]	197
書-鄭惟一-61	答鄭子中	198
書-鄭惟一-62	與鄭子中	199
書-鄭惟一-63	答鄭子中[癸亥]	200
書-鄭惟一-64	答鄭子中	203

書-鄭惟一-65	答鄭子中	204
書-鄭惟一-66	答鄭子中	205
書-鄭惟一-67	答鄭子中	207
書-鄭惟一-68	答鄭子中[甲子]	209
書-鄭惟一-69	與鄭子中	210
書-鄭惟一-70	答鄭子中[甲子]	212
書-鄭惟一-71	答鄭子中	214
書-鄭惟一-72	答鄭子中	215
書-鄭惟一-73	答鄭子中	216
書-鄭惟一-74	與鄭子中	217
書-鄭惟一-74-1	別紙	219
書-鄭惟一-75	答鄭子中	221
書-鄭惟一-76	答鄭子中	223
書-鄭惟一-77	答鄭子中	224
書-鄭惟一-77-1	別紙	225
書-鄭惟一-78	答鄭子中	227
書-鄭惟一-79	答鄭子中	229
書-鄭惟一-80	與鄭子中[乙丑]	230
書-鄭惟一-81	答鄭子中[乙丑]	231
書-鄭惟一-82	與鄭子中	232
書-鄭惟一-83	答鄭子中	233
書-鄭惟一-84	與鄭子中	235
書-鄭惟一-85	答鄭子中	236

書-鄭惟一-86	答鄭子中	242
書-鄭惟一-87	與鄭子中	244
書-鄭惟一-88	答鄭子中[丙寅]	245
書-鄭惟一-88-1	別紙	248
書-鄭惟一-89	答鄭子中	249
書-鄭惟一-90	答鄭子中	250
書-鄭惟一-91	答鄭子中	252
書-鄭惟一-92	與鄭子中	253
書-鄭惟一-92-1	別紙	254
書-鄭惟一-93	與鄭子中	255
書-鄭惟一-93-1	別紙	256
書-鄭惟一-94	答鄭子中	257
書-鄭惟一-94-1	別紙	259
書-鄭惟一-95	與鄭子中	260
書-鄭惟一-95-1	別紙	261
書-鄭惟一-95-2	別紙	263
書-鄭惟一-96	與鄭子中	265
書-鄭惟一-96-1	別紙	265
書-鄭惟一-97	答鄭子中	267
書-鄭惟一-98	與鄭子中	268
書-鄭惟一-99	與鄭子中	270
書-鄭惟一-100	答鄭子中	271
書-鄭惟一-100-1	別紙	272

書-鄭惟一-101	與鄭子中	273
書-鄭惟一-102	答鄭子中	275
書-鄭惟一-103	“格物”·“物格”俗說辯疑, 答鄭子中	278
書-鄭惟一-104	答鄭子中[丁卯]	287
書-鄭惟一-105	與鄭子中別紙[丁卯]	289
書-鄭惟一-106	別紙	291
書-鄭惟一-107	答鄭子中	292
書-鄭惟一-108	答鄭子中[丁卯]	294
書-鄭惟一-108-1	別紙	297
書-鄭惟一-109	答鄭子中	298
書-鄭惟一-110	與鄭子中	299
書-鄭惟一-111	答鄭子中	300
書-鄭惟一-112	與鄭子中	303
書-鄭惟一-113	答鄭子中別紙	304
書-鄭惟一-114	與鄭子中	306
書-鄭惟一-115	答鄭子中[戊辰]	307
書-鄭惟一-116	答鄭子中[戊辰]	308
書-鄭惟一-117	與鄭子中	310
書-鄭惟一-118	答鄭子中	311
書-鄭惟一-119	與鄭子中	312
書-鄭惟一-120	答鄭子中	313
書-鄭惟一-121	答鄭子中	314

書-鄭惟一-122	與鄭子中	315
書-鄭惟一-123	答鄭子中[戊辰]	316
書-鄭惟一-124	答鄭子中	317
書-鄭惟一-125	答鄭子中	318
書-鄭惟一-126	答鄭子中	319
書-鄭惟一-127	答鄭子中	321
書-鄭惟一-128	答鄭子中	322
書-鄭惟一-129	答鄭子中	323
書-鄭惟一-130	與鄭子中	325
書-鄭惟一-131	答鄭子中	326
書-鄭惟一-132	答鄭子中	327
書-鄭惟一-133	答鄭子中	328
書-鄭惟一-133-1	別紙	329
書-鄭惟一-134	答鄭子中	331
書-鄭惟一-135	答鄭子中	332
書-鄭惟一-136	答鄭子中	333
書-鄭惟一-137	與鄭子中	334
書-鄭惟一-138	答鄭子中	335
書-鄭惟一-139	答鄭子中	336
書-鄭惟一-140	與鄭子中	337
書-鄭惟一-141	答鄭子中	338
書-鄭惟一-142	答鄭子中	339
書-鄭惟一-143	與鄭子中	340

書-鄭惟一-144	答鄭子中	341
書-鄭惟一-145	答鄭子中	342
書-鄭惟一-146	與鄭子中	343
書-鄭惟一-147	與鄭子中	344
書-鄭惟一-148	答鄭子中	345
書-鄭惟一-149	答鄭子中	346
書-鄭惟一-150	答鄭子中	347
書-鄭惟一-151	答鄭子中	349
書-鄭惟一-152	答鄭子中	350
書-鄭惟一-153	答鄭子中	351
書-鄭惟一-154	與鄭子中	352
書-鄭惟一-155	與鄭子中別紙 [九代孫野淳輯錄.下全]	354
書-鄭惟一-156	答鄭子中[己巳]	355
書-鄭惟一-157	答鄭子中	356
書-鄭惟一-158	答鄭子中	357
書-鄭惟一-159	答鄭子中[己巳]	358
書-鄭惟一-160	與鄭子中	359
書-鄭惟一-161	答鄭子中	360
書-鄭惟一-162	答鄭子中[己巳]	361
書-鄭惟一-163	與鄭子中	362
書-鄭惟一-164	答鄭子中	363
書-鄭惟一-165	與鄭子中	364

書-鄭惟一-165-1 別紙	365
書-鄭惟一-166 答鄭子中	366
書-鄭惟一-166-1 別紙	366
書-鄭惟一-167 答鄭子中別紙	369
書-鄭惟一-168 答鄭子中	371
書-鄭惟一-169 答鄭子中別紙	372
書-鄭惟一-170 答鄭子中	375
書-鄭惟一-171 與鄭子中	377
書-鄭惟一-172 與鄭子中[庚午]	378
書-鄭惟一-172-1 別紙	379
書-鄭惟一-173 答鄭子中別紙 [庚午]	380
書-鄭惟一-174 答鄭子中	390
書-鄭惟一-175 與鄭子中	392
書-鄭惟一-176 答鄭子中	393
書-鄭惟一-176-1 別紙	395
書-鄭惟一-177 答鄭子中	397
書-鄭惟一-178 與鄭子中別紙	400

【答鄭子中[乙卯]】 2)

【³⁾辱垂問札，承侍履佳慶欣慰，滉前患積脹，間間發動，此非小病，無藥可治，益以無慘，清涼之遊，頃嘗作意，緣冗未往之際，適有過客之見問者，邑人以遊山對之耳，不意傳及於雅聽也，近日了得許多人事後，可遂振衣，想在月晦間而時未定矣，公今偶失鄉薦，正合朴希正之戒，若得相從於山社，豈不好哉，第以世人橫生，嫌謗惹致紛紛，未必不由於此，如何如何，且滉此行，本爲養病計，而門里少輩願從者頗多，盡拒則不近情，不拒則山間亦非靜境，反害於恬養，此一事已難處矣，其在左右，無乃益厭之耶，惟⁴⁾量處爲幸所，欲言者甚多，適家有行奠事，不具謹奉報.】

1) (1555년, 55세) 11월 8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乙卯至月初七日]’, 『상계본』에 ‘答鄭子中[惟一〇乙卯]’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去誠一’이 있다.

3) 『상계본』에 상란부전지 ‘別淸[止]往近[止]幸’이 있다.

4) 惟 : 『상계본』에 ‘唯’로 되어 있다.

【與鄭子中[丙辰]】 2)

【3)頃日，惠訪深幸，而齋舍不堪留枕，晷刻別去，悵懷至今，今此和妍，侍奉想益佳慶，此間身病作止不一，里近病疫蔓延，使人懍懍『晦菴書』前去冊寫至幾許，其次冊昨日金惇叙寄來，故送去，照領，又其次則隨到隨送，但恐君或有他行，或別有課業，與此事相掣礙，則不須强也，李貳相疏文，則令兒子求來矣，其所謂私儀者，無由得見，如有傳本寄示深幸，溪居無人，告語，憤憤，度日欲資以叩發一端，既即回納，惟照，不宣4).】

1) (1556년, 56세) 2월 1일.

2) 『초초본』에 ‘與鄭子中[丙辰仲春朔日]’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去誠一’이 있다.

3) 『상계본』에 상란부전지 ‘別晦[止]一端’이 있다.

4) ‘不宣’ 뒤에 『초초본』에 ‘謹奉問’이 있다.

答鄭子中[惟一○丙辰]【[見自省錄]】2)

夫士之所病，無立志耳．苟志之誠篤，何患於學之不至而道之難聞耶？雖然，以公如是之志願，而不得夫一世有道之君子以親依之，顧乃過自貶損，以有叩於如滉慳慳之人，豈非公爲不幸而滉爲愧懼之甚耶？向者於公，固有一二往復之言，今來諭則非但講疑，所云大非其宜．古人之執禮愈恭者，施當其可，而卒能有成，所以爲貴．不然，其爲愈恭，豈不適足爲笑罔耶？況無實盜名，古者比之穿窬，滉所以尤不欲得此於梁·楚之間也．雖然，公云“不懼世譏”，若只是朋友講學之名，則滉亦安能盡避乎？故從前犯笑侮論學，自不爲少．請公去他名而講所疑，其亦可乎3)．

1) (1556년, 56세) 2~3월.

2) 『초초본』에 ‘答鄭子中’,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答鄭子中 [見自省錄]’으로 되어 있다. 『초초본』에 상란부전지 ‘■……■考次’, 『중초본』에 ‘見自省錄’에 주목말거표시, 주목상란부전지 ‘{自}此至謙仲傳{辱}書云云爲一篇’이 있다.

3) 『초초본』에 주목행간부전지 ‘此下無他語否’가 있다.

答鄭子中【[見自省錄]] 2)

春盡不得聞問，【懸想殊極[錄無懸以下四字³⁾】】僧來辱教，承悉近況。【脫去俗累入山靜處所得不比尋常令人跂羨無已[錄無脫以下二十字⁴⁾】】所云承家幹蠱，不免反爲所累，【覺得學問之工漸鑠[錄無學⁵⁾以下八字⁶⁾】】因此省悟，思所以勇改者【此意[錄無此意二字⁷⁾】】甚善。

【甚善[錄無下甚善字⁸⁾】】然於愚意，猶有所未盡也。蓋嘗聞之，古人所以爲學者，必本於孝悌忠信，以次而及於天下萬事“盡性”・“至命”之極。蓋其大體無所不包，而其最先・最急者，尤在於家庭唯諾之際。

1) (1556년, 56세) 4월 11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四月十一日晚年定本見手錄]’으로 되어 있다. 『초초본』에 상란부전지 ‘■……■{考}次’, 『중초본』에 ‘見自省錄’에 주목말거표시, 상란부전지 ‘■…■依錄書之小註■…■可去下同’이 있다.

3) 錄無……四字 : 『초초본』에 없다.

4) 錄無……十字 : 『초초본』에 없다.

5) 學 :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覺’으로 되어 있다.

6) 錄無……八字 : 『초초본』에 없다.

7) 錄無……二字 : 『초초본』에 없다.

8) 錄無……善字 : 『초초본』에 없다.

故曰 “本立而道生.” 今以幹蠱之故，至妨於爲學之功⁹⁾，無乃與古所云者有異乎？然則其所以承幹者，得無緩於義理而急於營爲，故馴至於此耶？請¹⁰⁾無改其名，而改其所從事之實，自承順權奉之餘，一切唯盡義理之所在，則其向所營爲者，未必不在其中矣。如其節目之詳，具在方冊，在審擇而力行之如何耳？所可懼者，今之所謂頓減者，不能保於後日，如先正所戒，“野火燒不盡，春風吹又生耳。” 滉病患如前，讀書躬行，皆不能十分用¹¹⁾工，又無朋友切磋之益，時復思之，懍惕靡容。『朱子書』，今幾寫畢。【惟金彥遇兄弟所分三兩卷未寫[錄無惟以下十三字¹²⁾]】每一人寫來，隨將元本校正，病中頗費¹³⁾心力。然因此不無見到親切處，眞覺聖賢不我欺也。而難形於紙墨以告人，又未知天假幾年，於此做得晚¹⁴⁾境工夫也。

9) : 『초초본』에 ‘工’으로 되어 있다.

10) ‘請’ 뒤에 『상계본』에 말거표시를 한 ‘爲’가 있다.

11) 用 : 『초초본』,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加[加錄作用]’으로 되어 있다.

12) 錄無……三字 : 『초초본』에 없다.

13) 費 : 『상계본』에 ‘煩’으로 되어 있다.

14) 晚 : 『초초본』에 ‘暮’,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暮[錄作晚]’으로 되어 있다.

心爲太極，卽所謂人極者也。此理無物我，無內外，無分段，無方體。方其靜¹⁵⁾也。渾然全具，是爲一本，固無在心・在物之分。及其動而應事接物¹⁶⁾，事事物物之理，卽吾心本具之理，但心爲主宰，各隨其則而應之，豈待自吾心推出而後爲事物之理？北溪在朱門，最精於窮理，豈不知此而云哉？但於此，下一“出”字，似微有如來喻所疑之嫌。乃語言小疵，善讀者以意逆志，自無所礙。恐不當云“自在心者片片分來”也。且來喻“在心・在事只是一理”者，得¹⁷⁾矣。但又云，“所謂一本者，指理之總腦處，【而言[錄無而言二字¹⁸⁾]】非指在心者。”夫旣曰“只是一理”，則“理之總腦”不在於心，更當何在？但須知在心・在¹⁹⁾物本無二致處。分明透²⁰⁾徹，然後始爲眞知。苟爲不然，謾曰“只一理”，則恐於一本萬殊處，猶有

15) : 『상계본』에 ‘正’으로 되어 있다.

16) 應事接物 : 『초초본』에 ‘應接’,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應接[應接錄作應事接物]’로 되어 있다.

17) 得 : 『초초본』에 ‘善’,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善[善錄作得]’으로 되어 있다.

18) 錄無……二字 : 『초초본』에 없다.

19) 在 : 『상계본』에 없고, 교정기 ‘在’가 있다.

20) 透 : 『초초본』에 ‘融’,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融[融錄作透]’로 되어 있다.

所未瑩也. 此滉前日每云“理字難知”者, 此也. 如何如何. 『通書』, “闇者求於明, 篤其實”而藝者, 書及朱子 “體有偏正”之論, 【來喻[錄無來喻二字²¹⁾】皆已得之. “幾動於彼, 誠動於此”, 彼此二字, 果爲²²⁾可疑? 鄙意 “幾”者動之微, 感物而動, 故於“幾”言“彼”, “誠”者理之實, 自內而發, 故於“誠”言“此”耳. “有善不及”, 是²³⁾設問其下²⁴⁾當有“如之何”等辭, 而今無之, 此濂溪立語太簡處. 然此自吾東人以辭吐讀之, 故爲難爾²⁵⁾. 若如²⁶⁾漢人既無辭吐之拘, 則但曰“有善不及”, 卽係以曰以下之文, 有何不可乎? 【今當依此讀之便沒事其下有不善亦同[錄無今以下十六字²⁷⁾】“動靜”首節・次節,

21) ……二字 : 『초초본』에 없다.

22) 爲 : 『초초본』에 없고,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錄有爲字]’로 되어 있다.

23) 是 : 『초초본』에 ‘爲’,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爲[錄作是字]’로 되어 있다.

24) 其下 : 『초초본』에 없고,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錄有其下二字]’로 되어 있다.

25) 爾 : 『초초본』에 없고,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錄有爾字]’로 되어 있다.

26) 如 : 『상계본』에 ‘使’로 되어 있다.

27) 錄無……六字 : 『초초본』에 없다.

但以形而上下者，分言有方體者有滯，超形器者莫測之意。今以“分之一定命之流行”言之，恐未安。熟玩註²⁸⁾解說，可見。凡此皆以臆²⁹⁾見，率爾³⁰⁾奉告，不知可否？如有悖理，悉以反教，以資講益，幸甚³¹⁾。

【[錄有幸甚二字³²⁾]³³⁾李相疏并儀。今在道谷廬所。從當推送。兄子名騫者。娶於昌所大村云。與仁里切近。當付此姪以傳。自今公亦欲惠問字。不煩專使。只托此姪。無不傳也。兼亦使來。旋索答書。卒遽未究所欲言者如此。書亦緣是草略。殊不盡意，如右傳之。無此慮也。前來帖粗浣呈納。惟照領。所祈勉加進修。以副此懷。謹復。[錄無李相以下百十六字³⁴⁾】】

【齋號承悉。今亦未暇耳。】

28) : 『초초본』, 『중초본』, 『번남본』에 ‘翫注’, 『상계본』에 ‘翫註’로 되어 있다.

29) 臆 : 『초초본』에 ‘妄’,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妄[妄錄作臆]’으로 되어 있다.

30) 爾 : 『초초본』, 『중초본』, 『상계본』에 ‘易’로 되어 있다.

31) 幸甚 : 『초초본』,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없다.

32) 錄有……二字 : 『초초본』에 없다.

33) 『중초본』에 상란부진지 ‘李相以下依錄刪去’가 있다.

34) 錄無……六字 : 『초초본』에 없다.

答鄭子中【[見自省錄]】 2)

今因景昭³⁾，知自山回，想靜中讀性理書，所得超詣，恨不得聯牀⁴⁾講究以祛蔽惑⁵⁾也．前論 “心爲太極” 北溪之說，細思之，終是有病．但以延平謂朱子 “從此推出分殊處爲非” 之說，朱子『大學或問』補亡⁶⁾章，“心主一身，理在萬物，互爲體用” 之論，及程子 “他人食飽，公無餒乎？” 等說推之，可知北溪之說爲未穩．公能悟其語病，甚不易也．『貳相疏儀』⁷⁾【及權秀才帖同封[錄無及以下七字⁸⁾]】納呈．【照領[錄無照領二字⁹⁾]】僕近日，脹痞頻作，不得盡力於此事．【尋

1) (1556년, 56세) 4월 29일(그믐).

2) 『초초본』에 ‘答鄭子中[清和晦日晩年定本見手錄]’으로 되어 있다. 『초초본』에 상란부전지 ‘■……■考次’, 『중초본』에 ‘見自省錄’에 주목 말거표시, 『정초본』에 행간부전지 ‘丙辰四月’이 있다.

3) 昭 : 『상계본』에 ‘照’로 되어 있다.

4) 牀 : 『초초본』, 『중초본』, 『정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床’으로 되어 있다.

5) 惑 : 『상계본』에 ‘感’으로 되어 있다.

6) 亡 :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忘’으로 되어 있다.

7) ? :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依錄書之下同 他書亦同’이 있다.

8) 錄無……七字 : 『초초본』에 없다.

常愧慊至[錄無尋以下五字¹⁰⁾】如此『疏儀』【等[錄無等字¹¹⁾】，雖甚愛之¹²⁾，亦不¹³⁾得傳寫，可歎其衰之甚也。『晦庵¹⁴⁾書』，諸人今已畢寫，託李大用糲¹⁵⁾糲¹⁶⁾，未來了此一事，閒中大幸，但精力如此，未知其終有絲毫之益與未也。【時向熱。惟冀侍慶之外。學履加珍。不宣。謹拜。[錄無時以下十七字¹⁷⁾】

左右學問，誠不易。但常有急迫期必安排扭捏之意，此正延平所謂“積下一團私意”，亦孟子所謂“揠苗助長”之患。然則所由雖善，而爲心害甚重。況左右不無心恙，尤當深戒於此。故敢白，然曾傷於虎者滉也。而爲此言，亦可笑耳？

9) ……二字：『초초본』에 없다.

10) 錄無……五字：『초초본』에 없다.

11) 錄無等字：『초초본』에 없다.

12) 之：『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錄有之字]’로 되어 있다. 『초초본』에 말거표시가 있다.

13) 不：『초초본』에 ‘未’로 되어 있다.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未[錄作不字]’로 되어 있다.

14) 庵：『중초본』, 『상계본』에 ‘菴’으로 되어 있다.

15) 糲：『초초본』,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糲’으로 되어 있다.

16) ：『초초본』, 『중초본』에 ‘潢’으로 되어 있다.

17) 錄無……七字：『초초본』에 없다.

答鄭子中別紙【[見自省錄]】 2)

細詳來示，每有一病，輒能知有其藥。朱子所謂“卽此欲去之心，便是能去之藥”者，公皆³⁾得之矣。

【此[錄無此字⁴⁾]】恐更不須問人，但能默默加工，向前不已，積習久久，至於純熟，則自然心與理一，而無隨捉隨失之病矣。程子曰“學貴於習，習能專一時方好。”又曰“整齊嚴肅則心便一，一則自無非僻之干”者，正謂此也。然其習之之方，當如顏子非禮勿視聽言動，曾子動容貌・正顏色・出辭氣處做工夫，則庶有據依而易爲力。至於眞積力久而有得焉。然後“三月不違仁”，及“一以貫之”之旨，可得而議。今來諭⁵⁾則不然。患操存之不能常，則驗鼻息於虛靜。

1) (1556년, 56세) 5월.

2) 『초초본』에 ‘答鄭子中別紙[五月晚年定本見手錄]’으로 되어 있다. 『초초본』에 상란부전지 ‘■……■{考}次’, 『중초본』에 ‘見自省錄’에 주목말거표시가 있다.

3) ‘皆’ 뒤에 『초초본』,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已’가 있다. 『갑진중간본』, 『계묘교정본』에 원두주 ‘一本皆有下已字’가 있다.

4) 錄無此字 : 『초초본』에 없다.

5) 諭 :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喻’로 되어 있다.

論此心之未發，則疑知覺之有無，而深以把捉・收拾爲難。竊恐就此而習操心，愈見紛擾，而無寧息之期矣。故程子每以“坐忘”爲“坐馳”，而其答蘇季明“未發”之問，反覆論辨，而卒之不過以“敬”爲言。朱子之論“中和”，亦曰“未發之前，不可尋覓，已發之際，不容安排，惟平日莊敬涵養之功至⁶⁾，而無人欲之僞以亂之，則其未發也鏡明水止，而其發也無不中節矣。”今以【朱子[錄無朱子二字]】此語，觀⁷⁾來諭⁸⁾之云，其尋覓安排，亦已甚矣。無乃有乖於莊敬涵養而積⁹⁾久有得者耶？至於未發之前知覺有無之說，朱子「答¹⁰⁾呂子約書」，論之詳矣。兼情意・理氣之辨，【在講學之道皆所當論[錄無在以下九字¹¹⁾]】來諭亦不能無可疑¹²⁾。適此病倦，來使回晚，姑俟¹³⁾後

6) : 『초초본』에 ‘力勝’,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力勝[力勝錄作功至]’로 되어 있다.

7) ‘觀’ 뒤에 『초초본』,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之’가 있다.

8) 諭 :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諭’로 되어 있다.

9) 積 : 『상계본』에 ‘精’으로 되어 있다.

10) 答 : 『초초본』에 ‘與’,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與[與錄作答]’으로 되어 있다.

11) 錄無……九字 : 『초초본』에 없다.

12) 疑 : 『초초본』,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議’로 되어 있다.

13) 俟 : 『정초본』에 ‘俟’로 되어 있다.

便. 【心要在¹⁴⁾腔子裏. 所諭已得之.[錄無心以下十一字¹⁵⁾]]】

14) : 『초초본』에 없고, 행간부전지 ‘脫在字’가 있다.

15) 錄無……一字 : 『초초본』에 없다.

答鄭子中【[見自省錄]】 2)

前月中，騫姪傳書，具悉佳況.³⁾【欣慰無比[錄無欣
以下四字⁴⁾】端午後，能復還山否？【卽今見在何處
[錄無卽以下六字⁵⁾】滉平生不幸之極，虛名欺世，老
病【摧頽而[錄無摧頽而三字⁶⁾】益甚⁷⁾，以⁸⁾至【於
[錄無於字⁹⁾】上誤天聽，旬月之間，再蒙召旨，駭
窘戰惕，不知所出。初欲冒恥奔走，【上去[錄無上去
二字¹⁰⁾】適苦河魚殊劇，勢難昇行，又於私心，極有

1) (1556년, 56세) 6월 28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六月二十八日晚年定本見手錄]’으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見自省錄’에 주목말거표시, 『정초본』에 행간부전지 ‘丙辰五月’이 있다.

3)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一依自省錄爲是’가 있다.

4) 錄無……四字 : 『초초본』에 없다.

5) 錄無……六字 : 『초초본』에 없다.

6) 錄無……三字 : 『초초본』에 없다.

7) 甚 : 『갑진중간본』에 ‘深’으로 되어 있고, 원두주 ‘深一本作甚’이 있다.

8) 以 : 『초초본』에 없고,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錄有以字]’로 되어 있다.

9) 錄無於字 : 『초초본』에 없다.

10) 錄無……二字 : 『초초본』에 없다.

所難者. 不得已昧萬死, 再上辭狀. 今聞物論深以爲非, 未知終如何. 日夕危慮, 以俟譴罰之至. 今世進退¹¹⁾之難如此, 【令人氣悶[令以下四字錄無¹²⁾】】奈何奈何. 【緣此無聊[緣以下四字錄無¹³⁾】】來書【關¹⁴⁾然[關¹⁵⁾然二字錄無¹⁶⁾】】稽報, 亦緣此無聊之故¹⁷⁾. 愧恨愧恨¹⁸⁾. 示喻¹⁹⁾以事過多悔, 歸於踐履之未得力. 又云, “格物致知亦非歲月工夫可²⁰⁾至”, 因以知欲速之妨於進學, 可見自飭勵²¹⁾之意. 本領如此, 更加不²²⁾

11) : 『초초본』에 ‘處身’, 『중초본』, 『번남본』에 ‘處身[處身錄作進退]’, 『상계본』에 ‘處[處身錄作進退]身’으로 되어 있다.

12) 令以……錄無 : 『초초본』에 없다.

13) 緣以……錄無 : 『초초본』에 없다.

14) 關 : 『초초본』,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闕’로 되어 있다.

15) 關 :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闕’로 되어 있다.

16) 關然……錄無 : 『초초본』에 없다.

17) 亦緣……之故 : 『초초본』에 없고,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錄有亦緣此無聊之故七字]’로 되어 있다.

18) 愧恨愧恨 : 『정초본』에 ‘愧愧恨恨’으로 되어 있고, 추가 ‘■司諫家藏’을 한 상란부전지 ‘■…■本作愧恨愧恨’이 있다.

19) 示喻 : 『초초본』에 ‘喻及’,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喻及[喻及錄作示喻]’로 되어 있다.

20) 可 : 『초초본』에 ‘所’,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所[所錄作可]’로 되어 있다.

21) 自飭勵 : 『초초본』에 ‘檢飭自勵’,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檢飭自勵[檢飭自勵錄作自飭勵]’로 되어 있다.

能不²³⁾措之功，遲以數十年之久，氣質之難變者，豈不可變？此道之難聞者²⁴⁾，豈終不可聞²⁵⁾耶？【但[錄無但字²⁶⁾】如滉者，憊懾²⁷⁾日甚，【一日[錄無一日二字²⁸⁾】雖知此意，【而[而錄無²⁹⁾】不能痛下工力。凡與朋友往復之言³⁰⁾，恐卒歸於空言也³¹⁾。【尋常自愧[錄無尋以下四字³²⁾】比來，點檢平日應接之間，流徇敝³³⁾俗，因【以[錄無以字³⁴⁾】自失己³⁵⁾者，十常六

22) : 『초초본』에 ‘弗’로 되어 있다.

23) 不 : 『초초본』에 ‘弗’로 되어 있다.

24) 難聞者 : 『초초본』에 ‘高深遠大亦’, 『중초본』에 ‘高深遠大[高深遠大亦錄作難聞者]’, 『번남본』, 『상계본』에 ‘高深遠大亦[高深遠大亦錄作難聞者]’로 되어 있다.

25) 聞 : 『초초본』에 ‘至’,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至[至錄作聞]’으로 되어 있다.

26) 錄無但字 : 『초초본』에 없다.

27) 滉者憊懾 : 『초초본』에 ‘滉憊病’,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滉憊病[滉憊病錄作滉者憊懾]’로 되어 있다.

28) 錄無……二字 : 『초초본』에 없다.

29) 而錄無 : 『초초본』에 없다.

30) 往復之言 : 『초초본』에 ‘講論之說’,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講論之說[講論之說錄作往復之言]’으로 되어 있다.

31) 也 : 『초초본』에 없고,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錄有也字]’로 되어 있다.

32) 錄無……四字 : 『초초본』에 없다.

33) 敝 : 『초초본』에 ‘於’,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於[於錄作敝]’로 되어 있다.

七. 見示 “知處世之難， 且嘆³⁶⁾規矩之嚴， 外銷中³⁷⁾變” 等語，【喜君先能道吾心中事也[錄無喜以下十字³⁸⁾]] 此在吾輩，非小病也³⁹⁾。所當亟改，但改之亦非易事。只以言語一事言之，其曲折正如所⁴⁰⁾喻。然如此預作閒安排，【亦[錄無亦字⁴¹⁾]] 不濟事，只當敬以⁴²⁾無失，涵養深厚，而發於應接者，不敢輕易放過，至於久久⁴³⁾漸熟，則自然已無所失。而應人中節，雖有所不合，人亦不甚怨怪⁴⁴⁾也⁴⁵⁾。如何？【別紙不

34) : 『초초본』에 없다.

35) 己 : 『초초본』에 없고,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錄有己字]’로 되어 있다.

36) 嘆 : 『상계본』에 ‘歎’으로 되어 있다.

37) 中 : 『상계본』에 ‘內’로 되어 있다.

38) 錄無……十字 : 『초초본』에 없다.

39) 也 : 『초초본』에 없고,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錄有也字]’로 되어 있다.

40) 所 : 『초초본』에 ‘來’,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來[錄作所字]’로 되어 있다.

41) 錄無亦字 : 『초초본』에 없다.

42) 以 : 『초초본』,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而’로 되어 있다.

43) 久 : 『초초본』에 ‘而’,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而[而錄作久]’로 되어 있다.

44) 怨怪 : 『초초본』에 ‘怪怨’,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怪怨[錄作怨怪]’로 되어 있다.

45) 也 : 『초초본』에 ‘矣’, 『중초본』, 『번남본』에 ‘矣[矣錄作也]’, 『상계

敢不復. 粗以獻疑. 其疎妄處. 評誨懇懇.[錄無別以下
十八字⁴⁶⁾】秋涼, 惟珍鍊.⁴⁷⁾ 不宣. 【謹復.[錄無謹復二
字⁴⁸⁾】】

』에 ‘矣[錄矣作也]’로 되어 있다.

46) 錄無……八字 : 『초초본』에 없다.

47) 秋涼惟珍鍊 : 『초초본』에 ‘惟祈秋淸珍鍊’, 『중초본』에 ‘惟祈秋淸珍鍊[惟祈秋淸珍鍊錄作涼秋惟珍鍊]’, 『번남본』에 ‘惟冀秋淸珍鍊[惟冀秋淸珍鍊錄作涼秋惟珍鍊]’, 『상계본』에 ‘惟冀秋涼珍鍊[惟冀秋涼珍鍊錄作涼秋惟珍鍊]’으로 되어 있다.

48) 錄無……二字 : 『초초본』에 없다.

答鄭子中別紙【〔見自省錄〕】 2)

“在心在事”之說，看得透，【甚善鄙意正如來喻〔錄甚下八字無³⁾〕】知此則理之難知處⁴⁾，漸可融會矣。

日在地下，亦當明曜⁵⁾。只看其光之能射出而爲月之明，則可知矣。然冬爲四時之陰，地下爲地上之陰。地上日景，至冬而差微者，日非微也。窮陰使然耳。然則大地積陰之下，雖有光景，與出地爲晝者當⁶⁾有間，故『易』以“明入地中”，爲“明夷”也⁷⁾。

“惻隱之心，人之生道。”程子此一段語，朱門辨說三

1) (1556년, 56세) 7월.

2) 『초초본』에 ‘答鄭子中別紙〔晩年定本見手錄〕’으로 되어 있다. 『초초본』에 상란부전지 ‘■……■{考}次’, 『중초본』에 ‘見自省錄’에 주목말거표시가 있다.

3) 錄甚……字無 : 『초초본』에 없다.

4) 處 : 『초초본』에 ‘者’,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者[者錄作處]’로 되어 있다.

5) 曜 : 『초초본』에 ‘如晝’, 『중초본』, 『번남본』에 ‘如晝[明如晝錄作明曜]’로 되어 있다.

6) 當 : 『초초본』에 ‘亦必’, 『중초본』, 『번남본』에 ‘亦必[亦必錄作當]’으로 되어 있다.

7) 日在……夷也 : 『정초본』에 상단과 연결되어 있다.

條，詳見下文，可考也。蓋此“生”字，只是“生活”之“生”，“生生不窮”之義，即與天地生物之心，貫串只一“生”字，故朱子答或問“天地生物之心”曰“天地之心，只是箇生。凡物皆是‘生’，方有此物。人物所以生生不窮者，以其‘生’也。才不‘生’，便乾枯死了。”以此觀之，桀·跖不能無是以“生”，亦是“生活”之“生”耳。來諭以爲“生出”之義，又以爲“動用”之意，恐非本意也。⁸⁾

- 8) ……意也：『초초본』에 ‘惻隱之心人之生道此生字生活之生即是生生不窮之意上文心生道生生也下文不能無是以生生活也皆一義也惟中間具是形以生此生字乃爲生出之義要之天理生生不已故人物得是理以生出亦生生不窮則生出與生生之義亦相離不得朱子曰心一言以蔽之曰生而已人受天地之氣而生[此生出之義]故此心必仁仁則生矣[此生生之義]亦兼二者一串言之來諭桀蹠之生以動用言之恐非本意也’，『중초본』에 ‘惻隱之心人之生道此生字生活之生即是生生不窮之意上文心生道生生也下文不能無是以生生活也皆一義也惟中間具是形以生此生字乃爲生出之義要之天理生生不已故人物得是理以生出亦生生不窮則生出與生生之義亦相離不得朱子曰心一言以蔽之曰生而已人受天地之氣而生[此生出之義]故此心必仁仁則生矣[此生生之義]亦兼二者一串言之來諭桀跖之生以動用言之恐非本意也[此條錄作惻隱之心人之生道程子此一段語朱門辨說三條詳見下文可考也蓋此生字只是生活之生生不窮之義即與天地生物之心貫串只一生字故朱子答或問天地生物之心曰天地之心只是箇生凡物皆是生方有此物人物所以生生不窮者以其生也才不生便乾枯死了以此觀之桀·跖不能無是以生亦是生活之生耳來諭以爲生出之義又以爲動用之意恐非本意也’，『변남본』에 ‘惻隱之心人之生道此生字生活之生即是生生不窮之意上文心生道生生也下文不能無是以生生活也皆一義也惟中間具是形以生此生字乃爲生出之義要之天理生生不已故人物得是理以生出亦生生不窮則生出與生生之義亦相離不得朱子曰心一言以蔽之曰生而已人受天地之氣而生[此生出之義]故此心必仁仁則生矣[此生生之義]亦兼二者一串言之來諭桀跖之生以動用言之恐非本意也[此條錄作惻隱之

【思慮動作皆天此一句。不記本語首尾云何。後日因書示及。庶得研究發蒙。今不敢妄爲之說也。[此條錄無⁹⁾]]

心體包含，無所不具。仁固心之德，智亦不外於心德。知覺智之事，故謂之心之德，何疑之有？

“稟氣之惡，亦性之理也。”此語似可駭，然程子以來，論此理¹⁰⁾非一。蓋性比於水，清而安流，水之性也。

程子此一段語朱門辨說三條詳見下文可考也蓋此生字只是生活之生生不窮之義即與天地生物之心貫串只一生字故朱子答或問天地生物之心曰天地之心只是箇生凡物皆是生方有此物人物所以生生不窮者以其生也才不生便乾枯死了以此觀之桀跖不能無是以生亦是生活之生耳來喻以爲生出之義又以爲動用之意恐非本意也】，『상계본』에 ‘惻隱之心人之生道此生字生活之生即是生生不窮之意上文心生道生生也下文不能無是以生生活也皆一義也惟中間具是形以生此生此乃爲生出之義要之天理生生不已故人物得是理以生出亦生生不窮則生出與生生之義亦相離不得朱子曰心一言以蔽之曰生而已人受天地之氣而生[此生出之義]故此心必仁仁則生矣[此生之義]亦兼二者一串言之來論桀跖之生以動用言之恐非本意也[此條錄作惻隱之心人之生道程子此一段語朱門辨說三條詳見下文可考也蓋此生字只是生活之生生不窮之義即與天地生物之心貫串只一生字故朱子答或問天地生物之心曰天地之心只是箇生凡物皆是生方有此物人物所以生生不窮者以其生也才不生便乾枯死了以此觀之桀·跖不能無是以生亦是生活之生耳來喻以爲生出之義又以爲動用之意恐非本意也』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此生出之義]에 상란부전지 ‘■…■若自註則■…■何如下同’, ‘[此條……意也]’에 상란부전지 ‘依錄書之後倣此’가 있고, 『상계본』에 상란부전지 ‘此生出此生兩註生自註不當雙行書’가 있다.

9) 此條錄無：『초초본』에 없다.

10) 理：『초초본』에 없고,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錄有理字]’로 되어 있다.

其遇泥滓而汚¹¹⁾濁，【或[錄無或字¹²⁾]】遇險而波濤洶
 洶，非其性也。然不可不謂之水，特所值者異耳。然
 則¹³⁾稟氣之惡，雖非性之本然，豈不可謂性之理耶？
 來喻¹⁴⁾謂¹⁵⁾“陰氣生於理而陰爲惡”，以此爲惡，亦
 性之證。此則¹⁶⁾恐未然。夫謂“惡爲陰”者，以淑慝
 之類分之，以爲當屬乎¹⁷⁾此耳。非謂生於理之陰氣必
 爲惡¹⁸⁾，亦能由是而¹⁹⁾爲人物之惡也。若如此說，是
 惡之生，亦原²⁰⁾於性，與善【爲兩物[錄無爲兩物三

11) : 『초초본』에 ‘汙’로 되어 있다.

12) 錄無或字 : 『초초본』에 없다.

13) 然則 : 『초초본』에 ‘以此言之’,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以此言之[以此言之錄作然則]’으로 되어 있다.

14) 喻 : 『상계본』에 ‘諭’로 되어 있다.

15) 謂 : 『초초본』에 없고, 『중초본』, 『번남본』에 ‘[錄有謂字]’, 『상계
 본』에 ‘[錄作謂字]’로 되어 있다.

16) 而陰……此則 : 『초초본』에 ‘之說’,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
 에 ‘之說[之錄作而無說字有陰爲惡以此爲惡亦性之證此則十三字]’로
 되어 있다.

17) 乎 : 『초초본』에 없고, 『중초본』, 『상계본』에 ‘[錄有乎字]’로 되어
 있다.

18) 生於……爲惡 : 『초초본』에 ‘理生陰氣而爲陰之惡也’, 『중초본』, 『
 번남본』, 『상계본』에 ‘理生陰氣而爲陰之惡也[理生陰氣而爲陰之惡也
 錄作生於理之陰氣必爲惡]’으로 되어 있다.

19) 而 : 『초초본』에 없고,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錄有而
 字]’로 되어 있다.

20) 原 : 『번남본』, 『상계본』에 ‘源’으로 되어 있다.

字²¹⁾】相對出來。其可乎？【[不然何以曰氣之始無不善乎²²⁾】

“氣之始無不善”，乃氣生源頭處，非稟受之初也。然氣有一日之始，有一月之始，有一時之始，有一歲之始，有一元之始。然²³⁾此亦槩舉而言之耳²⁴⁾。推來推去，其變無窮，當隨處活看，不可執定爲某氣之始。苟【欲[錄無欲字²⁵⁾】指認一處爲定²⁶⁾則【爲[錄無爲字²⁷⁾】不通，不足以語造化之妙。

【枯槁之性。所論甚精。[此條錄無²⁸⁾]²⁹⁾】

程子“心本善”之說，朱子以爲微有未穩者，蓋既謂

21) ……三字：『초초본』에 없다.

22) 不然……善乎：『중초본』에 상란부전지 ‘小註不然以下無錄字可疑’，『상계본』에 상란부전지 ‘不然云云亦恐不當雙行’이 있다.

23) 然：『초초본』에 없고，『중초본』，『번남본』，『상계본』에 ‘[錄有然字]’로 되어 있다.

24) 耳：『초초본』에 없고，『중초본』，『번남본』，『상계본』에 ‘[錄有耳字]’로 되어 있다.

25) 錄無欲字：『초초본』에 없다.

26) 爲定：『초초본』에 없고，『중초본』，『번남본』，『상계본』에 ‘[錄有爲定二字]’로 되어 있다.

27) 錄無爲字：『초초본』에 없다.

28) 此條錄無：『초초본』에 없고，상란부전지 ‘■……■錄本論’이 있다.

29) 枯槁……錄無：『중초본』에 산거부전지가 있다.

之“心”，已是兼“理氣”，“氣”便不能無【許多[錄無許多二字³⁰⁾]]夾雜在這裏，則人固有不待發於思慮動作³¹⁾，而不善之根株已在方寸中者，安得謂之善？故謂之³²⁾未穩。然本於初³³⁾而言，則心之未發，氣未用事，本體虛明之時，則³⁴⁾固無不善。故【朱子[錄無朱子二字³⁵⁾]]他日論此，又謂³⁶⁾指心之本體，以發³⁷⁾明程子之意，則非終以爲未穩，可知矣。

非性則亦無自而發，猶之非水則何自而爲波濤【也[錄無也字³⁸⁾]]耶？

30) ……二字：『초초본』에 없다.

31) 動作：『초초본』에 없고,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錄有動作二字]’로 되어 있다.

32) 謂之：『초초본』에 ‘云’,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云[云錄作謂之]’로 되어 있다.

33) 初：『초초본』에 ‘性’,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性[性錄作初]’로 되어 있다.

34) 則：『초초본』에 없고,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錄有則字]’로 되어 있다.

35) 錄無……二字：『초초본』에 없다.

36) 又謂：『초초본』에 ‘以爲’,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以爲[以爲錄作又謂]’로 되어 있다.

37) 發：『초초본』에 없고,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錄有發字]’로 되어 있다.

38) 錄無也字：『초초본』에 없다.

“氣有生死，理無生死”之說，得之，以日光照物比之³⁹⁾，亦善。然日光猶⁴⁰⁾有時而無者，以⁴¹⁾有形故也。至於“理”，則【本[錄無本字⁴²⁾]】無聲臭，無方體，無窮盡，何時而無耶？釋氏不知“性”之爲“理”，而以所謂“精靈”・“神識”者當之，謂【之[錄無之字⁴³⁾]】“死而不亡，去而復來”，則安有是“理”耶？

蛙，陰物，欲雨則類感而先鳴。固然，雉乃陽物，而性警且善鳴。大地掀撼，百物皆驚，顧雉能應時而作鳴耳。非必氣感而然也。【[此條錄無⁴⁴⁾]】

39) : 『초초본』에 ‘設譬’, 『중초본』, 『번남본』에 ‘設譬[設譬錄作譬之]’, 『상계본』에 ‘設譬[說譬錄作譬之]’로 되어 있다.

40) 猶 : 『초초본』에 없고,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錄有猶字]’로 되어 있다.

41) 以 : 『초초본』에 없고,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錄有以字]’로 되어 있다.

42) 錄無本字 : 『초초본』에 없다.

43) 錄無之字 : 『초초본』에 없다.

44) 此條錄無 : 『초초본』에 없다.

答鄭子中【[見自省錄]】 2)

3) 【書來具悉. 所以慰釋病鬱者深矣.】『梅溪集』, 此人雖不知此學, 其遺風餘韻, 足以使人興起, 心常慕之. 得委佗寄示, 荷幸荷幸⁴⁾. 辱示爲學之意, 因見日用檢飭誠切如此, 甚善. 大抵【[錄無書以下六十七字⁵⁾]】⁶⁾足下於學, 既知其方, 又知其病之所在, 苟能持⁷⁾進銳退速之戒, 不已其功, 久久習成, 質變而仁熟, 庶幾得見人生一大歡喜事, 正恐⁸⁾欲速不得也. 觸處皆然, 當處便行. 但見得如此, 未行得

1) (1556년, 56세) 8월 2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八月初二日晚年定本見手錄]’으로 되어 있다. 『초초본』에 상란부전지 ‘■……■考次’, 『중초본』에 ‘見自省錄’에 주목말거표시가 있다.

3)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下□收入■…■依錄書之恐當’이 있다.

4) 荷幸荷幸 : 『초초본』,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幸荷幸荷’로 되어 있다. 『초초본』에 상란부전지 ‘■……■荷’가 있다.

5) 錄無……七字 : 『초초본』에 없다.

6) 書來具……七字 : 『중초본』에 청목상란부전지 ‘不書’가 있다.

7) 持 : 『상계본』에 ‘指’로 되어 있다.

8) 恐 : 『초초본』에 없고,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錄有恐字]’로 되어 있다.

到此，【承諭[錄無承諭⁹⁾二字¹⁰⁾】深愧聖門 “先行後從” 之訓也。來示¹¹⁾【欲以事親爲大本深以身與理不相關爲慮皆得之但[錄無欲以下二十一字¹²⁾】欲須靜處，專一下工，此又似不盡然也¹³⁾。若如應俗紛紛，則果有妨學之時，如家庭日用事，則無非所以立大本專一用功之地，且靜處專一非難，鬧¹⁴⁾處專一爲難。若必要靜工，則所謂雜儀【[子中集先賢格言爲日用雜儀¹⁵⁾】者，亦殆爲緩歇第二件事【耳[錄無耳字¹⁶⁾】，¹⁷⁾可乎？¹⁸⁾“格物”說，未敢輕易，前教『克齋記』，亦未敢下筆。蓋既有晦翁先生記，今何得贅一辭乎？如欲以是定號，佩服晦庵¹⁹⁾之言，足矣。丁景錫以其才望・門地，長

9) : 『상계본』에 ‘諭’로 되어 있다.

10) 錄無……二字 : 『초초본』에 없다.

11) 示 : 『초초본』에 ‘敎’로 되어 있다.

12) 錄無……一字 : 『초초본』에 없다.

13) 似不盡然也 : 『초초본』에 ‘却不然’,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却不然[却不然錄作似不盡然也]’로 되어 있다.

14) 鬧 : 『초초본』에 ‘動’, 『중초본』에 ‘動[動錄作閉]’, 『번남본』, 『상계본』에 ‘動[動錄作鬧]’로 되어 있다.

15) 子中……雜儀 : 『초초본』에 없다. 『중초본』에 산거부전지가 있다.

16) 錄無耳字 : 『초초본』에 없다.

17) ‘可’ 앞에 『초초본』,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其’가 있다.

18) 『중초본』에 청목상관부전지 ‘{格}物以下二百一十■…■存’이 있다.

途逸駕，自是分內事。今得如此，凡在交遊，皆可喜。但學未成而驟得路，自古鮮有不失其故步者，則其可憂有²⁰⁾大於可喜。誠如所喻，滉於此人，愛重期許不淺，而不敢屢通問者，勢有所難而然，自今尤難發也。未知其所處，終又如何？足下契分既密²¹⁾，又非吾比，有欲相規，不妨與書。但傳書須極委曲，令勿犯他眼，書辭亦當有商量，爲佳。適有京居生員金命元來見，欲留讀『易』，苦辭不聽。今且出接，草草報謝。

【〔錄無格以下二百一十字²²⁾〕】

19) : 『초초본』,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菴’으로 되어 있다.

20) 有 : 『상계본』에 ‘者’로 되어 있다.

21) 密 : 『상계본』에 ‘蜜’로 되어 있다.

22) 錄無……十字 : 『초초본』에 없다.

答鄭子中【[見自省錄]】 2)

【頃來欲因憲姪往來時. 附書相問. 恐或已作京行未果也. 侂惠書備審侍歡之餘. 勵志爲學如此. 既有以釋戀紆鬱. 而尤足以警發於昏惰. 幸幸甚甚³⁾. [錄無頃以下五十七字⁴⁾】⁵⁾滉病作止無定⁶⁾, 衰老目昏⁷⁾, 漸不辨細字. 時有一二來問之人, 率皆舉業, 覺無益於彼已, 有漢城人金命元, 來此【數月[錄無數月二字⁸⁾]】讀『易』. 象數之學⁹⁾. 【滉初間苦辭只欲因而一番

1) (1556년, 56세) 10월 6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陽月初六日晚年定本見手錄]’으로 되어 있다. 『초초본』에 상란부전지 ‘■……■{考}次’, 『중초본』에 ‘見自省錄’에 주목말거표시가 있다.

3) 頃來……甚甚 : 『상계본』에 주목산거표시가 있다.

4) 錄無……七字 : 『초초본』에 없다.

5) 頃來……七字 : 『중초본』에 청목상란부전지 ‘不書’가 있다.

6) 定 : 『초초본』에 ‘常’,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常[常錄作定]’으로 되어 있다.

7) 衰老目昏 : 『초초본』에 ‘衰老日甚目視 眊’, 『중초본』에 ‘衰老日甚目視眊眊[衰老日甚目視眊眊錄作衰老日昏]’, 『번남본』, 『상계본』에 ‘衰老日甚目視眊眊[衰老日甚目視眊眊錄作衰老日昏]’으로 되어 있다.

8) 錄無……二字 : 『초초본』에 없다.

9) 象數之學 : 『초초본』에 없고, 『중초본』, 『상계본』에 ‘[錄有象數之學四字]’로 되어 있다.

理會易書亦一事故留之但此書多所遺忘¹⁰⁾每日講究了幾卦便覺倦甚更無精力可及他書象數之學精微之縉[錄無滉以下五十五字¹¹⁾】雖亦爲性理之源，玩養之助¹²⁾。然於身心日用工夫，不甚親切。每日，講究數卦，便覺疲倦，無精力可及他書¹³⁾，殊¹⁴⁾浪過了日子。忽蒙來喻，未敢率易¹⁵⁾而復之。增愧增愧¹⁶⁾。況凡此衆理，來意已自得之耶¹⁷⁾。【如曰天理流行於日用之間一一踐履方始爲人且欲以家庭唯諾之際爲本而行之斯可謂見之明而守之得其要矣[錄無如以下¹⁸⁾四

10) : 『상계본』에 ‘妄’으로 되어 있다.

11) 錄無……五字 : 『초초본』에 없다.

12) 雖亦……之助 : 『초초본』에 ‘雖固性命之原修省之助’, 『중초본』에 ‘雖固性命之原修省之助[雖固性命之原修省之助錄作雖亦爲性理之原玩養之助]’, 『번남본』, 『상계본』에 ‘雖固性命之原修省之助[雖固性命之原修省之助錄作雖亦爲性理之原玩養之助]’로 되어 있다.

13) 每日……他書 :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錄有每日講究數卦便覺疲倦無精力可及他書十七字]’로 되어 있다.

14) 殊 : 『초초본』에 ‘緣此殊覺’,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緣此殊覺[錄無緣此覺三字]’로 되어 있다.

15) 易 : 『갑진중간본』에 두주 ‘易恐爾’가 있다.

16) 未敢……增愧 : 『초초본』에 ‘惟增愧極何敢妄易而復之哉’,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惟增愧極何敢妄易而復之哉[惟增愧極何敢妄易而復之哉錄作未敢率易而復之增愧增愧]’로 되어 있다.

17) 耶 : 『초초본』에 없고,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錄有耶字]’로 되어 있다.

18) 無如以下 : 『상계본』에 ‘如以下無’로 되어 있고, ‘無’을 ‘如’ 앞으로

十六字¹⁹⁾】但所云²⁰⁾流行日用者，千條萬緒，儘無窮，自事親以及萬事萬物，儘多端。以無窮處多端，一一恰好，非窮理居敬之極功，卒難致之。故觀²¹⁾古人爲學，雖乾乾惕厲，靡容一息之間斷，然亦必積累工程，持以悠久，優游²²⁾厭飫，然後所知所行，自然循次而有得焉²³⁾。竊覘²⁴⁾公之於此學，似有急迫求之之病。故未免於計較近功，而恒有戛戛難行之慮。竊²⁵⁾恐似此不已，駸駸然入於私意，反害於義理之實，非細累也。且事親節目，無非天衷所在，至理所寓。量古今之宜，至誠溫謹，以漸而行之，安有上拂²⁶⁾親意²⁷⁾而下爲一家之驚怪乎？其不免有拂²⁸⁾親

교정표시가 있다.

19) 錄無……六字 : 『초초본』에 없다.

20) 云 : 『초초본』에 ‘謂’,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謂[謂錄作云]’으로 되어 있다.

21) 觀 : 『상계본』에 ‘(灌+見)’으로 되어 있다.

22) 游 : 『번남본』, 『상계본』에 ‘遊’로 되어 있다.

23) 有得焉 : 『초초본』에 ‘得之’,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得之[得之錄作有得焉]’으로 되어 있다.

24) : 『상계본』에 ‘(日+間)’으로 되어 있다.

25) 竊 : 『초초본』에 없고,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錄有竊字]’로 되어 있다.

26) 拂 : 『초초본』, 『정초본』에 ‘拂’로 되어 있고, 두주 ‘拂本作拂’이 있다.

意而²⁹⁾爲驚怪者，得非亦由於急追求之，爲之太銳之故耶？亦無乃不量所宜，行之無漸，其迹³⁰⁾太露而然耶？行有不得，反躬自訟，固不可無，然至曰云云則³¹⁾過矣．以此意象，行於家庭之間，宜其有所謂云云之患也．橫渠曰³²⁾ “事親奉祭，豈可使人爲之？”躬親甘旨，乃事親中緊要³³⁾事．其以³⁴⁾謂妨於學業而勸止者，亦異於³⁵⁾餘力學文之旨矣³⁶⁾．但末俗刊

27) : 『중초본』에 ‘意[意錄作親意]’로 되어 있다.

28) : 『초초본』에 ‘拂’로 되어 있다.

29) 親意而 : 『초초본』에 ‘意’,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意[意錄作親意]’로 되어 있다.

30) 迹 :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跡’으로 되어 있다.

31) 云云則 : 『초초본』에 ‘附膺叩頭無地容措則’,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拊膺叩頭無地容措則[拊膺叩頭無地容措則錄作云云則]’으로 되어 있다.

32) 曰 : 『초초본』에 ‘云’,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云[云錄作曰]’로 되어 있다.

33) 要 : 『초초본』에 ‘切’,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切[切錄作要]’로 되어 있다.

34) 以 : 『초초본』에 없고,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錄有以字]’로 되어 있다.

35) 勸止者亦異於 : 『초초본』에 ‘勸止者無乃與’,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勸止者無乃與[勸止者無乃與錄作勸止亦異於]’로 되어 있다.

36) 餘力……旨矣 : 『초초본』에 ‘餘力學文之旨異乎’,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餘力學文之旨異乎[異乎錄作矣]’로 되어 있다.

敝，人家子弟鮮有行之者，一朝卒然每親調膳，或未爲親意所安．則亦當隨宜³⁷⁾斟量，以漸成慣．要在³⁸⁾自盡其³⁹⁾心而無忤親意，可也．若率意驟⁴⁰⁾作，反致違拂，則所爲雖善，【亦[錄無亦字⁴¹⁾】】恐非養志⁴²⁾之道也．滉【孤露餘生[錄無孤露餘生四字⁴³⁾】】風樹悲懷，終天罔訴，其於⁴⁴⁾辱問，雖不敢自外而妄對，深有所戚戚然也⁴⁵⁾．至於操存・節度・正助・病痛，所喻皆

37) : 『번남본』, 『상계본』에 ‘意’로 되어 있다.

38) 斟量……要在 : 『초초본』에 ‘善處要令’,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善處要令[善處要令錄作斟量以漸成慣要在]’로 되어 있다.

39) 其 : 『초초본』에 ‘吾’,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吾[吾錄作其]’로 되어 있다.

40) 驟 : 『초초본』에 ‘强’,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强[强錄作驟]’로 되어 있다.

41) 錄無亦字 : 『초초본』에 없다.

42) 養志 : 『초초본』에 ‘悅親’,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悅親[悅親錄作養志]’로 되어 있다.

43) 錄無……四字 : 『초초본』에 없다.

44) 風樹……其於 : 『초초본』에 ‘風樹懷悲追思未盡分者十而八九終天之痛罔極無訴’, 『중초본』, 『번남본』에 ‘追思未盡分者十而八九終天之痛罔極無訴[風樹悲懷追思未盡分者十而八九終天之痛罔極無訴錄作風樹悲懷終天罔訴]訴[訴下錄有其於二字]’, 『상계본』에 ‘追思未盡分者十而八九終天之痛罔極無訴[風樹悲懷追思未盡分者十而八九終天之痛罔極無訴錄作風樹悲懷終天罔訴罔訴下有其於二字]’로 되어 있다.

45) 辱問……然也 : 『초초본』에 ‘辱問妄對雖不敢自外而深自戚戚然也’, 『중초본』, 『번남본』에 ‘辱問忘對[錄無忘對二字]雖不敢自外而[錄有妄對二字]深自[深自錄作深有所]戚戚然也’, 『상계본』에 ‘辱問妄對[錄無

當. 滉亦嘗粗⁴⁶⁾窺【得[錄無得字⁴⁷⁾】此意, ⁴⁸⁾行之不力, 未有一得⁴⁹⁾, 不能加一辭於其間. 在公力行而究竟之耳⁵⁰⁾. 【愚陋之至望也又因四端而推事物之理其說亦善唯⁵¹⁾所謂既無此物方無此理此一語揆以中庸章句所得之理既盡之語則可矣然嘗聞之物有聚散而理則常存尋常有疑於章句此說故來喻⁵²⁾之云亦不能無疑更須將此意講究而有得則幸望具以示及洗此昏滯也[錄無愚以下百五字⁵³⁾】丘瓊山所見, 誠不可曉⁵⁴⁾. 大抵三代以下, 士大夫進退之義,

]雖不敢自外而[錄有妄對二字]深自[深自錄作深有所]戚戚然也'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辱問忘對'에 상란부전지 '■…■未詳疑下妄字'가 있다.

46) 粗 : 『초초본』에 없고,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錄有粗字]'로 되어 있다.

47) 錄無得字 : 『초초본』에 없다.

48) '行' 앞에 『초초본』에 '但',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但[錄無但字]'가 있다.

49) 未有一得 : 『초초본』에 '至今無一端的有得處',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至今無一端的有得處[至今無一端的有得處錄作未有一得]'으로 되어 있다.

50) 耳 : 『초초본』에 없고,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錄有耳字]'로 되어 있다.

51) 唯 : 『상계본』에 '惟'로 되어 있다.

52) 喻 : 『상계본』에 '諭'로 되어 있다.

53) 錄無……五字 : 『초초본』에 없다.

莫善於宋朝諸君子. 瓊山獨非議之如此, 其亦陋矣. 而欲論此事, 爲說甚長, 今不暇⁵⁵⁾悉也. 丁景錫處與書, 未知何所言⁵⁶⁾, 後日可得寄來相示否? 彼或有復書, 亦望見示爲幸. 滉於此人, 甚愛之重之, 意謂不乖於終始. 但來鄉後只得一書, 其後寂然. 【無音[錄無無音二字⁵⁷⁾】此必有所以然, 非其人有所差池也. 今公至都下, 必一相見, 爲我亦略⁵⁸⁾致意. 然公方布衣, 滉在閒廢, 其於新得路之友, 若徒以愛重其人之故, 過爲汲汲憧憧⁵⁹⁾, 則不無自失之悔⁶⁰⁾, 此則所⁶¹⁾不可不知【者[錄無者字⁶²⁾】也. 滉前所云

54) ……可曉 : 『초초본』에 ‘所見之差正如所喻’,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所見之差正如所喻[所見之差正如所喻錄作所見誠不可曉]’로 되어 있다.

55) 暇 : 『상계본』에 ‘可’로 되어 있다.

56) 何所言 : 『초초본』에 ‘所言何事’,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所言何事[所言何事錄作何所言]’으로 되어 있다.

57) 錄無……二字 : 『초초본』에 없다.

58) 略 : 『초초본』에 ‘煩’,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煩[煩錄作略]’으로 되어 있다.

59) 汲汲憧憧 : 『초초본』에 ‘憧憧汲汲’,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憧憧汲汲[錄作汲汲憧憧]’으로 되어 있다.

60) 悔 : 『초초본』에 ‘慮’,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慮[慮錄作悔]’로 되어 있다.

61) 所 : 『초초본』에 없고,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錄有所字]’로 되어 있다.

云，亦慮此故耳．非設畦畛於道義之朋也.⁶²⁾【公以爲如何．雜儀如戒送納．俟改正後．當更求看．窩兒處索書欲傳．深荷不遺．但其奴明日上京．故書不奉煩．此意照亮．寒天遠道．冀珍重萬善．不具．謹拜復．[錄無公以下六十字⁶⁴⁾】】

62) : 『초초본』에 없다.

63) 『중초본』에 청목상란부전지 ‘■…■六十字當去’가 있다.

64) 錄無……十字 : 『초초본』에 없다. 『상계본』에 ‘公以……十字’에 주 목산거표시가 있다.

答鄭子中【[見自省錄]】 2)

【如京水凍. 半途而旋. 亦曾傳聞顧恨無便奉問. 專使辱書. 具審侍奉茂福. 深以慰浣. [錄無如以下三十二字³⁾】 滉孤陋日甚, 雖不忘⁴⁾舊業, 正苦疲劣, 不能自力於做工, 日夕懍然而已. 權好文與審姪見在清涼, 而⁵⁾孤山菴則⁶⁾安東權春蘭與滉從孫宗道來寓. 但此菴距此殊不近, 溪路冰雪阻塞, 頗以往來爲艱. 公來此本無益, 若寓此菴, 又有此⁷⁾礙, 尤未穩耳. 學非一蹴可到, 誠然, 而又云⁸⁾, “向時期功於一二

1) (1556년, 56세) 12월 7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臘月初七日]’로 되어 있다. 『초초본』에 상란부전지 ‘■……■{考}次’, 『중초본』에 ‘見自省錄’에 주목산거표시, 『정초본』에 행간부전지 ‘丙辰冬’이 있다.

3) 錄無……二字 : 『초초본』에 없다.

4) 忘 : 『상계본』에 ‘妄’으로 되어 있다.

5) 而 : 『초초본』에 없고, 『중초본』, 『변남본』, 『상계본』에 ‘[錄有而字]’로 되어 있다.

6) 則 : 『초초본』에 ‘有’, 『중초본』, 『변남본』, 『상계본』에 ‘有[有錄作則]’으로 되어 있다.

7) 此 : 『변남본』, 『상계본』에 ‘自’로 되어 있고, 『상계본』에 상란부전지 ‘自印作此’가 있다.

8) 又云 : 『초초본』에 ‘公言’, 『중초본』, 『변남본』, 『상계본』에 ‘公言

年.” 若用意如此⁹⁾, 眞是【大[錄無大字¹⁰⁾】疎脫.
 【可笑也[錄無可笑也三字¹¹⁾】此事乃¹²⁾終身事業, 雖到
 顏・曾地位, 猶不可言已了¹³⁾, 況其下者乎¹⁴⁾.¹⁵⁾
 【所云. [錄無所云二字¹⁶⁾】心氣之患, 滉乃曾傷於虎
 【者[錄無者字¹⁷⁾】 , 前已屢進藥說. 其不服驗, 而復有
 “如何” 之問, 何耶? 病之所起, 公自知之. 【然[錄無然
 字¹⁸⁾】今若就心上求去此病, 愈去而愈撓, 【蓋[錄無蓋
 字¹⁹⁾】不勝其勞撓, 而成大病矣. 且公於此學, 已

[]’으로 되어 있다.

9) 若用意如此 : 『초초본』에 없고,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錄有若用意如此五字]’로 되어 있다.

10) 錄無大字 : 『초초본』에 없다.

11) 錄無……三字 : 『초초본』에 없다.

12) 乃 : 『초초본』에 ‘直是’,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直是[直
 是錄作乃]’로 되어 있다.

13) 言已了 : 『초초본』에 ‘謂已到’,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謂已到[謂已到錄作言已了]’로 되어 있다.

14) 其下者乎 : 『초초본』에 ‘下於此者乎’,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
 』에 ‘下於此者乎[下於此者乎錄作其下者乎]’로 되어 있다.

15) 學非……者乎 :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별행으로 되어 있
 다. 『상계본』에 상란부전지 ‘學非一蹴云云所云心氣云云恐當依印本連
 書’가 있다.

16) 錄無……二字 : 『초초본』에 없다.

17) 錄無者字 : 『초초본』에 없다.

18) 錄無然字 : 『초초본』에 없다.

略²⁰⁾見得路脈入頭處，不須更加許多強探索，許多閒安排。所謂操存・省察工夫，權且勿上念，只看日用平常【義理[錄無義理二字²¹⁾】明白處，寬著意思，游泳其間，虛閒恬愉以自養，如朱子“調息箴之爲者，及夫歲月積久之餘，非徒心恙自然有效，收斂・操存²²⁾之實，亦不能無²³⁾得力於此矣。所云²⁴⁾“操存・省察”“勿上念”之說，非謂學者常法爲然，只是²⁵⁾心恙，必【須[錄無須字²⁶⁾】如此然後可安也。況此道理，無間內外。凡致謹於外，乃所以涵養其中

19) : 『초초본』에 없다.

20) 略 : 『초초본』에 없고,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錄有略字]’로 되어 있다.

21) 錄無……二字 : 『초초본』에 없다.

22) 自然……操存 : 『초초본』에 ‘自去操存省察’,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自去操存省察[自去操存省察錄作自然有效收斂操存]’으로 되어 있다.

23) 不能無 : 『초초본』에 ‘必’,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必[錄無必字作不能無]’로 되어 있다.

24) 所云 : 『초초본』에 ‘所謂’,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夫謂[夫謂錄作所云]’으로 되어 있다.

25) 非謂……只是 : 『초초본』에 ‘固非可爲學者之常法然’, 『중초본』에 ‘固非可爲學者之常法然[固非可爲學者之常法然錄作非謂學者常法爲然只是]’, 『번남본』, 『상계본』에 ‘固非可爲學者之常法然[固非可爲學者之常法然錄作非爲學者常法爲然只是]’로 되어 있다.

26) 錄無須字 : 『초초본』에 없다.

也²⁷⁾. 故孔門未嘗言²⁸⁾心學, 而心學在其中²⁹⁾. 滉當時無引喻之人³⁰⁾, 不知此理³¹⁾, 徒畏心恙³²⁾, 而遂全然放下了, 坐失數十年光陰, 是所恫³³⁾恨. 公當視以³⁴⁾爲戒也³⁵⁾. ³⁶⁾矯揉氣質, 在我不在人, 固不易之【至[錄無至字³⁷⁾]】論, 然嚴師畏友, 日與之處, 其薰陶・切磋之益, 亦豈少哉? 景昭, 善人之未學者, 誠可惜也. 吾鄉, 卻多文學之士, 但皆梏³⁸⁾於舉

27) : 『초초본』에 없고, 『중초본』, 『변남본』, 『상계본』에 ‘[錄有也字]’로 되어 있다.

28) 言 : 『초초본』에 ‘拈起’, 『중초본』, 『변남본』, 『상계본』에 ‘拈起[拈起錄作言]’으로 되어 있다.

29) 在其中 : 『초초본』에 ‘不外於日可見之處’, 『중초본』, 『변남본』, 『상계본』에 ‘不外於日可見之處[不外於日可見之處錄作在其中]’으로 되어 있다.

30) 無引喻之人 : 『초초본』에 없고, 『중초본』, 『변남본』, 『상계본』에 ‘[錄有無引喻之人五字]’로 되어 있다.

31) 此理 : 『초초본』에 ‘出此’, 『중초본』, 『변남본』, 『상계본』에 ‘出此[出此錄作此理]’로 되어 있다.

32) 恙 : 『초초본』에 ‘病’, 『중초본』, 『변남본』, 『상계본』에 ‘病[病錄作恙]’으로 되어 있다.

33) 恫 : 『초초본』, 『중초본』, 『변남본』, 『상계본』에 ‘痛’으로 되어 있다.

34) 以 : 『상계본』에 ‘而’로 되어 있다.

35) 所云錄無……戒也 : 『중초본』, 『변남본』, 『상계본』에 별행으로 되어 있다.

36) 『상계본』에 상란부전지 ‘此以下皆恐當連書’가 있다.

37) 錄無至字 : 『초초본』에 없다.

業，其讀書率皆匆匆趁逐，未有回頭住脚料理此事之意。雖趙士敬輩，不無有意，亦不³⁹⁾免移奪於此。相見無甚講論，無大段相資之益⁴⁰⁾。唯⁴¹⁾李大用深用力於『朱書』，今已寫畢，逐一勘過，思索儘得⁴²⁾到底。

【其人天資超等其爲此但默默加工無膚淺駁雜之病將來不可量也[錄無其以下二十七字⁴³⁾]】又有金惇敘爲學亦甚力。每事必欲求其是處，亦有意於『朱書』。但其⁴⁴⁾人厄會非常，長⁴⁵⁾在憂患中，不得專意此事，爲可歎⁴⁶⁾耳⁴⁷⁾。窮而買田，本非甚⁴⁸⁾害理。計直高下

38) : 『번남본』, 『상계본』에 ‘括’로 되어 있다. 『상계본』에 상란부 전지 ‘括印楷’이 있다.

39) 不 : 『초초본』에 ‘未’로 되어 있다.

40) 講論……之益 : 『초초본』에 ‘講究又何有相資之可冀乎’,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講究又何有[講究又何有錄作講論無大段]相資之[錄有益字]可冀乎[錄無可冀乎三字]’로 되어 있다.

41) 唯 : 『초초본』,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惟’로 되어 있다.

42) 得 : 『초초본』에 없고,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錄有得字]’로 되어 있다.

43) 錄無……七字 : 『초초본』에 없다.

44) 其 : 『상계본』에 ‘與’로 되어 있다.

45) 長 : 『초초본』에 ‘常’,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常[常錄作長]’으로 되어 있다.

46) 歎 : 『초초본』, 『중초본』에 ‘嘆’으로 되어 있다.

47) 矯揉……歎耳 : 『번남본』, 『상계본』에 별행으로 되어 있다.

48) 甚 : 『초초본』에 없고,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錄有甚

之際，約濫從平，亦理所不免。但一有利己剋人之心，便是舜・跖所由分處。於此亟須緊著⁴⁹⁾精采，以“義・利”二字剖判，【判⁵⁰⁾置[錄無判置二字^{51)]】才免爲小人。卽是爲君子，【正[錄無正字^{52)]】不必以不買爲高也。【雖[錄無雖字^{53)]】然此等事，留心之久，易陷人於⁵⁴⁾污賤之域，切宜常自⁵⁵⁾激昂，庶不墮落也⁵⁶⁾。【祠堂晨謁一條。來示甚當。但嫌其僭之云。未詳何謂也。[此條錄無^{57)]⁵⁸⁾。六經畫出道理底物事。}}}}

]’로 되어 있다.

49) 著：『초초본』,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着’으로 되어 있다.

50) 判判：『초초본』에 추가 ‘非疊’을 한 주목행간부전지 ‘一判字恐疊’이 있다.

51) 錄無……二字：『초초본』에 없다.

52) 錄無正字：『초초본』에 없다.

53) 錄無雖字：『초초본』에 없다.

54) 留心……人於：『초초본』에 ‘久久留意必陷人於’,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久久留意必陷人於[久久留意必陷人於錄作留心之久易陷於]’로 되어 있다.

55) 自：『정초본』에 없고,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自[錄無自字]’로 되어 있다. 『정초본』에 교정기 ‘自’가 있다.

56) 窮而……落也：『번남본』, 『상계본』에 별행으로 되어 있다.

57) 此條錄無：『초초본』에 없다.

58) 祠堂……錄無：『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별행으로 되어 있다.

言至於此. 意已悉矣. 以下推說. 太蔓衍. 眞所謂剩語. 恐當裁之. [此條錄無⁵⁹⁾]⁶⁰⁾】⁶¹⁾ 體用之說, 甚善⁶²⁾. 惻隱, 情也. 其未發則性也. 若所謂性之流行卽情, 是耳. 豈情外別有性之流行耶? 【然則當惻隱之語. 實無下落矣. [錄無然以下十二字⁶³⁾]⁶⁴⁾】⁶⁵⁾ ‘放失亡’三字, 固指已發後言, 然【人心[錄無人心二字⁶⁶⁾]】梏之反覆, 夜氣不足以存, 則清明純一之體, 十分昏鑿⁶⁷⁾, 謂之不亡, 可乎? 延平有⁶⁸⁾ “無主”之說, 朱子亦譏『樂記』之語, 謂⁶⁹⁾ “天理不待好惡無節

59) : 『초초본』에 없다.

60) 六經……錄無 :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별행으로 되어 있다.

61) 祠堂……錄無 : 『중초본』에 청목상란부전지 ‘不書’가 있다.

62) 甚善 : 『초초본』에 ‘極是’,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極是 [極是錄作甚善]’으로 되어 있다.

63) 錄無……二字 : 『초초본』에 없다.

64) 體用……二字 :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별행으로 되어 있다.

65) 然則……二字 : 『중초본』에 산거부전지가 있다.

66) 錄無……二字 : 『초초본』에 없다.

67) 昏鑿 : 『초초본』에 ‘蝕’,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斲蝕 [斲蝕錄作昏鑿]’으로 되어 있다.

68) 有 : 『초초본』에 없고, 『중초본』, 『번남본』에 ‘[錄有有字]’, 『상계본』에 ‘[錄無有字]’로 되어 있다.

69) 亦譏……語謂 : 『초초본』에 없고,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而後滅【之論[錄無之論二字⁷⁰⁾】”，皆此意也。惟其日夜之所息不窮，故雖亡而有未嘗息⁷¹⁾者存，能隨感而隨發，如未嘗亡耳。⁷²⁾ 心纔覺其放，便在於此。此亦先儒已論之，來說皆然。但【又[錄無又字⁷³⁾】以“既屈方伸，往過來續”爲比，則【似亦[錄無⁷⁴⁾似亦⁷⁵⁾二字⁷⁶⁾】爲衍說耳⁷⁷⁾。游定夫倍師從夷之惑⁷⁸⁾，至此爲極。如遇孟子，恐異於曾子之歎，不獨發於陳相也⁷⁹⁾。可怪可歎⁸⁰⁾。⁸¹⁾ 朱子初得陳安卿，甚喜之。

‘[]’로 되어 있다.

70) 錄無……二字 : 『초초본』에 없다.

71) 息 : 『초초본』에 ‘亡’, 『중초본』, 『변남본』, 『상계본』에 ‘亡[亡錄作 息]’으로 되어 있다.

72) 放失……亡耳 : 『중초본』, 『변남본』, 『상계본』에 별행으로 되어 있다.

73) 錄無又字 : 『초초본』에 없다.

74) 無 : 『상계본』에 없고, 교정기 ‘無’가 있다.

75) ‘亦’ 뒤에 『상계본』에 주목말거표시를 한 ‘亦’이 있다.

76) 錄無……二字 : 『초초본』에 없다.

77) 心纔……說耳 : 『중초본』, 『변남본』, 『상계본』에 별행으로 되어 있다.

78) 惑 : 『상계본』에 ‘感’으로 되어 있다.

79) 恐異……相也 : 『초초본』에 ‘其責當不在陳相之下矣’,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其責當不在陳相之下矣[其責當不在陳相之下矣 錄作恐異於曾子之嘆不獨發於陳相也]’로 되어 있다.

80) 歎 : 『초초본』,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嘆’으로 되어 있

屢稱於朋友間. 蓋其學⁸²⁾長於辨說, 門人鮮【有能
[錄無有能二字<sup>83)]】及之者⁸⁴⁾. 惜其⁸⁵⁾局⁸⁶⁾於所長, 不
屑踐履工夫, 正所謂 “智⁸⁷⁾者過之” 也. 嘗於講席,
先生覺其有誤【入[錄無入字<sup>88)]】處, 欲極論以曉之,
他便隱其說. 以是觀之, 其心術隱微之間⁸⁹⁾, 病亦不
少, 不但其言之少餘味也. 然【而[錄無而字<sup>90)]】先生
所謂 “所行與所知相反” 者⁹¹⁾, 未必專⁹²⁾爲安卿發</sup></sup></sup>

81) 游定……可歎 :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별행으로 되어 있다.

82) 學 : 『초초본』에 ‘人’,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人[人錄作學]’으로 되어 있다.

83) 錄無……二字 : 『초초본』에 없다.

84) ‘者’ 뒤에 『초초본』에 ‘而’,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而[錄無而字]’가 있다.

85) 其 : 『초초본』에 ‘乎’,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乎[乎錄作其]’로 되어 있다.

86) 局 : 『초초본』에 ‘終局’,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終局[錄無終字]’로 되어 있다.

87) 智 : 『초초본』,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知’로 되어 있다.

88) 錄無入字 : 『초초본』에 없다.

89) 之間 : 『초초본』에 ‘處’, 『중초본』에 ‘處[處錄作之間]’, 『번남본』, 『상계본』에 ‘處[錄作之間]’으로 되어 있다.

90) 錄無而字 : 『초초본』에 없다.

91) 者 : 『초초본』에 없고,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錄有者字]’로 되어 있다.

也. 似⁹³⁾泛指門人而戒⁹⁴⁾勵之耳⁹⁵⁾. 滉嘗竊怪⁹⁶⁾朱子發程門所未發, 而門人得力, 不及於程門人. 亦如孟子發前聖所未發, 而萬章·公孫丑之徒, 不及於游·夏. 未⁹⁷⁾知此⁹⁸⁾何故也. 雖然, 此【特[錄無特字⁹⁹⁾】自傳道【統[錄無統字¹⁰⁰⁾】一大事言【之[錄無之字¹⁰¹⁾】耳. 其相與發明斯道之功之盛, 亦豈獨朱子一身之力哉? 一時及門之士, 隨材¹⁰²⁾成就, 傑然樹

92) : 『초초본』에 없고,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錄有專字]’로 되어 있다.

93) 發也似 : 『초초본』에 ‘而發實’,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而發實[而發實錄作發也似]’로 되어 있다.

94) 戒 : 『초초본』에 ‘策’,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策[策錄作戒]’로 되어 있다.

95) 耳 : 『초초본』에 ‘也故’,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也故[也錄作耳又無故字]’로 되어 있다.

96) 竊怪 : 『초초본』에 ‘謂’,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謂[謂錄作竊怪]’로 되어 있다.

97) 未 : 『초초본』에 ‘不’,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不[錄不作未]’로 되어 있다.

98) 此 : 『초초본』에 없고,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錄有此字]’로 되어 있다.

99) 錄無特字 : 『초초본』에 없다.

100) 錄無統字 : 『초초본』에 없다.

101) 錄無之字 : 『초초본』에 없다.

102) 材 : 『초초본』에 ‘時’,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時[時錄作材]’로 되어 있다.

立者，不可勝數．傳相授受，以¹⁰³⁾至於元・明之世，而扶植斯文者，不絕¹⁰⁴⁾如彼．此又¹⁰⁵⁾不可不知者也¹⁰⁶⁾．胡致堂事¹⁰⁷⁾，【乃胡文定妾產也初生將不舉文定夫人取之水中而自抱育稍長無賴不可訓文定怒閉置樓上數月樓有積材盡刻作物象極其巧文定奇之試多置書冊於樓上未幾盡讀其書自是始改過卒爲大儒所云本生卽指所生母也此事散見於諸書可考也則通考書兄弟字誤無疑也此其[錄無乃以下百一十二字¹⁰⁸⁾]¹⁰⁹⁾】人倫大變，其所處亦甚未安．然以文定爲父，而一時師友，皆大賢之人，致堂爲人，又極剛正，直道而行，豈無禮義而妄¹¹⁰⁾爲之乎¹¹¹⁾? 恐既養於

103) : 『초초본』에 없고, 『중초본』, 『변남본』, 『상계본』에 ‘[錄有以字]’로 되어 있다.

104) 扶植……不絕 : 『초초본』에 ‘蔚然相望者又’, 『중초본』, 『변남본』, 『상계본』에 ‘蔚然相望者又[蔚然相望者又錄作扶植斯文者不絕]’로 되어 있다.

105) 又 : 『초초본』에 ‘尤’, 『중초본』, 『변남본』, 『상계본』에 ‘尤[尤錄作又]’로 되어 있다.

106) 朱子……者也 : 『중초본』, 『변남본』, 『상계본』에 별행으로 되어 있다.

107) 事 : 『초초본』에 없고, 『중초본』, 『변남본』, 『상계본』에 ‘[錄有事字]’로 되어 있다.

108) 錄無……二字 : 『초초본』에 없다.

109) 乃胡……二字 : 『중초본』에 청목상란부전지 ‘乃以下百一十二字當去’가 있다.

嫡母，則¹¹²⁾所生母爲其所厭¹¹³⁾，【正[錄無正字¹¹⁴⁾】
 如人君入繼大統，則不得顧私親之義，故不得不然
 耳¹¹⁵⁾。【向者承寄書修報言。急迫求近功之非。疑此
 爲十月初間書也。此後則更未見書矣。〔此條錄無
¹¹⁶⁾〕¹¹⁷⁾】 丁景錫無答書耶¹¹⁸⁾? 頃¹¹⁹⁾因竇兒，寄
 一書來云¹²⁰⁾，年來大病廢業¹²¹⁾，不意入仕，尤有

110) : 『상계본』에 ‘忘’으로 되어 있다.

111) 爲之乎 : 『초초본』에 ‘處之耶’,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處之耶[處之耶錄作爲之乎]’로 되어 있다.

112) 既養……母則 : 『초초본』에 ‘既爲嫡母所養則’,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既爲嫡母所養則[既爲嫡母所養則錄作既養於嫡母則]’으
 로 되어 있다.

113) 厭 : 『중초본』, 『상계본』에 ‘壓’으로 되어 있다.

114) 錄無正字 : 『초초본』에 없다.

115) 胡致……然耳 :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별행으로 되어
 있다.

116) 此條錄無 : 『초초본』에 없다.

117) 向者……錄無 :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별행으로 되어
 있다.

118) 無答書耶 : 『초초본』에 없고,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錄有無答書耶四字]’로 되어 있다.

119) 頃 : 『초초본』에 ‘近’,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近[近錄
 作頃]’으로 되어 있다.

120) 寄一來書云 : 『초초본』에 ‘附書來自言’, 『중초본』, 『번남본』, 『상
 계본』에 ‘附書來自言[附書來自言錄作寄一書來云]’으로 되어 있다.

121) 業 : 『초초본』에 ‘書’,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書[書錄
 作業]’으로 되어 있다.

礙. 今病稍蘇, 稍繙習古書. 其書欲奉寄, 偶尋不得, 未果耳¹²²⁾. 【古書云其言止此. 觀此此人似亦難保. 其立定脚跟也. 如何如何. 前云盛書. 其無答耶. 曆書一部送呈. 惟照納. 餘懷不宣. 謹復. [錄無古以下四十八字¹²³⁾]¹²⁴⁾】

122) ……果耳 : 『초초본』에 없고,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錄有習古書其書欲奉寄偶尋不得未果耳十五字]’로 되어 있다.

123) 錄無……八字 : 『초초본』에 없다.

124) 丁景……八字 :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별행으로 되어 있다.

【與鄭子中】 2)

【氣味何如，僕塊嘿如前，就中閑閱舊篋，見向日報書草內，惻隱之心人之生道一條，語意未瑩，方欲改之，而歲時多酬應未果也，因思去年至月臨入清涼時所報書及心爲太極書，亦恐有誤處，但此無本可考，右二書若在書室，寄示何如，鵲姪處往來人不絕，可附來也，惟侍迓多慶，謹白.】

1) (1556년, 56세) 12월 26일.

2) 『초초본』에 ‘與鄭子中[臘二十六]’으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행간 부전지 ‘去誠一’이 있다.

【與鄭子中[丁巳]】 2)

【近阻相問，未審侍履安否何似，無任懸懸，僕依舊保拙，病懷耿耿，就中清州牧李剛而，索見『程氏遺書』第二十一卷初張甚勤，右卷附³⁾騫姪送來爲望，近有下南之人，欲附⁴⁾其人而傳之故耳，似聞君欲來寓樹谷齋舍⁵⁾云，此舍時末⁶⁾畢粧⁷⁾，四無遮蔽，山君屢近，勢難寓止，雖爲好事，恐不可也，惟照諒，適因行祭稠中，草草謹拜.】

1) (1557년, 57세) 10월 15일.

2) 『초초본』에 ‘與鄭子中[丁巳陽望日]’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행간 부전지 ‘去誠一’이 있다.

3) 附 : 『초초본』에 ‘付’로 되어 있다.

4) 附 : 『초초본』에 ‘付’로 되어 있다.

5) 齋舍 : 『상계본』에 ‘舍齋’로 되어 있다.

6) 末 : 『상계본』에 ‘末’로 되어 있다.

7) 粧 : 『초초본』에 ‘粧’으로 되어 있다.

【與鄭子中】 2)

景瑞，聞其近日，窮空特甚，殆無以自存云，令人憫³⁾念，而自困涖涖，愧無以相及耳。滉在都日，求得經書・釋義各數件，互相參酌而傳寫，其有可疑處，頗以臆見附說，以備遺忘。歸來，欲更加芟正，以示兒姪，而病未暇顧。欲資朋⁴⁾友看過，得以指抉其差謬而改之。故於趙士敬等數人，許其借看⁵⁾。看後竝無一句評論，徒然見還，此豈朋友磋⁶⁾磨之義耶？近景瑞爲來要看，滉懲於士敬輩。初不欲示，被渠煎迫，不得已授去，且懇其須惠評駁之益。近得渠書，但云，“多有曉不得處”，欲來面質云，“此則當有相發之望。”但面論雖好，或值他撓，恒未盡意。不如抄

1) (1557년, 57세) 11월.

2) 『초초본』에 ‘與鄭子中[冬]’으로 되어 있고, 『계묘교정본』에 이 편이 별도의 제목 없이 아래 정사년 서간 ‘謂公南行且返……’의 뒤에 연결되어 있다. 『상계본』에 상란부전지 ‘印本此書在下宋名臣事蹟條下恐當從’이 있다.

3) 憫 : 『상계본』에 ‘ ’으로 되어 있다.

4) 朋 : 『상계본』에 ‘明’으로 되어 있다.

5) 借看 : 『상계본』에 ‘看借’로 되어 있고, 앞뒤바꿈표시가 있다.

6) 磋 : 『상계본』에 ‘嗟’로 되어 있다.

出所論之條寄示，則可以專意細加考論，以承誨益也。如見景瑞，爲致此意爲佳。大抵此等事，甚不可易爲，易爲則不足以期久遠，亦不可耽著⁷⁾，耽著⁸⁾則有妨於下工夫。嘗見朱先生「與南軒書」，深歎⁹⁾伯恭駁雜之病。以爲如『闕範』之作，指意極佳，然讀書只如此，亦有何意味耶？范¹⁰⁾淳¹¹⁾夫¹²⁾一生作此等工夫，想見將聖賢之言，都只忙¹³⁾中草草看過，抄節一番，便是¹⁴⁾事了，元不曾子細玩味。所以從二先生許久，見處全不精明，是豈不可戒也耶？又「與劉靜春書」，戒其玩物喪志之非曰“班·范¹⁵⁾外事¹⁶⁾，不知編得，於己分，有何所益¹⁷⁾，於世教，有何所補。而

7) : 『초초본』, 『중초본』, 『정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着’으로 되어 있다.

8) 著 : 『초초본』, 『중초본』, 『정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着’으로 되어 있다.

9) 歎 : 『상계본』에 ‘嘆’으로 되어 있다.

10) 范 : 『상계본』에 ‘範’으로 되어 있다.

11) 淳 : 『초초본』에 ‘醇’으로 되어 있다.

12) 淳夫 : 『상계본』에 ‘夫淳’으로 되어 있고, 앞뒤바꿈표시가 있다.

13) 忙 : 『상계본』에 ‘(+ 忙)’으로 되어 있다.

14) 是 : 『갑진중간본』에 두주 ‘是恐謂’가 있다.

15) 范 : 『상계본』에 ‘範’으로 되어 있다.

16) 事 : 『갑진중간본』에 두주 ‘事恐史’가 있다.

埋沒身心於此，不得超脫，亦無惑乎？子靜之徒，高視大言，而竊笑吾徒之枉用心也。”夫東萊·靜春與范¹⁸⁾淳¹⁹⁾夫諸公道德·事業爲如何？而先生之所爲嘆惜若此，況在吾徒，而可易言耶？可不知懼而更自策勵耶？朴龍巖，固今世難得之士，其所纂集，亦甚可貴。然觀其書，頗未免有疎漏。想其爲此書，正如先生所以譏范淳²⁰⁾夫²¹⁾者，是亦吾輩所當視以爲戒者也。欲還其書而少²²⁾獻愚衷，適爲黃仲舉借去其書，姑未果耳。然滉所以爲此言者，非直以公所纂輯爲非也。竊以吾徒所就，揆古人事業，不啻黃鵠與壤蟲²³⁾之間，而顧汲汲以此等事，爲最上第一件²⁴⁾，埋頭沒脚於其中，不暇顧親切工夫，其與聖賢爲己之學，寢²⁵⁾遠寢²⁶⁾忘，而反自以爲吾事已了，則大不

17) : 『상계본』에 ‘益所’로 되어 있고, 앞뒤바꿈표시가 있다.

18) 范 : 『상계본』에 ‘範’으로 되어 있다.

19) 淳 : 『초초본』에 ‘醇’으로 되어 있다.

20) 淳 : 『초초본』에 ‘醇’으로 되어 있다.

21) 范淳夫 : 『상계본』에 ‘淳夫範’으로 되어 있고, ‘範’을 ‘淳’ 앞으로 옮기라는 교정표시가 있다.

22) 少 : 『상계본』에 ‘小’로 되어 있다.

23) 壤蟲 : 『상계본』에 ‘虫’으로 되어 있다.

24) 件 : 『상계본』에 ‘舛’으로 되어 있다.

25) 寢 : 『초초본』,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寢’으로 되어 있

可. 故區區奉規, 且以自規云爾. 不知盛意以爲如何?

. 『중초본』에 주목교정기 ‘寢’이 있다.

26) 寢 : 『초초본』, 『중초본』, 『번남본』에 ‘寢’으로 되어 있고, 『상계본』에 없다. 『중초본』에 주목교정기 ‘寢’, 『상계본』에 교정기 ‘寢’이 있다.

答鄭子中[丁巳]²⁾

謂公南行且返，第未收安信，懸懸之至。忽枉問字，知曾罷南行，侍權之外，學履勝迪，欣寫無比。所云“追悔”事，未知何謂。先正格言，以爲既不可長留在胸中爲悔，又不可不悔。凡此皆公所自知。正惟此處爲難，而其欲捨不得，卽是心病。今欲治此病，亦不待他求，只就來喻“存心法”，平平存在，略略收拾處，能接續用工，至於純熟，則自然心地虛明，不累於事物，非有意放下，而自放下矣。滉得心恙最早，而曉治法太晚。自近用工，始似有實地可據，日用動靜間，往往若有契合融會處。然心平氣和，事順理愜時，覺得如此。而苦³⁾於間斷不接續，不能打成一片，介然之頃，已復放失。或遇逆境，到急衰處，依舊纏繞放不下。蓋於古人所謂“晝卜諸妻子，夜卜諸夢寐⁴⁾”者，每有愧焉。蘧使之言，真是先獲我心者也。

1) (1557년, 57세) 12월 2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臘月初二日]’, 『중초본』, 『정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答鄭子中’으로 되어 있다.

3) 苦 : 『정초본』에 ‘若’으로 되어 있고, 교정기 ‘苦’가 있다.

示喻 “纔覺放去，不要苦著⁵⁾力收拾，但覺時便在”等語，得之，其下復云，“勿復思此事而已”。此語用之於“勿留悔“一事則可，若於其他，則似有告子 “勿求於心”之病。如何如何？⁶⁾宋名臣事蹟，眞可師法。自『言行錄』所載外，名公鉅賢，纂輯成書，豈非偉事？有補於治己，波及於世人。但觀古人纂述之事，率多不得行於時者之所爲⁷⁾。公方此逸駕脩道之初，何遽匆匆爲此計乎？其必以爲此⁸⁾非作者立言之比，但裒集前言往行，而爲自修⁹⁾之鑑云爾，則宜亦可矣。然愚¹⁰⁾意亦望勿爲一時率易之計，擬作生平遠大之期。目今所得者，且勿硬做已得，俟後日入都¹¹⁾，廣求文籍，博收而精揀¹²⁾之，一一秤停，反覆考¹³⁾

4) : 『상계본』에 ‘寢’으로 되어 있다.

5) 著 : 『상계본』에 ‘着’으로 되어 있다.

6) 宋名臣……拜復 : 『중초본』, 『정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별행으로 되어 있다.

7) 爲 : 『번남본』, 『상계본』에 ‘謂’로 되어 있다.

8) 爲此 : 『상계본』에 ‘此爲’로 되어 있고, 앞뒤바꿈표시가 있다.

9) 修 : 『상계본』에 ‘脩’로 되어 있다.

10) 愚 : 『상계본』에 ‘憂’로 되어 있다.

11) 入都 : 『상계본』에 ‘都入’으로 되어 있고, 앞뒤바꿈표시가 있다.

12) 揀 : 『상계본』에 ‘鍊’으로 되어 있다.

13) 考 : 『상계본』에 ‘攷’로 되어 있다.

校¹⁴⁾，至於成帙之後，亦必參訂・審覆，無復改評，然後乃可爲成書。若草草易爲，則非徒不滿人意處必多，自家看來，亦不免病敗愈看愈出矣。滉病中，有少¹⁵⁾備忘所述一二編，自謂已成，後來看得。自悟其病處甚多。身所驗知，故敢此獻愚耳。考亭以後諸儒¹⁶⁾，欲考錄以自警範。窮山無書可檢¹⁷⁾，欲俟公入漢，求宋・元史，抄其所載寄來而後，參以散出諸書之人而爲之，未知其果能成未也。『鶴林玉露』四冊・『大全』書二冊，附¹⁸⁾來使。『翰墨全書』，乃主詞翰之書。其氏族類雖記，人物甚疎略。徐當更考有無面稟。『輟耕錄』嘗見之，不無人物可采處，但覺其人心術不正，有深可惡可賤處，不可不知也。汪玉山事跡¹⁹⁾，滉亦未詳。頃日所云，是『輟耕錄』所載，或『齊東野語』，兩書中未的何書所載也。梅・陸・韓三人，皆詩人之有風操者。陸雖小有清議之譏，亦是小疵耳。【訪具來

14) : 『갑진중간본』에 ‘枚’로 되어 있고, 교정기 ‘校’가 있다.

15) 少 : 『상계본』 ‘所’로 되어 있다.

16) 儒 : 『상계본』에 ‘孺’로 되어 있다.

17) 檢 : 『갑진중간본』에 ‘驗’으로 되어 있고, 원두주 ‘驗一本作檢’이 있다.

18) 附 : 『초초본』에 ‘付’로 되어 있다.

19) 跡 : 『상계본』에 ‘蹟’으로 되어 있다.

時. 許欲過枉. 跂²⁰⁾俟登音. 不具. 謹拜復²¹⁾.】

20) : 『초초본』에 ‘企’로 되어 있다.

21) 訪具……拜復 : 『상계본』에 주묵산거표시가 있다.

與鄭子中[戊午]²⁾

間者辱訪，兩日相從³⁾，爲幸多矣．別後猶有無限合理會底⁴⁾事，日日心未嘗不在⁵⁾左右也．未知西行無進退，廿一著鞭否？前云『言行錄』事，固不爲無益，故不爲勸止，且贊成之矣．然閒中仔⁶⁾細思之，君之此行，求見諸未見書籍，以成此書之志，太銳・太急，恐或因而致悔咎，召喧鬧，切不可不慎也．君子之言行，豈視時世而有所變易？然其行於世也．凡吾之顯晦語默，不可不隨時消息以善身也．故以朱子之剛立不屈，晚年所以應世者，與乾道・淳熙⁷⁾間所爲，大不同．非志變也．時不得不然也．滉頃年在城中，求

1) (1558년, 58세) 1월 19일.

2) 『초초본』에 ‘與鄭子中[戊午正月十九日]’, 『정초본』에 ‘答鄭子中[戊午正月十九日]’로 되어 있다. 『정초본』에 교정기 ‘與’가 있다.

3) 相從 : 『상계본』에 ‘從相’으로 되어 있고, 앞뒤바꿈표시가 있다.

4) 底 : 『번남본』에 ‘之’로 되어 있다.

5) 理會……不在 : 『상계본』에 ‘會之事日日心未嘗不在理’로 되어 있고, ‘理’을 ‘會’ 앞으로 옮기라는 교정표시가 있다.

6) 仔 : 『초초본』에 ‘子’로 되어 있다.

7) 熙 : 『초초본』에 ‘熙’로 되어 있다.

書·論學等事，自今思之，多有觸忌取笑者。然皆與吾同志之人，乘間而密爲之。雖不無指目，而不大段起鬧者，時然耳。今則又與彼時懸殊。向聞君之題目，已自不入時宜。今自草野，新入都城聲利海中，不計禁諱，不問生熟，徒以求見之切，苟有書籍者，東問西逐，汲汲遑遑，唯⁸⁾恐不及，人之見聞，必甚駭異。駭異，所不足恤也。但以吾輩今日學問緩急言之，著述非急，行身顯晦言之，晦藏爲上。乃忘上策而急非急，以橫起犯世患之端，君子之所當愼也。故聊言之。然非欲左右畏時議而輟所爲⁹⁾以徇之，但欲其勿太露·太忙¹⁰⁾，惟吾素相知相熟之人，隨宜索取，其可疑處，雖聞有書，不枉祈¹¹⁾覓，自然無患矣。況『宋史』『一統志』旣得之，則餘外零碎，亦何必盡要。又不必於今行盡得來而今年畢其書也。大抵朋友中如左右者，何處得來？所以心常傾向。但每事皆有欲速之意。意緒常若匆匆，於沈深悠遠氣象，似欠，切望常自點檢思矯也。昨得宋參判台叟書，有道學名臣『言

8) : 『변남본』, 『상계본』에 ‘惟’로 되어 있다.

9) 爲 : 『변남본』에 ‘謂’로 되어 있다.

10) 忙 : 『상계본』에 ‘(+ 亡)’으로 되어 있다.

11) 祈 : 『상계본』에 ‘(ㄴ+斤)’로 되어 있다.

行錄』二冊，今行新得來云，考亭門人以下諸賢，想必具載於斯。然則吾所云¹²⁾者，不爲可也？宋公侯看了，許欲寄示，未卜其遲速，如渴之思水也。此公無可疑。君若因景錫而求之，宜可得見，因達我意，君還以隨行簞而來，何其幸也。又聞『今獻彙言書』，校書館今已畢印，都中必多有之。得見則程敏政事如可考，考而膽來。亦望，黃仲舉亦印右書¹³⁾來。則欲示¹⁴⁾云，而未可必，故云耳。本戒求書之急，而終以求書奉囑，亦足以發一笑。惟冀好行多慎。不宣。
【謹叩。】

12) : 『상계본』에 ‘云所’로 되어 있고, 앞뒤바꿈표시가 있다.

13) 書 : 『상계본』에 ‘事’로 되어 있다.

14) 示 : 『상계본』에 ‘云’으로 되어 있다.

答鄭子中²⁾

昨昨人還，併得兩書，縷縷具悉．因見近日用功³⁾曲折，深有警作於心也．見得的確處・明白處，滉亦時到此境界，而不足恃此以爲得者，纔間斷時，便依前失去，無捉摸⁴⁾故耳．來喻所云與所見全然相反者，是也．而希正所舉湖南李隱君之言，乃“持敬・節度”，是其身親經歷來，故其言眞實而有味，非公得於希正，滉何緣得聞？吾輩所當佩服而不忘也．“正義明道，不忘不助”等語，實見親切．正好用力⁵⁾之地，何故，卻云“刻苦之病，無藥可瘳．”既云無藥可瘳，又何以復云“更數年，可救得七八分”耶？滉意“救得七八分”，其地位已甚高，難可期於數年之後也．而如此爲心，恐猶未免謀利計功・正助之病，請

1) (1558년, 58세) 봄.

2) 『초초본』, 『중초본』에 ‘并答鄭子中[一二三書]’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并’, ‘一二三書’에 산거부전지가 있고, 『정초본』에 행간부전지 ‘戊午正月■□’이 있다.

3) 功 : 『상계본』에 ‘工’으로 되어 있다.

4) 摸 : 『상계본』에 ‘模’로 되어 있다.

5) 力 : 『상계본』에 ‘工’으로 되어 있다.

更思之. 『言行錄』, 滉前後之言, 非欲公焚其藁⁶⁾而勿爲, 但告勿太沒溺以妨進修工夫, 勿太匆遽以害悠遠氣象⁷⁾云爾. 朱先生初見路德章編集『春秋』, 謂曰“此等得暇爲之, 不可以此妨涵養之功.” 後見其用心之差, 乃曰“當時見所編精密, 心利其成, 不欲一向說殺. 以今觀之, 所謂‘爲人謀而不忠’者. 爲學本以治心, 今不唯不能治之, 乃使向外奔馳, 而反爲之害. 豈不爲惑甚乎?” 今公所爲, 正不可不慮此, 故云云. 來喻至云“二三十年, 誓不復作此等工夫.” 則又似有未相悉者而固必太過也. 況以不近之事, 推之於病昏之人, 而欲責其成, 此尤涉於相誣相誑, 以取怒於世人. 公之於我, 實禍福所同. 公不能慎言如此, 此滉不得不致深憂於公之行世也. 『晦庵⁸⁾書』誤處, 所喻皆精當. 滉亦知鑄本有公私改不改之異, 但公本既不可得, 而據家藏私本, 其決然謬誤, 所不可不改. 然又恐有妄⁹⁾輒之失, 故用先儒¹⁰⁾存舊之例,

6) : 『갑진중간본』에 ‘ ’로 되어 있고, 교정기 ‘藁’가 있다.

7) 象 : 『상계본』에 ‘像’으로 되어 있다.

8) 庵 : 『상계본』에 ‘菴’으로 되어 있다.

9) 妄 : 『상계본』에 ‘忘’으로 되어 있다.

10) 儒 : 『상계본』에 ‘孺’로 되어 있다.

有元作當作之云。今示考據正誤公本，欲去兩作之煩，甚善。已就貼紙處，悉用朱抹去之矣。其『與臺端書』，有誤作可，『與欽夫書』。“聖”誤作“正”，皆依改正。丞¹¹⁾相之爲趙雄，不易如此考出，亦已依書題下。至以泰兒爲塾，疎謬非常。先生末年，塾豈在乎？老昏如此，可笑可駭。但終未辨爲“埜”爲“在”，故只去“塾”字耳。「與留丞¹²⁾相書」，“念”字本闕，今亦當闕，然其爲“會”字，似無可疑。故加注曰“‘念’元本缺字，恐當作‘會’。”如此，如何如何？此書寫了，已經五六次讎校，猶有此失，令人恐惕。今得公如此改正，幸莫大焉。但二十四卷何在而不得校乎？此卷首尾，皆未經校過。如此誤書，雖印何貴？且其印不印，姑所不論。書本則必欲無訛，而此無公本可校，聞西行尙隔六七日，冀得更藉¹³⁾精力，少加校閱。故一二冊，附來便送去。切望留意，晦間，當使人取來。其未了餘冊，隨後更作如何料理也。「與朴龍巖書」，窩父子¹⁴⁾偶皆出外，獨琴生蘭秀在書齋，

11) : 『상계본』에 ‘承’으로 되어 있다.

12) 丞 : 『상계본』에 ‘承’으로 되어 있다.

13) 藉 : 『상계본』에 ‘籍’으로 되어 있다.

14) 父子 : 『상계본』에 ‘子父’로 되어 있고, 앞뒤바꿈표시가 있다.

代寫送似，此亦豈無病處？何不說來耶？【第二書示意，要不出第一書，奉答之外，不別爲條報.¹⁵⁾】

15) ……條報：『번남본』, 『상계본』에 별행으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주목행간부전지 ‘此條不書’가 있다.

答鄭子中²⁾

李參奉便來，今復覩第三書．所謂“變化氣質最難”，非徒公患，正是滉病，三復悚厲．范³⁾冲以其時世事蹟⁴⁾考之，似不容有兩人，或疑其字有兩稱．『王梅溪集』，元無『誌』・『銘』，他未有可考，惟他日考之『宋史』以定，可矣．宋・尹兩公，皆是願見之人，當見何疑？但公方今爻象，如聘而未行之處子，何可輕自往見人耶？蓋不論他可見⁵⁾與否？只是在我時不當故耳．古人雖云“事其大夫之賢者”，今日使此說不得，正須內植其志，壁立萬仞，而所以行於世者，則⁶⁾每以“退人一步，低⁷⁾人一頭”，爲第一義，閉門自守，聽天所命．如是

1) (1558년, 58세) 봄.

2) 『초초본』, 『중초본』에 제목이 없다. 『중초본』에 추가 ‘上一二三書三字去’를 한 주목행간부전지 ‘答鄭子中’, 『정초본』에 상란부전지 ‘戊午正月■[■]’가 있고, 『중초본』에 ‘上一二三書三字去’에 주목말거표시가 있다.

3) 范 : 『상계본』에 ‘範’으로 되어 있다.

4) 蹟 : 『상계본』에 ‘跡’으로 되어 있다.

5) 他可見 : 『상계본』에 ‘見可他’로 되어 있고, ‘見’과 ‘他’를 바꾸라는 교정표시가 있다.

6) 則 : 『상계본』에 없고, 교정기 ‘則’이 있다.

而或有險難，可謂之命，以其非自召也。後進登先進之門，主人雖是可信，其在門賓客，皆可信耶？故於一投足一開口之間，不得譽則必得毀。得毀固可畏，得譽更可憂。古人戒後進之言曰 “今日人主前得一獎，明日宰相處得一譽，因而自失者多矣。” 此誠切至之論。公前在都中，已有聞譽。鄭大提至自臨門致意，此皆非可喜之事。公知之乎？書末所云公自處之意，甚善。然如錢若水急流中所以能勇⁸⁾退者，以有求退得退之一路，故能遂其高志。今則一入要路者，非被驅逐，無可退之路。此今之爲士進退極難之勢也。“富貴易得，名節難保”，“末俗易高，險塗難盡。” 難易之間，正當明著眼審著腳，庶不負平生所學也。不然，要路拘牽，險塗惶惑，雖欲如杜·馬兩公之戒，恐不得如其意。故滉之愚見，不願賢者之得時譽而登要路也。如滉者，中年報國無狀，幸因沈病，得遂退志。朝廷若付之相忘之域，固爲至幸，宜公之爲賀。樞府之命，今四年矣。近得本府郎官書，知其尚未遞⁹⁾也。此正辭章免筭，十上廿上，期於得請之日也。

7) : 『변남본』에 ‘底’로 되어 있다.

8) 勇 : 『초초본』, 『중초본』에 ‘通’으로 되어 있다. 『초초본』에 상란부전지 ‘■……■作勇’, 『중초본』에 추가 ‘傳本亦作勇勇字恐是’를 한 상란부전지 ‘通考次’가 있다.

而非宰相・非臺諫，不敢煩瀆辭免，乃國之故¹⁰⁾。疎遠拘掣，無路控辭，暗嘿屏藏，流聞時論，或有大以爲非者。欲加之罪，何患無辭？得罪固所不計，在人臣之義，一向如此廝喏，實有所未安者，況今年，國有事故，非常時之比，不無激生他論之勢。滉度今年，如度九折，而見謂“安臥溪山，放心事外”，可乎？此言甚長，非尺札所究，當默會也。李察訪碣陰銘，以敦囑之故，不敢無一辭。甚知不中，用告參奉，不如改求他文也。【¹¹⁾青袱已付窩。皮袱裹冊奉還。并照。不宣。謹復。¹²⁾[夜作此書。眼暗筆澁。殆不可讀¹³⁾。】

9) : 『초초본』, 『중초본』, 『정초본』, 『갑진중간본』에 ‘替’로 되어 있다. 『초초본』, 『중초본』, 『정초본』에 교정기 ‘遞’, 『갑진중간본』에 두 주 ‘替本作遞’가 있다.

10) 故 : 『중초본』에 추기 ‘傳本無落字’를 한 주목상란부전지 ‘故下恐有落字’가 있다.

11) 『초초본』에 청목추기 ‘不存亦可’를 한 주목행간부전지 ‘此下十三字削之如何’가 있다.

12)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註別行低一字書■…■去之何如’가 있다.

13) 青 ……可讀 : 『초초본』에 청목추기 ‘存之無妨’을 한 주목행간부전지 ‘此亦可存否’가 있다.

【答鄭子中】 2)

【³⁾前月，得在京辱報書，知當下來，今朝得仲舉書，又知己下來，顧拘務阻水，未⁴⁾由奉問，忽此投翰，具悉慶侍外素履珍勝，無任慰沃，滉碌碌保，田里所與酬接，率多冗末，未有嚴憚警益之事，習成媮惰，時復自循，悚懼爲深，送示言行錄，甚荷，不鄙才看姓氏，未暇窺閱，而自計疎淺，亦將豫被⁵⁾渠成之利，跂⁶⁾幸跂⁷⁾幸，宋·元·麗史，不得求見而來，大可恨也，當因仲舉求『宋史』於崔見叔，或公爲求「列傳」而侔人，則兼求道學諸儒附卷而來，則可易轉取來看矣，宋同知所送言行錄及簡，如獲拱壁⁸⁾，喜不可具述，鄭相公碑文之屬，不知吉元公，何以輕及於滉乎，

1) (1558년, 58세) 6월 8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六月初八日]’로 되어 있다.

3) 『상계본』에 상란부전지 ‘別某止看矣鄭止躍’이 있다.

4) 未 : 『번남본』, 『상계본』에 ‘末’로 되어 있다.

5) 被 : 『상계본』에 ‘彼’로 되어 있다.

6) 跂 : 『초초본』에 ‘企’로 되어 있다.

7) 跂 : 『초초본』에 ‘企’로 되어 있다.

8) 壁 : 『상계본』에 ‘壁’으로 되어 있다.

大抵有大名大業人，須得大手筆，可以傳信後世，以相公大節，如滉微末，僭妄⁹⁾有述，豈不適爲相公累耶，則在後賢失屬之譏，亦非小，故滉雖欲¹⁰⁾吉元公勉承其懇意，何可得乎，但相公德業之盛，但得於口耳之一二，而未悉，今可因是而得見，是則深自慶躍，來使以雨作阻水爲恐，索報頗急，掛一漏萬，惟祈養鍊益茂，謹拜謝復.】

9) : 『상계본』에 ‘忘’으로 되어 있다.

10) 『초초본』에 주목행간부전지 ‘疑有爲字’, 『중초본』에 추기 ‘傳本亦挾書爲字’를 한 상란부전지 ‘欲下疑有爲字’, 『번남본』에 원두주 ‘一本欲下有爲’, 『상계본』에 상란부전지 ‘一本欲下有爲’가 있다.

答鄭子中²⁾

近者，頗阻聞問，懷不可言。倂來拆³⁾書，喜審侍慶外學履佳勝。如滉病與衰謀，眼昏特甚，不能看書。積雨，山路四斷，孤坐寥落。今才晴霽，又困秋熱，日間殊憤憤爾。“摧⁴⁾頽・疎漏”等語，不易點檢至此。但雖知此爲病，而不能奮起矯揉。吾輩之患，正在此處。若每每如此，何益之有？因來言而⁵⁾惕然故云耳。且環顧其中，枵然無物，而上誤聖朝，辱賜除召，在前非一⁶⁾二。今年來，似有永棄之論，稍自爲幸。不意復聞此事，而啓謬之意，更甚於前。不知滉作何等罪過，致得如此虛僞，欺天欺世之罪，無計逃

1) (1558년, 58세) 7월 25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七月二十五日]’로 되어 있다. 『정초본』에 행간부전지 ‘戊午七月’이 있다.

3) 拆 : 『초초본』,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坼’으로 되어 있다.

4) 摧 : 『초초본』, 『중초본』에 ‘頽’로 되어 있다. 『초초본』에 주목상란부전지 ‘{頽}字可疑更詳’, 행간부전지 ‘上頽疑摧’,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上頽字恐摧字’, ‘傳本亦挾書摧字’가 있다.

5) 而 : 『상계본』에 없다.

6) 一 : 『상계본』에 ‘人’으로 되어 있다.

免. 奈何奈何. 所幸政院以東班除授後, 下書請之. 以此時無來報, 其間必有彈駁之發, 庶有停召之理. 不然, 早晚被命, 則進退俱無正當道理, 實難善處. 然於此有一條路稍通, 計欲從此結末, 但未易以語人, 故人⁷⁾傳將赴云. 所深慮者, 未間有來報耳. 若時議之有無, 正是難說, 此亦何常之有? 作止隨時, 寧可據在京時, 爲必無也. 雖然, 不以謗議有無爲進退, 只當視吾義所安. 而被命之後, 則尋所安處極多閱⁸⁾, 故憂⁹⁾心耳. 『言行錄』, 才一看過, 爲金惇敘借覽. 今雖來, 未及再閱. 然此無書冊, 所取諸條, 無以考¹⁰⁾證. 只據時見而言, 似甚精博, 殊有益於人, 可愛又可傳. 然吾意勿遽¹¹⁾以爲了業, 徐更鍛鍊得到十分, 而後出之¹²⁾尤好. 前卷要有更考¹³⁾, 姑未呈

7) 『 』에 추가 ‘傳本同’을 한 상란부전지 ‘故人以下更考次’, 『번남본』에 원두주 ‘故人以下可疑’가 있다.

8) : 『초초본』에 ‘礙’로 되어 있다. 『번남본』에 원두주 ‘[閱一本礙]’가 있다.

9) 故憂: 『상계본』에 ‘憂故’로 되어 있고, 앞뒤바꿈표시가 있다.

10) 考: 『상계본』에 ‘攷’로 되어 있다.

11) 遽: 『상계본』에 ‘據’로 되어 있다.

12) 而後出之: 『상계본』에 ‘後出之而’로 되어 있고, ‘而’를 ‘後’ 앞으로 옮기라는 교정표시가 있다.

13) 考: 『상계본』에 ‘攷’로 되어 있다.

納. 『道學錄』, 深幸得見. 其人有失正派者, 姑且勿論. 但中朝, 至今猶有作者不絕, 非偏方所可及, 讀之令人感歎¹⁴⁾不歇. 今已傳寫畢, 未經讎校. 校後, 元本當還之.¹⁵⁾ 【台叟罷沈事實未聞知. 所示果然果然. 古錄收得示喻. 開月許枉企企. 但尙熱山路未成蹊. 姑俟暑退. 似亦無妨. 惟照量. 餘俟¹⁶⁾奉悉. 謹拜謝復¹⁷⁾.】

14) : 『상계본』에 ‘嘆’으로 되어 있다.

15) ? : 『초초본』에 주목상란부전지 ‘■字更詳’이 있다.

16) 俟 : 『상계본』에 ‘俟’로 되어 있다.

17) 台叟……謝復 : 『상계본』에 주목산거표시가 있다.

答鄭子中²⁾

謙仲傳辱書，喜審比日侍慶外學履佳勝。滉病昏依然。『自劾章』捧去人，至今不來，怪訝深矣。伏想留中無發落，或有他故，皆未可知。竊自悚仄而已。不能預料其如何。如有所聞，毋惜示及。承喻保養方便，未免從事於雜技。既有患苦，固當爾也。但此等伎倆，皆滉所身親歷試來，只爲滉每事不能，故終不被他所，使如公本有俊銳之氣，加³⁾此衆技鼓發，竊恐自此無回頭住脚時分也。“不有博奕者乎？”非勸人爲博奕也。惟射爲男子之事，古所最重。然觀德之意，寂寥久矣。日與麤人雜流相狎⁴⁾，損害旣深。又朝廷所以見處者，或專以軍馬邊圉之任。自非諸葛孔明·岳鵬舉事業，恐不如從吾所好之爲得也。大抵此學，有志者難得。才有志，便過於用力而有所苦，才有苦，便背馳而去。箇箇皆然，世無眞儒⁵⁾之主盟，學不

1) (1558년, 58세) 8월.

2) 『초초본』에 ‘答鄭子中[八某日]’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주목상란 부전지 ‘{夫}士之所病■…■至次恐■…■{篇}’이 있다.

3) 加 : 『상계본』에 ‘如’로 되어 있다.

4) 狎 : 『상계본』에 ‘押’으로 되어 있다.

得其門而入，故如此，可歎⁶⁾。滉每以此自憫⁷⁾，不意公亦將有其漸也。【『言行錄』三冊，謹以還納。西行將近，恐必以隨行故也。『晦庵⁸⁾書』三冊并上，請依前樣⁹⁾校過。標貼出元作某字之可去者，見教何如。欲借其善本來自校卷帙不少，致之不易故也。且只看上端朱字而校之，不至費心力也。吉元令前答簡并送¹⁰⁾來，行狀等同封回納。望須善傳，兼達鄙意，不宣。】

11) 【日昨承奉有旨，旨意極有未安，不知何所措躬。又不知如此終何所底止也。『晦庵¹²⁾書』若速校過，則不遲見還尤幸。向來疏草，家兄不見屢索，見之，望須送回人，皆煎迫不可安坐，亦似有理，而入城甚有所礙，以此進退皆難。舉趾還罷者日三四，此可付高人一笑也¹³⁾。】

5) : 『상계본』에 ‘孺’로 되어 있다.

6) 歎 : 『상계본』에 ‘嘆’으로 되어 있다.

7) 憫 : 『번남본』, 『상계본』에 ‘悶’으로 되어 있다.

8) 庵 : 『번남본』, 『상계본』에 ‘菴’으로 되어 있다.

9) : 『초초본』에 ‘樣’으로 되어 있다.

10) 并送 : 『상계본』에 ‘送竝’으로 되어 있고, 앞뒤바꿈표시가 있다.

11) 『초초본』에 청목추가 ‘低行爲是’를 한 주목상란부전지 ‘當低行’이 있다.

12) 庵 : 『번남본』, 『상계본』에 ‘菴’으로 되어 있다.

答鄭子中[戊午]²⁾

近書率易傾倒，方深悚惕。今奉報示，不但不卻，乃大有悔責之意。鄙言豈足以激發，高明自是樂於遷善，勇於徙義，故能如此，不勝敬歎³⁾。但文武兼治，方是全材，今欲勿事射藝，無乃以僕之無他技，誤左右之多能耶。是則不能無怵然於來諭⁴⁾也。有志中廢之歎⁵⁾，誠是可畏之甚。近見『理學錄』所載諸公，其美質邃學，若無瑕玷，而揆以前後蹤⁶⁾跡及袁談所記，其不能滿人意者多矣。信乎此學之難明，此志之易渝，能自樹立於頽波激浪之中者，益難得矣。滉自劾疏批教別紙寫上。天意峻嚴如

13) ……笑也：『상계본』에 주목산거표시가 있다.

1) 무오년(1558년, 58세) 9월 2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九月初二日]’, 『중초본』, 『상계본』에 ‘答鄭子中’으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前日復■…■耳云云■…■篇’, 『정초본』에 행간부전지 ‘戊午九月’이 있고, 『번남본』에 ‘戊午’에 말거표시가 있다.

3) 歎：『상계본』에 ‘嘆’으로 되어 있다.

4) 諭：『초초본』, 『중초본』, 『정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喻’로 되어 있다.

5) 歎：『상계본』에 ‘嘆’으로 되어 있다.

6) 蹤：『상계본』에 ‘縱’으로 되어 있다.

是，物情時議，又從而激發，洶洶方劇。其中稍見愛者，皆以爲不可不上來。滉反復思忖，誠有未安者。月望念間，不得已爲扶病西行之計，身遭不幸，一至於此極耶。足跡一入城中，所難處者，不啻九折百盤，此後事何能預料其如何耶。彼時，若知兩擬皆免，則豈有蘄免之疏耶。7)惟其以前承傳之意，有旨臨門，則進退狼狽，不容言矣。故爲是不得已之舉，乃反因是而自納於畏塗，可謂噬臍莫及，奈何。【田家秋務之繁正如所示滉亦欲速行奴馬兒孫輩率行疲困且缺以致遲遲未至京間或已有彈章皆未可知也8)】『節要』書得一看過，何幸如之，兩草皆來，與龍巖書，兒子未及膳，欲付後便云。知欲讀『性理』『綱目』等書，甚善甚善。用工於此，其益殆不勝道。但滉雖在城中過了一冬，病中怯9)寒牢關，何可屢接清眊，是固一撓，而勢不得不然也。【『要覽』等書。來使云天雨不齋來云。行狀雖更封。亦不脔10)合。且不必取合。故仍前還上。『理學錄』已膳。故送之。紙盡不一11).】

7) 『 』에 추가 ‘傳本亦同’을 한 상란부전지 ‘惟其以下更考’가 있다.

8) 田家……知也：『상계본』에 주목산거표시가 있다.

9) 怯：『초초본』, 『중초본』, 『정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 ’으로 되어 있다.

10) 脔：『상계본』에 ‘(月+忽)’으로 되어 있다.

【答鄭子中】²⁾

【侔來坼書，如接晤語，滉二十一日，不違西行，此間時義，思之爛熟，極有難處者，只以如此退伏，深有未安，不得不往，宜爲公之所歎³⁾也，適此寒冷，強扶跋涉，難保無事，城中舊寓，無溫房，過冬極難，此等細礙，不可歷數，姑皆任之，況其大者耶，承同日發行，行必常先一二日途間，不相值也，入城亦不必遽，相尋務相收閉爲佳，⁴⁾送來『晦菴書』三冊已至，歸自洞會，夜作書，眼暗老草，尙冀原照. 謹拜.】

11) ……不一：『상계본』에 주목산거표시가 있다.

1) 무오년(1558년, 58세) 9월 19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九月十九日]’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去誠一 去’가 있다.

3) 歎：『상계본』에 ‘嘆’으로 되어 있다.

4)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此下不書’가 있다.

【答鄭子中[己未]】 2)

【別袖一揮，但因奴傳，知無事過嶺，餘無消息，那免鬱³⁾懷，卽今春日暄妍，想榮觀之餘，趣緒日益超勝矣，病人心事，大槩不異於前，而肚脹有增無減，脚膝緩弱，步履辛痛初欲辭適水曹，置之散地，然後請由下歸，更思之，如此則呈乞猥⁴⁾煩，似不免上冒天威之厭⁵⁾，而下激物情，之猜姑此隱忍，至春暮乘便，請由爲計，既居其職，不得不以時力疾從政，是爲憫⁶⁾耳，月初流聞物議謂槐院新員不待免新，或在京托病，或徑棄下鄉，其人豈皆中玉堂翰院之選者，而自處如此，大是異事，將有臺論云⁷⁾已而寂然，假使

1) (1559년, 59세) 1월 27일.

2) 『초초본』에 ‘與鄭子中[己未正月廿七日]’, 『번남본』, 『상계본』에 ‘與鄭子中[己未]’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去誠一’이 있다.

3)鬱 : 『상계본』에 ‘ ’로 되어 있다.

4)猥 : 『번남본』, 『상계본』에 ‘畏’로 되어 있다.

5)厭 : 『번남본』, 『상계본』에 ‘壓’으로 되어 있다.

6)憫 : 『초초본』, 『중초본』에 ‘(忡+閔)’, 『번남본』, 『상계본』에 ‘悶’으로 되어 있다.

7) ‘云’ 뒤에 『상계본』에 주목말거표시를 한 ‘此’가 있다.

其論遂發亦非所患也，況不發耶，因槐院公事，頻見尹具諸人云，以林(彳 + 策)⁸⁾正字，病不出尙無免新之期，君誠難待之勢也，近玉堂始爲錄薦，只奇明彦參末銓曹政府時未爲耳，款晤未卜何日，惟勉勉以副所望，謹問.】

8) (+) : 『상계본』에 ‘(β + 策)’으로 되어 있다.

答鄭子中[己未]²⁾

自入秋來，每遇親舊外至，輒問公下鄉與否？頗以遲遲爲訝。今忽擎手翰，披讀之餘，悅接警³⁾欵，且慰且幸，不以言喻。濕去夏一病，幾死僅蘇，病人難進。雖曰素定，亦緣增病太劇，所以不果西還。非徒未謝恩命，又至累煩有旨，極有未敢承當者，罔攸措躬，兢懼日積，奈何。況聞時論不恕，紛紛如此耶？然以焚黃不可不謝者，此固至當不易之論也。而責之平人則可矣。若執此論，并不恕病人，則如何如何。一病長年，坐是不盡於臣子之分者甚多，沈痛罔訴而已。所喻涉世情致，向學心惓，讀之令人感歎無已⁴⁾。因自念弱冠，已有此志，而遽爲病祟，既失所學，而輕出世路，展轉沒蝕，至於衰病之極而後，始乃回頭著

1) (1559년, 59세) 9월 9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重陽日]’,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答鄭子中’으로 되어 있다.

3) 警 : 『초초본』, 『중초본』, 『정초본』, 『갑진중간본』, 『번남본』, 『상계본』에 ‘警’으로 되어 있다. 『갑진중간본』에 두주 ‘警恐警’이 있다.

4) ‘無已’ :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無已無已’로 되어 있다. 『상계본』에 뒤의 ‘無已’에 말거표시가 있다.

脚，有所進就，烏能有望？若如賢契，青年盛氣，所見之超詣，所志之篤實，已如此，若能不受變於俗，而繼之以無倦，其所至何可量耶？但人之所患，“靡不有初，鮮克有終”。澁雖愚鄙，生世日久，見人亦多，始者粗有可觀，而能終不染俗者，極不易得也。公與奇明彥，皆於涉世第一路頭，厲志若此，誠爲可貴。所望，能勉以終之，勿似老拙枉度光陰而有難追之歎也。明彥書中所云及『性情說』，極荷不鄙。書當俟⁵⁾後修報，『說』則靜而曾以草本見寄。閒中略草擬報，無便未寄。今以奉洵，蒙許晦間來訪，其時持以見還，且指示病處，庶得竄改以送也。【昨偶出江臺。伴來投書後。住宿他所。當曉來受答書云。暮還聞此。曉燈草報。眼暗筆麤。殊未審悉。留俟對牀⁶⁾之款。就中考亭『淵源錄』⁷⁾。至今未成頭緒。欲考⁸⁾『語類』訓門人處。前去語類四冊。有便寄來無便。來時携到未晚也。并照。未間珍重。謹拜復⁹⁾。】

5) : 『초초본』에 ‘俟’로 되어 있다.

6) 牀 : 『상계본』에 ‘床’으로 되어 있다.

7) 淵源錄 : 『초초본』에 상란부전지 ‘{淵源錄}卽理學通錄’ 있다.

8) 考 : 『상계본』에 ‘攷’로 되어 있다.

9) 昨偶……拜復 : 『상계본』에 주묵산거표시가 있다.

答鄭子中²⁾

權君昆仲，惠然來訪，又傳辱書，承悉歡侍外學履珍茂，所以慰釋病憊者深矣。示喻“有好學之名，而無爲學之實，有愧一身，取譏衆人，及昔以爲戒者，今先犯之”等語，此皆吾輩之大患，讀之令人惕然汗出也。眞當相與十分策勵，庶不至頽墮，幸甚。景錫誠不可曉，觀其趣操，一一皆入時樣³⁾，何能爲渠深說耶。明彥直是奇士，但其爲學，初從駁雜處轉身來，猶有轉未得底，而遽自主張太過，略無虛心遜志卻步求進之意，深恐難於造道之極致也。大抵這邊人，一或爲世所知，爲時所用，便是不好消息。公與明彥既皆出身世路，不患無嘐嘐志願，誠恐仕宦奪志，進退掣肘，學不能專，而志不能守也。如明彥之不就翰試，去不欲來，豈不是甚好？果能如錢若水·文文山，尤可尙矣。如不聽其爲錢爲文，何，此說甚長，未易究也。惟公欲速一念，亦是大病，切不可爲親爲辭而

1) (1559년, 59세) 9월 20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九月廿日夕]’으로 되어 있다.

3) 樣 : 『초초본』, 『번남본』에 ‘ ’으로 되어 있다.

不痛斷其根株也. 如滉迷塗既遠, 方始回頭, 庶做晚功, 追補往愆, 而病蹤⁴⁾纔斂, 謗議如山. 每得京書, 身不帖⁵⁾床, 以病拙之難處, 亦憂公等之難處也. 如之何如之何. 所喻辨⁶⁾論數說, 權君別後, 燈下報書, 疲倦不及究言, 徐俟⁷⁾後便, 或可面論. 未間更冀珍勉, 不宣. 【謹復⁸⁾.】

4) : 『번남본』, 『상계본』에 ‘蹤’으로 되어 있다.

5) 帖 : 『갑진중간본』에 두주 ‘帖恐貼’이 있다.

6) 辨 : 『초초본』에 ‘卞’으로 되어 있다.

7) 俟 : 『초초본』에 ‘俟’로 되어 있다.

8) 謹復 : 『상계본』에 주목산거표시가 있다.

【答鄭子中】 2)

【3】想公近將西行，或者一來相尋，日有佇望，忽得來報，知以使命急作行程，固無他顧之暇，事之喜違，每每如此，可嘆可嘆⁴⁾⁵⁾，其行僕亦嘗之，彼時家兄以銓郎在政廳，適前差者有故，改望之際，欲令滉因來觀，毋擬而得差，專是出於不意，又無圖免之暇，而遂行，其後思之，多有悔吝，蓋新出之官，未習於事，又到處人人，妄相推尊，不知不覺之間，多有自失之事，乃一不幸之舉也，知公學力素定，不至如謬者之失，然已之前失不可不告公耳，前來盛書所云，冲漠森然體用等說，正好研索，欲俟面論，故不形之文字，今既未面，又未書報，可謂兩失之，當俟後日耳，奇明彦已歸湖南否，其書今亦未及修送，情說亦不可不送，然不可浪傳，須付公行，乃可無浮沉之患，而勿

1) (1559년, 59세) 10월 12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陽月十二日]’로 되어 있다.

3) 『상계본』에 상란부전지 ‘別想止公耳’가 있다.

4)嘆 : 『상계본』에 ‘歎’으로 되어 있다.

5) 可嘆可嘆 : 『번남본』에 ‘可歎可歎’으로 되어 있다.

勿不及，深恨不敏於事，如或在京，曲傳此意，幸甚幸甚，歲暮風厲，行色萬重回使恐遲不宣，謹拜復。】

【送還冊三件皆到，未到之件，承悉尹正字，屢因公事相見，知是好人，其空帖，時未下筆，病甚故也，爲致不敏之謝⁶⁾。】

6) ……之謝：『초초본』에 상란부전지 ‘可存否’가 있다.

鄭子中與奇明彥論學，有不合，以書來問，考訂前言，以答如左。[庚申]²⁾

論沖漠無朕，萬象森然已具。【[錄■³⁾]⁴⁾】

程子曰 “沖漠無朕”，“萬象森然已具” 云云。[語見『近思錄』一卷] 朱子曰 “此言未有這事，先有這理。如未有君臣，已先有君臣之理，未有父子，已先有父子之理。不成，元無此理，直待有君臣父子，卻旋將道理入在裏面”。又曰 “今人只見前面一段事無形無兆，將謂是空蕩蕩，卻不知道沖漠無朕，萬象森然已具。” 又曰 “未有事物之時，此理已具。少間應處，只是此理。”

1) (1560년, 60세) 2월.

2) 『초초본』에 ‘答鄭子中別紙[庚申二月]’, 『중초본』에 ‘見自省錄’에 주 목말거표시를 한 ‘答鄭子中別紙[○庚申見自省錄]’, 『정초본』에 ‘鄭子中與奇明彥論學有不合以書來問考訂前言以答如左’, 『번남본』, 『상계본』에 ‘答鄭子中別紙[庚申○見自省錄]’로 되어 있다. 『정초본』에 ‘如左’ 뒤에 행간추가 ‘庚申’,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별행에 ‘[錄有鄭子中與奇明彥論學有不合以書來問考訂前言以答如左二十六字]’가 있다.

3) 錄■ : 『번남본』, 『상계본』에 없다.

4) 論沖……錄■ : 『초초본』에 없다.

5)「太極圖說」解曰 “自其著者而觀之，則動靜不同時，陰陽不同位，而太極無不在焉。自其微者而觀之，則沖漠無朕，而動靜陰陽之理，已悉具於其中矣。”

『易·序』“體用一源，顯微無間”注，朱子曰 “自理而言，則卽體而用在其中，所謂一源也。自象而言，則卽顯而微不能外，所謂無間也。”又曰 “言理則先體而後用。蓋舉體而用之理已具，所以爲一源也。言事則先顯而後微，蓋卽事而理之體可見，所以爲無間也。”

朱子【嘗[錄無嘗字⁶⁾]】「答呂子約書」曰 “道之得名，只是事物當然之理，元德直以訓行，則固不可。當時，若但以當行之路答之，則因彼之說，發吾之意，而沖漠之云，亦自通貫矣。今且以來示所引一陰一陽，君臣父子，形而上·下，沖漠氣象等說，合而析之，則陰陽也。君臣父子也。皆事物也。人之所行也。形而下者也。萬象紛羅者也。是數者，皆各⁷⁾有當然之理，卽所謂道也。當行之路也。形而上者也。沖漠之無朕

5) 『 』에 주목행간부전지 ‘以下諸條恐當連書’가 있다.

6) 錄無嘗字：『초초본』에 없다.

7) 各：『상계본』에 ‘슴’으로 되어 있다.

者也. 若以形而上者言之, 則沖漠者固爲體, 而其發於事物之間者爲之用, 若以形而下者言之, 則事物又爲體, 而其理之發見者爲之用, 不可槩謂形而上者爲道之體, 而天下達道⁸⁾爲道之用也.” 又答曰 “謂當行之路爲達道, 沖漠無昧爲道之本原, 此直是不成說話. 不謂子約見處乃只如此, 須看得只此當然之理沖漠無昧, 非此理之外別有一物沖漠無昧也. 至於形而上·下, 卻有分別, 須分得此是體彼是用, 方說得一源, 分得此是象彼是理, 方說得無間. 若只是一物, 卻不須更說一源無間也.

滉⁹⁾按, “沖漠無昧, 而萬象森然¹⁰⁾已具.” 向來愚見, 亦與明彥同. 及得來示, 因檢出朱先生說六·七條, 子細參詳, 而會其微旨, 乃知前見之差. 其答呂子約兩條, 義尤明白. 蓋 “昧” 字雖訓 “萌兆”, “無昧” 【二字[錄無二字¹¹⁾]】, 不可專作 “無萌兆” 看, 只是言無聲臭·無形影云爾. 則明彥所

8) 『 』에 행간부전지 ‘朱書道下■……■十有五字■……■’가 있다.

9) 滉 : 『초초본』에 없다.

10) 森然 : 『초초본』에 없고,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錄有森然二字]’로 되어 있다.

11) 錄無二字 : 『초초본』에 없다.

謂無萌兆之意，已包在其中矣。而所謂若天地既判，萬物既生之後，則不可著“無睽”字者，誤矣。子中因前儒舊說而爲言，故別無病痛。但其曰“此理無形・無影，而萬事・萬物之理”，此上下兩“理”字相帶累，當去上“理”字，不然，下“理”字代以“象”字，可也。

體用，當隨處活看，不可硬定說。

“形器已具，其理無睽。”此“無睽¹²⁾”卽“沖漠無睽”，豈有異耶¹³⁾？

論所當然所以然，是事是理？【錄■¹⁴⁾】

『大學或問』格物傳註¹⁵⁾，問“所以然而不可易，是指理而言，所當然而不可已，是指人心而言？”[此輔漢卿問也] 朱子曰¹⁶⁾ “下句只是指事而言。凡事固有所當然而不容已者，然又當求其所以然者何故？所以然者，理也。”

12) : 『상계본』에 없다.

13) 耶 : 『변남본』에 ‘也’로 되어 있다.

14) 論所……錄■ : 『초초본』에 없다.

15) 註 : 『초초본』, 『중초본』, 『변남본』, 『상계본』에 ‘注’로 되어 있다.

16) 朱子曰 : 『초초본』에 ‘曰’, 『중초본』, 『변남본』, 『상계본』에 ‘曰[曰錄作朱子曰]’로 되어 있다.

八條目，論“格物”曰“天下之物，必各有所以然之故與其所當然之則，所謂理也。”注，朱子曰“所當然之則，如君之仁，臣之敬，所以然之故，如君何故用仁，臣何故用敬云云”，皆天理使之然。新安陳氏曰“所當然之則，理之實處，所以然之故，乃其上一層理之源頭也。”

格物傳【又[錄無又字¹⁷⁾]】曰“自其一物之中，莫不有以見其所當然而不容已，與其所以然而¹⁸⁾不可易者”注，西山眞氏曰“如爲君當仁，臣當敬之類，乃道理合當如此，不如此則不可，故曰所當然。然仁・敬等，非人力强爲，有生之初，卽稟此理，是乃天之所與也。故曰所以然。知所當然，是知性，知所以然，是知天，謂知其理所從來也。”

『大全』書“陳安卿問，理有能然・有必然・有當然・有自然處，皆須兼之，方於“理”字¹⁹⁾訓義爲備云云。凡事皆然・能然・必然者²⁰⁾，理在事先，當然者，正就事而直言其理，自然者²¹⁾，貫事理直言之也。”

17) : 『초초본』에 없다.

18) 而 : 『상계본』에 없다.

19) 字 : 『정초본』에 ‘學’으로 되어 있고, 교정기 ‘字’가 있다.

20) 者 : 『상계본』에 없고, 교정기 ‘者’가 있다.

云云. 先生曰 “此意甚備.”

滉²²⁾按, 明彥以 “當然” 爲事, 【而[錄無而字²³⁾】 “所以然”爲理, 卽朱子與輔漢卿答問之意²⁴⁾也. 然以朱子後兩說及新安陳氏·西山眞氏·北溪陳氏諸說考之, “當然” 者, 亦固是理也. 子中·明彥兩說, 可以通看, 不相爲²⁵⁾礙, 而究極論之, “當然” 者爲理之說, 爲長. 蓋君仁·臣敬之類, 皆天命所當然之理²⁶⁾, 實精微之極致也²⁷⁾. 非外此而事別有²⁸⁾所當然也.

子中疑蔡節齋說 “自陰陽未生之時而言, 則所謂太極者, 卽在乎陰陽之中.” [說見『性理大全』『論道

21) : 『초초본』에 ‘則’,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則[則錄作者]’로 되어 있다.

22) 滉 : 『초초본』에 없다.

23) 錄無而字 : 『초초본』에 없다.

24) 意 :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說[說錄作意]’로 되어 있다.

25) 爲 : 『초초본』에 없고,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錄有爲字]’로 되어 있다.

26) 之理 : 『초초본』에 없고,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錄有之理二字]’로 되어 있다.

27) 也 : 『초초본』에 없고,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錄有也字]’로 되어 있다.

28) 此而事別有 : 『초초본』에 ‘此理而事自有’,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此理而事自有[此理而事自有錄作此而事別有]’로 되어 있다.

門』29)]

【所疑節齋蔡氏語亦見「太極圖說」注³⁰⁾詳其文則自陰陽未生之時而言則所謂太極者此下有其理已具自陰陽既生之時而言則所謂太極者十九字而其見於論道門者闕此十九字所以文義差舛如此子中看得出甚不易也³¹⁾ [錄作³²⁾】

33) 滉按，蔡氏此語，亦見「太極圖說」註³⁴⁾。詳其文則“所謂太極者”之下，“有其理已具，自陰陽既生之時而言則所謂太極者”十九字，則其語意圓足無病。其見於『論道門』者，闕此十九字，所以文義差舛如此。子中看得出，甚不易也³⁵⁾。

29) ____ ……道門：『초초본』, 『중초본』에 없고, 『정초본』, 『상계본』에 저일자, 『번남본』에 저삼자로 되어 있다.

30) 注：『상계본』에 ‘註’로 되어 있다.

31) 所疑……易也：『중초본』에 청목상란부전지 ‘此條去依錄書’가 있다.

32) 錄作：『중초본』에 산거부전지가 있다.

33) 『중초본』에 청목상란부전지 ‘一行大書’가 있다.

34) 註：『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注’로 되어 있다.

35) 滉按……易也：『중초본』, 『상계본』, 『번남본』에 소자로 되어 있다.

與鄭子中²⁾

溪上別後，闕於追問，未知何日入都？槐院權仕，世稱其苦，亦當隨地隨時，盡其義而已。正不當有所厭薄，向云爲親之切，不免時有他望，此莫大之病根，不早剷拔，恐無由入道。非唯不入道，亦無由立節爲吉人・君子也。病人，從近眼疾尤劇，心恙亦甚。離索之中，加以此撓，思得如³⁾左右晤遣此懷，何可遂耶？所纂錄亦緣無精力，久未就緒，又無宋・元以來諸儒雜著可以旁采，可恨。所諾諸書中，抄得朱門以後諸人事跡，隨所獲輒相錄寄，千萬之幸。仍須以早爲上。明彥處鄙書，不遲轉送，爲佳。滯報匝期，恐得逋慢之誚於君子人也。聞鄭靜而下去豐德欲過夏云，恐非所宜，幸與書曉之。令其速返，如何？餘惟知務植立，莫自鹵莽。【謹問.】

1) (1560년, 60세) 3월 10일.

2) 『초초본』에 ‘與鄭子中[暮春初旬]’으로 되어 있다.

3) 如 : 『상계본』에 ‘與’로 되어 있다.

答鄭子中²⁾

別後，徒增傾想，忽辱惠問，承知入都來，學履清茂，且移近舊寓之坊。深有燕鴻相違之嘆也。滉且爾³⁾憤憤，沈頓衰嬾⁴⁾，時復紬⁵⁾玩，不無無味中之雋永，以此消遣。其實孤陋離索，難望進步處，爲可嘆⁶⁾耳。鄭君心地，殊有好處，與之遊可樂。但此翁少不屑於讀書，老復耽酒，此其所闕。僕每進苦口，雖不見怒，亦不見改。近亦有一書，嘗痛責其失。今得其書，則乃出於中間所傳之誤也。吾雖誤聞而妄發，然其言有益於此翁，不知能堪之否？『易』，乃理數淵源之書，誠不可不讀。但不如『語』・『孟』・『庸』・『學』之切於學者日用工⁷⁾夫。故先正或以爲非學之急，其實莫急

1) (1560년, 60세) 3월 24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三月二十四日]’로 되어 있다.

3) 爾 : 『상계본』에 ‘以’로 되어 있다.

4) : 『초초본』, 『중초본』, 『정초본』에 ‘(亅+蘭)’으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從女■…■本亦同本嬾字’, ‘(亅+蘭)疑(亅+蘭)字’가 있다.

5) 紬 : 『상계본』에 ‘細’로 되어 있다.

6) 嘆 : 『상계본』에 ‘歎’으로 되어 있다.

於窮理盡性之學也. 所喻學不踐履, 雖有所知, 奚貴? 此真切至之言. 讀『易』時, 苟忽此意, 寢⁸⁾與義理不相交涉而日遠矣. 甚可懼也. 左相篤行清德, 可鎮浮俗, 何忽至此, 聞⁹⁾音以還, 數日惘惘. 示及『續伊洛錄』, 果有之. 金君前日, 何不相示? 今承相爲求得寄示. 甚甚幸幸. 其詳略與輟功與否, 當待見書而後決, 今不可懸斷也. 鄭書得見慰意. 復書傳示爲望. 明彦書得留意, 深荷. 此間時事, 了不聞知. 雖無所妨, 古人亦不如此. 其有不害文字間者, 時以略及, 何如¹⁰⁾? 餘冀勉勉加意, 不宣. 【謹拜復.】

【近有書寄寧姪處. 令傳上. 未審達否¹¹⁾.】

7) : 『초초본』,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功’으로 되어 있다.

8) 寢 : 『중초본』에 ‘寢’으로 되어 있고, 주목상란부전지 ‘寢’이 있다.

9)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音上疑有闕誤’, ‘傳本無闕誤’가 있다.

10) 何如 : 『상계본』에 ‘如何’로 되어 있다.

11) 近有……達否 : 『상계본』에 주목산거표시가 있다.

答鄭子中²⁾

近得流聞，知公來鄉，方欲倂問而未果，忽此枉書，專人存訊，且示盧·奇·李·鄭論學與尺牘，披閱以³⁾還。若與諸人，面相晤語，何幸如之，不任欣沃【欣沃⁴⁾】。僕凡百不異於曩日。惟覺老病與日俱進，而學力則進寸退尺。不但退尺，或至於一⁵⁾落千丈強。以是懍然，日以爲懼耳。如來喻所云駁懶之病，自家正在裏許，因示更有省發處。然如公盛年，只在勉力向前，在暮境，憂非淺淺也。承欲枉顧，甚荷。但秋熱尙熾，不須急急。請姑停，以俟來月望後秋清神爽，老生暑病可歇。且前此屢枉，每苦匆匆，未盡所懷。今當期會中間山寺，聯榻夜話爲佳。會處則龍壽寺甚

1) (1560년, 60세) 7월 13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七月十三日]’로 되어 있다. 『정초본』에 행간 부전지 ‘庚申七月’이 있다.

3) 以 : 『초초본』, 『중초본』, 『정초본』, 『상계본』에 ‘已’로 되어 있다. 『정초본』에 교정기 ‘以’, 『번남본』, 『상계본』에 원두주 ‘已一本作以’가 있다.

4) 欣沃 : 『정초본』에 말거표시가 있다.

5) 一 : 『번남본』, 『상계본』에 ‘日’로 되어 있다.

好。臨時更相報，來會庶無相違也。『魯齋集』，深荷發蒙。考亭『淵源錄』，正欲速得，而事適如此，奈何？諸君議論不一如此，非獨今日，自古而然。然自家所見，亦豈遽斷爲無可改之定論乎？略一過目，從當更詳，會日更稟耳。明彥豈能千里遣人乎？時未見來人矣。【金帶來時自隨爲當。正非急事也。餘盡俟後。惟冀加重。謹拜復⁶⁾。】

6) __帶……拜復：『상계본』에 주목산거표시가 있다.

【與鄭子中】 2)

【秋霖異常，體味何似，秋夕後會面如前約，會於龍壽寺何如，若無事故，須以十六日夙駕來宿，庶可從容矣，且公能如約，則不須更相伴報，如或有故，其前示及亦幸，惟照，適遇使人，遽未一一謹報³⁾.】

【4)空冊且受置看如何，尹正字，在京日屢因事相見，心固愛其朴茂，未知其志嚮之能若是也，深可嘉尚，而恨未緣與之相熟耳.】

1) (1560년, 60세) 8월 6일.

2) 『초초본』에 ‘與鄭子中[仲秋初六日]’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去誠一’이 있다.

3) 惟照……謹報 : 『중초본』에 산거부전지가 있다.

4) 『상계본』에 상란부전지 ‘別 尹附前書’가 있다.

答鄭子中²⁾

侔至接書，得審侍奉氣味清福，甚慰懸跂，病人一向衰嬾³⁾，眼隔昏霧，幾不辨細字．日間，雖時有見得到處，體得眞處，氣象意思，一齊恰好．只是神疲氣損，擔得此事不著．俄頃顧眄之際，不覺失去，則依然又只是舊樣人矣．詳味來喻，似亦不能無患於此，此固古今之通患．然在賢者，年富力强⁴⁾，只在勉勉不已，久熟後自有所至．若如老拙，前去光陰幾何，而尙如此悠悠，其何能有所至耶．旣望之約，退指廿二，謹已承悉，顒俟顒俟．但初所以欲會龍壽者，爲此寺幽靜有淨室，最宜款話．且籃⁵⁾輿來返稍近，可少減涉險之勞故耳．今知自此仍作豐山之行，然則不

1) (1560년, 60세) 8월 14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秋夕前一日]’로 되어 있다. 『정초본』에 행간 부전지 ‘庚申八月’이 있다.

3) : 『중초본』에 추가 ‘非誤也’를 한 상관부전지 ‘嬾恐誤上同’, 『갑진중간본』에 두주 ‘嬾本草作(卩+蘭)’이 있다.

4) 强 : 『초초본』에 ‘彊’으로 되어 있다.

5) 籃 : 『초초본』, 『중초본』, 『정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藍’으로 되어 있다. 『갑진중간본』에 두주 ‘藍當作籃’이 있다.

如直來于此。對楊溪齋，或來溫溪齋舍所謂樹谷者之爲好也。若孤山則室不甚淨，有妨雅致矣。惠示與秋巒書，精深細密，三復嘉歎。前日寄來諸人議論，纔閱視領略後，適有理會他文字，未暇⁶⁾深致思焉。近方看得盧解，有少論辨，隨手注其下。至如明彥書，姑俟別日再繹。惟於鄙論中，“覺得善惡未定”一句有所未安，甚賴明彥指出之力，思欲改下一轉語，鄭重而未果。今見來示，段段破的，而此一段，尤覺發人意思。得此助以改其謬，當不至大段乖戾也。幸幸甚甚。滉甚重明彥之爲人。其既得了，又退加工，只此一事，人所不及處。但其豪氣未除，於義理之學，尙未見細意研精。才見人說話，有不合己見處，便奮筆作勢，一向攻他胡說將去，似有立己求勝之意，恐此不是小⁷⁾病。從古許多志學之士，所以不至於大段成就者，其患盡在這裏。滉自度前所與渠書，頗竭底蘊，乃略不虛心思繹，力主本說如此，此難以口舌爭也。且當俟後日報書之來看如何？幸公將公此說，先寄扣之爲佳。多多心事，留俟，面披，未間惟珍勉。

【謹拜復。】

6) : 『상계본』에 ‘ ’로 되어 있다.

7) 小 : 『상계본』에 ‘少’로 되어 있다.

【與鄭子中】 2)

【3)日者枉冒僻險經宿披晤，爲荷爲幸，別後依依又不易言也，未知何日定發西行，吳判書·李正郎·南時甫·鄭靜而·金應順諸書，竝修同封，以往入都，發之看標面分送，幸幸，盧書，亦依前告善傳爲望，4)續淵源錄，黃仲舉亦云，此卽洪仁慶佐郎所謄本耳，非別有朱門人錄也，然須更審問兩錄與一錄中，皆欲速見，至彼加意圖送，至懇至懇，仍兼得一統志則尤好，而未敢望也5)，留示閑居廿詠，僭易評點，極知非宜，第以僕於公，未可有相外之意，見公有詞藻好處甚好，而鍛鍊精深處，尙不甚加工，往往未免有瑕漏，期以遠業，未可如此，故不揆老謬，露情至此，亦已依韻拙和，以發閑中之趣，今未及寫呈，姑以一

1) (1560년, 60세) 9월 9일.

2) 『초초본』에 ‘與鄭子中[菊節]’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去誠一’이 있다.

3) 『상계본』에 상란부전지 ‘別留示止敢耳’가 있다.

4) 續淵……望也 :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以下不書’가 있다.

5) 續淵……望也 :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以上不書’가 있다.

首，先之錄在別紙，笑覽是望，然非但未及寫前日陶山拙句，久祕巾衍，不以示人，而首以示公，意非偶然而公率爾過眼，全不會人意，僕深有自輕之悔，今呈此廿詠，亦不過如前，故不敢耳，惟冀履此歲寒，加愛勉勉，謹拜白^{6).7)}】

6) : 『번남본』, 『상계본』에 원두주 ‘白一本作復’이 있다.

7) 然非但……拜白 : 『중초본』에 산거부전지가 있다.

答鄭子中別紙²⁾

3) 星山前牧盧仁甫，作書院於迎鳳山，請記於滉。滉初不肯，再三往復，滉賞其誠懇，聊應之。其祠廟所祭，初以李兆年·李仁復，稍未恰人意，久而未定。最後，乃以金先生宏弼同祠，而其位次之定，儘有曲折，雖定而似不無後議耳。今聞時議大以仁甫爲妄作，并與周景遊⁴⁾爲不當創建書院以開流弊，幾發彈章云。若發則次第當共之矣。三兩年前，猶無此等議論，今忽有之，雖時稱向善識理之人，亦同然一辭，此又別是一等時節，可怪可歎。蓋論仁甫者，非議其所祠之不合，實以立書院爲罪。然則紹修等諸書院，賜額頒書，以獎育材之意何在？皆不可曉也。雖然，此爲子中言耳。未易與人人開口也。

1) (1560년, 60세) 9월 10~24일.

2) 『초초본』, 『중초본』, 『번남본』에 ‘別紙’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주 목추기 ‘答’을 한 상란부전지 ‘與鄭子中別紙’가 있다.

3) 『중초본』에 상란추기 ‘此別紙當入庚申年書’가 있다.

4) 景遊 : 『상계본』에 ‘遊景’으로 되어 있고, 앞뒤바꿈표시가 있다.

答鄭子中²⁾

頃日僧還，得書具悉，茲復佯來辱牋，兼示講目，足見留意非泛，甚慰所望。前書所云『淵源錄』・『一統志』，得如示諾，使窮山老境，得見所未見書，何幸如之。閒居盛什，妄有評賞，追思汗縮。病中本不合效顰，只愛高情雅致，有以喚起滯思，不能自己。前書雖有所諉，實不欲示人，故云云。今再徵取，不敢終隱，但不及謄寫，直呈元藁³⁾，覽後早晚投還，何如⁴⁾？陶山詩，作之太早，眞莊周所謂“見卵而求時夜”，蓋其屋舍皆未成，其言皆預擬者耳。近於非實，雖古人亦有如此，然尚不以示子弟者，以此故也。而前見閒居佳詠，不覺心喜，欲以平生心事所寓者，奉酬以相珍勉，所以遽出。繼而思得與前日自戒者相反，欲少⁵⁾俟⁶⁾粧⁷⁾成屋子，往來栖息之日，出示朋友，

1) (1560년, 60세) 9월 25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九月二十五日夕]’으로 되어 있다.

3) 藁 : 『갑진중간본』에 ‘ ’로 되어 있고, 교정기 ‘藁’가 있다.

4) 何如 : 『상계본』에 ‘如何’로 되어 있다.

5) 少 : 『상계본』에 ‘小’로 되어 있다.

相與一笑而罷，庶免虛作之誚，故今亦不敢依索，想容恕察也。明彦書二紙，辯⁸⁾說一冊送呈，其人辨⁹⁾博如此，志氣¹⁰⁾又如此，將來未可量也。可尚可尚。但患面前著¹¹⁾實工夫，端的田地，全未下手脚。只恃超詣之見，絕倫之才，一向胡說將去，非但不許令人容一喙，并¹²⁾與前賢與己異處，輒加非議，深恐下梢弄得來無收殺，未能大有成就也。然謬說有小偏重處，賴其言而修¹³⁾改，甚得益力。且於鄙意，有難苟同者，見已條析¹⁴⁾，以擬相質。然而觀其自處自信，恐終不能虛己以聽人也。正如被攻之說，擬之失倫，如此之言，豈不爲人笑疾？千萬戒之。所謂向善識理，謂金邦寶也。今書悠悠之歎，何異彼此，病根未除之歎？此甚可畏。滉最下庸質，獨於此處，分數大減，所以

6) : 『상계본』에 ‘挨’로 되어 있다.

7) 粧 : 『초초본』에 ‘粧’으로 되어 있다.

8) 辯 : 『중초본』, 『정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辨’으로 되어 있다.

9) 辨 : 『초초본』에 ‘辯’으로 되어 있다.

10) 氣 : 『상계본』에 없고, 교정기 ‘氣’가 있다.

11) 著 : 『상계본』에 ‘着’으로 되어 있다.

12) 并 : 『초초본』, 『중초본』, 『정초본』에 ‘併’으로 되어 있다.

13) 修 : 『상계본』에 ‘脩’로 되어 있다.

14) 析 : 『번남본』에 ‘折’로 되어 있다.

用力不甚難耳. 若終不能除而行於世, 其病不但不近於道而已. 不可不早剗滌也. 乙卯秋拙句, 全未記得, 亦無本藁¹⁵⁾, 奈何. 策題曲折, 此中亦略有聞. 前聞仁甫之謗, 今又聞此, 漆室之憂, 身不帖¹⁶⁾席. 深恐此事不但如此而已. 如之何如之何. 別紙不敢率爾, 當俟更詳. 餘惟履寒衛嗇, 益勵沖尚, 不宣. 【謹拜復.】

15) : 『갑진중간본』에 ‘ ’로 되어 있고, 두주 ‘藁當作藁’가 있다.

16) 帖 : 『갑진중간본』에 두주 ‘帖恐貼’이 있다.

答鄭子中別紙

奇明彦倂書來，極有議論。其四七之辯²⁾，別作冊子，將鄙說逐條論說。援引指摘，鋪張羅絡，浩汗汪洋，騁辯馳辭，如懸河盪海，不可測度，眞奇才也。眞益友也。其大意則只如「與靜而書」，而加敷衍搜獵，卓犖恢宏耳。淺識管窺，未易得其要領，故姑答其書大槩，而辯說隨³⁾後奉報報⁴⁾之矣。今欲呈其書・辯，知公西行已迫，勢未致詳。又觀明彦之意，所以不託⁵⁾都中士友，而直送于此，似不欲其播於都下，雖鄙意亦然。故欲俟明春下覲日奉呈，公無乃以爲遲耶？大抵鄙說病處，因自省及公與靜而書，已覺其一・二，今又因明彦說，又覺其一・二處，謹已改下語，似頗平穩無病。自餘大旨小段，雖⁶⁾未能精深，若無大謬，

1) (1560년, 60세) 10~11월.

2) 辯 : 『번남본』, 『상계본』에 ‘辨’으로 되어 있다.

3) 隨 : 『중초본』에 추가 ‘傳本無落字’를 한 주목상란부전지 ‘隨上恐有落字’가 있다.

4) 報 : 『상계본』에 산거표시가 있다.

5) 託 : 『상계본』에 ‘托’으로 되어 있다.

6) 雖 : 『상계본』에 없고, 교정기 ‘雖’가 있다.

而明彦段段攻駁，無一語得完，而自家病處，專⁷⁾不自反，此則大⁸⁾爲朋友之憂矣。奈何。

【改下語錄稟⁹⁾。】

【又不得以本然之性混稱之也¹⁰⁾。】

【今改曰。又不得純以本然之性稱之也¹¹⁾。】

【七情之發。朱子謂本有當然之則。則非無理也¹²⁾。】

【本有當然之則。本說親愛等五者。非指忿懣等四者。誤引故今改曰七情之發。程子謂之發於中。朱子亦謂之各有攸當。則固亦兼理氣也¹³⁾。¹⁴⁾】

【七情。善惡未定也。故一有之而不能察。則心不得其正。而必發而中節。然後乃謂之和¹⁵⁾。】

7) : 『갑진중간본』에 두주 ‘專恐全’이 있다.

8) 則大 : 『상계본』에 ‘大則’으로 되어 있고, 앞뒤바꿈표시가 있다.

9) 改下語錄稟 : 『중초본』에 상단과 격이자로 연결되어 있고, 『상계본』에 상단과 연결되어 있다.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下語如此書未詳’, 『상계본』에 주목산거표시가 있다.

10) 又不……之也 :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改下語數條具在四七辯中去之何如’, 주목행간부전지 ‘此下數條不書’, 『상계본』에 주목산거표시가 있다.

11) 今改……之也 : 『상계본』에 주목산거표시가 있다.

12) 七情……理也 : 『상계본』에 주목산거표시가 있다.

13) 本有……氣也 : 『상계본』에 주목산거표시가 있다.

14) 又不得……氣也 : 『중초본』에 주목행간부전지 ‘不書’가 있다.

【今改曰，七情本善而易流於惡，故其發而中節者，乃謂之和。一有之而不能察，則心已不得其正矣¹⁶⁾。】

【就理氣相成之中，偏指而獨言氣也¹⁷⁾。】

【今改曰，就理氣相成之中，兼指而主言氣也¹⁸⁾、¹⁹⁾】

【其發爲理之本體耶，此條當在本有當然之，則今改之下²⁰⁾。】

【今改曰，其發爲理之本體，不容以氣言之耶²¹⁾，四七說，公如有傳本，須依此改之²²⁾、²³⁾】

15) ……之和：『상계본』에 주목산거표시가 있다.

16) 今改……正矣：『상계본』에 주목산거표시가 있다.

17) 就理……氣也：『상계본』에 주목산거표시가 있다.

18) 今改……氣也：『상계본』에 주목산거표시가 있다.

19) 七情善……氣也：『중초본』에 청목행간부전지 ‘不書’가 있다.

20) 其發……之下：『상계본』에 주목산거표시가 있다.

21) 耶：『상계본』에 ‘也’로 되어 있다.

22) 今改……改之：『상계본』에 주목산거표시가 있다.

23) 其發爲……改之：『중초본』에 청목행간부전지 ‘不書’가 있다.

【答鄭子中】 2)

【前蒙許送來『一統志』，故遣人要取于奈城本宅，答以未來已而，具景瑞蒼頭，來致惠書及『一統志』，因審入都後安穩，慰賀何勝何勝，老物病伏深隩，邈³⁾無聞知，間得於風過，徒增曖悒，所示固然亦何足異當深戒耳，『一統志』極荷留意遠送，但小紙云二十二冊，而來者止⁴⁾二十冊，然封識不動坼⁵⁾矣，其餘畢得則何幸，恐遠處難致耳，諸公書登時分送，尤荷，不鄙朱門事蹟，許欲瞻示，素所寒竚，禮安邸，近連有下來人，『淵源錄』亦告時甫并速之何如，靜存所有朱子實錄云者，實未曾見，靜存必不見悒⁶⁾，須告取寄，幸甚，公前所寄講語及書中語，近因被他撓，尚未訂報，當俟後便，或在來春下鄉日也，⁷⁾奇君辯書，今

1) (1560년, 60세) 11월 12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十一月十二日]’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去誠一’이 있다.

3) 邈 : 『상계본』에 ‘莫’으로 되어 있다.

4) 止 : 『번남본』, 『상계본』에 ‘只’로 되어 있다.

5) 坼 : 『상계본』에 상란부전지 ‘坼恐拆之誤’가 있다.

6) 悒 : 『초초본』, 『중초본』, 『상계본』에 ‘ ’으로 되어 있다.

已答寄，宛轉以致，想難時達，一件在此，欲呈左右，但大冊異名，恐歷人眼，取怪召鬧，故未果，藏以待來耳，靜而向知其欲往天磨等處，此策非不善，須勸其速決，但不可在衙多飲酒作嬉耳，餘惟慎嘿斂踪，以養遠業，謹拜謝復.】

【『一統志』，更考則二十一冊，其中一冊，分爲二故二十二冊，今合爲一而計之，故爲二十一冊耳，非有失也.】

7) 『 』에 상란부전지 ‘別 奇止嬉耳’가 있다.

【與鄭子中】 2)

【前日具景瑞使人附去報書，領見未，且未審近況何似，尋常馳邇³⁾，僕緣今冬候反常調燮，倍費收護，猶數發病，艱⁴⁾待春和耳，前示講目，今欲答上，知來覲不遠，必在春初故姑停，但其所謂『淵源錄』及公所抄朱門人錄，難待難待，明彥得書否，靜存想必相從，爲致寒暄，景瑞今已免新否，多病當寒，何以支堪，亦不及書，見則傳之，惟照，餘祈迎泰多慶，不宣謹白.】

【似聞擬薦翰苑信否，一入要⁵⁾路，後日爲養乞外，可得耶.】

1) (1560년, 60세) 12월 12일.

2) 『초초본』에 ‘與鄭子中[臘望前三日]’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행간 부전지 ‘去誠一’이 있다.

3) 邇 : 『상계본』에 ‘溯’로 되어 있다.

4) 艱 : 『상계본』에 ‘難’으로 되어 있다.

5) 要 : 『상계본』에 ‘(田+女)’로 되어 있다.

答鄭子中[辛酉]²⁾

縣吏來傳都下書，喜得具悉，且知彼時已臨發行。佇聞稅駕之日，獲擎垂翰，承已趨庭多慶，欣賀無涯。滉老病昏憊，與年增劇，垂盡之命，無復他慮，不意又有此顛沛之勢，憂窘罔措。昨又聞寡嫂之喪，急往溫溪，馬跌溪冰，落水中，因而氣甚不平，徹夜呻吟，諺所謂“雪上加霜”者耶。朽賤一物，何預時用。而既有召旨，時論又如此，觸藩進退，兩無所宜，如之何如之何。兩難之中，必³⁾不得已者，不過如來喻而已。古人云，“出處當自決，不可謀之於人”。然人言與我脗合者，豈當避之而他圖耶？然千萬勿露此意云云事，此⁴⁾中略有所聞，而未知端⁵⁾倪。但仰屋浩歎，奈何奈何。公與和叔所教如此，可謂愛人以德。吾輩

1) (1561년, 61세) 1월 19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辛酉正月十九日]’로 되어 있다. 『정초본』에 행간부전지 ‘正月’이 있다.

3) ‘必’ 뒤에 『번남본』, 『상계본』에 ‘有’가 있다.

4) 事此 : 『정초본』에 ‘此事’로 되어 있다.

5) 知端 : 『상계본』에 없고, 교정기 ‘知端’이 있다.

立脚得定處，正在此等處，禍福非所計也。『淵源續錄』，已蒙洪佐郎送到。但亦太疎略耳。今來三冊，甚荷留意。但賤迹如此，頓無意緒可及於此等事。須少待事定，然後可下手耳。尹子固穎脫不凡，可望之人。而仕宦太早，果爲可憂。送冊及筆，領得，後當修謝，今則不暇，靜存書，如見其人，深慰病懷。許欲來枉，感跂⁶⁾深矣。但病中加病，一切謝客，不欲獨有還往。請姑停以俟迹定之日，庶得從容款洽也。前示講目，皆所自得，少有可論處，粗草愚見。今欲寫呈，落時，右臂傷戾，執筆甚艱⁷⁾。兒輩以喪事奔走，未果，當俟後日。殊愧稽緩也。明彥處答，去後無來報。餘冀學履珍厲，不宣。【謹復。】

6) : 『초초본』에 ‘企’로 되어 있다.

7) 艱 : 『갑진중간본』에 ‘難’으로 되어 있고, 원두주 ‘難一本作艱’이 있다.

答鄭子中講目²⁾

志意之辨, 晦菴³⁾諸先生說已詳, 而來辯亦得之. 但
“志公・意私”, 此公私字, 非分善惡而言, 只如今人
言公事・私事之類. 公事非必皆善, 私事非必皆惡.
但以官家事屬公共, 故謂之公事, 民間事屬私獨, 故
謂之私事耳. 亦如人心發於形氣之私, 形氣非盡私邪
也. 但言屬一己所獨云爾⁴⁾.

情之有善無惡, 四端是也. 若七情不可言無惡者, 以
其氣未必純善故也. 惻隱之發, 而有納交要譽之失
者, 意爲之, 來喻⁵⁾是也.

“仁義禮智, 性⁶⁾也.” “義者, 心之制”, 兩條所論甚

1) (1561년, 61세) 1월.

2) 『초초본』에 ‘與鄭子中講目[孟春]’, 『중초본』에 ‘與鄭子中講目’으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주목행간부전지 ‘答’, 추가 ‘在下’를 한 주목상란부전지 ‘■…■有便中接得■…■書’가 있다.

3) 菴 : 『중초본』에 ‘庵’으로 되어 있다.

4) 爾 : 『상계본』에 ‘耳’로 되어 있다.

5) 喻 : 『상계본』에 ‘諭’로 되어 있다.

6) 性 : 『초초본』, 『중초본』, 『정초본』, 『번남본』에 ‘情’으로 되어 있다. 『정초본』에 교정기 ‘性’이 있다.

善，而論義處尤精．

懲窒似正心，遷改⁷⁾似修身．然亦可以通言之，故益⁸⁾之象，程·朱皆以修身爲言，則損⁹⁾之象，可以正心爲言．可知矣．

“合虛與氣，有性之名”，所論是．

“五性感動”云云，大槩得之．蓋合理氣・統性情者心也．故感動者雖是五性，而其發也．理顯而氣順則善，氣揜而理隱則惡耳．

“無知覺”，與“陽主發散”，兩條亦是．

屯卦初爻，在三畫卦，一陽動於二陰之下，固當爲主．在六畫卦，方屯難之時，陽剛居初，以貴下賤，乃得時亨屯之人，故爲¹⁰⁾成卦之主．

朱子論詩，取西晉以前，論杜詩，取夔州以前．自今觀之，江左諸人詩，固不如西晉以前，夔州以後詩，亦太橫肆郎當，大槩則然矣．然如建安諸子詩，好者極好，而不好者亦多．子美晚年詩，橫者太橫，亦間

7) : 『상계본』에 없고, 교정기 ‘改’가 있다.

8) 益 : 『계묘교정본』에 원두주 ‘益恐損’이 있다.

9) 損 : 『계묘교정본』에 원두주 ‘損恐益’이 있다.

10) 爲 : 『상계본』에 ‘以’로 되어 있다.

有整帖平穩者。而朱子云 “然，此等處吾輩見未到，不可以臆斷。且守見定言語，俟吾義理熟・眼目高，然後徐議之耳。”

花潭所見，殊未精密¹¹⁾。觀其所著諸說，無一篇無病痛，不但如來喻¹²⁾所舉者爲然也。而其諸門人推尊，太不近情，去年，得南時甫書云，“許太輝謂花潭可比白沙”。此言何如？滉所答，今不記其詳，大槩謂白沙雖溺禪，其人品實高，花潭之學，誕而雜，恐不及白沙云云。時甫得書，以示太輝。太輝有一書來相詰，反諱其向日比白沙之說，而盛言其學。其末，有“與橫渠何異之”云。又太輝所識宗室有鍾城令者，亦嘗學於徐，亦極推其師晚年造詣之高，以斥滉說。滉度此二人，難以口舌爭，姑答之曰“花潭，公所親炙，滉則得於傳聞。似當以傳聞者爲妄。然花潭著述，滉皆得見之，不知其可比「西銘」者何書？可比『正蒙』者何書？”云云。未知渠後日用何說見報來也。末世，向學者鮮矣。其間僅得一二，而見識議論，疎而且誑如此，安得不爲世俗駭怪笑罵耶？太輝雖好人，固多

11) : 『상계본』에 ‘蜜’로 되어 있다.

12) 喻 : 『초초본』에 ‘諭’로 되어 있다.

有病痛，不謂和叔之論亦如此也。他日，若與和叔論及此，亦須以滉所問於太輝者問之，而采其說以見諭，幸甚。至如公之所辨諸條，以滉所見言之，多得其理，而往往有操戈入室處。可喜，但以徐所謂“有聚散而無有無者”，爲甚精。又自云，“其氣卻散，而與天地之氣混合無間”，此數處爲可疑。蓋理本無有無，而猶有以有無言者。若氣則至而伸，聚而形爲有，反而歸，散而滅爲無。安得謂無有無耶？〔或別有所據，某¹³⁾未記耶¹⁴⁾。〕氣之散也。自然消盡而泯滅，不待必與天地之氣混合無間而後就泯也。來喻¹⁵⁾欲令滉“辨論其是非”云云。滉方自在堂下衆人之中，安能辨人之曲直？而況昔與黃仲學論學，而偶及松堂『白鹿洞規解』，未免指摘其差失處，其門人之見者，必多不平。若今又犯此事，則其敵¹⁶⁾當尤衆矣。如之何如之何。既作之後，雖欲諱之，恐如東坡所謂泥中之鬪獸，終不得掩其迹¹⁷⁾也。然更俟一・二年，少祛其蔽，然後更議之

13) : 『중초본』에 ‘滉’으로 되어 있다.

14) 或別……記耶 : 『중초본』에 ‘作兩行’에 말거표시를 한 상란부전지 ‘自註皆單行 作兩行’이 있다.

15) 喻 : 『상계본』에 ‘諭’로 되어 있다.

16) 敵 : 『번남본』에 ‘摘’으로 되어 있다.

17) 迹 : 『번남본』, 『상계본』에 ‘跡’으로 되어 있다.

耳. “太極有動靜”之論, 甚善. “直方大”之義, 亦善. 但 “直”字之義, 只謂坤厚含藏之氣畢達, 必遂於化生之妙, 而無撓闕耳. 非謂無¹⁸⁾一毫之僞也.

18) : 『상계본』에 없고, 교정기 ‘無’가 있다.

答鄭子中²⁾

便中接得惠書，具悉侍慶多福，欣慰無量。澗落馬冰漸中，因致寒證，且傷右肱，頓覺雪上之霜。初欲力疾登途看如何。魔戲至此，又不得如料，止在家具由上狀，乞寢前命，兼鐫樞職。於臣子之義，甚有闕然。然阽危之病，所處只得如此，他無方便之路，席藁³⁾以俟，不知如何結末也？奈何奈何。所示爲親祿仕，古人所不免，然尙有不以祿養爲孝者。況因有欲速之心乎。此今人莫大之病，公能漸輕，何善如之。須勿令春風吹又生，則尤善也。前來講目，久未奉報，殊愧不敏。今略條析以往，其不中處，卻望垂誨反覆之，幸甚。尹注空冊，當如戒。但臂傷未差，亦未免稽遲耳。江舍鳩拙，尙未成形，要俟暮春間，可有栖宿處。

1) (1561년, 61세) 2월 5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二月初五日]’로 되어 있다. 『정초본』에 행간 부전지 ‘辛酉二月’, 『중초본』에 주목행간부전지 ‘此書當在講目上’, ‘上’이 있다.

3) : 『초초본』, 『중초본』, 『정초본』, 『변남본』, 『상계본』에 ‘藁’, 『갑진중간본』에 ‘蒿’로 되어 있다. 『갑진중간본』에 두주 ‘蒿當作藁’가 있다.

欲要公作第一客，幸勿違也。【餘病未一一，謹拜復⁴⁾。】

4) ……拜復：『상계본』에 주목산거표시가 있다.

與鄭子中別紙²⁾

明彦所論『天命圖說』以理氣分虛靈處，其說亦有得・有失．蓋以理氣二字，分註虛・靈二字之下，果似未安．何者？靈固氣也．然氣安能自靈？緣與理合，所以能靈．此明彦所以力言其不可分註，其說得之．故已就其文，去此二字之註³⁾，此意須告靜而知之，可也．⁴⁾但明彦又言理不可以虛言之，則先儒言理爲虛處，甚多．今豈可以欲攻分註之非，而力言理本實，不可言虛耶？蓋自其眞實無妄而言，則天下莫實於理，自其無聲無臭而言，則天下莫虛於理，只“無極而太極”一句，可見矣．而明彦據一邊，以攻本分素定之說，可乎？明彦又言“理虛故無對，無對故無加・無損之．”非，此⁵⁾則見理極精後，心所自得之妙，

1) (1561년, 61세) 2~3월.

2) 『중초본』에 주목상란부전지 ‘此書當在秋巒未死之前移置辛酉第三書下’, 행간부전지 ‘上’이 있다.

3) 註 : 『초초본』에 ‘注’로 되어 있다.

4) ? : 『초초본』에 상란부전지 ‘■……■恐當在前’이 있다.

5) 損之非此 :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損之非此則考次傳本亦同’이 있다.

非言語所能形容處，又安能與之爭是非耶？滉亦數三年來，始依稀見到此，竊恐明彥見得太快，或不屑於精思入妙，而易爲言耶？其他不勝枚舉。滉報辯未及正書，故今未竝呈，姑俟後日，或寄京中，或俟來春下鄉日也。【但自今凡所往復文字尤不欲廣人耳目須常戒應門人每遇某人書到勿於對客處告呈必俟客去或不可俟則姑受置或入內⁶⁾以伺閑處進呈爲佳且來書或用紙太長後日披閱未便後須量裁其或語長紙窮可用他紙或聯或別皆無不可也】鄉間朋友如趙士敬，確實又有志，但見理未透，病痛不少，可歎。往年所云李大用·金惇敘，皆不如前日。李在喪次，手寫朱子書一通。每來質問⁷⁾，其志向可知，而天資甚美，故尤所期望。其後絕口，更不道此學片句隻字，雖或激勸，不過微笑，或發謙言而已。金亦持服日，意向甚篤，其後一·二次入泮來，輒與前不同，今則亦絕口不言學矣。老夫獨處山樊，誰與切磨？如公學解，真不易得。而仕宦奔走，非徒與如我老友相資有斷續，又恐公志氣不甚堅確，或不能保其終不受變⁸⁾於俗也。

6) : 『상계본』에 ‘來’로 되어 있다.

7) 質問 : 『상계본』에 ‘問質’로 되어 있고, 앞뒤바꿈표시가 있다.

8) 變 : 『상계본』에 없다.

答鄭子中²⁾

【前日得連夜之款. 又同遊江舍. 爲幸則多. 但其晚暴雨. 恐中路未免蒼黃之窘. 奉慮如渴. 因循未及修問. 而忽已改月. 謂已發西行. 徒懷悵悵. 不意枉書. 始知行戒尙停. 屬念勤懇. 又不勝其愧感也.³⁾】示報秋巒之計, 其信然耶. 斯人而⁴⁾遽至此耶. 人生本不堅牢, 此翁重有⁵⁾翹檠⁶⁾之促, 其成疾日久, 每憂其難保, 苦口頻頻, 自言其不能聽用, 今果已矣. 痛惜不忍言【不忍言⁷⁾.】其人疎處太⁸⁾疎, 世俗之所嗤點, 好處甚好, 吾輩之所難得. 年未耆艾, 卒以窮死. 交遊之慟⁹⁾, 何可勝耶. 聞去年其家無升斗之入, 其何

1) (1561년, 61세) 4월 3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四月初三日]’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주목 상란부전지 ‘下明彦所論云云一書當在此書之上’이 있다.

3) 前日……感也 : 『중초본』에 주목 행간부전지 ‘以上不書’가 있다.

4) 而 : 『상계본』에 없다.

5) 有 : 『상계본』에 없다.

6) : 『초초본』,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檠’로 되어 있다.

7) 不忍言 : 『정초본』에 말거표시가 있다.

8) 太 : 『중초본』, 『번남본』에 ‘大’로 되어 있다.

以爲喪？尙賴其死於子漸之所。子漸必盡力，以歸其骸，且經紀其葬祭事矣。滉病伏遠外，莫由往哭其柩¹⁰⁾傍，幽明之際，負愧益深。白紙三束封去，須卽傳其家，兼告以病友所賻之物，懇懇。欲修慰狀於其壻¹¹⁾，而忘其姓名，茲未發書，甚自缺恨。後書，喻及其姓字¹²⁾爲望，¹³⁾且其歸葬，的在何地何時？自今其家仍在城中，或往高陽與否并及，何如？【滉近有所¹⁴⁾冗。不得料理朱門事。但時乘病暇。寫尹子固及公帖幾了，猶有未者。故今未呈納。所留疑目。亦時未奉詳。隨後爲計。止齋集欲如所戒。而其一卷。琴應夾借去未還。獨送九卷。恐尤有遺失之弊。當取還其冊。一時附信便。或俟秋來何¹⁵⁾鄉之日也。『眞西山集』得見。則何幸如之。餘惟勉學韜¹⁶⁾蹤。以副遐望。不宣。謹拜復^{17),18)}】

9) : 『상계본』에 ‘痛’으로 되어 있다.

10) 柩 : 『정초본』에 ‘樞’로 되어 있고, 교정기 ‘柩’가 있다.

11) 壻 : 『번남본』, 『상계본』에 ‘婿’로 되어 있다.

12) ‘字’ 뒤에 『상계본』에 ‘字’가 있다.

13) 『중초본』에 주목행간부전지 ‘以下不書’가 있다.

14) 所 : 『상계본』에 ‘小’로 되어 있다.

15) 何 : 『초초본』, 『중초본』, 『상계본』에 ‘下’로 되어 있다.

16) 韜 : 『초초본』, 『중초본』에 ‘韜’로 되어 있다.

【陶舍. 今可寢息於其中. 後日若賜惠然. 眞可謂
有所矣. 第猶多闕事未遂. 恒處於彼. 踰山往
來. 又難逐日. 昔人所謂. 職事甚闕者. 今日見之
矣.[齋號. 向用克字. 其未改耶^{19).20)}】

17) : 『중초본』에 탈거표시가 있다.

18) 滉近……拜復 : 『상계본』에 주목산거표시가 있다.

19) 未改耶 : 『상계본』에 ‘改耶未’로 되어 있고, ‘未’을 ‘改’ 앞으로 옮
기라는 교정표시가 있고, 상란부전지 ‘手筆未改耶作無改字’가 있다.

20) 陶舍……改耶 : 『상계본』에 주목산거표시가 있다.

答鄭子中別紙²⁾

朱子云, “志是心之所之一直去底, 意是志³⁾之經營往來底, 是那志底脚”. 凡營爲謀度往來, 皆意也. 又云, “志是公然主張要做事底, 意是私地潛行間發底. 志如伐, 意如侵.” 合此數說而觀之, 志公意私, 可見.

前書, “理顯而氣順則善, 氣揜而理隱則惡”, 初於“氣揜”之“氣”字下, 欲下“麤”字, 又欲下“暴”字, 敲推未定, 故空其處. 而其後遂忘之, 竟不填字而送納耳. 今復思之, 二字皆未當, 不如下—“揜⁴⁾”字之平穩無病也.

和叔所云 “心之有知覺, 何故能然?” 公所答, 大槩得之. 不知和叔何故更有 “未易窺測” 之云⁵⁾. 此理

1) (1561년, 61세) 4월.

2) 『초초본』에 ‘答鄭子中別紙[孟夏]’로 되어 있고, 상란부전지 ‘■……
■論當採附’가 있다.

3) 志 : 『상계본』에 없고, 교정기 ‘志’가 있다.

4) : 『상계본』에 ‘掩’으로 되어 있다.

5) 之云 : 『상계본』에 ‘云之’로 되어 있고, 앞뒤바꿈표시가 있다.

朱門所論，無餘蘊矣。有問於朱先生曰“知覺是心之靈，固如此，抑氣爲之⁶⁾耶?”曰“不專是氣，是先有知覺之理。理未知覺，氣聚成形，理與氣合，便能知覺。譬如這⁷⁾燭火，是因得這脂膏，便有許多光焰。”又曰“所覺者，心之理也。能覺者⁸⁾，氣之靈也。”滉因謂火得脂膏，而有許多光焰⁹⁾，故能燭破幽闇。鑑¹⁰⁾得水銀，而有如許¹¹⁾精明，故能照見妍媸，理氣合而¹²⁾爲心，有如許虛靈不測，故事物纔來，便能知覺。今但當因此等明訓，而加涵養¹³⁾體驗之功，積累多後，自當有豁然貫通處。若猶以爲未也。而欲別求至深至妙之理，則必墮於虛無莽蕩之域，而所惑滋甚矣。

“命是繼善，性是成性。”如此看亦得，但“繼”指流行處言，“命”指賦與處言，亦微有不同耳。

6) : 『상계본』에 ‘之爲’로 되어 있고, 앞뒤바꿈표시가 있다.

7) 這 : 『상계본』에 없고, 교정기 ‘這’가 있다.

8) 者 : 『상계본』에 없고, 교정기 ‘者’가 있다.

9) 焰 : 『초초본』에 ‘ ’으로 되어 있다.

10) 鑑 : 『상계본』에 없고, 교정기 ‘鑑’이 있다.

11) 如許 : 『상계본』에 ‘許如’로 되어 있고, 앞뒤바꿈표시가 있다.

12) 而 : 『상계본』에 없다.

13) 養 : 『초초본』에 ‘泳’으로 되어 있다.

“莫顯”・“莫見”之論，是。

『易』，逆數也。『啓蒙』中邵子・朱子說盡之。今所論雖不無其理，奈非夫¹⁴⁾子本意，何？

『先天圖』，不是伏羲畫卦次第，乃畫卦後就其中間，截¹⁵⁾斷而拗轉之¹⁶⁾，以成此圖。蓋雖似稍涉安排，而陰陽消長・運行次第不如此，不成模樣故也。若論畫卦次第，則當以橫圖言之¹⁷⁾，乃可也。今之『周易』，固文王所次，自是文王意，而其前所未嘗有者，故謂之『周易』，以別於『連山』・『歸藏』『易』耳。且文王八卦，與『周易』次第不同者，文王於八卦，見其有入用¹⁸⁾變化之妙，故改易伏羲明體之方位於六十四卦，見其有反¹⁹⁾對之象，又有相受之義，故改易二『易』之次第，二者不同，亦理勢之自然。故朱子謂後天說中，取義又不同者，正指此等而言也。伏羲只名三畫卦，文王始名六畫卦。昔有問此於晦菴先生者，答以“未

14) : 『중초본』에 추가 ‘傳本亦作夫’를 한 주목상란부전지 ‘夫字更考’가 있다.

15) 截 : 『번남본』, 『상계본』에 ‘裁’로 되어 있다.

16) ‘之’ 뒤에 『상계본』에 말거표시를 한 ‘則’이 있다.

17) ‘之’ 뒤에 『상계본』에 말거표시를 한 ‘則’이 있다.

18) 入用 : 『갑진중간본』에 두주 ‘入用當攷’가 있다.

19) 反 : 『상계본』에 ‘及’으로 되어 있다.

有所考”。吳草廬雖有是言，今何敢信其必然耶？先生答問²⁰⁾，見『語類』論『易』處。

愚意爻者，逐畫之名，位者，所居之地，胡氏以爻爲才，則猶可，以位爲志。則滉所未達，不審此說見於何處，示及爲幸。

“易有太極”・“類族辨物”，兩條得之。

聖人立卜筮之法，正如所論，神明固非如世俗所謂鬼神。然亦非是只言氣之主宰而已。朱子嘗答門人曰“神是理之乘氣以出入者。”滉謂“神明”之“神”，須作如此看，方得其妙，全靠“氣”字，便麤了些子。康節之術，二程不貴。非獨指推筭知來之術，只數學亦不以爲貴。蓋有理便有氣，有氣便有數。理不能遺氣以獨行，亦何能遺卻數耶？來喻所謂“數豈理外事”者，正是如此。但主於理，則包數在其中，其或有包不得處，不計利害，而事皆得正，主於數。則其常者，固亦理在其中，其變者，則鮮合於理，而雖趨利避害，賊倫滅義之事，皆不憚爲之，此二程所以不貴其術也。然此特因其術，而慮夫末流之弊必至於此耳。非謂康節爲然也。至於『河圖』・『洛書』，乃理數

20) : 『상계본』에 ‘問答’으로 되어 있고, 앞뒤바꿈표시가 있다.

之原。聖人於『繫辭』，既明言之，其不可舍²¹⁾此而學『易』，明矣。而二程於康節，并此而不與之講明，此則不可曉。豈此等事，發明於天地間，亦有待而然，故康節才能獨得？而至朱子然後乃大闡發，使人人皆得而與聞之耶。然則學者欲學堯夫主數而能該理，固難矣。如晦菴主理而兼明數，又安可不務哉。

五行有生成之序，有運行之序，參互錯綜，千變萬化，不可以一槩局定說。自其生²²⁾成而言之，開闢之始，固有一元五行之生成。然一歲亦有一歲之生成，一日亦有一日之生成。其生成於一歲者，不可謂厥初一元之生成者爲之。然向無一元之生成²³⁾，又豈有一歲之生成乎？其一日之於一歲，亦然。自其運行而言之，有一元之運行，有一歲之運行，有一日之運行。其運行於今日者，不可謂從古一元之運行者爲之。然若非從古之運行，亦何自而有今日之運行乎？其一日之於一歲，亦然。朱子嘗曰“氣之已散者，既化而無有矣。而根於理而日生者，固浩然而無²⁴⁾窮。”既曰“日生”

21) : 『상계본』에 ‘捨’로 되어 있다.

22) 生 : 『상계본』에 없고, 교정기 ‘生’이 있다.

23) ‘成’ 뒤에 『상계본』에 ‘者’가 있다.

24) 無 : 『번남본』, 『상계본』에 ‘不’로 되어 있다.

而“無窮”，則其日運而不窮，可知矣。此所以錯綜變化，不可以一槩說也。今以生之序，爲本其初生時而言，行之²⁵⁾序，爲自其今之行而言，恐如此排定，而無活法，不足以語造化之妙。

所論“一二三四得五，而成六七八九爲四行，得土之數”者，是。

或人所問“五行初生之²⁶⁾序，殊有意味？”故先生然之。〔氣之始，濕而已。謂天一生水也。來喻“濕”誤作“溫”，恐當改之。〕來喻疑五行有則一時俱有，非生水而後生火云云，此卽『啓蒙·天一地二章註』勉齋黃氏說之意。滉嘗深服其說，以爲確論。及考『性理大全』，載李氏希濂之說，乃苛斥黃氏，何耶？〔詳李氏所斥黃氏說，非專²⁷⁾是見於『啓蒙』者，當別有其說。然其語意與見『啓蒙』者相²⁸⁾同，故今竝引爲言。〕其間火生金之說，黃氏果誤矣。其餘黃說之誤，果皆如李說耶？李是何如人？蒙所未悉，幸有得考，明以教示。

卜以环琬，古所未聞，而後世用之。其問於神明之意，

25) : 『상계본』에 ‘之行’으로 되어 있고, 앞뒤바꿈표시가 있다.

26) 之 : 『상계본』에 없고, 교정기 ‘之’가 있다.

27) 專 : 『갑진중간본』에 두주 ‘專恐全’이 있다.

28) 者相 : 『상계본』에 없고, 교정기 ‘者相’이 있다.

則與古奚異？然其爲物，不能如蓍龜之靈，則安能保其必得神明之告而不差乎？只緣龜卜不傳，蓍草又不可得，則不得已而用其次。故其於筮占，亦用竹筭，意亦如此耳。

“飯含”云云。不獨飯含，如斂絞・舉屍・撫屍之類，皆喪者所當自爲。古人於此，非不知有所不忍，所以必如是者，以愛親之至，痛迫之情，當此終天之事，不自爲而付之人，尤所不忍，故古禮如此。今人不忍於小不忍，而反忍於大不忍，切恐不可之大者也。

“班祔”註。妻祔于祖妣，所喻²⁹⁾者是。而有子之妻，則既祔而主還几筵，及喪畢，別置他室或子室³⁰⁾，可也。

卑幼於尊長，四拜・六拜，未有所考。但嘗見『程氏遺書』一卷有云，“家祭皆當以兩拜爲禮。”今人事生，以四拜爲再拜之禮者，蓋中間有問安之事故也。事死如事生，誠意則當如此。至如死而問安，卻是瀆神。若祭祀，有祝有告・謝³¹⁾神等事，則自當有四拜六拜

29) : 『초초본』,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諭’로 되어 있다.

30) 別置……子室 :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別置及子室可疑傳本同’이 있다.

31) 謝 : 『번남본』에 ‘事’로 되어 있다.

之禮。據此而推之，則四拜・六拜之義，可知矣³²⁾。但今家禮，不論祭之有祝・有告等，而皆爲再拜。至丘瓊山，則又皆爲四拜，此又未知其何意耳。

爲庶之服，人多疑問。非徒『家禮』・『大明律』等書無之，如『儀禮』經傳，乃集合古禮，無不該載，而亦無其文。尋常不曉其意。竊³³⁾恐古人，適庶之分雖嚴，而骨肉之恩無異。非如今人待之如奴隸。故其制服無所差別歟？未可知也。

父不與祭，而使子弟攝行。則當依宗子越在他國而命介子代祭之例，曰“孝子某使子某。”

忌日與喪三年，竝祭考妣，非禮無疑。其遵俗行之無害之說，或可用於忌³⁴⁾祭矣。若於喪三年則吉凶并行，祝辭・哀哭，既不可專主於一位，又不可兼行於兩位，於此最所難處。靜存之說，亦去泰・去甚之謂耳。父喪・母喪，其爲非禮一也³⁵⁾。

“七七”齋，聞出於竺教，而不知其何謂。然古人論

32) : 『상계본』에 없고, 교정기 ‘矣’가 있다.

33) 竊 : 『상계본』에 ‘切’로 되어 있다.

34) 於忌 : 『상계본』에 ‘忌於’로 되어 있고, 앞뒤바꿈표시가 있다.

35) 忌日……子某 : 『상계본』에 상단과 연결되어 있다.

此等事非一．皆以開諭得許，爲第一義．若不幸而終不得許，則亦不可拂親意，此亦古人已言之．今當信古，而以至誠行之．如父母無命，而只出於兄弟之意，則亦當倣右意處之．而其從・違之間，難易輕重之差，比於父母之命，則不無斟酌．要在不失友悌之情，而惻怛委曲以行之耳．³⁶⁾所論“勿忘勿助”與“鳶飛魚躍”之義，以爲取譬之意但取其自然無爲之氣象者，善矣．然觀古人論此諸說，蓋非取譬以言其氣象，乃因此而舉彼，以見道體自然發見流行之實．如“勿忘勿助”，則道之在我，而自然發見流行之實，可見．鳶飛魚躍，則道之在物，而自然發見流行之實，可見．又如引“浴沂詠歸”而竝言，則“浴沂詠歸”，道之在日用，而自然發見流行之實，可見，如是而已．如何如何．“將讀書，程課繫縛此心，爲但教此心不走作耳”．此論甚善．程子論司馬溫公・呂申公出處不同處．來諭以爲晦菴・南軒出處亦然者，亦善．世臣雖與他人不同，然諫不用，言不聽，則亦安得不去，但其去之之決，不得如他人之輕且易耳³⁷⁾.³⁸⁾

36) ‘ ’ 앞에 『상계본』에 주목 ‘○’이 있다. 『중초본』에 주목상란부전지 ‘別條’가 있다.

37) 所論勿忘……易耳 : 『정초본』, 『상계본』에 별행으로 되어 있다.

【與鄭子中】 2)

【自公西行，未聞音耗，遡風何堪何堪，滉今在陶山，寂無應接，其於養病，可不謂爰得我所耶，前留別紙已有草，不欲遠致，姑待秋來耳，就中安東府司，所祀三功臣事，大槩想公已聞之，今府伯，以權幸裔孫，來莅本府，有所增措於祀事，囑滉以粗記事首末，以爲後考，苦辭至今，今則瓜期不遠，煎迫益力，試略應之，則其事蹟漫不可考，其見於通鑑史略輿地誌等書，草草不足爲據，欲考麗史，則鄉隣無蓄麗史者，城中則可易得之，公須撥煩求得，若有傳則金宣平權幸張吉三人，必同傳，無傳則於麗祖紀內始末³⁾，詳考，隨得謄送爲幸，其稱三人之功，只因以古⁴⁾昌降麗之故抑其後別有立功歟，皆不可知，其稱太師，亦

38) ‘ ’ 뒤에 『상계본』에 말거표시를 한 ‘去之之決不得如他人之輕且易耳’가 있다.

1) 신유년(1561년, 61세) 5월 7일.

2) 『초초본』에 ‘與鄭子中[五月初七日]’로 되어 있다.

3) 末 : 『상계본』에 ‘末’로 되어 있다.

4) 古 : 『번남본』, 『상계본』에 ‘吉’로 되어 있다.

未知生授與死贈，凡系三人事，一皆考示，爲望，雷
變可駭，餘未一一.】

【與鄭子中】 2)

【夏間遣一書，未知達否，久絕聞問，頗深鬱鬱，近見邸報與薦史館，想今已經試入館與否，自是雲路騰騫，風波杳然，不知當如何也，秋來猶可請告來覲耶，抑地禁職劇，未得如意耶，病人一味癯憊，外無可言者，就中前扣『高麗史』內欲考金宣平・權幸・張吉三人，有傳與否，有則欲傳以見寄，雖無傳，其事蹟必詳，見麗祖紀中，須煩爲錄示望望權府使欲爲此三人有所紀³⁾述，煎迫甚至，苦辭不聽可笑，今欲考出看如何，外方無其史，故曾叩⁴⁾之若已考出，須於孫兒安道奴馬還時，付送何如⁵⁾，餘皆留俟下鄉之⁶⁾日⁷⁾，不具，謹拜白⁸⁾。】

1) (1561년, 61세) 7월 5일.

2) 『초초본』에 ‘與鄭子中[七月初五日]’로 되어 있다.

3) 紀 : 『번남본』, 『상계본』에 ‘記’로 되어 있다.

4) 叩 : 『상계본』에 ‘考’로 되어 있다.

5) 何如 : 『번남본』, 『상계본』에 ‘如何’로 되어 있다.

6) 之 : 『상계본』에 없고, 교정기 ‘之’가 있다.

7) ‘日’ 뒤에 『상계본』에 ‘也’가 있다.

8) 餘皆……拜白 : 『중초본』에 산거부전지가 있다.

【和叔下鄉後得信否，聞韓士炯竝有喪，未知然否，欲作吊書，恐或妄發故未果耳，時甫好在否，今年絕不得書悵戀⁹⁾，尺札附去，幸爲我傳之.】

9) : 『번남본』, 『상계본』에 ‘然’으로 되어 있다.

答鄭子中²⁾

音耗久闊，承見華翰，喜幸無比。且審所以入翰苑難避曲折，其勢則固有然者。以高明才分，秉筆螭³⁾頭，乃所當然，亦安用避爲？但今世仕宦由要路者，必至於伊優而失故步，入苑正是要路之始，故前者，甚憂公之不免者以此，今果不免矣。干求之謗，所示亦然。滉在此深山之中，亦曾聞人有以此議公者。滉亦疑其不慎交遊之所召也。“有改無勉”兩句，正當十分用力處。然自今待其人，尤當慎審。蓋既不可太露，又不可苟合。如失其宜，則他日狼狽，未⁴⁾必不由於此也。秋巒碣銘，子漸欲圖之，於長逝者，可少幸矣。但僕未敢當其責而得其言耳。和叔壙誌，見示爲望。權幸等三人事示及，荷感。然滉本意，『麗史』所載雖略⁵⁾，欲得其文字，要有與他書相證左處故也。今只

1) (1561년, 61세) 8월 14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八月望前一日]’로 되어 있다. 『초초본』에 여백부전지 ‘答鄭子中’, 『정초본』에 행간부전지 ‘辛酉八月’이 있다.

3) 螭 : 『중초본』에 격일자로 되어 있고, 상란부전지 ‘空一字書之未詳’이 있다.

4) 未 : 『상계본』에 ‘不’로 되어 있다.

云太略，而不及其文字，爲未盡耳。時事如聾如瞽，理勢然也。南還非但不速，雖來，恐難相從。惟祈千戒萬勵，以副老懇。【謹拜復。】

【靜存。想佳健矣。前來『朱子實紀』⁶⁾六冊中『年譜』一冊。本不送來否。初受時不審冊數。今此一冊無之。意公知滉自有『年譜』。故其一冊不送來矣。示破爲望。聞尹子固爲漣川縣監。信否。想爲親乞外。可謂得計。其帖已寫訖。俟公下鄉。附送爲意。】

5) : 『상계본』에 ‘若’으로 되어 있다.

6) 紀 : 『상계본』에 ‘記’로 되어 있다.

【與鄭子中】²⁾

【新霜凉凜，氣味想益佳頃，以一書附便，未知垂覽否，一般心事，少見其書，今以景瑞將至，坐待江上，未暇他及但³⁾前還『止齋集』中一卷，遺在此，且尹子固帖寫就同封，托景瑞送去，視至爲佳，何時來觀，未間，珍勵，謹拜.】

1) (1561년, 61세) 8월 29일.

2) 『초초본』에 ‘與鄭子中[仲秋廿九日]’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去誠一’이 있다.

3) 新霜……及但 :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以上不書’가 있다.

【答鄭子中】 2)

【³⁾近承辱回，具悉示喻之意，深幸深幸，⁴⁾ 每書有⁵⁾齒舌之云，不知緣何有此可怪之中，知其亦無足怪，惟當自反猛省，懲忿遷善兩致其功，而語穿心兵亦毋⁶⁾忘戒爲佳，權太師考示書已承領矣，其人亦爾殊爲可惜，其不爾者可尙如何，王詩深有意味，但亦有一說，他人患在多變，而此人患在不變耳，筆墨佳貺，荷感荷感，南來定在何時，企企，就中『大明一統志』內吳必大，見於武昌府興國而本張末端僅有其名，而其次一張闕焉，其事實未得考錄，恨恨，右『志』武昌府卷內，必大事蹟，搜考錄寄，懇望，此事尤欲速見，報示，如無來信，須問安東京邸有來府者附書，令傳于李訓導演處，且囑演以謹傳之意，必能不至稽失也，惟照，謹拜白。】

1) (1561년, 61세) 9월 25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九月廿五日]’로 되어 있다.

3) 『상계본』에 상란부전지 ‘別近止耳就中止失也’가 있다.

4) 近承……深幸 :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以上不書’가 있다.

5) 書有 : 『상계본』에 ‘有書’로 되어 있고, 앞뒤바꿈표시가 있다.

6) 毋 : 『상계본』에 ‘無’로 되어 있다.

答鄭子中²⁾

自京惠書頻頻，既極荷感。冬深，未聞來音爲訝。忽奉辱書，知己稅駕故里，懽侍慶勝，欣賀萬萬。滉幸此跼伏，免被外撓。但日覺老昏之加，而不奈精力之退。或有所見，無地以崇之，自嘆³⁾其回頭之晚而至於此也。職思之憂，固宜如此，人之難知，自古所歎⁴⁾，今也尤甚。乃知古有絕人逃世者，其意固有在，可慨想也。然吾輩正當自力，何暇⁵⁾責人？要令人之視我，無至於如我視人耳。吳伯豐，朱門高弟⁶⁾，『宋史·道學傳』，獨遺此人，可怪。而『一統志』伯豐處，適又缺落，懼無從考得。今得錄示，何幸如之。此事今粗就藁⁷⁾，欲借諸友謄正一件，而試聲之至，皆有

1) (1561년, 61세) 12월 1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臘月朔日]’로 되어 있다.

3)嘆 : 『번남본』, 『상계본』에 ‘歎’으로 되어 있다.

4)歎 : 『번남본』에 ‘嘆’으로 되어 있다.

5)暇 : 『상계본』에 ‘ ’로 되어 있다.

6)弟 : 『초초본』에 ‘第’로 되어 있다.

7)藁 : 『갑진중간본』에 ‘藁’로 되어 있고, 교정기 ‘藁’가 있다.

忽忽⁸⁾之役. 誰人肯作閒工夫耶. 兩朴果皆好人, 然皆未有向上一著見到處, 不知所就終如何也? 和叔屢⁹⁾見擬目, 恐不如且在閒地之爲上也. 奇君事, 所喻正然, 尋常所憂, 在此人也. 承許見枉, 當於陶山書舍, 擁爐¹⁰⁾夜話. 企企, 前來『講目』, 不欲寄入都中, 今乃送呈, 晚可愧耳. 【餘留對晤. 謹拜復¹¹⁾.】

【前去明彦往復書等. 皆携來¹²⁾.】

8) 忽 : 『 』에 ‘匆匆’으로 되어 있다.

9) 屢 : 『상계본』에 ‘累’로 되어 있다.

10) 爐 : 『상계본』에 ‘爐’로 되어 있다.

11) 餘留……拜復 : 『상계본』에 주목산거표시가 있다.

12) 前去……携來 : 『상계본』에 주목산거표시가 있다.

【與鄭子中[壬戌]】 2)

【去後，未聞動靜，馳戀馳戀，前云春夏之交，下鄉可期耶，近事不敢奉問，但明彦想已仕槐院久矣，孫兒之行，適冗擾，未及奉書，幸爲致意，深望深望，秋巒碣文，尙依違未草，恐子漸以我爲異也 非異也，有所商量耳，靜存舊病今如何，亦望多問，皆不及書愧恨耳，餘惟慎重萬萬，不一，謹拜問.】

1) (1562년, 62세) 2월 5일.

2) 『초초본』에 ‘與鄭子中[壬戌二月初五日]’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去誠一’이 있다.

【與鄭子中】 2)

【傳聞下來，田家乏人，久未相問，卽日侍懽外，趣味想倍清茂，滉春間常在陶山，可至仲夏末方罷，因守僧得病可疑，昨避入溪莊，村務多冗，益令人懷山不置也，前留講目，輒寫瞽說以往，其有差謬，痛惠駁正，庶歸至當，幸甚，何時還上，欲一見攄此伊鬱，但公每來，每枉一遭，恐或難作，恒例且陶山如彼，而溪上茅齋，茅捲雨³⁾漏，欲牽補未能，無可聯床夜話處，如何如何，僧還，示以來否，可來則前云龍壽寺幽寂可會處，無過於此也，秋巒碣文之作，非敢憚勞，終有難著語處，非但此也，在京相識中，有以碑碣見囑，苦辭不應者非一二家，今若爲此，則彼不得所求者，怨怒益深，故遲至于今，想子漸深以我爲相負幽明間也，仍念公於秋巒，契⁴⁾義不減於滉，而無

1) (1562년, 62세) 4월 5일.

2) 『초초본』에 ‘與鄭子中[四月初五日]’로 되어 있다.

3) 雨 : 『중초본』에 ‘兩’으로 되어 있고, 상란부전지 ‘兩疑雨字’, ‘傳本作雨’가 있다.

4) 契 : 『상계본』에 ‘稷’로 되어 있다.

取怒他人之患，須得公作此文，以成子漸之志，豈不兩全乎，然慎勿過爲稱揚之語，只著實無沒其善，可也，子漸所撰行狀和叔誌銘并送，照領，毋辭草成見示，或可商量後用之也，所欲言無限，姑不能縷，惟德履益珍，謹拜白⁵⁾.】

5) ____……拜白：『중초본』에 산거부전지가 있다.

答鄭子中[壬戌]²⁾

頃因來書，凝佇數日而未得．茲蒙示喻，審知方在侍藥，適被召旨，行止遲速之間，儘有商量，又豈暇他有過訪意耶？無任悵惘³⁾．所云秋巒碣文，盛意皆當．滉於巒老，豈有相負之理？其所以難於下筆者，雖曰恐取怨於曾辭之家，此則可不屑計，只於措辭，有甚難者．爲其掩⁴⁾實，則非所以待秋巒也．紀實則又大有未滿人意．兩者之間，自滉處之之難，更有甚於他人者．以此益難，遲遲至此，想其家及子漸⁵⁾，深怪於吾之慢也．前日敢⁶⁾送誌狀者，欲得公筆草成，相與訂定而用之，乃未蒙肯，尤不知所以爲計也．從當

1) (1562년, 62세) 4월 19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四月十九日]’, 『중초본』, 『정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答鄭子中’으로 되어 있다. 『정초본』에 행간부전지 ‘壬戌四月’이 있다.

3) 悵惘 : 『초초본』, 『중초본』, 『정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悵惘悵惘’으로 되어 있다. 『정초본』에 뒤의 ‘悵惘’에 밑거표시가 있다.

4) 掩 : 『상계본』에 ‘ ’으로 되어 있다.

5) 子漸 : 『초초본』에 주목상란부전지 ‘■……■漸子進■……■公請碣文’이 있다.

6) 敢 : 『갑진중간본』에 두주 ‘敢恐請’이 있다.

更思而報去，惟照，并告其家以不可欲速而貽悔召闇之意。幸甚幸甚。見囑題畫，甚荷不鄙，但恐拙詠，適足以累雅賞耳。姑留山室，以洗病鬱，惟鑑察。因有小集，諸友在門，不能一一，惟冀爲道萬加珍卮，以副老懇。【謹拜復。】

答鄭子中²⁾

聞當有覲行，以新入銀臺，恐難如意．承辱書，知己趨庭，傾豁倍深．新到固難出入，矧又有營幹耶？來月望，滉亦親忌．俟兩過後，謀會於曩所云龍山僧寺，或直抵陶山，皆無不可．佇幸佇幸．但夙夜賢勞，無暇執冊，勢也如此³⁾．野老幸而免此，尋常以書自繞，而病不能讀，雖或寓目，隨掩隨忘，恰與不看無異．常念古昔⁴⁾聖賢，留得許多經籍，以俟來哲，其意爲如何哉？而既不屬那邊，又不屬這邊，舉一世無人肯管了．可嘆⁵⁾又可懼．如之何如之何．然到此桑榆之景，浪作此念，畢竟何補？願公視以爲戒，故妄及之耳．⁶⁾聞奇明彦來久矣．不得一字相問，不知爲況如

1) (1562년, 62세) 9월 25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九月二十五日]’로 되어 있다. 『정초본』에 행간부전지 ‘壬戌四月’이 있다.

3) 如此 : 『정초본』에 추가 ‘子中本亦作此’를 한 상란부전지 ‘如此恐作如何爲是’, 『중초본』에 추가 ‘傳本亦作如此’를 한 주목상란부전지 ‘{如此}疑如何’가 있다.

4) 昔 : 『상계본』에 없고, 교정기 ‘昔’이 있다.

5) 嘆 : 『번남본』에 ‘歎’으로 되어 있다.

6)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以下不書’가 있다.

何？金應順出身後，尙未修賀，每以自愧．今示傳寄其信，而書不至，其或偶遺拈附⁷⁾耶？無乃來使道遺之否？前來畫幅，已爲洩墨，適置溪舍．今未付上，當俟⁸⁾後便也．管城香藥，珍惠感佩．鄭子精・趙士敬，皆相聚在此．子精聞已入實，今且去矣．餘皆留面款，草此謝報．

秋巒家如何？子漸已遞豐邑否？碣文未敢出，其家必深怪望．非面未悉．

7) : 『상계본』에 ‘拈’로 되어 있다.

8) 俟 : 『초초본』에 ‘俟’로 되어 있다.

答鄭子中別紙²⁾

“動而生陽只是理，做已發看不得”一條，來喻³⁾大意得之，但未免間有語病耳。如曰“萬物之理，雖是天地之理，若無生物之理，萬物何緣有此理乎？”則是天地之理與生物之理，似若有二理也。曰“惟其有所以生是物之理，故能有是物。”[止]“何莫非天地之理？”此固是如此。但以是發明延平所言之理，似不親切，乃是剩出之語耳。曰“但言人心動・靜，非以此爲理也。至於大本達道，方是言理耳。”此段尤未安，欲改云“但言人心動・靜，非就天地之理言動・靜也。然人心動・靜之理，卽天地動靜之理，非有二也。故云至於見得大本達道處，又袞同只是此理也。”延平答朱子曰“復見天地之心，此便是動而生陽之理。”按朱子嘗曰“理有動靜，故氣有動靜，若理無動靜，氣何自而有動靜乎？”蓋理動則氣隨而生，氣

1) (1562년, 62세) 10월 1~16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別紙[十月]’로 되어 있고, 상란부전지 ‘■……
■論採附’가 있다.

3) 喻 : 『상계본』에 ‘諭’로 되어 있다.

動則理隨而顯。濂溪云，“太極動而生陽”，是言理動而氣生也。『易』言“復，其見天地之心”，是言氣動而理顯，故可見也。[凡言心者⁴⁾，皆兼理氣看.] 二者皆屬造化，而非二致。故延平以『復』見天地之心，爲動而生陽之理，其言約而盡矣。若朱子所引喜怒哀樂“已發”·“未發”，雖亦合理氣而言，只是就人心言動靜，不可與說造化處牽合爲說，故延平不以爲然耳。[此朱子初年所見，後來無此等說.] 今曰“朱子似以動而生陽，專作氣看，故以爲已發”，恐未必然也。又曰⁵⁾“所謂一陽生者，專指氣言，其下係之以見天地之心，然後專是言理”。亦恐太分開看了。

“約而言之，動而生陽，主言理而氣在其中，此一句極是，未發已發，專指氣言耳。”此則未然。當云“兼理氣渾淪說也。”[喜怒哀樂，與惻隱·羞惡等對說而後有屬理·屬氣之分耳.] 其下“動而生陽”，[止] 重在氣上，看得儘精。

“仁”字極難說，“仁”是心之正理，須是覺這理⁶⁾。

4) : 『상계본』에 없고, 교정기 ‘者’가 있다.

5) ‘曰’ 뒤에 『상계본』에 주목권점 ‘○’가 있다.

6) 理 : 『상계본』에 ‘裏’로 되어 있다.

“仁者心之德”，四條說，皆得之⁷⁾。

“⁸⁾虛能生氣”之“虛”，若作“理”字看則無害。但老氏元⁹⁾不識“理”字，何可遷就爲說耶？

“用處亦不見形狀”。“用”字上，若下¹⁰⁾“心”之二字，義更分明，如何。

“手持足行目視耳聽。”花潭但謂氣之妙處，而不歸之於理，固是偏¹¹⁾也。但來喻“非心使之也”一句，亦不覺墮在花潭病處。恐當曰“云云耳聽，皆有天則，而主之者心也。然而有時不待心使之而自能然者。”如此下語，其意方盡。又“其實理使然也”。“理”字作“心”字如何？

花潭“冰¹²⁾器涓滴”，及“雷霆”之說，恐或然也。

“雨露”·“雲散”·“人¹³⁾得水爲精”，三條皆善。

7) ……得之：『중초본』에 극행으로, 『상계본』에 상단과 연결되어 있다.

8) ‘虛’ 앞에 『상계본』에 주목권점 ‘○’가 있다.

9) 元：『상계본』에 ‘原’으로 되어 있다.

10) ‘下’ 뒤에 『상계본』에 ‘字’가 있다.

11) 偏：『상계본』에 ‘徧’으로 되어 있다.

12) 冰：『번남본』, 『상계본』에 ‘水’로 되어 있다. 『상계본』에 주목두 주 ‘水印冰’이 있다.

13) 人：『상계본』에 격일자로 되어 있다.

“一¹⁴⁾人之身，六十四卦三百八十四爻皆備。”固然，但如此漫漫地認取，恐無益也¹⁵⁾。

莊子所見，高於康節處，今不可揣度而言，其氣豪於康節處，則因其語而可知。由其氣豪而辭蕩，故言之能極其所見之高處，此康節所以有不及也。然而彼之毀聖蔑禮，得罪名教之病，康節卻無之，何可比同之耶？恐朱子此語，有爲而發，姑舉其一端而言之，非全論二人之優劣也。和靖迎觀音事，誠不知其意。如程·朱子，必不爲之，後¹⁶⁾學亦何敢學此等事耶？

道體流行於日用應酬之間，無有頃刻停息。故必有事而勿忘，不容毫髮安排，故須勿正與助長。然後心與理一，而道體之在我，無虧欠，無壅遏矣。來喻已略見此意，故能有味於延平道體之言，更宜深加玩養體察，不可只如此便謂已了。

末二條“功利”之說，“沖漠無極”之說，皆善。

14) : 『상계본』에 격이자로 되어 있다.

15) 一人……益也 : 『상계본』에 상단과 연결되어 있다.

16) 後 : 『상계본』에 없고, 교정기 ‘後’가 있다.

【與鄭子中】 2)

【險路夜行何如，幸荷臨顧，適值客到，殊³⁾未晤洽，且公行雖有遣駟，還集之弊，未爲不可私宿，況非有如往年護送時，王事趁程之急乃不解，挽宿夜話，追覺此意，臥不成寐，老謬處事之失宜如此，深恨深恨，霜寒惟祈好行，謹此奉問.】

【河東宰朴思恭，滉在京時，隣舊，送雪菊兩色牋，昨夕適來，以奉游⁴⁾戲翰墨之需⁵⁾.】

1) (1562년, 62세) 10월 17일.

2) 『초초본』에 ‘與鄭子中[陽月十七]’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去誠一’이 있다.

3) 殊 : 『상계본』에 없다.

4) 游 : 『상계본』에 ‘遊’로 되어 있다.

5) 河東……之需 : 『상계본』에 상란부전지 ‘別 附于下書末’이 있다.

【與鄭子中】 2)

【³⁾別後未嗣音，未知動履何似，懸想無已，僕他皆依舊，但近於方伯相見日，不覺過飲，多至⁴⁾失常，恨懼方深，年來自謂已免此過，一日不戒，復墮舊窠，人心操舍之間，眞⁵⁾可畏也，留畫六幅六絕呈洸，視至一笑，秋巒碣文今欲送傳，更思之，吾兩人，雖慎秘勿播，旣入彼家，寧保不犯人眼耶，只今宰相家，以碑文敦迫者三四家，皆以未嘗作辭之，忽播此文字，彼將指此煎迫尤力，欲從之則有不可，欲終辭則怨怒難解，碑碣之分，何能戶曉耶，患害非輕，以此姑停，況子漸罷官，亦無可辦之力，不須汲汲，須以此懇喻子漸以紓其悶，幸甚，旣作之文，遲速間豈無可出時耶，何日發行，寒沍，惟幾愆重千萬謹，拜問。】

【應順處答簡望傳^{6).7)}】

-
- 1) (1562년, 62세) 11월 1일.
2) 『초초본』에 ‘與鄭子中[至月初吉]’로 되어 있다.
3) 『상계본』에 상란부전지 ‘別 時耶’가 있다.
4) 多至 : 『상계본』에 ‘至多’로 되어 있다.
5) 眞 : 『상계본』에 ‘直’으로 되어 있다.

答鄭子中²⁾

臨行，撥煩侔問，佩荷垂意之至。示喻仕宦之害人，果爲非虛。而能知此事之爲害如公者，亦鮮矣。然亦有人每歎而終不免墮落者。願公毋欲速，毋沒榮光，常思有初無終之可恥甚於撻市，而日夕策勵，則庶或有望，不然，只是袞同過一世矣。其隳名辱節之間，或反有甚於隨俗出沒者矣。碣文，已悉諭³⁾意，滉非故欲持⁴⁾難於死友之間，事有極難處者故也。昨，趙先生孝直之子全州判官容，遣子弟來，求先生碑文，此又最難處之一事，已以例不作，拒之而⁵⁾去。一開其端，此等益無可如何？何可輕耶。但有一事，觀其

6) ……望傳：『상계본』에 상단과 격이자로 연결되어 있다.

7) 謹拜問……望傳：『중초본』에 산거부전지가 있다.

1) 임술년(1562년, 62세) 11월 8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至月初八日]’로 되어 있다. 『정초본』에 행간 부전지 ‘壬戌十一月’이 있다.

3) 諭：『변남본』, 『상계본』에 ‘喻’로 되어 있다.

4) 持：『변남본』, 『상계본』에 ‘遲’로 되어 있다. 『상계본』에 상란부전지 ‘遲印持’가 있다.

5) 而：『상계본』에 없다.

行狀，乃洪上舍仁祐⁶⁾所撰，而事蹟殊多逸闕，未免草草，假使有作者，不可據其狀以撰。故已告其子弟，令其極意更求，添補事實，庶幾先賢有傳於後世，不知公亦能有聞見，可得錄示耶？其狀如未曾見，後當錄上，然亦須勿煩爲幸。其子弟亦以隨聞見示及事見囑，故欲得之耳。【⁷⁾尹子固事。真是可尙可尙。子固處拙迹⁸⁾之往。非不足也。今不當更多姑留之看。如何。子進前送紙。近才寫去。而復此送來。病者何堪耶。傳語子進着⁹⁾實工夫。不在于此。須於一部心經內求之可也。太輝啓辭。可得聞耶。寒沍。惟冀好行千萬。不宣。謹拜復。】

【孫兒安道處。小簡命傳何如¹⁰⁾。】

6) : 『상계본』에 ‘佑’로 되어 있다.

7) 『상계본』에 상란부전지 ‘別 尹止可也’가 있다.

8) 迹 : 『상계본』에 ‘跡’으로 되어 있다.

9) 着 : 『초초본』에 ‘著’로 되어 있다.

10) 尹子……何如 : 『상계본』에 주묵산거표시가 있다.

【答鄭子中^[癸亥]】 2)

【邑宰之來，承惠書，知去要劇就清選，體況益勝，欣賀不已，自此可以料理舊業，正如來示，惟在加勉如何耳，滉因春寒異常，久自閉縮，今始出在山堂，但苦昏憊，未免作輟³⁾，殊無見成工程，思之不覺悚厲，示喻論人之難九折之喻，誠然誠然，此間又有寒心事，敞⁴⁾邑前宰之罷，滉與左右多上人口舌，在公尙未安，滉以土民而有此，寧不聳懼聳懼，暮春公雖下鄉，滉於今次不欲相從以少避世俗之猜謗也，如何如何，其辭緣姑不形於筆牘，惟默會幸甚，謹拜復⁵⁾。】

【明彥猶在翰苑否，年前一書尙未見報，未知何也，聞景瑞近當下鄉，故不修⁶⁾問耳。】

1) (1563년, 63세) 2월 15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癸亥二月望日○子中時說書]’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校誠一’이 있다.

3) 輟 : 『상계본』에 ‘輟’로 되어 있다.

4) 敞 : 『상계본』에 ‘敞’으로 되어 있다.

5) 謹拜復 : 『초초본』에 행간부전지 ‘謹拜復此等文字皆刪去何如’, 『중초본』에 산거부전지가 있다.

6) 修 : 『상계본』에 ‘脩’로 되어 있다.

【答鄭子中】 2)

【久聞來覲，今承稅駕多日，欣慰欣慰，滉凡百不異於前，所異者顏鬢，眞如古人所謂今朝開鏡匣，疑是別逢人者耳，縣宰之罷，滉以土民亦上人口，豈不甚懼，處甚懼之道，要當少異於常日所爲，庶可心事相副，故果有不欲相見之意，前日以此懇景瑞，景瑞既不聽用，而公今亦然，老物其何以免人之猜謗耶，然當見不見³⁾，恨亦非細，當痛掃山室⁴⁾，共打聯床幽款，是幸是跂，明彥·子進兩君書，荷卽傳示，答在會日，餘皆留俟，姑此奉復⁵⁾.】

1) (1563년, 63세) 4월 11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孟夏十一日○子中時正言]’으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去誠一’이 있다.

3) 以免……不見 : 『상계본』에 ‘免人之猜謗耶然當見不見以’로 되어 있고, ‘以’를 ‘免’ 앞으로 옮기라는 교정표시가 있다.

4) 室 : 『상계본』에 ‘堂’으로 되어 있고, 교정기 ‘室’이 있다.

5) 明彥……奉復 : 『중초본』에 산거부전지가 있다.

【與鄭子中】 2)

【別後惘惘，有無限合商量事，恨如之何，秋巒碣銘草本送呈，更審有不當處，示及，容得改定也，奉贈二絕，思之有未穩處，改換數字寫呈，伏惟照納，商山西湖二畫幅，拙句卽欲寫上，恐與向所寫者，位置高下，字畫大小，有不同者，姑停，前題中取一幅送來，則看樣寫送爲意，惟照，謹拜復.】

1) (1563년, 63세) 4월 21일.

2) 『초초본』에 ‘與鄭子中[孟夏念一日]’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행간 부전지 ‘去之何如誠一’이 있다.

答鄭子中[癸亥]²⁾

縣人之還，雖無書，宜有說，而兩無之，亦料其人不辭而返所致，今承所諭³⁾，果然矣。頃者奉款幸幸甚甚。別後思之，十分未了一分，非徒公有從前悠泛之歎，滉亦恐未免此歎也。雖然，所以致此者，亦緣滉病倦不能夜話，而晝日則人多故爾，所云義理精深微密，安能以渙散之精神，得致其沈潛研究之功？此說甚當。比來閒居中，深思實體，見得此理無時不然，無物不有處，真是如此。所謂百千萬億不爲多，無聲無臭不爲少。朱先生真不我欺。其在燕閒靜一之中，自覺得明快灑落，猶若可保。然而忽有一等閒事物，來到面前，應接之頃，少失點檢，忽已隨手消泯。此無他，不熟故也。在傍邊看戲⁴⁾，不能眞入⁵⁾其中，以

1) (1563년, 63세) 4월 29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四月二十九日]’,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答鄭子中’으로 되어 있다. 『정초본』에 행간부전지 ‘癸亥五月’이 있다.

3) 諭 : 『상계본』에 ‘諭’로 되어 있다.

4) : 『중초본』에 ‘觀’로 되어 있고, 상란부전지 ‘觀恐觀之誤傳本作觀’가 있다.

爲己物故也。身常靜處猶若此，若形役於膠擾之境，又加以怠忽因循，雖欲與有志而終無成者，不同其歸，恐不可得也。在今日嚮道之切，嗜學之誠，如吾弟者，何處得來。然竊謂⁶⁾平日所存，似於矜露自喜處占多，沈靜斂退處占少。以此而行於世，到得世味漸深，撓奪益多，吾又恐所嗜之終不可口，而所嚮之終失故步也。況今且不得已出世，如近日駐足事之類，極當如此，自餘凡百，尤當以“慎密”二字，爲第一義。千萬千萬。戒之在心，毋忽是祝，江上沿洄，可少償物外宿債。然吾輩胸襟，不及古人，許多好處，何能盡其風流耶？當日滉所舉晦翁先生與袁機仲諸人泛舟九曲詩四五篇，在『詩類』第四卷末，可檢得而深諷味之，則妙意真趣，殆可見也。切欲追和其韻，以紀一時心賞。而第念近年，吾弟不以一句詩語見示，雖有拙語，不見辱和。如今次絕句之爲，則所謂獨唱而無和，亦可吝也。故遂輟耳。既看先生詩後，如不⁷⁾辱妙唱之來，則謹當效顰也。畫幅畢寫，并來

5) : 『상계본』에 ‘人’으로 되어 있다.

6) : 『상계본』에 ‘(日+間)’으로 되어 있다.

7) 不 : 『중초본』에 추가 ‘恐不誤’, ‘傳本亦作不’을 한 상란부전지 ‘不字未曉’가 있다.

幅回納，視至爲佳，記文拜領，此文浪傳，深所未安。又其傳者多誤脫，益爲人所嗤罵。如在靜存處，猶可改正者，改正之何如？書何能盡意，惟冀行赴珍勝，以副遠遡。【謹拜復狀。】

8) 【安道孫想已發行。故無書。寧姪處小簡有要事。速傳事教下人爲望。孫兒以奴病事事狼狽。未知行路之何如。日以懸⁹⁾念。或於途中值見。則畧道此意何如。】

10) 【碣文勿廣事。留意深望深望。其文內其視世之營營乞墦者何如哉。此處文字。未免局促。緣欲簡去繁文。遂致如此。今欲添數字改之曰。其視世之乞墦間而求鑿足者何如哉。如此則似差勝。如何如何。幸就草本內改添。而付之子漸。子漸處多問亦望¹¹⁾。】

8) 『 』에 행간부전지 ‘去誠一’이 있다.

9)懸：『상계본』에 ‘縣’으로 되어 있다.

10) 『중초본』에 주목추기 ‘去’를 한 상란부전지 ‘極行’이 있다.

11) 碣文……亦望：『번남본』, 『상계본』에 극행으로 되어 있다.

【答鄭子中】 2)

【人還，承見六月廿八日惠書，備悉近況，深慰，所云欲辭事，竟作如何，其意外謗者，未知何等事耶，固知難行，不可不十分慎晦，圖爲捧檄之計，斯爲上也，滉今番得病，不比尋常，幾殆者累日，寄致兩藥，皆對證良劑，不住服來，尤覺得效，今少甦痊，深幸且謝，來覲在中秋，或可會款，企仰，病倦不能多及，謹拜謝.】

1) (1563년, 63세) 7월 16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孟秋旣望]’으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행간 부전지 ‘去之何如誠一’이 있다.

【答鄭子中】 2)

【拜別，東望依依，承手字，欣慰，京奇闋未更聞，方劇鬱抑，得見委示，殊快人意，深謝深謝，伏惟尊照，餘在落帽之日，須早著³⁾鞭爲幸，吳正字子強昨昨來訪，相與寓栖精舍，讀『朱書』甚適，并照，謹拜復^{4).}】

1) (1563년, 63세) 9월 5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九月初五日○子中時爲眞寶宰]’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去之何如’가 있다.

3) 著 : 『초초본』에 ‘着’으로 되어 있다.

4) 并照謹拜復 : 『중초본』에 산거부전지가 있다.

答鄭子中²⁾

當旋駕過縣之日，縣吏不報，又自失偵伺，未及奉問，深用愧恨。茲蒙枉垂珍札，感幸又不可勝也。官敝³⁾民瘼，固應如許。正在明府盡心於補完摩撫之秋，赤子失乳哺之餘，乍見杜⁴⁾母之至，安得無號呼之擾？久則自當定矣。定後讀『易』，甚善。吾縣雖無佳山水之稱，聞鈴齋⁵⁾臨溪上⁶⁾甚蕭灑。韓公所謂“讀書松桂林，邂逅得初心”者，想可爲今日驗也。儲位遽虛，朝野哀遑罔措，奈何？續聞宗系事得請⁷⁾，勅命當降云。想不墮虛，斯又莫大之慶，庶有乘除，少紓憂懣耳。翻轉之慮，正如所喻，一時取快，爲後日厲階，

1) (1563년, 63세) 10월 15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陽月望日]’로 되어 있다. 『정초본』에 행간부전지 ‘癸亥十月’이 있다.

3) 敝 : 『상계본』에 ‘敝’으로 되어 있다.

4) 杜 : 『상계본』에 ‘社’로 되어 있다.

5) 齋 : 『상계본』에 ‘齊’로 되어 있다.

6) 雖無……溪上 : 『상계본』에 ‘無佳山水之稱聞鈴齋臨溪上雖’로 되어 있고, ‘雖’를 ‘無’ 앞으로 옮기라는 교정표시가 있다.

7) ‘請’ 뒤에 『상계본』에 ‘ ’이 있다.

往事可鑑。但彼既露網打之計，不得不爲拔釘之舉。遂至於此，雖欲調停，有所不可，然已甚則不可耳。『九曲韻詩』，此亦無留本。且既溷雅覽，不必再溷。閒中偶思靜存贈行詩，用其韻道懷，謾以呈上，笑覽爲佳。如已和成，亦望惠示，幸幸。【生蟹。感感荷荷。邸報亦然。來旬望之約。得見踐過。當要士敬一番款話企企。伏惟照悉。不宣。謹拜復。】

答鄭子中²⁾

近日過臨，曾有珍約，凝竚之至．承諭沿牒輟行，姑俟³⁾後駕之日．滉自月初，以先人碣陰刊刻事，恒在溫溪齋⁴⁾舍，緣此應接，未有見定課業，殊覺懷惕．齋⁵⁾居蕭灑，正好養神與養民之事，本末相資，甚善甚善．讀『易』，欲以『本義』爲先，此亦滉從來所見如此．世儒慮及此者自少，雖或有之，皆牽於講業，而未果去取．滉則方其讀時，同於世儒之牽，及見得此意⁶⁾後，昏⁷⁾病不能讀．主『本義』兼『程傳』，以還潔淨精微之舊，正有望於高明之今日也．但所謂讀『易』之法，先正其心者，此又一大件不易言處．來喻已先得之，惟在勉旃爾．和詩之成，顒望示及．“網打”之當

1) (1563년, 63세) 11월 15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十一月望日]’로 되어 있다.

3) 俟 : 『초초본』, 『중초본』, 『번남본』에 ‘族’로 되어 있다.

4) 齋 : 『상계본』에 ‘齊’로 되어 있다.

5) 齋 : 『상계본』에 ‘齊’로 되어 있다.

6) ‘意’ 뒤에 『상계본』에 ‘然’이 있다.

7) 昏 : 『상계본』에 없다.

及草野. 聞聲之日, 已自臆料. 近稍傳聞, 名字已見其草幅中者非一二云, 一愕一笑. 惠件家姪⁸⁾近行時祭, 感荷感荷. 但方當蘇敝之政, 恐不宜以此等事入思慮也. 【以是爲未安耳. 伏惟照諒. 餘留面悉. 謹拜謝復⁹⁾.】¹⁰⁾

【傳聞用刑似太¹¹⁾猛. 此亦掾正敝俗所不可無. 然一向如此. 殊非撫摩煦濡之意. 切望遄改.】

8) : 『번남본』, 『상계본』에 ‘侄’로 되어 있다.

9) 耳伏惟……謝復 : 『중초본』에 산거부전지가 있다.

10) ? : 『초초본』에 하란부전지 ‘此四字■下連書單行小書何如此則是是夜六字同’가 있다.

11) 太 : 『상계본』에 ‘大’로 되어 있다.

【答鄭子中[甲子]】 2)

【日昨因暮夜，忽忽³⁾，面如不面，今奉惠書，知抵縣無事，稍慰餘鬱，所白事，謗毀固不足掛念，然不無有致此之由，此正君子省身自修⁴⁾之地，故敢白耳，子進書簡謹已領悉，惟照，餘俟後日，謹拜復。⁵⁾】

【前索貴簡之在此者，續得三四幅，適來兒舍，未得搜上，并⁶⁾照.】

1) (1564년, 64세) 2월 20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甲子二月廿日]’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去誠一’이 있다.

3) 忽 : 『초초본』에 ‘忿忿’으로 되어 있다.

4) 修 : 『상계본』에 ‘脩’로 되어 있다.

5) 子進……拜復 : 『중초본』에 산거부전지가 있다.

6) 并 : 『상계본』에 ‘拜’로 되어 있다.

【與鄭子中】 2)

【阻相聞問久矣，縣齋³⁾清爽⁴⁾，鳴琴讀書，想日有佳趣，滉憂旱之餘，加以暴風霖雨，病懷殊多未快，索居溪上，靳靳度日耳，似聞晦朔間當有覲省之行，然則徑由可遂拜面，但水齧⁵⁾崖路，人馬殆不通，恐於從人勞頓不少，有一於此，都麻⁶⁾峴近處，有一處泉石頗佳，每欲往觀而未果，今欲約會於彼，則可以免險阻討幽勝，豈非一段好事耶，若以爲可，則城主宿于縣，翌日直指于彼，滉亦早發趁赴其地，在都麻⁷⁾峴未踰，由新井村緣溪而入數里云，發行宿縣之日，須預垂通⁸⁾諭，則可無相違耳，未知盛意以爲何如，

1) (1564년, 64세) 7월 27일.

2) 『초초본』에 ‘與鄭子中[七月二十七日]’, 『상계본』에 ‘答鄭子中’으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去誠一’이 있다.

3) 齋 : 『상계본』에 ‘齊’로 되어 있다.

4) 清爽 :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清}爽改次’가 있다.

5) 齧 : 『상계본』에 ‘ ’로 되어 있다.

6) 麻 : 『초초본』에 ‘尔’로 되어 있고, 상란부전지 ‘■……■當作麻先生本■……■作尔而先生■……■嘗言此字字■……■無之俗稱地名■……■用麻字云更■……■次’가 있다.

7) 麻 : 『초초본』에 ‘尔’로 되어 있다.

如或值⁹⁾雨， 則還時亦可， 并照量示幸甚， 謹拜白
10).】

8) : 『상계본』에 ‘須預垂通日’로 되어 있고, ‘日’을 ‘須’ 앞으로 옮기라는 교정표시가 있다.

9) 意以……或值 : 『상계본』에 ‘以爲何如如或值意’로 되어 있고, ‘意’를 ‘以’ 앞으로 옮기라는 교정표시가 있다.

10) 謹拜白 : 『중초본』에 산거부전지가 있다.

答鄭子中[甲子]²⁾

阻奉誨帖久矣. 茲忽承覩辱報, 鳴琴之暇, 日有佳趣, 無任欣慰³⁾. 示喻向外之患, 滉自在裏許, 何敢有點檢高明那一邊事? 然以滉所料, 亦意高明比來漸有此端也. 蓋此邊功⁴⁾夫不著⁵⁾緊, 而應接俗流・親吏民・料米鹽等事, 每每作壞於外, 安得而無與之俱化耶? 射固男子事, 聖人所重, 滉亦何敢苦規於左右耶? 但觀今世好此習者, 無不與⁶⁾麤人武夫相追逐, 所益者少, 而所喪則多. 非獨此也. 國家於此一等人, 待之正與武班爪牙之類爲一. 如柳太浩等輩, 恒欲置之南北邊遠之地, 雖曰臣子之義, 不擇夷險而安之, 其於素業・素志, 何如耶? 然如我迂生腐儒冷淡說

1) (1564년, 64세) 8월 4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八月初四日]’, 『중초본』, 『정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答鄭子中’으로 되어 있다.

3)欣慰 : 『초초본』, 『중초본』, 『정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欣慰’로 되어 있다. 『정초본』에 뒤의 ‘欣慰’에 밑줄표시가 있다.

4) 功 : 『상계본』에 ‘工’으로 되어 있다.

5) 著 : 『초초본』에 ‘着’으로 되어 있다.

6) 與 : 『상계본』에 ‘敢’으로 되어 있고, 교정기 ‘與’가 있다.

話，固不當喋喋於兼文武大事業之間也．置之不復道也．憂旱之餘，公私大窘，況有土有社，赤子之命，待我爲死生者耶．伏聞風水等災，貴境甚於此間云，尤所仰慮耳．約會處，雖有惡路，必不至如此間崖險之甚，非不可一往也．何者？有泉石之勝，招人以往，不覺羸馬之蹉跎，老脚⁷⁾之兢危故耳．但滉自十三至望日，連有忌故，數處上塚，皆以十一・二日行之，其設祭自滉家．今示行期在九日十日云，正與家中祭事相值，似難赴會．伏想回鞭必在望後，則滉亦無故，可相⁸⁾期會於彼，惟照量更示爲佳．【三冊謹已擎納．餘竊兒想⁹⁾已具達．不具．謹拜謝復．】

7) : 『상계본』에 ‘病’으로 되어 있다.

8) 相 : 『초초본』, 『중초본』, 『정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想’으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想}疑相’, 『정초본』에 상란부전지 ‘想恐作相’이 있다.

9) 想 : 『상계본』에 ‘相’으로 되어 있다.

【答鄭子中】 2)

【前日未暇款叙，迨深馳仰，滉近因寒濕左脚，蹇劣不利行步，入保溪舍耳，煩白恐恐，兄孫女壻安潤屋孽弟蘭秀，歲貢生充定事，未可除豁否，未知其所犯如何，而如此請白，甚知未安，只緣家兄以姻家控憫³⁾，故煎迫令達不得⁴⁾已，敢告，伏惟量⁵⁾處何如，餘未一一，謹拜白⁶⁾.】

1) (1564년, 64세) 8월 28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八月二十八日]’로 되어 있다. 『초초본』에 상란부전지 ‘■……■書時存■……■更詳次■……■不存似可’,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去之恐爲是’, 상란부전지 ‘去之何如’가 있다.

3) 憫 : 『상계본』에 ‘ ’으로 되어 있다.

4) 得 : 『상계본』에 ‘能’으로 되어 있다.

5) 量 : 『상계본』에 ‘諒’으로 되어 있다.

6) 何如……拜白 : 『중초본』에 산거부전지가 있다.

【答鄭子中】 2)

【前者匆³⁾遽，未款之恨，正如來喻，今蒙書問，開慰何勝何勝，滉患脚，雖非大段，尙此盤跚，可爲笑恨，惠致葵杯羅鉢，得於破杯⁴⁾之後，珍荷珍荷，但差大不合於儉歲屢空之用耳，呵呵，魚蟹佳味，亦感亦感，示喻欲聞過之意，甚盛，滉向來不自攻過，而妄獻規切之言，非一二，頃日亦不爲無之，何云不言歟，所可愧者，城主於滉，太無警誨之及耳，適值日暮，人忙且有來月之約，姑未罄竭愚抱，伏惟照諒，謹拜謝復⁵⁾.】

【今朝有冗懇拜一狀，至今悚仄⁶⁾.】

1) (1564년, 64세) 8월 29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八月晦前一日]’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去誠一’이 있다.

3) : 『상계본』에 ‘忽’으로 되어 있다.

4) 杯 : 『상계본』에 ‘盃’로 되어 있다.

5) 謹拜謝復 : 『중초본』에 산거부전지가 있다.

6) 今朝……悚仄 :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此條去之何如’가 있다.

【答鄭子中】 2)

【聞有行聲已深慰佇，蒙惠書喻，許以回程垂訪，款奉不遠，無恨數日之遲也，拙疾固是濕證，而旁證多端，又非獨濕，老境分內事，何足爲怪，第緣此日用工程，不能專一爲撓耳，此中尙未見試榜，傳聞只琴夾之一人得參云，可知老天今亦不爲，趙³⁾士敬借一條通路，可爲一笑，餘⁴⁾留面悉⁵⁾，謹拜復⁶⁾。】

【因憑姪⁷⁾聞本縣紙貢之弊，他亦類此，令人氣悶，且凡書外封，用大狀紙，乃分踈修敬之禮，非頻頻相⁸⁾繼之道，況以紙貴如縣，而於滉每用此式乎，今後只用片幅爲望。】

1) (1564년, 64세) 10월 1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十月一日]’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誠一去’가 있다.

3) ‘趙’ 뒤에 『상계본』에 말거표시를 한 ‘思’가 있다.

4) 餘 : 『상계본』에 없고, 교정기 ‘餘’가 있다.

5) 悉 : 『상계본』에 ‘審’으로 되어 있다.

6) 謹拜復 : 『중초본』에 산거부전지가 있다.

7) 姪 : 『상계본』에 ‘侄’로 되어 있다.

8) 相 : 『초초본』에 ‘常’으로 되어 있다.

與鄭子中²⁾

近者，枉賁門筵，感荷之深。只緣稠擾，終日相望，未遂款晤。別後幽抱，倍於平日。未審還官，爲況何如？前月書來，有樂聞過之意，顧以日曠便遽，草率奉答，殊有餘愧。人惟不學，故不知其不足，不知其不足，故聞過而怒。今能反是³⁾，可見其有得於學問之餘者如此，甚善甚善。然妄謂“義理無窮，故爲學亦無窮，人心易染，故省改當益急”，恐不可專恃往者嘗試暫得之見，而不加今日接續新得之功也。不知見今所讀何書？如何作工夫？凡百應酬間，覺得與向時何如耶？頗亦有見得到信得及處否？滉於數月病中，看『晦菴書』一過。每遇其言懇到痛快喫緊爲人處，未嘗不三復省發，如針筍身，如寐得醒，益知日前爲學，浮泛不親切，正如程門所謂“隔靴爬痒”之病，如是，何曾有絲毫得力處耶？適得南冥曹樞仲書

1) (1564년, 64세) 10월 12일.

2) 『초초본』에 ‘與鄭子中[十月十二日]’로 되어 있다. 『정초본』에 행간 부전지 ‘甲子十一月’이 있다.

3) 其不……反是 : 『상계본』에 ‘不足故聞過而怒今能反是其’로 되어 있고, ‘其’를 ‘不’ 앞으로 옮기라는 교정표시가 있다.

云，“近見學者，手不知灑掃之節，而口談天理，計欲盜名，而用以欺人，反爲人所中傷，而害及他人，豈非先生長老無有以訶止之故耶？”其下自爲謙辭，而欲令滉十分抑規之。此雖不知所指爲何人，而其言未免有墮落一偏之弊。然而自吾輩言之，實不暇訶人，而當自⁴⁾訶耳。何也？吾輩中心願學，初豈有盜名欺人之意？但立志不篤，遵道中廢，往往口談天理之際，游聲已不禁四馳矣。而在我日用躬行之實，一無有可靠處，然則雖欲免盜欺之責，何可得耶？故南冥之言，真可謂爲吾輩藥石之言。自今請各更加策勵，以反躬實踐，爲口談天理之本，而日事研窮體⁵⁾驗之功，庶幾知行兩進，言行相顧，不得罪於聖門，而免受訶於高世之士矣。滉盛年不學，及此志力衰邁之日，始有管窺之幸。索居窮山，無與切磨。在前，猶有都中數朋友往還尺紙，得以相發，今則相戒絕之。黃仲學所見，雖未深密，猶甚能勤懇，爲益不少，今又已矣。所望於今，惟在子中，而相見無可講，相別無誨帖。此無他，滉自懶廢而然。亦恐子中之於爲學，

4) : 『상계본』에 ‘人而當自訶’로 되어 있고, ‘訶’를 ‘人’ 앞으로 옮기라는 교정표시가 있다.

5) 體 : 『초초본』에 ‘体’로 되어 있다.

或不繼曩日之誠切也．如何如何．前所云青松所索墨跡，自奴家要傳致事．鄙意實不在青松傳書，欲因以致此書於左右，以求鐫警之來耳．別小紙并希采覽，不宣．【謹白⁶⁾．】

書-鄭惟一-74-1

別紙

責善，朋友之道，況欲聞過而不言乎？衙屬別置外處，已非事體⁷⁾之宜．若大賓入館，尤當避之，乃反不避．而其軍官之類，或有秩高曾經⁸⁾守令者，使寓僻陋之處，此豈非慢公徇⁹⁾私之失乎？竊恐改圖入內，上也．別措他所，次也．二者皆未可，則當大賓時，必須避之，又其次也．觀鄰邑之政，或有初甚得愛民之聲者，及其徵債等事，目¹⁰⁾見赤地流莩，而苛刻特

6) : 『중초본』에 산거부전지가 있다.

7) 體 : 『초초본』에 ‘体’로 되어 있다.

8) 經 : 『초초본』, 『중초본』에 ‘徑’으로 되어 있다.

9) 徇 : 『상계본』에 ‘循’으로 되어 있다.

10) 目 : 『상계본』에 ‘日’로 되어 있다.

甚，期於剝盡。此無他，所欲蔽錮，而失初心也。如此之事，非所慮於高明之見，然不得無過計之虞，恐宜十分斟量。國穀雖不可不徵，毋以必取盈而加忍人之政，乃爲善也。

答鄭子中²⁾

忽奉墜翰，諭意懇悉，不任開釋。頃日寒門小慶，得蒙賁然之惠，感荷深至。已修³⁾小簡，申致謝意，送在溫溪路傍奴家。以前有貴使過此取去之約故也。其約未遂，而先此委伴，兼有侑書藥清等物，殊非所料。拜領之餘，更深⁴⁾未安。無他，官清本非他比，加以今遭大歉，豈吾輩相贈寄之日？況其間多有不得已之事，應酬不暇。如⁵⁾民相知之際，只當以尺書，因便問訊，以道情思，足矣。⁶⁾ 故有使過取書之約。幸須諒照，以安鄙悃。示喻“俗務俱化之患，講學疎密之憂，非日加修省之功，亦難及此”，甚善。滉亦慮不無其事，故前遣書中，攄說頗詳，今不復陳。望令後使之過者⁷⁾，取來俯察，卻以數語反復⁸⁾之，又令過者，

1) (1564년, 64세) 10월 20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陽月廿日夕]’으로 되어 있다.

3) 修 : 『상계본』에 ‘脩’로 되어 있다.

4) 深 : 『상계본』에 ‘甚’으로 되어 있다.

5) 如 : 『상계본』에 ‘與’로 되어 있다.

6) ? : 『중초본』에 하란부전지 ‘自兼有{侑}書至情思{足}矣’가 있다.

投之奴家而去，何如？邸報所云，此中亦偶得見．所可憂者，不獨此也．難可形言，仰屋浩歎，奈何奈何．『名賢錄』得許送示，企渴無已⁹⁾．適又曠黑紙窮，草草不具．【謹拜復．】

10) 【奴名孫伊・終伊．兩家皆在同里路頭．】

【往取溫溪書亦不遠．故令此人往取去．并照．】

7) ……過者：『상계본』에 ‘復陳望令後使之過者不’로 되어 있고, ‘不’을 ‘復’ 앞으로 옮기라는 교정표시가 있다.

8) 復：『초초본』,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覆’으로 되어 있다.

9) 無已：『초초본』, 『중초본』, 『정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無已 無已’로 되어 있다. 『정초본』에 뒤의 ‘無已’에 말거표시가 있다.

10)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此兩條去之’가 있다.

【答鄭子中】

【日昨來使，無事還否，大雪苦寒，固已心惻，其來旣去，聞其來時，阻於江冰，置馬江邊而來，當夜受答，念馬所迫，冒虎豹踰山而去，未知其後如何，可矜可矜，大抵古人傳書往復，率多喜因便風，所以除勞弊可頻數也，觀朱先生於陳同父，欲勿專人而附書，潘·呂轉致於周純仁，直言其專人之勞費，皆此意也，今此詩簡，若如前約，令奈城使人，過投溫溪奴家而去，則無如，此未安之事矣，滉拜復²⁾。】

1) (1564년, 64세) 11월 초순.

2) 滉拜復 : 『중초본』에 산거부전지가 있다.

答鄭子中²⁾

佯來，辱惠報答，歷敘平素，辭意懇款，如得面晤，良深慰豁。但滉所以前日致書座下，披露腹心，不憚煩瀆者，實以索居鈍滯，無朋友切磋之益。欲先發其端，冀見麗澤之資。示喻³⁾爲學工程⁴⁾，隨事警飭之意，圭復之餘，深自悚厲【悚厲】。所云“未嘗不操存，患不能專一，未嘗不窮格，患不能精密”，時復思之，不覺懷惕，正是寫出老拙心中事，亦當撥病強衰，更加策勉，庶少收桑榆之功耳。『周禮』不曾讀。今精力不逮，無緣讀得，每撫卷太息而已。但此書，前賢以爲周公運用天理爛熟之書。然而滉未嘗不有疑於其間者，恐其太繁密難施行也。俟他日面稟。胸中無所疑，古人以⁵⁾謂不體行，故不能疑。此亦彼此所當警

1) (1564년, 64세) 11월 12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至月十二日]’로 되어 있다. 『정초본』에 행간 부전지 ‘甲子十一月’이 있다.

3) 喻 : 『초초본』에 ‘諭’로 되어 있다.

4) ? : 『중초본』에 하란부전지 ‘示喻爲學工程■…■’이 있다.

5) 以 : 『상계본』에 ‘已’로 되어 있다.

耳。畏入題目，正如所諭。人不能篤信好學，才見風吹草動，便驚惶失措，回面汙行，以蘄免於指目。爲是者不足言，吾輩正當自反，而厲壁立之操耳。人吏家，固不可姑仍舊處，有賓則避之，縣側修補之計，甚善。公債幾畢，可喜。下戶不得不徵，然莫太峻責，容令措備而納，其不能措備者，且待明年，乃是真不擾民。蓋極凶自有寬徵之理，敲朴⁶⁾難加餓莩之民故也。金就礪儘有志，與之處，殊亦有益。但向來讀書不多，見讀『節要』書，講解之際，令人頗費力耳。

【冬暖惟珍勉。不宣。謹拜復。】

書-鄭惟一-77-1

別紙

7)橫渠先生曰 “人雖有功不及於學，心亦不宜忘。心苟不忘，則雖接人事，卽是實行，莫非道也。心若忘

6) : 『초초본』, 『중초본』, 『정초본』, 『변남본』에 ‘扑’으로 되어 있다.

7) ? : 『중초본』에 하란부전지 ‘自初■…■至於忘■…■’이 있다.

之，則終身由之，只是俗事。”

燈下作報書了，閒看『近思錄』，見得此語，有契於心，不可不使吾子中知之。子中非忘學者，然漸習之久，安保其不至於忘耶？

8) 向聞道院溪山清絕，釣艇新辦，【每飯】心未嘗不在鉅鹿也。吟得兩絕，置之溫溪奴【孫伊】家。用依前約，今侂人直來于此，故令往取去，幸⁹⁾一笑覽。對溪山讀唐宋人詩，詩興益佳。可得惠示否？

8) 『』에 상란부진지 ‘■…■也欲收 取之恐當’이 있다.

9) 幸：『정초본』에 없고, 교정기 ‘幸’이 있다.

答鄭子中²⁾

縣人冒寒遠來，惠書珍重，兼寄和詩四章。捧讀玩繹，洗此滯吝，佩荷無已。示喻³⁾“策勵”之云，滉不自量己，從前妄有規切則多矣。及得垂報，未嘗以一言相鐫責互磨礱，何耶？豈滉不能虛心求益，無有樂聞過而不憚改之意故耶？又如和詩中，反有指擬非倫處，非但示人爲難，恐人見之，或惹起笑怒。後日當面稟請改也。『周禮』所疑，槩與鄙意同。而先儒稱重此書處，每每有信不及之歎，當是量未廣見未徹之故耶。“壁立”之論，誠確論也。每見人風吹草動，便惴惴失措，皆有回頭⁴⁾汗行以避患之意，極令人警惕發深省也。縣事如此，蘇策果爲戛戛。固宜就其中而漸圖補完。正是欲速不得，大槩清心省事，爲要法耳。但兒子竈近在都下，丁景錫來見云，有欲還左右內職

1) (1564년, 64세) 12월 4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十二月初四日夕當在十二月二十八日上]’으로 되어 있다. 『정초본』에 행간부전지 ‘甲子十二月’이 있다.

3) 喻 : 『초초본』에 ‘諭’로 되어 있다.

4) 頭 : 『갑진중간본』에 두주 ‘頭當作面’이 있다.

之議. 雖知從前有此議, 然聞之不能不以爲撓. 不識亦聞之否? 奇明彥因事圖歸, 計已熟矣. 亦不知能成否耳? 讀『朱書』, 甚善甚善. 承許念五・六欲過陶⁵⁾山, 幸企幸企. 但緣滉念八・九日爲忌日⁶⁾, 故六・七日有展墓事, 勢必相違, 不如開正回路爲約, 則無相違之弊⁷⁾. 惟照諒, 夜燈作此書, 眼昏不一. 【謹拜復.】

【二鮮感感⁸⁾.】

5) : 『상계본』에 ‘院’으로 되어 있다.

6) 忌日 : 『초초본』에 상란부전지 ‘先生外舅忌日實在十二月念八九而今書本草云十十一月初四日恐一字乃二字之誤以開正二字考之十二月無疑’가 있다.

7) 弊 : 『상계본』에 ‘敝’로 되어 있다.

8) 二鮮感感 : 『번남본』, 『상계본』에 ‘生鮮感感’으로 되어 있고, 상단과 연결되어 있다. 『초초본』에 행간부전지 ‘四字亦然’이 있다.

【答鄭子中】 2)

【承手翰，知抵宿縣館，又有歲後枉過之約，不任欣企
欣企，滉頃因雪寒，痰證峻發，艱保度日，悶悶，惠
和詩兩篇，圭復珍幸，伏惟尊照，餘俟奉面，謹拜謝
復.】

1) (1564년, 64세) 12월 28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十二月二十八日]’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去誠一’이 있다.

【與鄭子中[乙丑]】 2)

【終日奉待行色，或恐因雨停行，而侔來乃知過去，深爲悵惘悵惘，近阻有無限相料理事，今次不得款晤，後會又未指日，可勝悠悠佳辰，正臨³⁾惟冀珍尙珍尙，不具，謹白⁴⁾.】

1) (1565년, 65세) 2월 12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乙丑二月花朝]’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去誠一’이 있다.

3) 臨 : 『상계본』에 ‘當’으로 되어 있다.

4) 不具謹白 : 『중초본』에 산거부전지가 있다.

答鄭子中[乙丑]²⁾

前日違奉之懷，久未相敘。今日，始聞僧獄訊差轉屬於左右。知有會期，而適承侂書，諭以念日之行，欣幸欣幸。滉怯³⁾寒藏縮，今日出山舍，山花爛熳，漲淥如醕，風雩之樂，宛在目前。但梅・竹二君，經寒太憔悴耳。獄辭果似爲難。然想監司因前日報牒而令刑訊，今只當因其辭，而訊得其情耳。安東似不至大嫌怒也。且臨事而太顧人情，必不得其正，亦可戒也。惠物領荷。但藜腸得此，太似不穩帖耳。呵呵。餘留面款。【謹拜謝復⁴⁾。】

【竊往在任所。來書當送彼⁵⁾。】

1) (1565년, 65세) 3월 13일.

2) 『초초본』에 ‘與鄭子中[三月十三日]’, 『중초본』, 『정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答鄭子中’으로 되어 있다. 『정초본』에 주목행간추기 ‘乙丑’이 있다.

3) 怯 : 『초초본』, 『정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 ’으로 되어 있다.

4) 謹拜謝復 : 『중초본』에 산거부전지가 있다.

5) 竊往……送彼 :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去’가 있다.

【與鄭子中】 2)

【遽遭國恤，恫怛普纏，此間無邸報，未聞上下如何，日夕燭煎，滉近上辭狀，適值變故，恐未入啓，昨得營吏報政院狀奇，似有得遞之意，感幸罔極罔極，自今始真有爰得我所之味，夜臥身得帖席待盡巖穴矣，聖恩如天，何以稱塞，但有戴祝，不審沿牒之行，何時到縣，未聞，惟珍勉珍勉，不宣，謹拜白。】 3)

4) 【今進人，乃吏文學官朴枝華奴也，枝華去年來見滉後，去下道徧遊名山，還途復此尋到，見留陶舍，其子壻有奴在治下，爲遣此奴，望須曲採進奴之言，依施俾無滯苦，幸甚幸甚。】

1) (1565년, 65세) 4월 28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四月廿八日]’로 되어 있다.

3) ? : 『초초본』에 상란부전지 ‘■……■本草作■……■字恐間■……■誤書耶■……■詳次’가 있다.

4)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去之何如’가 있다.

【答鄭子中】 2)

【頃者旋行歷縣，不及奉侯³⁾爲恨，玆枉佖書，審有陞贊關東蓮幕之除，喜賀則多矣，若以左右所處之宜，言之正，有如來喻所云者，況旣失六期之限，推遷騰擢，愈涉要顯，愈見難處，實非故人所望於心契者，不知如何如何，示喻本邑迎送之弊，正然，且小民失怙恃，又當農月，尤深不幸，吾鄉至此眞無著⁴⁾手處，奈何，邸報投示，深荷深荷⁵⁾，時人攻討異流之罪如此，亦不易得，但無得請之望，又當熒疚之初，勢難極矣，其欲停，雖似如示，恐不得不爾也，可歎可歎，見後還上照領，『實紀』『一統志』兩書，在山舍，適以事入溪莊，今又未上，當於歷枉日具以奉呈，纔蒙恩放，又失彊輔臨風惘惘，不知所裁，姑俟面別之日，不宣，謹拜復。】

1) (1565년, 65세) 5월 17일.

2) 『초초본』에 ‘與鄭子中[五月十七日夕]’으로 되어 있다.

3) 侯 : 『초초본』, 『상계본』에 ‘候’로 되어 있다.

4) 著 : 『초초본』에 ‘着’으로 되어 있다.

5) 深荷深荷 : 『초초본』에 ‘深深荷荷’로 되어 있다.

【曹允愼，遭母喪，實滉堂姊，今日聞計，悲冗草草.】

【『名賢錄』王遂，有姓名而未填錄語，豈偶失照管耶.】

【與鄭子中】 2)

【昨日之別，眞一夢矣，初謂可留一宿，從容叙別如雲，離思畧不爲準備，頃刻間計，加以年少秀才在傍，話到口頭，豈能一一吐出耶，掩戶還坐，空咏古人江天獨歸處，寂寞養殘生之句，正所謂實獲我心者也，五言律二首，聊表行驢，笑覽爲幸，滉辭遞事，專賴權判書景由·宋德恩台叟諸公，指圖之力，而爲之，如見二公，爲我致謝，雖有書簡，不可無言謝故云，誤留白版并送去，惟行色排暑珍重。】 3)

1) (1565년, 65세) 6월 2일.

2) 『초초본』에 ‘與鄭子中[六月二日○子中時都事]’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去誠一’이 있다.

3) ‘珍重’ 뒤 별행에 『초초본』에 저일자한 ‘江原方伯令前問安平昌郡守李安否家兄查頓郡不成形百窘罔措每事別加護頓’이 있고, 행간부전지 ‘江原以下不錄似可’가 있다.

答鄭子中²⁾

前月中，得見同月初九日惠書。乃貴蒼頭居臨河者，回自奈城，過門致書而去，卽報無便。其後雖見景昭來訪，又未暇坐間，草率修報³⁾。稽延至今，恒抱闕然。茲復伴人爲⁴⁾到，投以長書，具悉前後敘說，滿紙傾倒。覺見近日檢身省己，深有感發惕厲之意，不任歎尙歎尙。數年來，亦竊矚吾弟志道嚮學意思，頗似劉公度長沙時不如南康時，每懷悵訝間，亦未免形於簡牘往復之際，及得來答，殊未見有省發改度處。又聞所以居官應俗等事，亦往往誠有如來喻⁵⁾所云不憚見譏之病者，蓋嘗慨然太息。以吾弟明敏之資，趣向之正，學問之勤，苟親見聖賢而受其爐⁶⁾錘，則終

1) (1565년, 65세) 9월 7일.

2) 『초초본』에 ‘答鄭都事子中[九月初七日]’로 되어 있다. 『초초본』에 행간부전지 ‘都事二字似不當存’, 『정초본』에 행간부전지 ‘乙丑九月’이 있다.

3) 報 : 『초초본』에 ‘補’로 되어 있고, 상란부전지 ‘補疑作報’가 있다.

4) 爲 : 『갑진중간본』에 두주 ‘爲恐委’가 있다.

5) 喻 : 『상계본』에 ‘諭’로 되어 있다.

6) 爐 : 『상계본』에 ‘ ’로 되어 있다.

可見實得力而有大成就者。今不能然如彼，況如我魯鈍，一生悠悠，至老方悟者乎？於斯時也。爲吾弟切僇規責，固在於朋友，而自家瑣力，無植立・無素積可以救拔感動人處，是以，雖或有相告語時，率不能向頂門上下得一針了。來書何不痛責而峻絕者，雖滉所難任，而實有其罪矣。不知吾弟去此西行，數月之間⁷⁾，因甚機關，而打發此一段大幹旋，能自回頭轉腦，出脫⁸⁾得誤墮窠臼裏，直向聖賢門庭作家計乎？『易』曰“風雷益。君子以，見善則遷，有過則改。”而朱夫子贊之曰“遷善如風之速，改過如雷之猛。”昔⁹⁾聞其語，今見其事，真是奇特，可畏可服¹⁰⁾。且今反復兩書之言，歷數既往之病痛，一一如破的。其中如“射獵酒色”等之爲害，固人人所共知也。至如耽看史學，喜抄古書，乃吾弟七・八年間視以爲第一件事業，而一朝翻然悟其非，卽斷置之曰“此等工夫干身心何事。”非見之明而決之勇，何以及此？夫看史抄

7) ……之間：『상계본』에 ‘西行數月之間此’로 되어 있고, ‘此’를 ‘西’ 앞으로 옮기라는 교정표시가 있다.

8) 脫：『정초본』에 ‘說’로 되어 있다. 교정기 ‘脫’이 있다.

9) 過如雷之猛昔：『상계본』에 ‘如雷之猛昔過’로 되어 있고, ‘過’를 ‘如’ 앞으로 옮기라는 교정표시가 있다.

10) 服：『상계본』에 ‘畏’로 되어 있다.

書，昔之躬行君子，非不爲此事，但今不於本原心地上細加涵養省察・直內方外之工，而惟以匆匆¹¹⁾意緒，日向故紙堆中，尋逐已陳底粗迹¹²⁾，搜羅抄掇，以是爲能事而止，則是定無蓄德尊性之功，而反益麤心浮氣之長矣。往年吾弟之始爲『言行錄』工夫也。滉非不知渠¹³⁾成之爲利，然猶屢奉戒，而欲姑徐者，無他，見吾弟年少氣銳，胸中又本熱鬧，於是，更加以史學之熱鬧，末梢¹⁴⁾寧不如以火掄火之愈¹⁵⁾盛乎？來書“自責”云・“日用”云爲，全不似學者模樣¹⁶⁾。又云“不知何物作祟而至此。”固必有所指者。而吾意以爲此¹⁷⁾等事，亦是作祟之一也。大抵人苦不自知耳。吾弟自知之明，旣如此。又能知其可治此病之藥，一一皆中其證，此所以不可及也。自今以往，誠能痛湔舊習，凡看書窮理，出言制行，以至日間百爲，最先除去麤浮氣象¹⁸⁾，一以莊敬

11) 匆：『 』에 ‘忽忽’으로 되어 있다.

12) 迹：『상계본』에 ‘跡’으로 되어 있다.

13) 渠：『갑진중간본』에 두주 ‘渠恐集’이 있다.

14) 梢：『갑진중간본』에 ‘稍’로 되어 있고, 두주 ‘稍當作梢’가 있다.

15) 愈：『상계본』에 ‘兪’로 되어 있다.

16) 樣：『정초본』에 ‘樣’으로 되어 있다.

17) 物作祟……以爲此：『상계본』에 없다.

涵養爲本，沈潛研索爲學。見得此箇道理眞不可須臾離處，將此身心，親切體認，得以優游涵泳於其間，庶積漸悠久之餘，忽然有融釋脫灑處，便是眞消息也。方有可據以爲造道積德之地。然此前頭，更有無限行程・階級。爲終身工夫¹⁹⁾，非謂止如此爲究竟法也。且吾聞之，“非知之艱，行之惟艱。”人雖自謂已知，而所知非眞見，雖自謂能行，而所行非實得，則孔子所誨“爲仁由己”者，未驗於身，而孟子所憂進銳退速者，已有其責矣。見喻近將『近思錄』・『朱子書』讀之，其悅味猶舊，甚善甚善。更宜以一部『心經』，爲早晚誦習夾輔用功²⁰⁾之地，則所謂障川之柱・指南之車・燭幽之鑑，皆可於吾身親見其實矣。“黎渦”之警，得非有親歷可畏事故有此言耶？“一刀兩段”，亦嘗於大慧書中見此語。顧彼能是，而我乃不能是，使彼挾稊稗之秋，反高視大言，以陵轢名教中人，此爲吾徒學聖人者之大罪過大羞恥也。則朱子詩“虎尾春冰寄此生”之戒，可不勉

18) : 『상계본』에 ‘像’으로 되어 있다.

19) 行程……工夫 : 『상계본』에 ‘程階級爲終身工夫行’으로 되어 있고, ‘行’을 ‘程’ 앞으로 옮기라는 교정표시가 있다.

20) 功 : 『상계본』에 ‘工’으로 되어 있다.

哉。可不勉哉。來示在京時與人論辨者何事？其人謂何？他日幸略見諭爲佳。此間爲學，亦無甚頭緒。自夏末來，金伯純之弟士純來溪上，其人明穎嗜學，甚不易。初因講“碁三百”，迤邐遂及於律呂・『啓蒙』等書。於是，金愼仲・惇敘・琴堧之・禹景善及孫兒安道皆會，共讀“啓蒙”，相與研究講論，多見到前所未到處。至昨方罷去，可樂也。但象數者，至理所寓，精微深妙，亦非身外事。然卻被日夜留心於此，亦覺德性上工²¹⁾夫不能專一，不無害事，而況他事乎？故心能主宰，則物各付物，物不能爲心害，心不能主宰，則雖作詩寫字，游²²⁾山玩水，程・朱之門，皆以爲戒者，爲此故也。亦不可不知也。寄送朝報，深荷深荷²³⁾。時事如彼，固有不得已之勢，不可知之憂。草澤所爲，雖出於忠憤，而亦有過當難處者，不知終如何。奈何。中間傳聞，以道主親嫌，似當遞職，殊以撓懷。今乃以朝議，已先赴幕，好好幸幸。秋高氣清，挾天風而昇仙嶽，萬瀑千峯，指顧領略，其樂如何？恨身不得如雲²⁴⁾生兩翼，騰空而去，與吾弟頡頏遊戲於其間？

21) : 『초초본』에 ‘功’으로 되어 있다.

22) 游 : 『상계본』에 ‘遊’로 되어 있다.

23) 深荷深荷 : 『초초본』에 ‘深深荷荷’로 되어 있다.

吟賞來詩，聊自慰耳。蒙許行錄，老境臥遊之興，止有此事，企幸企幸。留來使，夜燈作此書，眼昏神疲，掛一漏萬，陽月覲餘。若承惠顧，可遂面款。未間，惟冀珍衛加勉。【謹拜.】

【25) 順天李龜巖處。分類程書求見之意。遇便當諭之。曩所云濯纓泛²⁶⁾舟詩。得於『西山集』卷內。同封去。一笑.】

24) : 『갑진중간본』에 두주 ‘雲下恐有脫誤’가 있다.

25) 『중초본』에 주목행간부전지 ‘不書’가 있다.

26) 泛 : 『상계본』에 ‘汎’으로 되어 있다.

答鄭子中²⁾

頃聞遞蓮幕入芹宮，已料必來覲親。昨因兒還，今復得書，備審近況超勝，若有神相於其間，其靈區眞境，一經遊陟，而得驗遽如許耶？此中，伏覲赦文及十四日朝報，不勝憂灼罔措。其後流聞，旋有慶音，猶未的信。茲獲示諭，普騰驩³⁾抃，不容名言。累書警舊勵新之意，甚盛且善，惟在勉勉，終始勿替。老悃所屬，正⁴⁾切於此。但自念鄙駘一物，老病廢棄，無一毫與於世事，而近因韋布紛紛，輒爲人有所指目。雖知其言不足介意，而以小推大，因近慮遠，不能不以爲憂也。況公今此還朝，有大機關⁵⁾之可憂，不知何以處之。滉意如公之與我往來相熟，亦是爲人指目之一端。雖相見願切，亦不須相見，只可彼此默會，而

1) (1565년, 65세) 10월 1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陽月之吉子中入爲直講]’으로 되어 있다. 『정초본』에 행간부전지 ‘乙丑九月’이 있다.

3) 驩 : 『상계본』에 ‘歡’으로 되어 있다.

4) 正 : 『갑진중간본』에 ‘止’로 되어 있고, 두주 ‘止一本作正’이 있다.

5) 關 : 『상계본』에 ‘開’로 되어 있다.

各自勉焉。無乃『易傳』所謂“大善之吉”乎？金士純輩所講，猶未十分，意欲再會。而知老拙意不樂而不果，可笑。『關東行錄』，深發臥遊之興，殆若十洲三島入我几間也。適有過客，率爾抵門，漏萬姑復。

書-鄭惟一-87¹⁾

【與鄭子中】 2)

【別後殊阻音塵，想苜蓿闌干，意味益勝，就中近得順天侔致前所要程氏書印本一封，今付閔中立之行，惟照領，其書聞公之風，願見而不得云云，并照，餘萬不云.】

1) (1565년, 65세) 10월 23일.

2) 『초초본』에 ‘與鄭子中[陽月念三日]’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행간 부전지 ‘去誠一’이 있다.

答鄭子中[丙寅]²⁾

去年十一月中，安道孫人還，奉承惠書³⁾，縷縷具悉，感意無比。緣自秋冬以來，流聞賤名多上人口舌。又有都中朋友見愛者，寄聲切責，以不能韜晦爲咎。此意甚當。由是一向畏縮，不以時報答來書，恒懷缺然。茲復自奈城，轉致十二月十六日辱書，具審近事，又不勝感荷之至。旣自外入，出補已難，重被銓薦，其於爲養本計，大爲梗礙，不知終何以處之？看書功⁴⁾程，如示固善。“聚善良扶正脈之議”，甚善。“自餘”數段，山野何敢深論。『困知記』“人心”·“道心”說，分明繆⁵⁾誤。以寡悔之高明，其於學問，亦不可謂不深，而乃反主張其說如彼，深可怪歎【怪歎】。龜巖

1) (1566년, 66세) 1월 10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正月初十日○子中時正郎]’, 『상계본』에 ‘答鄭子中’으로 되어 있다.

3) 承惠書 : 『상계본』에 ‘惠書承’으로 되어 있고, ‘承’을 ‘惠’ 앞으로 옮기라는 교정표시가 있다.

4) 功 : 『상계본』에 ‘工’으로 되어 있다.

5) 繆 : 『상계본』에 ‘謬’로 되어 있다. 『갑진중간본』에 두주 ‘繆恐謬下二十四張可攷’가 있다.

有八十病親，雖入玉堂，豈久於朝耶？希正任便，深賀，不及致書。如見希正，布此情愴。【[以上報前書.]公以減祿而得閑官。因銓薦而梗外補。幸不幸之間。終歸於未諧⁶⁾心事。想有撓遠懷也。】伏惟朝廷一番洗濯，庶見更新之盛。謫還廢起，大快輿鬱，太平萬世⁷⁾，慶頌何勝。其間所可慮者，正如來喻，不於本原之地務盡其道，則一時清明景象，難保久遠。善良雖聚，將何賴以扶正脈乎？此畎畝微衷，日夕仄身之憂，而不敢云者，就中病廢老物，積幾年・經幾艱，僅得以沈痼愚劣，見信於上下，而恩放得所。曾未幾何，而⁸⁾復欲使聖朝，踵前誤而收棄物。此誠何意見何舉措乎？【歲前。因人傳說有此幾微。續聞其論已發。滉不以爲憂曰。正使有⁹⁾是事。子中・明彥在彼。必能力掄。若於此不掄。吾當絕交於二君矣。近禹性傳寄都目政來示曰。人言臺筭欲請召公。因鄭正郎力止而停之。果如吾所料。滉平生所蒙朋友之力。復有大於此乎。方感荷之頃。李咸昌季樑錄示去廿六政內

6) ……未諧：『상계본』에 ‘間終歸於未諧幸之’로 되어 있고, ‘幸之’를 ‘間’ 앞으로 옮기라는 교정표시가 있다.

7) 世：『초초본』,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歲’로 되어 있다.

8) 而：『상계본』에 없다.

9) 此幾微……使有：『상계본』에 없다.

有同知之除，又不能不以爲信，駭怪靡定，今詳來書請召之停，專賴公與和叔之力矣，無乃因臺筭泛言收召，而有此除乎？此除雖甚可憂，猶可逡巡延引，伺便辭解，若因此而馴致他除召，則其狼狽窘迫，終必至於違忤罪譴無疑矣。諸公於滉，本無恨¹⁰⁾隙，若公等力告之如右，宜無不聽從而納人於罪罟也。】蓋滉前日圖退，如水之萬折必東，非謂時不可仕也，只爲一味病愚之故耳。況今增年六十有六，病日益深，愚日益昏，去冬寒不甚，猶閉戶不能出頭，腰痛腹脹，痰盛咳嗽，無一日之安，不此之顧，乃以時可仕，扶舁以過竹嶺乎？細觀來喻，以“時”之一字，言滉行止，似亦有未相悉者，竊恐公之見掇雖切，不免帶此意思而爲言，故人不甚信從，而爲患不止也。更望洞照，專以老病廢棄，力圖終惠，不勝千萬祈懇之至。煩語朴和叔，所貴於同類相知者，謂其見處得宜，俾可安分以死耳。如其不然，欲使蚊子負山，至則糜¹¹⁾耳。豈相知之謂乎？和叔有意此學，士友之慶，若於此用力之深，自知病人不可強¹²⁾之以使令矣。明彦今

10) : 『상계본』에 ‘限’으로 되어 있다.

11) 糜 : 『초초본』, 『중초본』에 ‘靡’, 『상계본』에 ‘(麻+木)’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靡恐糜 傳本亦作靡’가 있다.

已返否¹³⁾? 不敢廣作書問. 相見, 致懇協力圖掇之意. 靜存將用, 固可喜. 然亦當以漸, 乃爲宜. 見之亦望致賀. 時甫·士炯, 能不替向意否? 所欲陳何限, 遠書未悉, 惟珍愍加重. 【謹拜謝¹⁴⁾.】

【新曆與筆. 拜感. 前者閔御史中立之行. 順天本『程書』附上. 傳否¹⁵⁾.】

書-鄭惟一-88-1

別紙

本原之憂既然, 又今八道饑荒, 二邊有釁, 而聞有西征之舉. 若止爲敵至策應之備, 則固不得已. 如其不然, 而先舉討罪之兵, 雖曰名正言順, 釁隙一啓, 兵連禍結, 奈無後段何, 此又莫大之憂. 諸公其必念之, 而非野外所宜言也.

12) : 『상계본』에 없다.

13) ‘否’ 뒤에 『상계본』에 ‘强’이 있고, ‘强’을 ‘之’ 앞으로 옮기라는 교정표시가 있다.

14) 謹拜謝 : 『중초본』에 산거부전지가 있다.

15) 新曆……傳否 : 『중초본』에 산거부전지가 있다.

【答鄭子中】 2)

【承惠書，知來覲而相違未奉，恨不可勝，然雖見吾弟，亦無可言之事，不如不見之爲愈也，和叔諸人，容有不知我之理，知我之實，無有如吾弟，吾弟極力營掄，和叔諸人豈有終強之，以至於欺天如是之甚，諸人知不可，則勢必上達天聰矣，今而至此，自今便當與吾弟絕交，更復何言更復何言，滉必蒙違命之罪，嶺海之外乃吾死所，何言何言。罪滉³⁾。】

1) (1566년, 66세) 2월 22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二月廿二日]’로 되어 있다.

3) 罪滉 : 『번남본』, 『상계본』에 없다.

答鄭子中²⁾

前日惠書中，見有陞除之命，出於不意，驚駭之餘，意謂諸公有過越推重之意，故致有此事。怪公不力掄，不覺言之太迫，至有絕交之言，徐思之未安。今承再書，示盡曲折，知皆出於天意如此，則公雖有欲掄之心，其道無由。益愧前言之率爾也。然本其所以致天意如此者，亦恐別無他故，常時諸公，不知無狀不滿一隅，擬議非倫，至以“大賢出處占時事”等語，互爲張皇夸詡，其間主時論而與滉昧平生之人，誤以爲信然，則天意之誤垂拳拳，豈可謂不由於是而有之乎？滉固不知諸公議論如何。只以今來書中明以“大賢出處”四字，加之於無似觀之，其常時論議，虛夸可知。而令滉有今日罹此百窘，恐公終不得辭其責也。鄙意竊謂吾輩持身，與事君無異道，正當口絕夸辭，手無虛著³⁾，腳踏實地，如是，雖旁觀悶悶，無

1) (1566년, 66세) 2월 27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二月二十七日]’로 되어 있다. 『정초본』에 행간부전지 ‘丙寅二月’이 있다.

3) 著 : 『초초본』, 『중초본』, 『정초본』에 ‘着’으로 되어 있다.

足以聳動一時，猶可以免末梢狼狽之憂。不然，厥終必有大大難收拾致郎當者。拙訥雖不敢言，未免爲諸公深有虞者，奈何奈何。滉二十五日，始受有旨內云云，不許退歸，仍令徐調⁴⁾上來。又狀面，只有工判職銜，狀中，不言除工判之意，又無除目朝報之類，亦無親舊一張紙簡，茫不知何謂。竊料如重甫，舊有書而今無者，必以新命太不著⁵⁾，物情駭異，不欲有言相預於其間故也。滉震惶靡措，前途⁶⁾無可留處，不得已少退。昨借得私人馬來，入鶴駕山廣興寺，爲三辭之計。然緣有新命之故，聽許益難祈望。若不有臺章，其勢必至於獲稽違之譴然後已，撓慮非常，不可言不可言。心事若此，何怪心病之難平。因而發疾多端，羸悴委頓，見者驚嗟，亦可悶耳。所欲言者無窮，悽悽未敢，臨紙耿耿。【謹拜復⁷⁾】。

【李·禹二君書。領幸領幸。明彥竟不來否。】

4) : 『초초본』에 ‘調徐’로 되어 있고, 상란부전지 ‘{調徐}疑徐調’가 있다.

5) 著 : 『초초본』에 ‘着’으로 되어 있다.

6) 途 : 『번남본』, 『상계본』에 ‘道’로 되어 있다.

7) 謹拜復 : 『중초본』에 산거부전지가 있다.

答鄭子中²⁾

漂轉羈苦中，惠問三至，慰荷深矣。愚生病勢，雖似少減於榮・豐時，元證依舊，乘間往復者不一，無時了斷，爲悶奈何？三辭去人，今明當還而未還，翹渴方深，未知天意如何？兢惕無地。然新命至此，所不可承受者，極多端矣。而仍前在道俟命，則似有差病冒進之嫌。竊觀³⁾古人到如此極難處，則有請辭不待命而徑歸，如杜範・吳澂之事，可倣而行之。故今若又不得請，則復上一狀，略陳右意，因而退歸，雖甚未安，百計無他善策，如此，必觸時議，所不敢避耳。滉踪跡如是之窘，公何可爲來尋見耶？明彥之去甚善。但到得後日，有不得如意，藏退時，不知何以處之？以病漢之難處，知無病者之尤難處也。退待龍壽等處，不如歸家之可明決不受也。故直歸爲計。餘所欲陳者山積，未敢率爾，姑此奉報。【謹拜復。】

【兒子以行祭之禮安未還。】

1) (1566년, 66세) 3월 10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三月十日夕]’으로 되어 있다.

3) 之嫌竊觀 : 『상계본』에 ‘嫌竊觀之’로 되어 있고, ‘之’를 ‘嫌’ 앞으로 옮기라는 교정표시가 있다.

與鄭子中²⁾

枉顧經宿，披霧多幸，猶有無限不盡之懷³⁾，別後惘然，無以自遣。滉今此所遭，大段狼狽，至於此極，若不有在朝相知之人，超出常情之表，急出手揀拔，則勢必至於得大譴謫而後已。又恐爲旁窺摘釁者之所乘，則所關豈止於滉一身耶？故所望於吾朴君，如前所云至切。諺不云乎。“縛者解之。”[⁴⁾朴君書中，“擬人不倫，拙者之厄”，未⁵⁾必不由於此，故云。]千萬至祝⁶⁾。二十年前，病不堪從事遠接者，至年迫七十・病加百倍之後，乃能堪遠接事耶？然此則猶未到面前事。一入都門，百責填委，乞免不免，欲辦不辦，憂窘惶迫之餘，一死固好，不死則必至於逃歸，其爲辱清朝・羞

1) (1566년, 66세) 4월 1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四月初一日]’로 되어 있다. 『정초본』에 행간 부전지 ‘丙寅三月’이 있다.

3) 懷 : 『상계본』에 ‘恨’으로 되어 있다.

4) 『중초본』에 주목상란부전지 ‘小註單行’이 있다.

5) 未 : 『상계본』에 ‘末’로 되어 있다.

6) 至祝 : 『초초본』, 『중초본』, 『정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至祝 至祝’으로 되어 있다. 『정초본』에 뒤의 ‘至祝’에 밑거표시가 있다.

士林，豈非朱子所謂“關風俗⁷⁾之盛衰”者耶？然此當以公意自告之如此，勿以滉言也。【往年見留空帖曾寫之。前日忘未奉還。今追寄。幸視至。餘清和好行。不宣。】

書-鄭惟一-92-1

【別紙】

【前日所舉吳幼清事。其末有褒賞等事。切不可援言。公所云范景仁事。不知無此等相礙事否。雖無之。其人太高。又不宜舉云。公須考得⁸⁾故事之切當而無礙者。援告圖之。又幸。】

7) : 『상계본』에 ‘化’로 되어 있다.

8) 舉公須考得 : 『상계본』에 ‘舉公須考得云’으로 되어 있고, ‘云’을 ‘舉’ 앞으로 옮기라는 교정표시가 있다.

【與鄭子中】 2)

【連日得見兩報書，深荷然諾之意，不須三復煩告，但細思之，所援以爲言，如崔·吳數公，既是名賢所遭之時，又似不好，若聞者曲生註解，以成罪目，何所不至，慮至於此，不覺寒心，深悔發言之不審也，乞須曲諒此意，但與和叔極言滉狼狽之狀，以圖朝廷棄置之意而已，不必舉此數人爲故事而言之也，若和叔以無故事爲疑，則公可自考據，他事之切當，而無礙者告之，極善極善，或他未有可援，則公自以己見，微指崔公終不出而得致仕之事以告之以堅其意足矣，千萬勿涉辭於滉所云，幸甚幸甚，專爲此故，更煩此簡，惟在切照，不一】

【滉今日所遭，非但滉一身事，亦不無有係於公與和叔後日之患，不若善共圖免，庶無後憂也.】

1) (1566년, 66세) 4월 8일.

2) 『초초본』에 ‘與鄭子中[四月初八日]’ 되어 있다.

【別紙】

【追送此簡于榮川而不及，今此附便傳上者，爲公不可不知此意故也，前乎公未入京，得蒙遞閑之命，感幸莫喻，但憲秩知樞，依舊重壓，切欲終遂辭免，方蒙恩旨，卽復控辭，瀆甚未果，前日所望於和叔者，今正在此，幸須極置³⁾力於其間，懇祝懇祝，滉追恐.】

【亦非望於今日卽圖，謂異時觀勢圖之耳.】

3) : 『상계본』에 ‘致’로 되어 있다.

答鄭子中²⁾

連得四月廿八日五月十六日兩書，備悉諭意曲折，欣荷欣荷。去容臺入頓宮，無所不可。但李叔獻爲銓郎，而公負罰依舊，則乞外之便，尙多梗阻，果似有撓於素懷，然亦無如之何。只得安以俟之耳。和叔不拘一切之論，而能以辭受去就之宜見處，甚幸甚幸。得釋兩重，聖恩如天。濫秩峻職，尙未控辭。日夕憂悶，顧恐煩瀆。迨今遲徊，行且不免瀝乞，未知終何樣³⁾結訖⁴⁾也。今茲知樞，出於濫陞之餘，豈與前冒同知時爲比耶。辭不可緩而乃緩，尤以惶悚。和叔所患何證？今想已神相清茂如常矣。如見，爲我致意。明彥書寄示，甚慰離抱，其去就若如來示，有少可疑。然此人前途事，不可如老拙只守一隅，可行則當行，但於審可否之際，不可太草草耳。答書，煩附便風，令

1) (1566년, 66세) 6월 15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六月望日○子中時直講]’으로 되어 있다. 『정초본』에 행간부전지 ‘丙寅六月’이 있다.

3) 樣 : 『정초본』, 『번남본』에 ‘ ’으로 되어 있다.

4) 結訖 : 『상계본』에 ‘訖結’로 되어 있고, 앞뒤바꿈표시가 있다.

勿浮沈也. 示喻『大學』通讀, 獲聞餘論, 何慰如之. 其於鄙意未安處, 欲一一報白. 自顧蹤跡如此, 非與人往復辨論之時, 亦緣暑病疲臥, 未果如意, 良深負負. 醫官所聞, 朝野咸慶⁵⁾. 近覩邸報, 有問安事, 又伏增兢慮, 如何如何. 秋來覲行, 度在何時? 惟冀以時忝懋萬萬. 不宣⁶⁾. 【謹拜⁷⁾.】

【平壤印『朱書』. 乃大字云. 老眼甚欲得見. 不知可於景錫處問得否. 子精想已發行⁸⁾. 故不答其書. 如或未行. ⁹⁾望傳說.¹⁰⁾】

5) ……咸慶 : 『상계본』에 ‘負醫官所聞朝野咸慶負’로 되어 있고, ‘負’를 앞의 ‘負’ 앞으로 옮기라는 교정표시가 있다.

6) 『정초본』에 상란부전지 ‘再考止此’가 있다.

7) 謹拜 : 『중초본』에 산거부전지가 있다.

8) 發行 : 『상계본』에 ‘行發’로 되어 있고, 앞뒤바꿈표시가 있다.

9) ‘望’ 앞에 『초초본』,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亦’이 있다.

10) 平壤……傳說 : 『상계본』에 극행으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주목 상란부전지 ‘不書’가 있다.

別紙

“格物”·“物格”釋辭及兩註中“極處吐”，諸公說異同紛挐久矣．嘗廣考先儒說及此者，抄合參訂，草爲一說，猶有未恰然處，藏之篋笥中．今因來示，欲更加點化，以畢其說．但其中所引¹¹⁾元判書太¹²⁾初公，昔爲余言，“李晦齋¹³⁾復古先生，與朴瓢道人光佑論此，朴公主金大司成老泉之說，爭辨甚力，晦齋¹⁴⁾不以爲然．”云云．元公非不詳言，滉年久，記得不分明，恐或謬誤，欲更問而不可得，爲恨，公未可爲問取錄示否？雖未素知，自往或無妨．不然，因人轉問，豈無其便耶？

【靜存頻相見否．前得其惠書．至今未¹⁵⁾報．愧負愧負．】

11) : 『상계본』에 ‘因’으로 되어 있다.

12) 太 : 『번남본』에 ‘大’로 되어 있다.

13) 齋 : 『상계본』에 ‘齊’로 되어 있다.

14) 齋 : 『상계본』에 ‘齊’로 되어 있다.

15) 相見……今未 : 『상계본』에 ‘見否前得其惠書至今未相’으로 되어 있고, ‘相’을 ‘見’ 앞으로 옮기라는 교정표시가 있다.

與鄭子中²⁾

霾³⁾鬱異常，蟄鹽苜蓿，起處何似，瞻戀無已．銓郎叔獻爲之爲養之計，仍前阻遲．向云負罰，聞亦依舊，想心事多未快也．如何如何．濕癢憊⁴⁾日劇，殆無以自支．頃得洪退之・閔景說等書．皆以“名在卿相，與草野不同．屢召不至，安有此理”，責之至有“棄命中路”之語，令人驚惶失措⁵⁾．此數公皆平日見愛者，其言猶若是，其不樂者當何如也？集此成罪，恐不但嶺海爲死所也．然老病至此，不可以此而冒進，況今兩任皆遞．只爲恩命難違之故，抗顏而進，虛受虛退，此何等舉措義理耶？久稽辭免，又極未安，不得已又上此狀．未知厥終何如？仄⁶⁾惕顚俟而已．其

1) (1566년, 66세) 7월 9일.

2) 『초초본』에 ‘與鄭子中[七月初九日]’로 되어 있다. 『정초본』에 상란 부전지 ‘丙寅七月’이 있다.

3) : 『초초본』, 『중초본』, 『정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霾’로 되어 있다.

4) 憊 : 『상계본』에 ‘備’로 되어 있다.

5) 措 : 『번남본』에 ‘惜’으로 되어 있다.

6) 仄 : 『정초본』에 ‘廁’으로 되어 있고, 교정기 ‘仄’이 있다.

末乞致仕之云，尤恐激發嫌怒．然此非獨古人以爲家常茶飯，見『筆苑雜記』末云云．是麗時成俗如彼，至成宗⁷⁾朝猶然，皆因自乞致而令致，以滉老病當致，援例懇乞，豈爲非耶？今去別小紙，本欲示景說，更思此老意思甚好⁸⁾，猶有難盡語者，乃轉以呈左右．度今日物論，盡如洪·閔二公，則雖和叔·方叔，不無有疑於滉所爲也．公未可以己所見古人事有如此者，諭知和叔諸君耶？前月，安東府便附一書，未知達否？禍福成敗，一付造物．然此身長在艱危中，何以則能得好出場耶？可歎．未卜面日，珍愛加勉．【不具．】

書-鄭惟一-95-1

別紙

有除樞副而辭不拜者，^[9]司馬公.] 有召以提宮兼侍讀，

7) :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恐是高麗成宗’이 있다.

8)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好上恐無脫字傳本無脫’이 있다.

9) 『중초본』에 주목상란부전지 ‘註單行下同’이 있다.

且虛門下侍郎以待，而固辭不至者，[范景仁.] 有¹⁰⁾自謫所放還，在道拜殿學士・宮使，遣中使促入覲，乞歸養疾而不至者，[范純仁.] 有再召以給事中而不至者，[胡安國.] 有自除通判，至除直顯謨閣，凡七除召而竟不至者，[劉宰.] 有以藩臣病歸後，召以禮部¹¹⁾尙書・參政右相，至十三疏而不至者，[崔與之.] 姑舉此數人，餘不勝記。

右諸公皆抱經濟之具，其出可以尊主庇民，其中除范純仁失明外，其餘老病不至於已甚，又非有其前難仕顛沛之故，而猶如彼，況如滉空疎盜名，每趨召命，輒以難仕，蹭蹬而歸，如是者四五，今又強進，道病窮迫，不得已而至此，恐不可不原情而定罪也。若曰“彼皆賢人君子，故可以道義爲進退，汝滉何人，而敢欲效彼？此正與滉見相反。滉意妄謂，彼足以當恩命而見後效，可受而猶不受，滉不堪恩命而無後效，不當受而冒¹²⁾受，尤難故也。如此援引，亦恐召謗而取怒。只緣前見洪相書云云，今見令書云云，知時議

10) : 『상계본』에 없다.

11) 部 : 『초초본』, 『중초본』, 『정초본』에 없다. 『중초본』, 『정초본』에 교정기 ‘部’가 있다.

12) 冒 : 『상계본』에 ‘冑’로 되어 있다.

皆如此，其勢將至於坐以違命之誅．雖所甘受，然臣子而得此名以死，天地鬼神所不容，恐不能瞑¹³⁾目於地下．敢此控呈，庶少露愚衷信古致誤之所由，不知令意可垂矜憫¹⁴⁾與否？惶仄¹⁵⁾無已．¹⁶⁾

書-鄭惟一-95-2

別紙

宋崔與之自四川制置使，召爲禮部尙書，以疾乞歸廣州，每有除命，皆力辭不起．後以參知政事，召命益力，與之控辭至十三疏，不許，後又辭右丞相不至，未幾，得奉祠三年而卒．論者謂與之年壽旣高，胡人方熾，非筋力衰憊者之可辦云云．¹⁷⁾人皆謂滉恩眷隆重，不可固辭．不急趨謝恩，雖滉亦不能無疑於此．

13) : 『초초본』에 ‘瞑’으로 되어 있다.

14) 憫 : 『초초본』, 『중초본』, 『정초본』에 ‘憫’으로 되어 있다.

15) 仄 : 『정초본』에 ‘厠’으로 되어 있고, 교정기 ‘仄’이 있다.

16) ? :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此書本欲■…■故耳’가 있다.

17) ‘人’ 앞에 『초초본』에 한 칸이 비었고, 상란부전지 ‘人上本草空非落書也更詳次’가 있다.

今據與之事如彼，方廓然無可疑矣。所慮時議不深考此例之有無，一以違忤斷之，則區區素抱，無路可明於聖世，故如前日所望者，不可緩耳。但此與前所云數人，皆系名賢出處之大節，如吳則其末，又有褒異等事。【[此事尤不可出口¹⁸⁾]】如我庸人，僭妄援引爲言，又是大罪，不但喫人笑罵而已。深恐深恐。所以如此云者，只欲令吾弟，知古人臣老病欲退者，不强拘致而從其志，有某某例，因以善圖之耳。【前紙與此紙。卽付丙丁。千萬勿示人。至懇至祝。】

18) ……出口：『중초본』에 산거부전지가 있다.

【與鄭子中】 2)

【聞有歸期，未知至否，殊以懸懸，臺評之由，流傳不一，甌已墮矣，固不足顧，亦緣臨事失措處，當深作後日之戒耳，然得閑之幸，想大愜高懷矣，滉尙未蒙恩放，憂惶病劇，伏聽嚴譴，奈何奈何，朴子進頃有書來，以形迹之間見責云，此乃諸友之意也，此何謂也，不知公亦聞之否，諸有所聞煩冀示破，會面一事，恐不須太速，徐俟³⁾後日乃可，謹姑問候，不具.】

【李復古先生編述諸藁，全箱送還有考訂處敢白.】

【別紙】

【命召諸人中成運，已入京云，其餘人竟何如，李恒，

1) (1566년, 66세) 9월 12일.

2) 『초초본』에 ‘與鄭子中[九月十二日]’로 되어 있다.

3) 俟 : 『상계본』에 ‘俟’로 되어 있다.

已發行云，何無入京信耶，曹植，行止何如，金範・林薰，病辭後，更不促召耶.】

【答鄭子中】 2)

【頃得守山附³⁾便書及諸公書，具審在道安好，又畧聞物情大槩，欣慰之餘，悚惕⁴⁾尤劇，和叔書所云，無非敦曉鐫責之意，中間微露來書所諭之意，自聞此以來，憂恐益深，心疾轉劇，不知所措躬也，奈何，心事如此，杜門謝客，理勢自爾，非過愼也，然而尙不得如意，右點馬金某有先聲，走簡辭之，不聽而來云，此亦似爲年少輩搔擾之一端，必招謗言，恨如之何，所諭果甚不佳，其末，豈但已也，來初欲枉，固所願也，當力疾奉候，姑此拜謝。】

【李全仁疏所答如何，此事愚意不欲如此，全仁不聽奈何，雖得恩獎，恐亦非便耳，曾有小簡，送在末巖審侄⁵⁾處，尙未傳上左右耶，李二⁶⁾相所纂諸書，來時携來爲望。】

1) (1566년, 66세) 9월 27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九月廿七日]’로 되어 있다.

3) 附 : 『상계본』에 ‘付’로 되어 있다.

4) 惕 : 『상계본』에 ‘仄’으로 되어 있다.

5) 侄 : 『초초본』, 『중초본』에 ‘姪’로 되어 있다.

6) 二 : 『상계본』에 ‘貳’로 되어 있다.

【與鄭子中】 2)

【陶僧齋³⁾捧寄書來，未及修⁴⁾謝，具生昨來，復承手字與明彥入都書，喜且釋憊，不可言，葺居勞役，固不得已，但其費入浩煩，殆非清計所可支吾，亦弊居曾所慣經，故知其不易，如何如何，且學職叙復已久，西計尙遠，得無有過限之碍乎，具白二君要書紙竝收得，但今玆呵凍，似難卒應副耳，玉山先生遺事深荷留意，其文字猶未了畢，雖了亦似難輕出也，桑林之責，正如所諭，昔人亦有因此等機會，有叫閭之舉，今徒感激暗嘿⁵⁾，有同寒蟬，眞所謂愧古人以忸怩也，明彥行止，果與去年圖退之意相乖，然其來也亦出於不得已，蓋非有如拙者老病等項可籍以爲辭者，如何易避得耶，答書草上未西行前，如或與彼書并此致之望望，士敬又得講經，尤可喜，只有一嶺，不知如何

1) (1566년, 66세) 윤10월 26일.

2) 『초초본』에 ‘與鄭子中[閏十月廿六日]’로 되어 있다.

3) 齋 : 『상계본』에 ‘齊’로 되어 있다.

4) 修 : 『상계본』에 ‘脩’로 되어 있다.

5) 嘿 : 『상계본』에 ‘ ’으로 되어 있다.

度耳，公旣家多冗務，又已行到豐山，距此絕遠，安能更從迂道⁶⁾歷此乎，又西行不遠，難爲面晤，故今因具生之還，畧披區區，度臨當西邁更上一書，謹拜.】

【二公疏，後日到京，收寄未晚也.】

6) : 『상계본』에 ‘路’로 되어 있다.

【與鄭子中】 2)

【聞有諫垣之命，朱驪已到，不知當何啓途，具生之還，附³⁾一書，想已收覽否，此間有不盡遐思，無暇對披泓穎，又何能述，明彥處一封書，并前書好傳之，幸甚幸甚，鄭子精有書兼朝報來致，今未報及，李仲久修⁴⁾問亦未暇作，皆爲我多謝，餘惟珍恙⁵⁾自重，謹拜問.】

【物格知至等處訓釋，須細問元判處，寫示望望，因其壻有可問之勢故云.】

1) (1566년, 66세) 11월 6일.

2) 『초초본』에 ‘與鄭子中[至月初六日○子中時獻納]’으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去誠一’이 있다.

3) 附 : 『상계본』에 ‘付’로 되어 있다.

4) 修 : 『상계본』에 ‘脩’로 되어 있다.

5) 恙 : 『상계본』에 ‘(比+心)’로 되어 있다.

【答鄭子中】 2)

【聞有薇垣之除，想行日不遠，今朝奉一書，付從孫宗道呈似，未頃而侁書來入手慰幸慰幸，安東還日違奉勢使然耳，奈何，今之進赴，正是難處，元老大臣瀝血如許猶且若是尙何他云，然公之去就，不無有辭，在公審幾善處之耳，大槩愼密爲上，不能一一，所諭辭受之難，正爲此中所極難處，亦不能爲公謀也，甚可懼也，領相疏寄惠，以豁愚抱深荷深荷，餘具前書，對客不一，謹拜謝。】

1) (1566년, 66세) 11월 7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至月初七日]’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행간 부전지 ‘去誠一’이 있다.

【別紙】 3)

【奇明彦人心道心說，四端七情後說總說，曾已見否，今以呈似，覽後封付具生，或從孫宗道贅家送來，令母⁴⁾失去也，聞李隱者之蕃，又移卜于慶安驛下小川之上，有書來相問，今此答去，請入京以附⁵⁾其子正郎君，令其必傳也.】

3) 『 』에 행간부전지 ‘去誠一’이 있다.

4) 母 : 『상계본』에 ‘無’로 되어 있다.

5) 附 : 『상계본』에 ‘付’로 되어 있다.

【與鄭子中】 2)

【安道來云，遇行於逆旅，稍慰離思，自後一向不聞外事，卽今想惟薇垣，清切神相匪懈，然既居其地，既不可不預時事，又不可不虞事機，不知如之何如之何，老病微物稽違踰年，漸蒙寬典，匿瑕爲幸³⁾，惟以公等在朝，其於爻象得失之際，每以爲憂，不啻在己不知盛意以爲如何，銓郎向聞有闕，何久未聞，抑已有除命而此未聞耶，開春想歸計不遲，然銓除未經，則又恐牽掣不已也，明彥時在蓮亭否，有無限商量事，病倦畏作頻書，未果，如見幸爲致意，正苦耳中風聒，無聊不宣，惟珍懋迓慶，謹問。】

【『朱子書』，有言及學易集云，見其當紹聖元符之際，愁居懾處之狀云云，不知此集是何人所著⁴⁾，『文獻通考』諸⁵⁾集名類中，考出錄⁶⁾示何如，此中

1) (1566년, 66세) 12월 13일.

2) 『초초본』에 ‘與鄭子中[十二月十三日]’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去誠一’이 있다.

3) 幸 : 『상계본』에 ‘倖’으로 되어 있다.

4) 著 : 『초초본』에 ‘着’으로 되어 있다.

無此書故云，聞光州新刊『朱子實紀』⁷⁾，如見金文
之，爲求之何如⁸⁾。】

5) : 『상계본』에 없다.

6) 『초초본』에 상란부전지 ‘■……■當錄下格■……■答’이 있다.

7) 紀 : 『초초본』, 『상계본』에 ‘記’로 되어 있다.

8) 何如 : 『상계본』에 ‘如何’로 되어 있다.

答鄭子中

2) 【格物. 物格³⁾. 欲其極處. 物理之極處. 表裏精粗. 五說詳在別紙.】

【公謂詣於物理是也.[⁴⁾但以知言則未安.]太輝說詣字. 非窮至事物之理.[當云隱⁵⁾.1】

“志意”之論，昔年往復盡之。今詳所論，大槩公得之。但二字，道理元來不相統屬，不相首尾，何可分先後耶？本不當分而強分之，故往往未免有少費力說處，或先或後，當⁶⁾隨事各作一道理看，可也。

費・隱，以道言，乃形而上之理也。以其顯而言，則謂之費，以其微而言，則謂之隱，非有二也。故曰“體用一源，顯微無間。”若以形而下者爲費，則豈一

1) (1566년, 66세) 12월 13~30일(그믐).

2) 『초초본』에 상란부전지 ‘■……■考移入■……■類’, ‘此問答當是丙寅今入於此■……■等處必須詳次’가 있다.

3) 物格 : 『상계본』에 ‘格物’로 되어 있다.

4) 『중초본』에 주목상란부전지 ‘註單行’이 있다.

5) 格物物格……當云隱 : 『중초본』에 주목행간추가 ‘不書’가 있다.

6) 分而強分之……後當 : 『상계본』에 없다.

源・無間之謂乎？禹景善亦以太輝說爲是，引本節小註朱子說爲證，此誤看此段說而云云也。詳朱子意，非以形而下爲費，因或人所舉形而上・下兩言而言，故先說形而下者之廣⁷⁾，而乃曰“形而上者，實行乎其間，而無物不具，無處不有，故曰費。則⁸⁾其說形而下者，正所以爲說形而上者設耳。實非以費字當形而下之物也。亦如『章句』解“天命之謂性”處，先言陰陽五行，而後乃曰“理亦賦焉⁹⁾”。今豈可因此而說“天命之謂性”亦爲氣乎？

又按，“道不可離”章『或問』所論龜山楊氏“無適非”道之說云云。今專以形而下，爲道之用，則便是以衣食作息視聽舉履爲道，而不知其義理準則之爲道。豈子思・朱子之意乎？故『語類』中朱子諸說費・隱，皆以“道”字・“理”字言之。其中一段，雖云費是形而下者，隱是形而上者，而其下答或說曰“這箇也硬殺裝定說不得，須是意會可矣。以物與理對言之，是如此。只以理言之，是如此看來，費是道之用，隱是道之所以然而不可見處。”此段首說，略似太輝說，

7) : 『갑진중간본』에 두주 ‘廣字當攷’가 있다.

8) 則 : 『상계본』에 ‘之’로 되어 있다.

9) 焉 : 『상계본』에 ‘言’으로 되어 있다.

其末，終以理字・道字結之，太輝必欲偏守餘意之一說，而不用元來不易之本義，誠不可曉也。

盧寡悔說如彼，切恐所見有差誤處，深可慮。

“格物”・“物格”俗說辯疑，答鄭子中，

“格物”，[物乙格乎麻々] 註，欲其極處[厓] 無不到也.

“物格”，[物厓格為隱] 註，物理之極處[厓是2)] 無不到也. 3)“格” 字有 “窮而至” 之義. “格物”，重在 “窮” 字，故云 “物[乙] 格”[乎麻是4).] “物格”，重在 “至” 字，故云 “物[厓] 格”[為隱.] 5)一說，“物理之極處”[是] 亦通.⁶⁾

補亡章，“衆⁷⁾物之表裏精粗⁸⁾[是] 無不到”，

按今人，以 [厓是9)] 辭爲疑者有二焉. 一謂理本在吾心，非有彼此，若云 [厓是10).] 則是理與我爲二而分

1) (1566년, 66세) 12월 13~30일(그믐).

2) 厓是 : 『초초본』에 ‘ㄱ 々’로 되어 있다.

3) ‘格’ 앞에 『초초본』, 『중초본』에 권점 ‘○’가 있다.

4) 是 : 『초초본』에 ‘ 々’로 되어 있다.

5)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一說亦通此行高低[更]議次’가 있다.

6) 『중초본』에 주묵행간부전지 ‘此字行高低更議次’가 있다.

7) 衆 : 『상계본』에 ‘家’로 되어 있다.

8) 精粗 : 『초초본』에 ‘粗精’으로 되어 있고, 상란부전지 ‘粗精疑乙’이 있다.

9) 厓是 : 『초초본』에 ‘에’로 되어 있다.

彼此，故不可也。一謂功¹¹⁾效，註若云 [厓是¹²⁾.] 則是涉工夫著力，故不可也。然愚嘗歷考先儒諸說矣。程子曰“格，至也。窮之而至其極。”朱子曰“理之在物者，既有以詣其極而無餘。”又曰“須窮極事物之理到盡處。”延平曰“凡遇一事，且當就此事，反覆¹³⁾推尋，以究其理。”西山曰“於天下事物之理，窮究到極處。”此皆謂理在事物，故就事物而窮究其理，到極處也。何者？以理言之，固無物我之間，內外精粗之分，若以事物言之，凡天下事物，實皆在吾之外，何可以理一之故，遂謂天下事物皆吾之內耶？[¹⁴⁾羅整菴¹⁵⁾有一說可取，曰“近時格物之說，要將“物”字牽拽¹⁶⁾向裏來，然畢竟牽拽¹⁷⁾不得，分定故也。”] 惟其事事物物之理，即吾心所具之理。不以物外而外，亦不以此

10) : 『초초본』에 ‘에’로 되어 있다.

11) 功 : 『초초본』, 『중초본』에 ‘工’으로 되어 있다.

12) 厓是 : 『초초본』에 ‘에’로 되어 있다.

13) 覆 : 『상계본』에 ‘復’으로 되어 있다.

14) 『중초본』에 주목상란부전지 ‘註單行’이 있다.

15) 菴 : 『초초본』에 ‘庵’으로 되어 있다.

16) 拽 : 『초초본』,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 ’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추가 ‘傳本亦作拽’를 한 주목상란부전지 ‘拽从手’가 있다.

17) 拽 : 『초초본』,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拽’로 되어 있다.

內而內，故先儒雖謂之理在事物，非遺此而言彼也。雖謂之“卽事”·“卽物”，非舍己而就彼也。雖曰“詣其極”，曰“到極處”，曰“到盡處”，亦非謂心離軀殼而自此走彼之謂也。然則讀以 [厓是18)] 辭，非有與理爲二之嫌，有何所疑¹⁹⁾乎？²⁰⁾或曰“在‘格物’工夫，如此讀可矣。至於‘物格’功²¹⁾效，則物理之極處，悉皆已至，乃是衆理融會之後，若云 [厓是22).] 則語有主·賓。似若方做逐件工夫，又似有著力意思，爲不可。故須曰‘極處’[是23)]。乃見其融會之妙，無容力之效矣。”曰“是亦不然。衆理融會，乃是‘知至’之事，不當言於“物格”之效。況語有主·賓，亦理勢自然，何可避也？昔，江德功欲訓“致知”以“窮理”，朱子非之曰“知者，吾心之知，理者，事物之理。以此知彼，自有主·賓之辨，不當以此^[24)知也]字訓彼^[理也]字也。”今詳此說，所論乃致

18) : 『초초본』에 ‘에’로 되어 있다.

19) 疑 : 『상계본』에 없다.

20) ‘或’ 앞에 『초초본』, 『중초본』에 권점 ‘○’가 있다.

21) 功 : 『초초본』, 『중초본』, 『번남본』에 ‘工’으로 되어 있다.

22) 厓是 : 『초초본』에 ‘에’로 되어 있다.

23) 是 : 『초초본』에 ‘이’, 『갑진중간본』에 대자로 되어 있다. 『갑진중간본』에 두주 ‘上是字卽吐當作小字’가 있다.

知工夫，實是衆理融會之妙．似若無物我之分，猶可以彼此・主賓言之．況此“物格”之說，只是說那事物之理之極處[厓] 無不到云耳．未說到這邊融會之妙來．夫指其處而言其已至，則其有主・賓之辨，比之朱子之說，豈不更分明乎？[25]至者爲主，極處爲賓．] 如此則讀之以 [厓是26)] 辭，何不可之有哉？．雖於功27)效，仍用此辭，豈遽有著力之嫌乎？比如有人自此歷行郡邑至京師，猶“格物致知”之工夫也．已歷郡邑，已至京師，猶物格知至之功效也．豈可謂於“方行”・“方至”，可以言郡邑[厓是28)] 歷行[爲也29)] 京師[厓是30)] 來至[他爲也31).] 以爲工夫之說，於已歷・已至・必變辭曰郡邑[是32)] 已歷[爲也33)] 京師

24) 『 』에 주목상관부전지 ‘註單行下同’이 있다.

25) 『중초본』에 주목상관부전지 ‘註單行’이 있다.

26) 厓是 : 『초초본』에 ‘예’로 되어 있다.

27) 功 : 『초초본』, 『중초본』, 『변남본』, 『상계본』에 ‘工’으로 되어 있다.

28) 厓是 : 『초초본』에 ‘예’로 되어 있다.

29) 爲也 : 『초초본』에 ‘ㄴ 也’로 되어 있다.

30) 厓是 : 『초초본』에 ‘애’로 되어 있다.

31) 他爲也 : 『초초본』에 ‘타ᄃ야’로 되어 있다.

32) 是 : 『초초본』에 ‘이’로 되어 있다.

33) 爲也 : 『초초본』에 ‘ᄃ야’로 되어 있다.

[是34)] 已至[羅沙35)] 乃可謂功³⁶⁾效耶? 若如此說, 則“已歷”者非人, 乃郡邑也. “已至”者非人, 乃京師也. 推之以釋“物格”, 則格者非我, 乃物也. 釋“極處”, 則“到者”非我, 乃極處也. 此不成言語・不成義理, 膠謬³⁷⁾不通之說, 不可從也. 38)曰“然則只從[厓39)] 辭足矣. 何以云[是40)] 辭亦通乎? 曰“此與今人所謂[是41)] 辭者, 辭同而旨異者也. 夫今所云[是42)] 者, 謂物理之極處[是43)] 自無不到於吾心, 卽牽拽向裏之病, 非也. 吾所云[是44)] 者, 謂衆理之極處[是45)] 無一不到之處也. 則理依然自在事

34) : 『초초본』에 ‘이’로 되어 있다.

35) 羅沙 : 『초초본』에 ‘라아’로 되어 있다.

36) 功 : 『초초본』,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工’으로 되어 있다.

37) 謬 : 『상계본』에 ‘膠’로 되어 있다.

38) ‘曰’ 앞에 『초초본』, 『중초본』에 권점 ‘○’가 있다.

39) 厓 : 『초초본』에 ‘에’로 되어 있다.

40) 是 : 『초초본』에 ‘이’로 되어 있다.

41) 是 : 『초초본』에 ‘이’로 되어 있다.

42) 是 : 『초초본』에 ‘이’로 되어 있다.

43) 是 : 『초초본』에 ‘이’로 되어 있다.

44) 是 : 『초초본』에 ‘이’로 되어 있다.

45) 是 : 『초초본』에 ‘ㅣ’로 되어 있다.

物，而吾之窮究無一不到處耳。故曰亦通。〔46〕須於“無不到”下，又帶一“處”字意說來，方得語意，蓋由其上有“處”字，下又以“無不到”之處意看，故“極處”下〔是47〕辭得通。若不言“無不”，而單言“格”字・“到”字處，用〔是48〕辭釋，則同歸於上文變辭者之病。故經文“物格”，不可用〔是49〕辭，惟於註文用之，可通耳。〕至於補亡章，則乃合表裏精粗而言其無不到，則渾淪無處之可言。又與向之指極處而言者，意思微有不同，故不用〔是50〕辭，只用〔是51〕辭讀，其語意方渾成而圓活。斯義也惟駱峯申先生得之。其說見別紙52)。

右皆就舊傳諸說而論之。嘗欲以愚意爲“物格”之釋曰“物〔麻多53〕格〔爲隱後54〕。”如此則中含“無不到”之意，而無兩爭之端，但人創聞新語，未必相信

46) 『 』에 주목상란부전지 ‘註單行’이 있다.

47) 是：『초초본』에 ‘이’로 되어 있다.

48) 是：『초초본』에 ‘이’로 되어 있다.

49) 是：『초초본』에 ‘이’로 되어 있다.

50) 厓：『초초본』에 ‘에’로 되어 있다.

51) 是：『초초본』에 ‘이’로 되어 있다.

52) 或曰在格物工夫……別紙：『번남본』, 『상계본』에 별행으로 되어 있다.

53) 麻多：『초초본』에 ‘마다’로 되어 있다.

54) 爲隱後厓：『초초본』에 ‘후후에’로 되어 있다.

耳.

“格物”・“物格”兩註說，記嘗聞見諸公語，
滉少時入成均，時尹先生倬爲大司成，嘗問“物格”
註55)“極處”。[吐.] 尹公曰“當云 [是56).]”問“是
謂理之極處[是57)] 自到吾心否?”，公但曰“非也.”
不言其所以非之故。每以不能‘審問’爲恨。元判書
太初，往年嘗爲余言，昔金大司成老泉，讀“欲其極
處”與“物理之極處”，皆曰 [是58).] 後朴瓢道人光
佑主金說，而李晦齋復古，則兩處皆讀曰 [是59).] 深
以朴說爲不可。朴亦不服，辨爭甚力。李公因歎“今
人不曉人言意，不可與論學。”然三公所以爲說者，
則皆不可得聞也。癸丑年間，滉忝爲成均日，知館事
駱峯申先生論此以 [是60)] 辭爲是，而略解其義。又
云，苟知此意，則‘功61)效’註62)，雖云‘極處’[

55) : 『초초본』에 ‘注’로 되어 있다.

56) 是 : 『초초본』에 ‘이’로 되어 있다.

57) 是 : 『초초본』에 ‘\’로 되어 있다.

58) 是 : 『초초본』에 ‘\’로 되어 있다.

59) 厓 : 『초초본』에 ‘에’로 되어 있다.

60) 厓 : 『초초본』에 ‘에’로 되어 있다.

61) 功 : 『초초본』, 『중초본』, 『정초본』, 『번남본』에 ‘工’으로 되어 있다.

是⁶³⁾.] 固亦無妨。”因手披傳十章之末而指之曰“假如言讀此書，自卷初至此處[是⁶⁴⁾]無不盡也。豈不可也？”滉竊詳申公此語，實得其意。蓋雖曰“極處”[是⁶⁵⁾.]其所謂到者，依舊只是窮至其極處耳。非謂“極處”[是⁶⁶⁾]自至於我也。[⁶⁷⁾但申公說亦有未盡者，“極處無不到”，實謂衆物之極處，無一不到之處也。如以『傳』十章，爲『大學』之“極處”，則“堯曰”之末，爲『論語』之極處，“盡心”之末，爲『孟子』之極處，『中庸』之末，爲『中庸』之極處。謂此等許多“極處”，無一不到之⁶⁸⁾處也。今公只以讀到『大學』一書之極處，爲“無不到”，是爲未盡耳.]

世傳一『釋義』云，格物，推吾之知，至於彼物也。物格，物之法度，自至於法度，此不知何人說。而元太初云，金老泉說類此。滉謂金公號精於經學，恐不至如此之謬。蓋推吾之知，乃致知事，今以言於格⁶⁹⁾物，

62) : 『초초본』에 ‘注’로 되어 있다.

63) 是 : 『초초본』에 ‘이’로 되어 있다.

64) 是 : 『초초본』에 ‘\’로 되어 있다.

65) 是 : 『초초본』에 ‘\’로 되어 있다.

66) 是 : 『초초본』에 ‘이’로 되어 있다.

67) 『중초본』에 주목상란부전지 ‘註單行’이 있다.

68) 之 : 『번남본』, 『상계본』에 없다.

69) 推吾……於格 : 『상계본』에 ‘吾之知乃致知事今以言於格推’로 되어 있고, ‘推’를 ‘吾’ 앞으로 옮기라는 교정표시가 있다.

已爲非矣. 謂理爲法度, 尤所未喻. 而謂自至於法度者, 卽極處自無不到之意, 而謬⁷⁰⁾則益深⁷¹⁾. 若金說果如此, 而朴公主之, 宜乎李公之不以爲然也. 但“物格”註⁷²⁾吐⁷³⁾, 如申公所釋之意, 則或 [厓⁷⁴⁾]・或 [是⁷⁵⁾.] 兩無所礙. 李公必欲并此處去 [是⁷⁶⁾] 而取 [厓.] 此則微似太⁷⁷⁾執耳⁷⁸⁾.

申公又曰 “李復古云, 心到極處.” 此說非也. 若謂“心到”, 則是已涉“知至”, 非物格也. 元公亦云, 李公謂“我到極處”, 非也. 愚謂“窮到極處”, 固心也我也⁷⁹⁾. 然說著“心到”・“我到”, 便有病, 只當云“窮到極處”, 可也.

70) : 『상계본』에 ‘諭’로 되어 있다.

71) 深 : 『초초본』에 ‘甚’으로 되어 있다.

72) 註 : 『초초본』에 ‘注’로 되어 있다.

73) 吐 : 『상계본』에 소자로 되어 있다.

74) 厓 : 『초초본』에 ‘에’로 되어 있다.

75) 是 : 『초초본』에 ‘이’로 되어 있다.

76) 是 : 『초초본』에 ‘\’로 되어 있다.

77) 太 : 『변남본』에 ‘大’로 되어 있다.

78) 世傳……執耳 : 『변남본』, 『상계본』에 상단과 연결되어 있다.

79) 非也……我也 : 『상계본』에 ‘也愚謂窮到極處固心也我也非’로 되어 있고, ‘非’를 앞의 ‘也’ 앞으로 옮기라는 교정표시가 있다.

【答鄭子中[丁卯]】 2)

【近因鄭子精書，知自關西甫還都中，又見朝報，知與選製官³⁾，恐歸省之行，或未諧遂，忽奉手問，承已稅駕有日，欣釋病鬱，不可名言，滉冬間積纏寒邪，歲初暴發，痰喘遍體，無不受病，證勢險烈，衰殘氣血，極喪殆盡，數日來僅得舉頭，然尙守床席，未敢出外見客，以畏寒忌風故也，前書所云，聊達鄙悃，豈敢妄議於去就之間乎，華使之來，朝無收拾使令，意自垂死病身言之，固爲寬恩大幸，若自臣子意⁴⁾分言之，平時沐浴膏澤，緩急莫效涓⁵⁾埃，豈理也哉，況當動搖不動搖之間，必多有不平其心不恕其言者，此尤可懼之甚，而無如之何，然以如此之病，使當許大委責則又當如何，此則不待智者而知滉之情矣，惠

1) (1567년, 67세) 2월 8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丁卯二月初八日○子中時遷直講]’으로 되어 있다.

3) 官 : 『상계본』에 ‘宦’으로 되어 있다.

4) 意 : 『중초본』에 ‘義’로 되어 있다.

5) 涓 : 『번남본』에 ‘消’로 되어 있다.

及香藥二封，及許·奇·金·禹·鄭諸書，諸物俱領受，感愧深至。隨後當各酬答，『晦菴書』，字大合於老眼，但其重如此，不知公何以能挈致耶，蒙許枉訪企企，倦劇草率，拜復，】

【似聞中和郡刊庸學釋義，公何不索取燒破耶，急作書託明彥使之燒去，未知書能及達否，不任慙汗。】

【與鄭子中別紙[丁卯]】²⁾

【和叔入臺，正如所喻。明彥酒戒，書末畧及之，未知其能聽否？花潭贈典，鄙見不似來喻。滉向來亦甚慕其人，以其能奮於頽俗有以自樹立也。後來見得太自誇逞，全無帖地著³⁾實意思，若果真有所得，豈敢如此耶？而其門人推尊亦太過情，此弊不少。竊謂領相議爲是而贈典適中，恐不須以爲不足也，如何如何？昨得朝報數紙，王大妃證候甚危急，主上所以慰安祈懇之意，出於誠切，不勝歎仰之極。幸而證候稍復，未必不出於感格所致，甚盛甚盛。就中宋同知純辭召命書狀，自陳年七十五歲病重難行，意極迫切，而尚未蒙允，以此益知拙迹一展難縮，一入難出，其間滯留應接之際，寧保一一中適而無悔吝乎？積失積毀，駭機飛禍所由而發，一拙或敗，恐不能無累於諸公，亦勢所必至也。傳語和叔·明彥諸公，必須相與周

1) (1567년, 67세) 3월 1~20일.

2) 『초초본』에 ‘與鄭子中別紙[三月]’로 되어 있고, 상란부전지 ‘■…… ■他冊次’, ‘■…… ■紙當入拾遺’가 있다.

3) 著 : 『초초본』에 ‘着’으로 되어 있다.

旋，令拙跡仍舊置諸草野中，無所預於時事，庶幾可保年歲間，拙者安，則諸公安矣。如何如何？千萬千萬。鄭·具二君書紙，病未及寫，然俟稍安不至忘失耳。欲言甚衆，書何能悉。】

【別紙】 2)

【僕曾與和叔書別紙，論己卯事云 “比之博者，一手虛著，全局皆敗。自今思之，非但一手，每手皆虛著³⁾，加以誤著，安得不敗？今日朝賢欲獎用虛名士，以聳動觀聽，已是一大虛著，況復有大誤著數手在前乎？大尹事，其必有兇謀，當時雖不能明知，其必無兇謀，今日又豈能明知？況其時可疑蹤跡，非止一二，今豈可追救？尹不可救，則二柳又安可救？三者皆在不可救，則功雖有濫，請罷尤難。元祐諸賢，革新法，復舊法，小人猶託三年無改之說，以起大禍，況此事所關，非革法之比，諸公何不思之甚⁴⁾，欲放手誤着乎？若使已誤，吾輩亦不可謂在家不知。公近若遣人入都，須密與明彥書，具道此曲折，使及其未著而力圖止之，幸甚。[兼須力止諸賢銳志欲速，張皇更變，鼓作紛紜等事，并勸之⁵⁾。]】

1) (1567년, 67세) 3월 1~20일.

2) 『초초본』에 상란부전지 ‘■……■移錄’, ‘■……■遺’가 있다.

3) 著 : 『초초본』에 ‘着’으로 되어 있다.

4) ‘甚’ 뒤에 『초초본』에 ‘而’가 있다.

【答鄭子中】²⁾

【想西行在近，或欲俾候發日，私冗乏人，久負鬱恨，反蒙墜翰，愧感不已，知公有營造此³⁾事，曾所慣知，出入安得如意耶，滉兩朔臥病，今亦未剗病根，種種間發，命下之後，稽滯至此，惶震日深，無地自容，奈何，但從前製述抄人，皆臨時赴都，姑以此爲辭，觀其間病勢以處之，此目前苟爲計如此，心中亦自籌度，前既不敢當異恩，今復欲辭例召，誠有甚未安者，故如此云云，然入都之後，事事皆難處，只以頃日諸被召人等，在都下時，紛紛事觀⁴⁾之，鄙人事體，又有甚難於諸人者，誠恐或有因致駭機之發者，無乃不如掃萬停行之爲愈也，得都下親舊人所云，亦不一，或云不可不來，或云諸卿相意亦不謂其必來而然也，雖不來，不至相怪也云云，若此言爲是則尤不必強作

5) ……勸之：『초초본』에 별행에 대자로 되어 있다.

1) 정묘년(1567년, 67세) 3월 26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三月二十六日]’로 되어 있다.

3) 此：『상계본』에 ‘化’로 되어 있다.

4) 觀：『상계본』에 ‘言’으로 되어 있다.

也，況一入難出，其末叵測，慮患未易究陳，只在默喻也，如何如何，至京後審量時勢，速以喻及懇懇，如公去就，不至甚難而未決，果爲未安，秋來之計，若諧則甚善甚善，持示諸書許·禹·金·鄭皆已報去，明彦書今修⁵⁾答去，李仲久及平安方伯謝簡并上，照傳爲望，士敬得中可喜，迷孫不才不中，何怪，餘在別紙，人忙不宣，謹拜復。】⁶⁾

【別紙[文不錄]】⁷⁾

5) : 『상계본』에 ‘脩’로 되어 있다.

6) 『초초본』에 행간부전지 ‘何無別紙’가 있다.

7) 別紙文不錄 : 『초초본』에 ‘別紙’로 되어 있고, 『변남본』, 『상계본』에 없다. 『중초본』에 주목말거표시, 상란부전지 ‘別紙文不錄去之此書札家藏本’이 있다.

答鄭子中[丁卯]²⁾

別後，秋且向盡，日以馳思。金而精奴來，傳去八月二十日書，喜慰可知。滉頃者之歸，誠有徑率不情之疑。當時已料其或致紛紛。今之所聞，過於所料，殊有不可曉者。然靜言思之，亦不足怪。何者？諸公於滉平昔所苦心處與頃日所大懼者，一切不問，而惟以“情”之一字斷置。非惟諸公爲然，如吾子中與和叔亦然，非惟³⁾兩君爲然，雖如明彦，亦不過如是而已。如之何不以爲罪耶？大抵聲聞⁴⁾過情，古人以爲大恥。滉乃因此而賭取卿相之位，此何等辱名與喪節事耶？躬乏世用，知無以上報誤恩，只有辭退一段事，庶可以灑濯無恥之累，思欲以此少伸報效⁵⁾。所以忍窮餓

1) (1567년, 67세) 9월 20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九月二十日○子中時佐郎]’, 『중초본』, 『정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答鄭子中’으로 되어 있다. 『정초본』에 행간부전지 ‘丁卯九月’이 있다.

3) 惟 : 『상계본』에 ‘有’로 되어 있다.

4) 聞 : 『초초본』에 ‘問’으로 되어 있고, 상란부전지 ‘問本草亦作問恐聞字之誤也’가 있다.

5) 效 : 『초초본』, 『중초본』, 『정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 ’로 되어 있다.

・觸雷霆，極力以辭退。此滉數十年來所苦心處也。因事召至，猝遇大變，攀號痛迫之餘，又奔走詔使之至，氣力敗矣。精血漸矣。奄奄微喘，死與爲鄰矣。正當此會，春官⁶⁾寵命，出於新政，委篤困憊，無以供一日之職，則不⁷⁾得已又請辭職，至四・至五，而始蒙允矣。前後疾病，忝竊無狀之由，歷陳而上聞矣。此又何等猥賤與厭薄事耶？既負先朝，又墜新命，人臣之道，掃地盡矣。使古人介於義分，一毫不放過者，當此際，不知其尚且持空情・諉山陵而淹滯不去乎？以愚所見，致身之地，義有不行如是，則義轉於退身之路，明如日而急於火，不容昧，亦不容緩矣。若是而猶不知去，因仍尸竊，病遂不捄，溘然而逝，則向之所云數十年苦心者，終安在哉？此又滉頃日之所大懼也。如使滉不職辜恩而猶可仕，則已過數十年間，皆當享有榮祿，何苦而必退乎？前既以退而少免僣冒之恥，今豈可蔑退義徇留情，而自作愆尤乎？滉之此歸，雖多曲折，而此數條尤其大者。諸公苟能息怒平心，設以身處其地，徐究而熟察之，則前後心跡，可通爲一義⁸⁾，了然一出於多病無能・畏義慚恩，欲少

6) : 『상계본』에 ‘宦’으로 되어 있다.

7) ‘不’ 뒤에 『상계본』에 ‘而’가 있다.

自附於廉恥之所爲，其心別無邪辟，恐不須深以爲罪也。雖然，曾在都下，略道一二，而數君之聽既不入，今茲遠來，已難追悔，而諸相之怒又如彼，以此成罪，無不足矣。奚待⁹⁾後時之他議哉？惟當惕息省愆，恭俟譴罰而已。奈何奈何。然因是而過情之聞¹⁰⁾可泯，冒濫之爵可褫¹¹⁾，反本還原，以畢餘生，則天恩罔極矣。他尙何望哉。所喻見愛者有疑，是亦恐不然也。人心之靈，無不燭破，天下義理，昭如日星。苟能持此，揆人心跡於出處去就之間，其亦何相疑之有？其人所爲，不乖於義，不畔於古，則毋徒以情而疑之，誠乖於義畔於古，則便可草絕交之書以相處，如之何其浪爲消縮之有哉。明彥來歸，亦有書來攻頗急。未免略報，想未必肯爲然諾也。劉病翁詩曰“道同符片諾，志異勞事¹²⁾媒。”旨哉言乎。向聞卒哭後有來意，定否何如？李典翰後白¹³⁾氏處，詔使所定諸儀註，可

8) : 『상계본』에 ‘理’로 되어 있다.

9) 待 : 『상계본』에 없다.

10) 聞 : 『초초본』에 ‘問’으로 되어 있다.

11) 褫 : 『초초본』, 『중초본』, 『정초본』, 『갑진중간본』, 『번남본』, 『상계본』에 ‘ ’로 되어 있다. 『갑진중간본』에 교정기 ‘褫’가 있다.

12) 事 :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事字他本作百 傳本亦作事’가 있다.

13) 白 : 『상계본』에 두주 ‘白恐伯’이 있다.

索取來示否？李君曾許以謄示，似聞其中值病患，未必記得，須公自以意問取，爲佳。【謹拜復。】

【近以鄙意。試告士敬。士敬忿然作氣而答之。亦不致思於其間。亦與¹⁴⁾公等無異矣。】

書-鄭惟一-108-1

【別紙】 15)

【因山慘淡¹⁶⁾，廡衛載臨，百僚追攀，同展哀痛，病臣無路，來依古寺，眞罪人矣，挽詞製上後時必不用矣，公如下來元藁推取齋來爲望，其中翻成舛舛嗟舛誤作晷，恨仰。】

14) : 『상계본』에 ‘如’로 되어 있다.

15) 『중초본』에 행간부진지 ‘去誠一’이 있다.

16) 淡 : 『상계본』에 ‘ ’으로 되어 있다.

【答鄭子中】 2)

【拜承在途飛簡，知歸覲好行，且悉恩霈普被，蕩雪在亡之冤，喜驩悲慟³⁾兩不能裁，太平萬歲，讚誦無已讚誦無已，此事鄉村所聞殊未端的，雖聞家兄亦在復職之類，只有入啓之云，未聞發落如何，日以疑鬱，今所示雖亦未有發落之報，公之在都，非有他礙⁴⁾，則其終受天恩無疑矣，益增感泣無涯，諸公不以滉罪戾見擯猶多存問，捧書愧荷，無以爲喻，公之此來，想非速作還朝之計，或可嗣音，今茲信至夜起作書，眼昏燈下，掛一漏萬，恨恨，謹拜謝復⁵⁾。】

【孫兒安道自北當還京，寧姪⁶⁾上京已久，皆無書，未知何故，申暹罷已下鄉否，崔德秀亦無書可怪^{7).8)}】

1) (1567년, 67세) 10월 18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十月十八日子夜]’로 되어 있다.

3) 慟 : 『상계본』에 ‘痛’으로 되어 있다.

4) 礙 : 『상계본』에 ‘疑’로 되어 있다.

5) 謹拜謝復 : 『중초본』에 산거부전지가 있다.

6) 姪 : 『상계본』에 ‘侄’로 되어 있다.

7) 怪 : 『상계본』에 ‘愧’로 되어 있다.

【與鄭子中】 2)

【猥煩禮安歲貢，權思敏者，所謂天下之窮民，無告者，事有不得已定此役，赤手上來，此乃李聾巖外家切族，鄉人皆委滉拯³⁾濟其急，吾何能著手其間乎，徒切矜惻，徒切矜惻，此於免新立役固無望矣，雖定吏輩，奉足俾出童叟，萬無一供，詮聞其類有如此者，即移文本官，定相當軍役有前⁴⁾例云，公須援此例以此處之，即成給定役關，幸甚幸甚，此意亦告叔獻，共圖之望望，謹白。】

【欲令兒子進告，此人窮急之狀，聞入仕未果，敢以簡達。】

8) ……可怪：『중초본』에 산거부전지가 있다.

1) 정묘년(1567년, 67세) 10월 19~25일.

2)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去誠一’이 있다.

3)拯：『번남본』, 『상계본』에 ‘極’으로 되어 있다.

4)前：『상계본』에 ‘詮’으로 되어 있다.

答鄭子中²⁾

昨因具贊祿之還，欲奉一書，因事相違，未果，爲恨。今更專使惠書，誨諭諄悉，感佩何勝。近日³⁾⁴⁾霽恩⁵⁾，曠古所無。天人感動，太平之慶，自今萬世。此中窮僻，昨今始加⁶⁾承聞大槩矣。但其十四人中，圭菴⁷⁾之冤未洩⁸⁾，此尤可痛耳。基景等事，初甚疑之，今果如此，幸甚幸甚。鄙人行止，衆議如彼，固應有之，不怪不恨。在吾人中，亦無灑然見徹，隨聲應和，爲可慊也。所以前日不得不開口分疎。其與明彦者，尤說得索性。近見其答書，雖間有唯諾之語，其實含⁹⁾

1) (1567년, 67세) 10월 26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十月廿六日]’로 되어 있다.

3) ‘近日’ 뒤에 『초초본』에 ‘垢號’가 있다.

4) 勝近日 : 『상계본』에 ‘近日勝’으로 되어 있고, ‘勝’을 ‘近’ 앞으로 옮기라는 교정표시가 있다.

5) ? :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爲恩赦故■…■仍存如何’가 있다.

6) 加 : 『중초본』에 추가 ‘恐非知字’, ‘傳本亦加’를 한 상란부전지 ‘加恐知’가 있다.

7) 菴 : 『초초본』에 ‘庵’으로 되어 있다.

8) 洩 : 『갑진중간본』에 두주 ‘洩恐雪’이 있다.

譏帶弄，正如作¹⁰⁾好語以誘止兒啼也。如今公書，雖有“頓豁”等語，竊恐公若自未到洒然處，只以吾言不欲有異而云云，亦何能大相遠也。然大綱滉所處，若至十分，則安有此議？莫非己所惹致，無所歸訾，惟以因此得還本分，永作老農，爲大幸。不意昨奉有旨，召命又下，乃十三日命也。而朝報云經筵官¹¹⁾所啓。不知何員又如此拈出，使因以益致紛紜也。且安有人臣過礪山積，而能盡勸講之職者乎？啓員之意，誠不可知也。而當此隆冬，作行極難，假使不死至京，必被彈章，遭逐而出，豈不大爲聖明¹²⁾舉措之累乎？不得已又將乞回召旨，不知又更有何事，惶惕罔措，奈何奈何。示欲共作山房數旬相聚，此固甚願。但病骨畏寒如虎，冬月山居不得，又蹤¹³⁾跡如此，而朋友相從講學，無乃未安於心，而起謗於人乎？此其爲魔障，良可歎也。【餘具別紙。惟祈侍慶茂福。不宣。謹拜白。】

9) : 『상계본』에 ‘습’으로 되어 있다.

10) 作 : 『상계본』에 ‘昨’으로 되어 있다.

11) 官 : 『상계본』에 ‘宦’으로 되어 있다.

12) 明 : 『상계본』에 ‘朝’로 되어 있다. 『갑진중간본』에 두주 ‘明恐朝’가 있다.

13) 蹤 : 『상계본』에 ‘縱’으로 되어 있다.

【別紙[文不錄]】 14)

14) : 『초초본』에 ‘別紙’로 되어 있고, 『번남본』, 『상계본』에 없다.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同上書札家藏’이 있다.

【與鄭子中】 2)

【伏想侍歡外，學履日有清迪，滉今日畢修³⁾狀，借人於榮守上送，切⁴⁾恐緣此，又得稽違之罪，憂悶⁵⁾奈何，今玆榻前拈出，不知何員所爲耶，公在京日未及聞知而來耶，無乃朴和叔否，此人非不相愛，但猶有不相知處，惟主爲國得共事之人，不知如滉者，不可與有爲也，況正當顛沛之時，加此難處之事，殆與⁶⁾落井下石之比，何有於相愛之意耶，因遣人修⁷⁾賀，權震卿兄弟，聊此附問動靜格物說，尙未搜得，謹拜.】

【吳子强送紙，其一朴舜元也云，未知舜元是何人，示破.】

1) (1567년, 67세) 11월 29일.

2) 『초초본』에 ‘與鄭子中[陽月廿九日]’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행간 부전지 ‘去誠一’이 있다.

3) 修 : 『상계본』에 ‘脩’로 되어 있다.

4) 切 : 『중초본』에 추가 ‘傳本亦作切’을 한 상란부전지 ‘切當改竊’이 있다.

5) 悶 : 『초초본』에 ‘悶’으로 되어 있다.

6) 與 : 『상계본』에 ‘若’으로 되어 있다.

7) 修 : 『상계본』에 ‘脩’로 되어 있다.

答鄭子中別紙²⁾

嫂叔無服. 當時只據『儀禮』經傳“君爲臣服”等數圖而類推之, 疑當如此. 今番歸舟, 借載『通考』・『通典』等書以來, 閒中披閱, 始見歷代所云“繼統之服”如彼, 乃知前日輕信一書, 不徧考閱, 而妄出大關之語, 不勝愧慄. 此事明彦書中, 極其辨論, 心服不已³⁾. 但其稱號之辨, 於鄙意不能無疑, 後日當面論之, 今不暇耳. 往年“格物”・“物格”等及其註‘吐釋’, 承辱詢. 近已條釋頗詳. 欲奉寄, 偶忘置處. 後日搜出, 因便附上, 此釋. 李仲久亦有問目來, 大槩與公問同矣.

“今如是明如是”之說, 誠然誠然. 病物正坐如是, 以至此日, 昏眩劇甚, 難以策勵, 浩歎⁴⁾而已.

1) (1567년, 67세) 11월 1~5일.

2) 『중초본』에 주목상관부전지 ‘■…■至亞夾■…■之書爲■…■{篇}’, 『상계본』에 두주 ‘印本在原書上’이 있다.

3)不已: 『초초본』, 『중초본』, 『정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不已’로 되어 있다. 『정초본』에 뒤의 ‘不已’에 밑거표시가 있다.

4)歎: 『초초본』에 ‘嘆’으로 되어 있다.

【聞金季應當過彼． 與之款⁵⁾別． 好好． 滉適與相違．
恨不可勝．】

5) : 『상계본』에 ‘歎’으로 되어 있다.

【與鄭子中】 2)

【歸來想日有佳趣，前去鄙書，今已達否，書中所云灑然處，亦非謂滉所處盡善而到灑然處，只是謂吾弟若見得義理³⁾到灑然處，則滉頃者去留之際，去重於留，決然不得已之意⁴⁾，昭如日星，無可疑處，可以見得灑然云耳，山陵前徑歸，固缺始終之義，既大失官⁵⁾守，何容尸竊以因循，況朝夕恐死尸位之心迫之耶，格物物格說送呈，覽後付具贊祿寄還爲佳，此說未知是否，然積數十年尋究窺班⁶⁾者，幸留意踈謬處，批示望望，偶有便風⁷⁾草草.】

1) (1567년, 67세) 11월 6일.

2) 『초초본』에 ‘與鄭子中[十一月六日]’로 되어 있다.

3) 理 : 『상계본』에 없다.

4) 意 : 『중초본』, 『상계본』에 ‘義’로 되어 있다.

5) 官 : 『상계본』에 ‘宦’으로 되어 있다.

6) 班 : 『번남본』에 ‘斑’으로 되어 있다.

7) 便風 : 『상계본』에 ‘風便’으로 되어 있다.

【答鄭子中^[戊辰]】²⁾

【倅來承手翰，伏審侍迓新慶，神相多福，欣賀萬萬，滉與老病俱入新年，去年此時，因應接之擾，忽得重病，辛苦特甚，今當其境多有可怕之端，惴懔度日，又已入春，溫暖將近，前下待溫之旨，何以結末，百思千度，卒無可以承當之者，不免修³⁾一疏章，粗叙顛末，以祈懇乞免，或因以更忤朝意，未可知，然禍福姑置之一邊，且當如此掬目前之急耳，明彥欲我之此行，此最不知我之甚，他尙何云哉，早晚公見我疏，當畧知此間意耳，凡書中事，未及報答，而安東行忽來相迫，未得畢書，姑此奉去，來使所見後，當因便更詳，惟恕諒，謹拜。】

1) (1568년, 68세) 1월 6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戊辰正月初六日]’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去誠一’이 있다.

3) 修 : 『상계본』에 ‘脩’로 되어 있다.

答鄭子中[戊辰]²⁾

前日，復書未了，安東來迫，報辭多漏，愧愧．示喻工夫荒疎不易，如此省覺得，庶可因此回頭轉腦，漸次加工，振厲修³⁾治，行得義理蹊徑，入得聖賢門庭，當有日矣．若只如此慨歎⁴⁾，忽復忘廢，爲係縛，爲誘引，恐與尋常不省覺者，不大相⁵⁾遠也．如滉增⁶⁾茲多口，不啻鑠金而漂山．此則當以理排遣，不足以撓吾事．只是被一・二公於榻前拈出揄揚，大不近情，太失倫擬，以致聖主誤垂眷意．前事既如彼，以若此老病多罪過，萬無承當之理．方修⁷⁾得一疏，拜上之際，又以天使時應接，召命來下．已上之疏，不可中

1) (1568년, 68세) 1월 9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正月初九日]’, 『중초본』, 『정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答鄭子中’으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書■…■云云至此■…■篇’, 『정초본』에 행간부전지 ‘戊辰正月’이 있다.

3) 修 : 『상계본』에 ‘脩’로 되어 있다.

4) 歎 : 『초초본』에 ‘嘆’으로 되어 있다.

5) 大相 : 『초초본』에 ‘相大’로 되어 있다.

6) 增 : 『갑진중간본』에 두주 ‘增恐依經文作憎’이 있다.

7) 修 : 『상계본』에 ‘脩’로 되어 있다.

止。今下之命，行則與疏中陳乞辭退意太乖，不行則又涉稽違，眞所謂進退狼狽者。心緒惶惑，面前無一恰好田地可立脚安身處。奈何奈何⁸⁾。垂死之境，長在窘束憂擾中，此大妨心地工夫。可嘆可嘆⁹⁾。宣城除目之來，只隔數日，難待難待。明彥所答，如所喻¹⁰⁾則甚善。但其欲滉之出，此大不可曉耳。“格物”等說，未知鄙說果得與否？但諸人既執偏見，恐難回也。『儀禮』，韓公猶云難讀，況未曾讀如滉，何能知哉。今欲讀之，非老人事，未果耳。公讀『論語』甚好。恨多違，未有對榻之望耳。沈方叔所囑，不敢作之意，曾已具告于左右，又已懇辭于李仲久矣。蓋向來但做碣文。自去秋冬，困於衆口，碣文亦不敢作，況大家碑文乎。須以此曲謝¹¹⁾。

8) : 『초초본』에 ‘奈奈何’로 되어 있다.

9) 可嘆可嘆 : 『상계본』에 ‘可歎可歎’으로 되어 있다.

10) 喻 : 『초초본』에 ‘諭’로 되어 있다.

11) ‘曲謝’ 뒤에 『초초본』, 『중초본』, 『정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望望’이 있다. 『정초본』에 ‘望望’에 밑거표시가 있다.

【與鄭子中】 2)

【爲養求外，得縣便³⁾近，邑人之望，亦符宿願，深賀且慶，未審何日發程，天使時多事，飢民待哺，惟祈遄駕趁赴，是祝，滉自効疏末，未知有何事，日深⁴⁾憂惶，去年之病，多有其漸，左膝疼痛，不能運步，閑⁵⁾縮度日，伏惟尊照，謹拜賀。】

【城主初歸，與滉書，奇明彥外他皆以滉爲不可不再來云，滉聞之喜甚，亦每謂早晚爲滉圖遂退閑者，必明彥耳，今則明彥乃如是，何前後之相違耶，不測自効事如何，不敢答其近書，如見爲致意何如⁶⁾。】

1) (1568년, 68세) 1월 15일.

2) 『초초본』에 ‘與鄭子中[上元日○時子中初除禮安]’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去誠一’이 있다.

3) 便 : 『상계본』에 ‘吏’로 되어 있다.

4) 深 : 『상계본』에 ‘甚’으로 되어 있다.

5) : 『상계본』에 ‘閑’로 되어 있다.

6) 何如 : 『초초본』에 ‘如何’로 되어 있다.

【答鄭子中】²⁾

【昨拜一書，修上賀忱，玆忽伏承寄書，具審諭意，感幸尤深尤深，春分不遠，謝恩赴任，正宜趁³⁾速謹承示意，喜副民望，從馬等事，雖有署前之嫌事勢所不免，亦人所通行，自家辦⁴⁾行，曾未聞有之，勿疑爲之，但就其中所可除弊者，除之足矣滉行止之難，前書畧陳，二月旬間發行，乃邑人誤傳，但席藁以俟嚴命而已，惟祝行色珍毖，不宣，謹拜復。】

【曾見，大明『理學錄』章楓山錄中，蔡清所與董遵道書否，滉非敢擬楓山，事之不可出，則甚於楓山，恨今世無一人作蔡清見識以處滉也。】

1) (1568년, 68세) 1월 17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正月十七日]’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행간 부전지 ‘去誠一’이 있다.

3) 趁 : 『상계본』에 ‘赴’로 되어 있다.

4) 辦 : 『상계본』에 ‘辨’으로 되어 있다.

書-鄭惟一-119¹⁾

【與鄭子中】 2)

【伏問行色入洛，體候何如，馳仰，民又遭異數之命駭迫，罔措，不知自劾疏入朝意如何處之，恐或蒙恩，命停召罷閑，日夜禱祝，惟祈促駕來赴，道間珍恙，不宣，謹拜問.】

1) (1568년, 68세) 1월 25일.

2) 『초초본』에 ‘與鄭子中[正月二十五日]’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去誠一’이 있다.

【答鄭子中】 2)

【下車伊始，卽蒙存問，兼寄示京中親舊書信，不勝感佩欣慶之至，滉罪戾窘蹙，尙不死滅，今得諸人書，益深惶駭，無所措躬，且承明日辱臨之示，感悚尤極，但滉自頃³⁾用心病日增劇，日寒如此，難以迎拜，卽刻三寸姪妻物故，病中遭重服，益難於應接等事，伏望曲賜寬諒，勉停賁然之辱，不勝幸心⁴⁾，謹拜賀.】

1) (1568년, 68세) 2월 22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二月二十二日]’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去誠一’이 있다.

3) 頃 : 『상계본』에 ‘傾’으로 되어 있다.

4) 心 : 『초초본』,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甚’으로 되어 있다.

【答鄭子中】 2)

【伏蒙再諭，惶感³⁾之至，兄子名宰者，居安東地，其妻死，昨日聞訃，敢達私惻然示意如此，敢不謹依，伏惟照諒，謹拜復.】

1) (1568년, 68세) 2월 23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二月二十三日]’로 되어 있다. 『초초본』에 행간부전지 ‘此等書當似不錄下書亦然’,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去誠二’이 있다.

3) 感 : 『상계본』에 ‘蹙’으로 되어 있다.

【與鄭子中】 2)

【傳聞昨日當還官，無乃因雨停行否，自歲前空官，下車未幾，去又久留，下情皆有顚望，伏望促駕以還³⁾，用慰群情何如，就中⁴⁾弊家今方燒瓦，須多用空石，私家出處，無由命給，濟窘何如，謹拜煩。】

【再煩，滉今復擬上一疏，已草定寫訖，欲附解由色吏送上，幸命謹齋⁵⁾以去，且封裹所用草席，官中如有可得一葉否。】

1) (1568년, 68세) 3월 11일.

2) 『초초본』에 ‘與鄭子中[三月十一日]’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去之何如’가 있다.

3) 還 :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還’으로 되어 있다.

4) 『초초본』에 상란부전지 ‘就中以下二條去之何如’가 있다.

5) 齋 : 『상계본』에 ‘齋’로 되어 있다.

答鄭子中^[戊辰]²⁾

【伏承下諭所以遲還之故果然。仰慰仰慰。】撤簾以時，又出於馬・鄧之賢所不及，真是盛事，又見冤枉之未盡滌者，盡蒙昭雪，抃賀無涯。【安東之行，承悉。但還後許臨，雖深企仰，拙軀無一日之安，使行又當不久巡歷，何可相過從爲事，伏望量停³⁾爲佳。使相書來，期欲相訪，亦已辭之。安東府伯，曾亦有辱枉之意，告之如右，并照悉。如有言及，以是答之爲望。餘冗朝上一書已陳之，悚息不一，謹拜白。】

【久欲白之，因循未果，門人二字，今世所笑，請勿見稱，至望至望，欲與諸往還人處，皆請去之，非獨於城主前爲然，千萬諒照。】

1) (1568년, 68세) 3월 11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三月十一日]’, 『중초본』, 『상계본』에 ‘答鄭子中’으로 되어 있다. 『정초본』에 행간부전지 ‘戊辰三月’이 있다.

3) 停 : 『상계본』에 ‘使’로 되어 있다.

【答鄭子中】 2)

【伏承下諭使行等事，仰感仰感，昨夜得使書前悉，病不接人之意，且因縣，吏報避寓清涼，因不遂進候³⁾云云，豈有過見山寺之理，必下人臆料之說也，滉答書亦有以家隣疫氣，將避入山等語，今以洞口阻水，不得入山，明上月瀾菴，以實避寓之說，以其雖蒙許不來迫見，然在家有未安故也，伏惟尊照⁴⁾，不具，謹拜白。[朝報見後還上.]】

1) (1568년, 68세) 3월 20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三月二十日]’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행간 부전지 ‘去誠一’이 있다.

3) 候 : 『중초본』에 ‘候’로 되어 있다.

4) 照 : 『초초본』에 ‘炤’로 되어 있다.

【答鄭子中】 2)

【滉拘於事勢，皇華過行，屏跡不見，殊有未安，歸來獲蒙存問，且惠野味江鮮等，荷佩不可言，伏思近日多事作撓，又將有覲省之行，其前欲賜枉臨，聞甚踳躅，民意俟往還後，徐一惠顧何如，伏惟諒照³⁾，不具，謹拜謝.】

【空石前惠已多，匠者猶云不足，恐或猥濫，故不敢告乏耳⁴⁾.】

1) (1568년, 68세) 3월 23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三月二十三日]’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去誠一’이 있다.

3) 諒照 : 『상계본』에 ‘照諒’으로 되어 있다.

4) 空石……乏耳 : 『초초본』에 행간부전지 ‘去之何如’,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此條去之何如’가 있다.

【答鄭子中】 2)

【承辱書具悉，仰感觀監司爲人雖不踐成跡，亦脫畧無執滯，能解人意中事，故既不固要相見又無相恨之意，殊不易也，亦荷留意示及，深幸深幸，盜官物人罪重罔赦，傳聞欲勿報而自官量治，畧徵其物而全其生命，切恐必有逃躲失治之弊，今果然矣，大罪獲脫，人情共忿，可恨奈何，³⁾空石更審問之，果不足則當使受來，仰感亦深⁴⁾，就中示事，非民所敢妄議，然既蒙俯詢，亦不敢隱嘿，以負謙光之德也，西軒固甚不可，縣司亦不可無移處而占爲別衙也，假使有移司處，別占一衙，已是失體且有弊，不可之大者也，化民中亦有私憂是事者，議云衙東軒隨宜以笆籬等物，圍排作內，以處副室，則似爲便當，既與內有隔，而亦非有別衙之弊，此言似有理，如何衙外軒雖不可

1) (1568년, 68세) 3월 24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三月二十四日]’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去誠一’이 있다.

3) ? :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此}條去之’가 있다.

4) 空石……亦深 : 『초초본』에 행간부전지 ‘自空石至亦深去之何如’가 있다.

無，然豈無隨宜草設之處乎，若以此策爲不可，則他無上策，與中策不如止，副室在本宅，乃是不遠之處，與來無甚異也，如何如何，然竊有所聞爲副侍，似未盡於柔順處下之道，故事多難處，此則在城主思大易威如反身之戒以正家法，非細故也，七日欲出迎拜於陶山，只以捧疏人去已久矣，或值有旨陪人來到，以此伏慮，未敢出頭，伏惟尊照，謹姑拜復。】

【答鄭子中】 2)

【伏承手字諄諭，謹具³⁾奉悉，偷物人所欠，豈無耗虧之數，雖使有耗，罪亦不小，自知罪重，不信寬治之意而逃躲，其姦狡尤可憎疾，事已無及，言之奈何，示事如所諭處之，最爲上策，一以致謹疾之意，一以懲在下之失，觀勢徐圖，甚善甚善，不得近書冊之歎，在老民尤甚，長在憂擾中故也，監司爲書院措意如此，豈不幸甚，但直旨寺田，雖竟得之，恐遠處力不能及，有勞心忉忉之弊，故曾告⁴⁾諸君欲物⁵⁾規圖，今旣爲監司所知，勢難中輟耳，七日許過，謹當迎拜，晦齋行狀，當面稟，謹拜白。[稱念謝狀修⁶⁾送并⁷⁾惟照⁸⁾.】

1) (1568년, 68세) 3월 25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三月廿五日]’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행간 부전지 ‘去誠一’이 있다.

3) 具 : 『상계본』에 ‘丑’로 되어 있다.

4) 告 : 『상계본』에 ‘在’로 되어 있다.

5) 物 : 『중초본』, 『상계본』에 ‘勿’로 되어 있다.

6) 修 : 『상계본』에 ‘脩’로 되어 있다.

7) 并 : 『상계본』에 없다.

8) 稱念……惟照 : 『초초본』에 산거부전지가 있다.

【答鄭子中】 2)

【還官卽垂問札，仰荷³⁾，滉事，得寯兒書及朝報，疏入更下教書，令其速來事傳教，旣以教書則當遣習讀等官如前日云，如此終何所底止乎，不勝憂迫之至，人皆曰無復更辭之理，不可不來，如滉愚惑，猶未知可進之義，況詔使臨到，國方多事，稱病避事者，動遭彈駁之時，扶曳病軀而入，是自納於臺章之擊，其他事事礙掣，欲進無路，奈何奈何，想書到⁴⁾今明間，正此窘蹙恭俟而已，朝報承領，今來朝報送上照鑑，就中李晦齋行狀疎繆⁵⁾處，欲改之，前日書送兩貳相忠順堂啓辭，當參考并⁶⁾入，而所送幅紙頓忘置處，遍搜不得恨恨，如有元本，更命下胥謄寫寄來爲幸，餘惟南行珍重，謹拜復。】

1) (1568년, 68세) 4월 4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四月初四日]’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행간 부전지 ‘去誠一’이 있다.

3) 荷 : 『상계본』에 ‘賀’로 되어 있다.

4) ‘到’ 뒤에 『초초본』에 ‘在’가 있다.

5) 繆 : 『상계본』에 ‘謬’로 되어 있다.

6) 并 : 『상계본』에 말거표시를 한 ‘(並+八)’으로 되어 있고, 교정기 ‘并’이 있다.

答鄭子中²⁾

承奉手簡，謹審鑄諭之意，無任警悚之至。滉雖迷惑，心非木石，豈不知感動於斯，只以虛僞叨大恩，其間有無限害義辱國虧名壞節事，所以不得不抵死求免。而天聽愈邈。時論不省，將納身於罪戾而後已，痛不可言。仄聞奇明彦因疏入後有啓“某人年老病深，難於立朝，而身被難堪之命，朝鮮致仕之例³⁾，所以爲悶迫。臣意滉之上來，勿須堅留，以成其志”云云。滉聞此，不勝感歎。從前每以此等事有望於此人，而今果然矣。於我極有扶掖之力，甚足嘉尚。但猶恨不請停召命，如謝玄之於戴安道，而只請勿留，故滉之狼狽之勢，依舊不脫，是爲不盡耳。若如城主，則恐不得以此等事奉望也。紫溪啓辭，藏之必固，而遍搜不得，深以爲撓。其啓雖不可皆入狀中，然必搜得而與今示及柳仁仲所示，參酌載入，乃可。故停修行狀

1) (1568년, 68세) 4월 5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四月初五日]’로 되어 있다. 『정초본』에 행간 부전지 ‘戊辰四月’이 있다.

3) 例 : 『중초본』에 추가 ‘傳本無闕字’를 한 상란부전지 ‘例下恐有闕字’가 있다.

而稟白. 承示無留本, 恐終未搜得, 恨萬恨萬. 然如戒更搜. 惠貺不敢辭, 但官清如水, 常時甘旨之奉, 且懼難繼, 何可旁及若此乎? 後日, 千萬停休, 以安下情. 幸甚. 【謹拜⁴⁾】

【⁵⁾前白停燒瓦木事, 意謂已行下矣, 有一匠戶輸來云, 未聞停命已令移用於崖路之鑿, 其他戶卽命勿輸爲望, 此間已備燒木, 故敢白, 鑿崖亦非急事, 不可妨農, 并罷尤幸⁶⁾.】

4) : 『중초본』에 산거부전지가 있다.

5)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此條去之何如’, 행간부전지 ‘不書’가 있다.

6) 前白……尤幸 : 『초초본』에 상란부전지 ‘去之何如’가 있다.

【與鄭子中】 2)

【謹問行候何如³⁾， 仍恐族姪⁴⁾李禮綱， 被捕窮迫事， 城主所洞知也， 此人， 於獄事全不干涉事， 亦推官所徹知也， 但以屍身給親時參見之故， 推捉而已， 其初現身則亦無一事， 而畏恟不見， 以至舉家侵擾， 老母飢餓， 至爲憐痛， 今則其獄事已有歸著， 欲入現身， 惟恐推官憎其逃避， 加以刑杖， 不勝哀憫哀憫⁵⁾， 欲達此意於奉化， 大獄之事， 簡囑推官， 至爲未安未果， 城主來路， 必見奉化須面告曲折， 使免捶杖⁶⁾以救窮族無妄之厄， 懇懇， 其事城主已知， 故不復一一， 謹拜⁷⁾.】

1) (1568년, 68세) 5월 1일.

2) 『초초본』에 ‘與鄭子中[五月初一日]’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去之何如’가 있다.

3) 何如 : 『상계본』에 ‘如如’로 되어 있다.

4) 姪 : 『상계본』에 ‘侄’로 되어 있고, 두주 ‘侄恐孫字’가 있다.

5) 哀憫哀憫 : 『초초본』, 『상계본』에 ‘哀悶哀悶’으로 되어 있다.

6) 杖 : 『상계본』에 ‘ ’으로 되어 있다.

7) 謹拜 : 『중초본』에 산거부전지가 있다.

【答鄭子中】²⁾

【伏承辱答，感仰³⁾之至，城主近以公事，久於在遠，頗有未安，然公事何病，李禮綱若蒙城主囑濟，何幸如之，落幅多惠，仰荷仰荷，伏惟尊照，適以節祠來在齋舍，草恐.】

1) (1568년, 68세) 5월 3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五月初三日]’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상란 부전지 ‘去之何如’가 있다.

3) 仰 : 『상계본』에 ‘慰’로 되어 있고, 교정기 ‘仰’이 있다.

書-鄭惟一-132¹⁾

【答鄭子中】 2)

【伏承遣吏惠致落幅，兼示榜目，無任感荷感荷，伏惟
尊照，餘俟後日，謹拜謝.】

1) (1568년, 68세) 5월 4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五月四日]’로 되어 있다. 『초초본』에 행간부전지 ‘不錄’,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去之何如’가 있다.

【答鄭子中】 2)

【拜擎墜札，且問來使，審知皂蓋雨前已還，欣仰，民今在精舍，幸無別事，大槩臣³⁾境未穩，百慮關心，近復上一狀，未測如何，僅僅度日，亦何能專意於素業耶，明日祖⁴⁾忌，今夕之溫溪行祭，此後近無他故，但雨水如此，崖路險絕，未宜辱枉，如有往復，自可用片簡，何必速耶，李全仁⁵⁾筭錄，未曾得見，後日投示爲望，但錄得道義語，不失旨意亦非易事，全仁何爲率然爲此事耶，唐紙及兩冊皆當依戒，謹姑拜復。】

5) 【格物說，所諭⁶⁾謹悉，以所引朱子兩語釋之，則物[厓]格[乎个是⁷⁾]甚當，來說看得亦審細，但格

1) (1568년, 68세) 5월 15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五月望日]’로 되어 있다.

3) 臣 : 『초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身’으로 되어 있다.

4) 祖 : 『상계본』에 ‘朝’로 되어 있고, 두주 ‘朝恐祖’가 있다.

5) 『중초본』에 상단부전지 ‘此等處不須極行依本文書之恐當’, ‘此非定論’이 있다.

6) 諭 : 『초초본』에 ‘喻’로 되어 있다.

7) 乎个是 : 『초초본』에 ‘(乎个\’)로 되어 있다.

之一字，有窮而至之兩字義，曰格物曰物格兩格字，皆兼兩義，然當格物工夫時，取窮字義重故當曰物[乙]格[平个是8]，當物格工效時，取至字義重，故當曰物[厓]格[平个是9]，如此分別，方是穩恰，今以所引所釋，攻¹⁰⁾破諸人必欲釋物格曰物[是¹¹⁾]格[爲隱¹²⁾]之說，則甚快，乃欲以改釋格物處云云，則恐思之猶有一重膜子未透了處也，如何如何，除非之說，率爾入思議不得當更反復而報之，】

書-鄭惟一-133-1

【別紙】

【似聞凡係故例等事，多詢用下人說，故吏史輩，因得售其奸計，以爲前政如此，此恐爲害不少也，與其詢下人，不若鄉任人，鄉任人雖未必皆謹慎，然士人畏

8) 平个是：『』에 ‘(平个\’)로 되어 있다.

9) 平个是：『초초본』에 ‘(平个\’)로 되어 있다.

10) 攻：『상계본』에 ‘끔’으로 되어 있다.

11) 是：『초초본』에 ‘(\)’로 되어 있다.

12) 爲隱：『초초본』에 ‘(\ p)’으로 되어 있다.

鄉議，不至如下人無忌憚也，他事不暇舉，此邑吹火軍之弊，甚鉅，皆官人代立，秋徵其價，一日三斗式責捧，官人利之，故多其巡數，或一年至六七八巡，民甚苦之，前政知其弊，故嚴明考覈，下不得濫加巡數，止三四巡而已，民情甚悅此事，滉未聞今日下人濫術與否，但恐鄉任人不¹³⁾達此弊，而城主未及照管，則或不無如前之弊，故豫白之耳，然此等事亦默而處之，不須云出於某人言也.】

13) : 『상계본』에 ‘未’로 되어 있다.

書-鄭惟一-134¹⁾

【答鄭子中】 2)

【伏承書示謹具承悉，且審明日辱枉，尤深感荷，但崖路水損險絕，殆不容馬足，何以經行，仰慮晦齋記語，亦謹承見，伏惟照諒，謹拜復.】

1) (1568년, 68세) 5월 17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五月十七日]’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행간 부전지 ‘去誠一’이 있다.

【答鄭子中】²⁾

【伏承俯問感荷，滉特蒙天鑑下察，獲釋重負洪恩罔極，深自慶幸，但誤眷猶前，促召愈堅，反覆³⁾以思，更辭無說，極難善處，恐終不免扶曳一行，炎酷如此，心熱間作，觸冒之危，甚於綴旒，奈何奈何，且崇品時未改正，若此不改，不但於身山壓難勝，行於朝有甚相礙處，頃上狀內懇乞職秩，俱改之意，恐因此得蒙并改之恩，悚惕企仰，以此憂撓，未見慶幸之至也，不宣，謹拜.】

1) (1568년, 68세) 5월 20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五月廿日]’로 되어 있다.

3) 覆 : 『상계본』에 ‘復’으로 되어 있다.

【答鄭子中】 2)

【謹拜承問，仰感仰感，赤者³⁾尙活，不可忍視棺槨，適皆具，故卽瘞藏者，其勢然耳，明日許欲枉顧，固所願也，但曾經邑守少有出入，必有官弊，近聞城主出適新還，又將有奈城之行，而明若臨此，其間豈少勞弊耶，別無緊急事，請停明臨，以俟往還後徐圖展晤，無乃可乎，伏惟照諒，謹拜復⁴⁾.】

1) (1568년, 68세) 5월 23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五月廿三日]’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행간 부전지 ‘誠去’가 있다.

3) 者 : 『초초본』, 『중초본』, 『상계본』에 ‘子’로 되어 있다.

4) 伏惟……拜復 : 『중초본』에 산거부전지가 있다.

書-鄭惟一-137¹⁾

【與鄭子中】²⁾

【煩仰恐恐，八十老姊，居醴泉得病甚重，欲嘗銀口魚，今刻俸來，雖聞今，年難得此物，情迫敢達可得一尾否，伏惟照下，謹拜白.】

1) (1568년, 68세) 5월 24일.

2) 『초초본』에 ‘與鄭子中[五月廿四日]’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행간 부전지 ‘去誠一’이 있다.

【答鄭子中】 2)

【伏承示以行次之由， 仰荷仰荷， 滉以老姊病重遣人探問， 阻水空返， 未知其病如何， 憂灼罔措， 銀唇非徒絕產， 水漲如此， 奈何， 且今次水災， 振古所無， 田沓³⁾蕩覆殆盡， 溫溪尤甚， 門族舉將飢餓啜泣， 冤籲， 不忍聞見， 伏惟照鑑， 謹拜謝.】

【水路難通， 前已陳白， 況今加以倍險， 何以枉顧.】

1) (1568년, 68세) 5월 27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五月廿七日]’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행간 부전지 ‘去誠一’이 있다.

3)沓 : 『중초본』, 『상계본』에 ‘沓’으로 되어 있다.

【答鄭子中】 2)

【伏承垂札審已好還，仰喜，老姊病探，問人阻水，昨日始還，尙彌留危重云，不知厥終，慮悶方劇，銀唇³⁾至貴得蒙惠及，可副病索深感深感，就中今得京報，仍授崇品准職，然則何異於前日負重之悶乎，大失本望，奈何，初意欲以望時發程，庶及小祥之期，今見此報，頓乖情緒，計慮難定，不知何時可發也，水災極慘，其中溫溪尤甚，門族舉將飢餓，不忍聞見，報使固當爲之屢許臨枉，雖未敢每辭，崖路不通人馬云，殊爲未安，惟照⁴⁾量，謹拜謝。】

1) (1568년, 68세) 6월 2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六月初二日]’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행간 부전지 ‘去誠一’이 있다.

3) 唇 : 『상계본』에 ‘唇’으로 되어 있다.

4) ‘照’ 뒤에 『상계본』에 말거표시를 한 ‘諒’이 있다.

【與鄭子中】 2)

【明日城主欲臨，雖不敢每辭，以崖路險絕，殊未安，不意又聞安東之來，尤深悚惕之至，且滉姊病危重，未知有何報應接，亦甚非時，只緣時已迫矣，未及請辭於彼奈何，惟³⁾當出候於⁴⁾山舍，伏惟照鑑，謹拜復.】

1) (1568년, 68세) 6월 5일.

2) 『초초본』에 ‘與鄭子中[六月初五日]’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행간 부전지 ‘去誠一’이 있다.

3) ‘惟’ 뒤에 『상계본』에 ‘恐’이 있다.

4) 於 : 『상계본』에 없다.

書-鄭惟一-141¹⁾

【答鄭子中】²⁾

【昨承惠然，感荷之至，寄示三紙，尤切佩幸，伏惟照鑑，謹拜白.】

1) (1568년, 68세) 6월 7일.

2)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去誠一’이 있다.

【答鄭子中】 2)

【頃蒙涉險僉顧，佩幸之至，茲復寄示榜³⁾目，書意拳拳⁴⁾，感荷又不可言，行事每⁵⁾出此月爲計，但以熱證在身，而冒此庚熱，危慮不淺，要看近日調攝如何，而應接恐不勝煩耳，二冊收附來使送還，其柳文第十二卷別集二字，當列書於『龍城集』之上，而不察書於題下，恨恨，十紙昨已寫訖，不得依所戒亦恨，然所書十先生詩，亦甚好，起發人意思，其間箴警語又多有之，無乃不妨乎，子固處拙跡曾多洩呈，今又臨行當熱，何能強作，姑置之以俟來歸後，又不能然後還之，亦未晚也，惟照，謹拜復。[榜目還上]】

1) (1568년, 68세) 6월 8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六月初八日]’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행간 부전지 ‘去誠一’이 있다.

3) 榜 : 『상계본』에 ‘榜’으로 되어 있다.

4) 拳拳 : 『상계본』에 ‘眷眷’으로 되어 있다.

5) 每 : 『초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毋’로 되어 있다.

【與鄭子中】 2)

【問安煩恐，頃因眼前事，急貸用³⁾棺槨各一具，今當償還，棺板已買得，槨板未買，官中屬公板子無乃有否，雖無准廣者，合作亦無妨，貸者雖家奴，其妻得重病，若不及償，義甚不忍，敢此煩白，惟照，謹拜.】

1) (1568년, 68세) 6월 14일.

2) 『초초본』에 ‘與鄭子中[六月十四日]’로 되어 있다. 『초초본』에 상란부전지 ‘去之何如’,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去之何如’가 있다.

3) ‘用’ 뒤에 『초초본』에 ‘人’이 있다.

【答鄭子中】 2)

【伏審書意且示榜目朝報， 仰感仰感， 榜中得人正如所喻， 朴姓之人幼學， 而父名世貞， 似是顛字， 誤傳果爾則豈不深賀， 報中云云事， 殊有未安， 不知終何如耶， 許以臨枉， 冒暑越險， 至爲惶恐， 然不敢違教， 謹當溪上伏候， 謹拜.】

【榔板蒙惠極感， 從當命取以來³⁾.】

1) (1568년, 68세) 6월 16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六月十六日]’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去誠一’이 있다.

3)榔板……以來 : 『초초본』에 상란부전지 ‘亦欲去之’,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去之}何如’가 있다.

【答鄭子中】 2)

【伏蒙垂訪，從容盡日，今復寄書，示以朝報，感荷無已，滉昨日飲冰多，而飲燒酒少，酒力不能勝冰冷氣，因失平今且向差矣，兒婦病亦少減，而不盡調復不得，已退行期，觀勢而發爲計，布帽送圖仰荷，朝報及政目送上，照領，謹拜復.】

1) (1568년, 68세) 6월 19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六月十九日]’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행간 부전지 ‘去誠一’이 있다.

【與鄭子中】 2)

【聞安奇以弊行之故，入縣云，心甚悚仄，況民以身病與兒婦病退定行期，何可久留以待乎，須白此意還驛爲望，及滉到彼可以從容奉面矣，且³⁾練時易服，禮曹公文，至今不來否，搜得文定王后喪公文謄草⁴⁾送上，詳此節次，則當別製新冠乃可，而今則加練於舊冠，其初入哭時無冠可著⁵⁾，奈何，伏望商度示下，謹拜稟.】

【若舊冠既已去布加練，則今所別製者，當爲布冠追製，布冠尤爲未便，如何，況不多日內製造亦未及也，妄意欲於所改練冠上暫假加布以行，入哭後去布以行終禮，何如，雖近苟且勢似不得已也.】

1) (1568년, 68세) 6월 20일.

2) 『초초본』에 ‘與鄭子中[六月二十日]’로 되어 있다.

3)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練時以下存何如’가 있다.

4) 草 : 『상계본』에 ‘艸’로 되어 있다.

5) 著 : 『초초본』, 『상계본』에 ‘着’으로 되어 있다.

【與鄭子中】 2)

【氷丁每承官致，悚仄之至，就中該曹公文今已來矣，帽上加布之意通于府前否，通則兼通滉帽事，何如，昨因奉化，聞昌樂道他驛吏，預來留待者，多緣退行期，致有此弊，至爲未安，須教令退去，發行日早來，猶可及也，且安奇留待事，亦極未安，乞須懇白還駕，至望至望，謹拜稟.】

1) (1568년, 68세) 6월 22일.

2) 『초초본』에 ‘與鄭子中[六月廿二日]’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행간 부전지 ‘去誠一’이 있다.

【答鄭子中】 2)

【伏承垂示諸事，具悉諭意，安東馬轎便好，以此極熱，專用人力，人將渴死，豈若用馬之爲安也，惠味仰荷仰荷，惟照，謹拜.】

1) (1568년, 68세) 6월 22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二日夕]’으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행간부 전지 ‘去誠一’이 있다.

答鄭子中²⁾

滉不意復作此行，懷抱甚惡．城主與別，尤覺惘惘．昨早避熱乘涼，反爲涼襲．中虛暴下，連夜不止，今始少差，尙未快已．不知前途何如³⁾？疑慮多撓，奈何．示事，眞是莫大之憂，如諭意先事防後⁴⁾，甚善．但恐因而脫致紛擾， 或有不測之端．滉意姑勿議此典， 先須力勸主上以爲後爲子， 天經地義不可易之典，使上意洞曉其理，確然堅定，然後乃議厥典，可保無他惑之憂也．如何如何．時事可憂者，不止『小學』⁵⁾，浩無涯際，禹・金輩每切以勿激加戒，以頃日從祀之請觀之， 似不相聽信， 奈何奈何．【病伏草⁶⁾率．不能掛一．惟珍勵萬萬．謹拜．】

1) (1568년, 68세) 6월 27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六月廿七日]’로 되어 있다.

3) 何如 : 『상계본』에 두주 ‘手筆何如作如何’가 있다.

4) 後 : 『갑진중간본』에 원두주 ‘後疑微之誤’가 있다.

5) 小學 : 『중초본』에 주목추가 ‘更考’, 추가 ‘傳本亦小學’을 한 상란부전지 ‘小學未詳’, 상란부전지 ‘小學未詳’, 『번남본』에 원두주 ‘小學未詳’이 있다.

6) 草 : 『상계본』에 ‘艸’로 되어 있다.

答鄭子中²⁾

【裴汝友來，伏承手翰，具審莅度清暇，仰深欣豁。滉自患痢不久而差，道間雖他證間發，不至緊重，第孫郎朴欒³⁾苦痢，不能運身，留置聞慶，抵留忠州幾十日，乃發船⁴⁾行，凡廿四日始得達京，酸若⁵⁾不可言也，舟中又遇大風雨，身病加添，入城累日，未得出謝，明日始將詣謝，在道二次辭狀，皆未蒙允，到京更欲力辭，而上畏雷霆，下迫物情，未遂一辭，微愴竟至掃空慨痛，愧恨，無以見人也，士敬捧檄之屈，何可已耶，向喜向喜，應接之擾，倍甚於前閑⁶⁾門牢拒，雖勉而難行，將不能支，奈何】所諭先入之虞，誠可慮也。近日玉堂疏中所云，雖少定人心，然世不無觀望之人，至爲未安。疏及朝報數幅送上，照鑑。且中學

1) (1568년, 68세) 7월 23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七月廿三日]’로 되어 있다.

3) : 『초초본』에 ‘樑’으로 되어 있고, 상란부전지 ‘樑後改欒’가 있다.

4) 船 : 『초초본』에 ‘舡’으로 되어 있다.

5) 若 : 『초초본』, 『상계본』에 ‘苦’로 되어 있다.

6) 閑 : 『상계본』에 ‘閉’로 되어 있다.

生將疏爭淨業院事，奇明彥力止之。止之善矣。但不能溫辭諭止，而語或鄙斥儒生等，諸生因此憤激，非但不聽，且有譁譙，不計師生之義，甚非美風。不知終如何出場也。其他時事，不暇縷及，大槩敦厚未見，紛囂多聞也。【謹姑拜復。】

【盧寡悔，今日歸養呈辭下去⁷⁾。】

7) ……下去：『상계본』에 없고, 상란추기 ‘盧寡悔今日歸養呈辭下去’가 있다.

答鄭子中²⁾

【承七月十五日書．具審雅履多福．欣賀欣賀．】滉帶病入城，謝恩後一入經筵，緣違未再，而疊遭未安之事．既有晝夕講兼入之旨，隨除提學．方乞辭避之際，朴和叔又以文衡，猥作推讓，遂不免焉．此豈老病近死者所可堪耶？況實錄設局．尤不可作勞供職，不得已呈病，期於得請者，不欲以許大重任，旋受旋遞故也．既得請則因欲辭去・定計，未知能如志否？撓慮萬萬．都下消息，極多未安，不可盡形於筆札間，行將面白．奇明彥以禁儒生上疏事，師生相激，至於師³⁾去師席，其間事勢，至爲不佳．明彥雖不無有過當處，儒生氣習如此，而不悟其非，可嘆可嘆．華使人品文雅大不逮許・魏，可怪．中國人才亦有限而然耶．【士敬來此．別無得謗等事．未知去後如何耳．聞彼中旱傷失稔．民命奈何．朴生之病．貽弊所經．今僅得蘇耳．餘付士敬之行．謹姑不具．】

1) (1568년, 68세) 8월 7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八月初七日]’로 되어 있다.

3) 師 : 『갑진중간본』에 두주 ‘上師字無或辭字之誤否’가 있다.

答鄭子中²⁾

權東美人來，奉接辱問³⁾。備悉近況佳裕，欣仰無涯。清涼仙賞，適在爛楓之時，濃興可想。但靳惜酬唱，不以遠示，洗此塵鬱，爲可憾耳。滉重負幸釋。濫秩誤渥，愈解愈嬰。將過三冬於此。士敬所云“不遞亦欲歸。”非不知無此道理，不仕食祿，益知無此道理。故欲就二者之間，擇其稍近知恥者處之而已。雖知如此，而事不謀心，遂作無恥之人，俯仰羞汗，無以見朋友也。搜補軍額，國之大事，爲球水火之急，不得已請停，豈可尙之事耶。與明彥辨論果有之。此人有奇才雄辯⁴⁾，今世難得其比。雖有往往誤執強爭者，亦是不苟同，豪氣所致，不當以此少之。但於斂約細密處，終欠著力，爲可慮耳。拙句錄在別紙，一粲何如？【謹拜⁵⁾。】

1) (1568년, 68세) 10월 12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十月十二日]’로 되어 있다.

3) 問 : 『상계본』에 ‘聞’으로 되어 있다.

4) 辯 : 『상계본』에 ‘辨’으로 되어 있다.

5) 謹拜 : 『중초본』에 산거부전지가 있다.

答鄭子中²⁾

【邸奴仇叱同³⁾歸. 修上一狀. 想今已達. 茲承國馬人齋⁴⁾書. 獲審近日起處清勝. 無任浣慰.】知與尹子固枉駕山舍, 示及黃花・蒼竹之景. 可見天之餉人, 不改前度. 而主人昧於去就, 抗塵走俗, 使山阿寂寞, 無主無賞, 空起遊賢寓目而含譏, 爲可愧⁵⁾也. 出宰讀書, 會得初心. 昔人心事, 城主心事, 而猶有耿耿之歎. 如滉老病, 黽勉同作波瀾於世, 舊茫新汨, 終何如也. 丹砂之遊, 尤使人馳遡慨然. 至如因循架漏之諭, 非不知警責之意, 自古安有舍其田而能芸人田之理? 不自量而妄作, 誠亦爲難, 百思千度, 走是上計, 而淹留待春, 以是愈不自快耳. 南冥不自爲而欲責人, 亦何耶? 冬雷等變, 處處陸續, 朝意惶恐, 莫求其端. 言不可盡, 謹此拜復.

【今日王大妃⁶⁾殿大殿. 移御昌敬宮.】

1) (1568년, 68세) 10월 20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十月廿日]’로 되어 있다.

3) 仇叱同 :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仇叱同三字去之何如’가 있다.

4) 齋 : 『상계본』에 ‘齋’로 되어 있다.

5) 愧 : 『정초본』에 ‘怪’로 되어 있고, 교정기 ‘愧’가 있다.

與鄭子中²⁾

【頃承前月廿一日書縷縷備悉欣寫³⁾鬱陶擬於旬間寤姪⁴⁾之歸修報而】縣民無佑⁵⁾，今忽有寵除玉署之命，不任歎惋。失圖失圖。固知因銓曹故事，或有徑去之日，豈料徵黃之舉，遽出於坐席未煖之際耶？且民情之悶不暇云云，在城主爲求外補之意，亦成乖張，想亦軫懷不少也。然此皆私計之言。朝廷用人，重內輕外，勢不得不爾，奈何。御史失於寬，正如諭意。詩卷，玩詠反復，非但盛作甚進，屬和諸人詩亦進。豈時月之間交相切磨所變耶？可尚可尚。但一向馳思於雲水峩洋之間，專無一句道著⁶⁾這邊意思，何耶？拙

6) : 『상계본』에 ‘妣’로 되어 있다.

1) 무진년(1568년, 68세) 11월 6일.

2) 『초초본』에 ‘與鄭子中[至月初六日]’로 되어 있다.

3) 寫 : 『상계본』에 ‘瀉’로 되어 있다.

4) 姪 : 『상계본』에 ‘侄’로 되어 있다.

5) 佑 : 『중초본』에 추가 ‘傳本亦作佑’를 한 상란부전지 ‘佑恐■’이 있다.

6) 著 : 『초초본』,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着’으로 되어 있다.

者在此，未安事極多，今當來見，不須云云。明彥雖不能沈密，甚不易得，吾於此人，所得亦多矣。彥遇似有堅臥意，其竟何爲？夜燈昏翳，不能悉布。唯冀好行萬萬。【謹白】

【與鄭子中別紙[九代孫野淳輯錄.下全]】

【右相辭不得，已出矣。洪判爲都目政後，復三呈，得遞俞也。方呈辭，吳之事，未及聞知。大抵與金同者，非獨數人，如南與李，不足恠不足數，如士偉·馨之皆力主之，台叟亦不免而首相亦似兩徇，此非一朝一夕之間，一二人率爾所爲，其勢必無畏戢自止之理。天若祚盛朝，主上聖德日新，學問日進，則此事自當烟消冰釋矣。不然，決無可勝之理，自古如此爻象，惟有先事去之，可無大患，而今此路蕪²⁾廢，諸人似無意於此，尤可慮也。方叔已辭銀臺，明彥亦有欲辭之意，未知終如何？其中明彥，最爲人所忌，而其人踈雋，喜陵折人，怨惡者尤多，殊可憂也。已貽書切戒，不知能見記否？近聞厭諫倍甚，而諸人於不必爭處，爭執太苦，是適所以致踈外此一邊人之漸，奈何奈何？】

【乙巳削勳之事，兩司彌年爭論。翰苑則雖在近密，亦非言責而猶逐日陳疏，恐非所宜也.】

1) (1569년, 69세) 1월.

2) 蕪 : 상계본에 ‘茂’로 되어 있다.

【答鄭子中[己巳]】 2)

【投示長篇與改律，深荷，不鄙如此，立心自勵，非不好矣，但於言論之際，每每有病，傳聞昨日晝講啓辭，於滉心事，專似不曾委悉於進退一事，極有妨礙，聞之不禁縮頸寒心，終夜不寐，何故不念孤拙難處之蹤至此耶，此事當待面言，恐一日之間，亦或有如此之言，故及之，千萬切祝切祝. [此紙去之³⁾】

1) (1569년, 69세) 1~2월.

2) 『초초본』에 ‘答鄭子中’으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去誠一’이 있다.

3) 此紙去之 :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此紙去之四字去之何如’가 있다.

【答鄭子中】

【辱和拙韻，承荷寵示，珍玩無已，數三日後，當有歸鄉人，挽章煩惠是望，崔郎每至不利，恨恨，謹拜謝.】

1) (1569년, 69세) 1~2월.

【答鄭子中】 2)

【披閱垂簡，阻懷幸甚，四十日在告，不勝惶愧，力疾出拜，乞辭不得，而還愁悶而已，遊山詩今在奇明彦處，如欲索還，俟其出而問索爲佳，明彦亦云，詩格變前，又謂夾之等詩，亦好可喜，思歸可歸，在公何憂，只老妄人爲可慮耳，俟面姑此。】

1) (1569년, 69세) 1~2월.

2)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去誠一’이 있다.

【答鄭子中[己巳]】 2)

【近頗阻，奉承示爲慰，來諭，易有太極，節齋之說，以無體之易，當之似有未穩，大哉易也之易，豈專指無體之易，所云變易雖氣，而所以變易爲理者得之，愚意爲然，故敢白，未知是否.】

1) (1569년, 69세) 2월 1~26일.

2) 『번남본』, 『상계본』에 ‘答鄭子中’으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己巳’에 비점이 있고, 상란부전지 ‘存之何如誠一’이 있다.

【與鄭子中】 2)

【謹問歸去侍歡外，體履何如，二十五日政，授君中書郎，自是可無銓郎之拘礙，於爲親去就之際，亦當如意，可賀可賀，但明彥云，政府郎非他之比，在外不來，不可輕遞，恐不可不來謝，不知於此作如何處之耶，滉乞退之請，今日將再呈，欲於踏青日間出郊，因遂掛帆而去，未知能無魔事否，朝無他事，文昭殿已擬拆毀改構，物情極未安，欲將爭論而時未發，如滉方在乞身，未暇他事，甚不滿意，浩歎而已，餘必本府吏報，惟自崇珍恙，謹拜.】

1) (1569년, 69세) 2월 27일.

2) 『초초본』에 ‘與鄭子中[二月廿七日]’로 되어 있다.

【答鄭子中】²⁾

【路聞今日當來于此，企竚之際，承示停罷，深恨失圖之甚也，滉今始得請骸骨而退，天恩罔極感激無涯，喜幸不容口，舟行連值風雨，亦免他患，乃知順境無魔障也，左右今次除命，亦似出於眷意，而政府郎，例不速改，在朝所聞皆然，加以親意如許，則何可不作一行耶，況既謝母³⁾爲久留，亦無未安之意耶，諸友之言，雖不廣聞，大槩皆然矣，承許枉顧於山家，須及梅花未落爲佳，餘惟善調微恙，不具謹復.】

1) (1569년, 69세) 3월 14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三月望前一日]’로 되어 있다.

3) 母 : 『초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母’로 되어 있다.

答鄭子中[己巳]²⁾

辱書具悉，欣審比日侍養歡慶。況請骸還山，溪山依舊，雲物改觀。以今日所蒙，揆平昔所報，有萬無一，感恩慙德之至。向所謂優游³⁾林下之樂，尙未入手，然昔人稱自今已入清涼境界中矣。此事今於吾身，可以親見之。其爲欣幸戴祝，曷勝云喻⁴⁾，示詢行止，鄭員外之言甚善。此固至善之策，不易之理。但其間有非他人所與知者。一則視尊府體候康寧與否如何？一則稟親命固欲與否如何？當以此二⁵⁾事而量宜決之。若必至於因惱生患，曲陳不許，則亦可勉作一行，此前書所云之意也。【承得寵示佳篇。深荷。有客在門。未及賡謝。四日許枉。翹佇⁶⁾披霧。不具謹白。】

1) (1569년, 69세) 3월 20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三月廿日]’,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答鄭子中’으로 되어 있다. 『정초본』에 행간부전지 ‘三月’이 있다.

3) 游 : 『상계본』에 ‘遊’로 되어 있다.

4) 喻 : 『상계본』에 ‘諭’로 되어 있다.

5) 二 : 『상계본』에 없고, 행간교정기 ‘二’가 있다.

6) 佇 : 『상계본』에 ‘ ’로 되어 있다.

【與鄭子中】²⁾

【昨昨何以還宅，雖幸兩日之奉，客煩殊未款展，別後悵懷，不可爲喻³⁾，內賜胡椒一封，因便附⁴⁾上照領，餘望行色萬珍，不具，謹拜問.】

1) (1569년, 69세) 3월 27일.

2) 『초초본』에 ‘與鄭子中[三月廿七日]’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행간 부전지 ‘去誠一’이 있다.

3) 喻 : 『상계본』에 ‘諭’로 되어 있다.

4) 附 : 『상계본』에 ‘付’로 되어 있다.

【答鄭子中】²⁾

【月初六在山舍得寄書，知以其日發行西上事，固不得已也，卽今鳳池藥堦人，詠羔羊，可無馳賀，所諭云云奈何之嘆，則不以遠外而少弛，續得邸報，首相又已再辭，此又大悶，不知終無出意否，李憲之辭，其竟如何，又聞殿議尙未定，亦有後出他論，奈何奈何，凡事皆不敢深問妄說於入都，紙上徒增鬱結，自處則如所示當矣，子精玉堂所慮亦然，須相與警慎規益，勿迂勿媮，千萬是望，尤以不思前後，輕發言論爲戒，幸幸，朝報之寄深荷，餘在兒行，不縷謹拜。】

【明彥處，有小文字去，勿煩尋見，³⁾鄭季涵處，拙句可傳致否⁴⁾。】

1) (1569년, 69세) 4월 14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四月十四日]’로 되어 있다.

3) ‘鄭季涵’ 앞에 『중초본』에 권점 ‘○’가 있다.

4) 明彥處……致否 : 『초초본』에 소자로 상단과 연결되어 있다.

與鄭子中²⁾

【滂餘酷熱，不審孝候安否何如。馳遡日劇。】滉邇來，尤覺衰憊，往往心恍惚，目昏翳，耳聞蟬鳴。雖欲日近書冊以自警益，一二所得，無田地可以安頓培養，爲恨奈何。權震卿兄弟書來，欲速得議政大人行狀，趁遂請諡之計，固當如此，此文字曾已僭率草創，顧以乙巳間事，多涉嫌諱，欲避則揜³⁾美，欲盡則召鬧，其間極有難處之者。雖已隨事商量去取，以就此文，殊覺難以示人者多。今將直長錄示事實元草⁴⁾本及拙藁⁵⁾，一併呈上，幸讀『禮』之暇，細加參訂⁶⁾，一一指出示教。其中如“三陟餞席，沖菴臥而不應”一條，旣入而追刪。又如『陰崖日錄』所云，最關於相公善處己卯間事，故引以爲證。但其所謂“後來諸賢年少

1) (1569년, 69세) 윤6월 18일.

2) 『초초본』에 ‘與鄭子中[閏六月十八日]’로 되어 있다. 『정초본』에 행간부전지 ‘己巳閏六月’이 있다.

3) : 『상계본』에 ‘掩’으로 되어 있다.

4) 草 : 『상계본』에 ‘艸’로 되어 있다.

5) 藁 : 『갑진중간본』에 ‘藁’로 되어 있고, 교정기 ‘藁’가 있다.

6) 訂 : 『정초본』에 ‘證’으로 되어 있고, 교정기 ‘訂’이 있다.

氣銳”等語，存之未安，故連其上語意相接處欲去之，所以用別紙貼其面，而更以數句點綴過了。雖近於太略，無乃不妨乎？蓋存此數條，則似訾抑己卯人太過，安知不有人復如近日某人斥舉趙先生行狀中語而攻己卯者耶？以是，故欲去之，如何如何？其他不中理太觸諱處，無惜盡底裏容得修改，庶免大過，幸甚。伏覩近日爻象，益難以此等文字，上干朝聽，而震卿兄弟，急於請諡，唯務速得，此不可之大者也。并望轉曉此意，不宣。【謹稟。】

書-鄭惟一-165-1

【別紙】

【禮雖云卒哭後答人書疏。此泛指言酬答慰狀之類耳。若於親密契厚往復之間。有不得已咨報事。恐不應膠此一說而盡廢却也。妄料如此。故敢以冒稟。裁諒何如。】

書-鄭惟一-166¹⁾

答鄭子中²⁾

【滉拜白. 伏蒙惠答. 獲審孝候支勝. 無任慰釋之至.】滉保拙屏伏, 別幅所諭權相公行狀謬誤處, 得承指出, 幸莫甚焉. 其各條及他事, 詳在別紙. 詢及葬地前後之宜, 古禮未有考, 只以世俗所行及事理度之, 似以考前妣後爲當, 然前既無地可占, 合葬雙墳, 勢俱爲難, 則似不得不隨地勢以處, 更須十分商度以決, 何如? 【伏惟鑑察. 不宣. 謹上復狀.】

【挽章. 隨後製上伏計.】

書-鄭惟一-166-1

別紙

狀中, “爲季父”・“後, 自兵曹移持平”, “明年丁外憂”三條, 分明是謬誤處, 卽當改之. “猶以爲其黨”,

1) (1569년, 69세) 7월 9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七月初九日]’로 되어 있다.

“猶”字果亦似有病，當更思之。與尹書，直切之辭，不錄似可惜。但愚意於此，固已三復商量矣。所以不盡錄其辭者，當是時，逢迎主張，大作此禍，皆此老姦所作乃如此，多致觸忤³⁾之言。非但不能紓其禍，適所以激其虢怒而增其勢也。故只舉其大槩，如此云云足矣。子壻泣諫事，本當載入，緣見當此際，事急忠激，如赴球焚拯溺之時，著此等旁邊所爲事，參入爲言，竊⁴⁾恐令其間文辭意氣，或致疎緩，所以去之。今因來喻更思之，顧於此措辭著語，得失如何。得則不至如所慮，從當添入。“有罪者處之得宜”，“不知而營⁵⁾球”，“其事可付之空雲”，此數條，在相公行事中，此最是大關處，撰相公行狀中，此最是難斷處。滉在都下，已撰起狀草，首尾粗具，到此等處，處之極難，所以未得了訖。還山以來，百思千度，僅成如此。雖甚知主簿兄弟之急於請諡望如飢渴之意，而不敢出呈者，正爲此事故也。乙巳諸人，爲仁廟多積忠憤之餘，事勢忽爾大變，授受以正，則忠反疑邪，邪反似正。於是，邪得託正以報讎，大加誣陷，率被以

3) : 『상계본』에 ‘誤’로 되어 있다.

4) 竊 : 『초초본』,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切’로 되어 있다.

5) 營 : 『상계본』에 ‘勞’로 되어 있다.

反逆之罪. 此滉所謂無罪者糜⁶⁾爛而俱焚者然也. 至於尹任事, 當時以爲實有而加大罪, 人心或不能必其實有. 況今日以爲實無而洗大罪, 人心豈盡能必其實無乎? 此所以難處而難斷也. 朴和叔之意, 滉亦略知之. 竊恐斯人於此, 不能無少偏於權度之定也. 而餘姦之得以藉⁷⁾口者, 或不在於有罪與不知之公言, 而正在於全無罪之不能無偏之說也. 且今朝廷, 雖蕩滌諸冤枉, 而任以下未蒙蕩滌者尙多, 固非以爲皆無罪, 又與和叔同仕史局, 時或語及, 亦未見誦言三人實皆無罪也. 故滉於此, 有此等語, 不敢以禍福利害恐恍計較而有更變也. 又以爻象之說, 果有來諭之慮. 第近日一番騷動, 雖攻他人, 而意實在滉. 當此際, 以此文字出於朝廷, 而徹於御覽, 豈獨於滉有可虞, 亦或有不利於相公. 茲以近姑篋藏, 少觀爻象而出之. 願以是善諭⁸⁾主簿兄弟, 爲幸.

6) : 『초초본』에 ‘糜’로 되어 있고, 상란부전지 ‘糜恐作糜’가 있다.

7) 藉 : 『정초본』, 『갑진중간본』, 『상계본』에 ‘籍’으로 되어 있다. 『갑진중간본』에 교정기 ‘藉’가 있다.

8) 諭 : 『초초본』에 ‘諭’로 되어 있다.

答鄭子中別紙²⁾

【近日孝履何如，無任馳戀，前來挽幅，及京來不知何人，慰狀一封送上，惟照納，謹拜狀.】

【³⁾近見朝報，朴和叔銓長，不得終辭，已出謝恩，此人非不强人，意合人望，但既被指目之後，當此囂囂之際，而黽勉就職，不知何以善其後耶，甚爲吾徒之憂耳，時勢角立久而益甚，其中構⁴⁾毀尤集於明彦，似不能終免云若此人去，則餘豈能保，然嘗竊謂今之事勢，尙不至如宋朝，聖明在上，恐不若且倣調停之說鎮，而安之庶幾兩無事也，諸人何不思之甚，乃如此紛紛不已耶.】權相行狀疎謬處，已依示修⁵⁾改。但於三人事，全以無罪處之極難，故更爲商量下語，比⁶⁾前似稍得宜，竟不知果合於公論與否？當此多

1) (1568년, 68세) 8월 10일.

2) 『초초본』에 ‘與鄭子中[八月初十日]’,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與鄭子中’으로 되어 있다.

3)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只存近見朝報以下何{如}’, ‘存否更議’, 주목 상란부전지 ‘存否更議’가 있다.

4) 構 : 『상계본』에 ‘搆’로 되어 있다.

5) 修 : 『상계본』에 ‘脩’로 되어 있다.

言之際，出此狀甚爲非時。顧以震卿兄弟欲得之急，難於每匿。昨已上送其藁，且丁寧戒毋⁷⁾輕出，須更細度時宜，然後可出。恐彼徒迫於請諡而遽出，追悔上送之虛疎也。幸急與二君書，切戒姑藏置，少待時事之如何。懇仰懇仰。金舜舉竟至湔然，哀哉哀哉。⁸⁾

6) : 『상계본』에 ‘此’로 되어 있다.

7) 毋 : 『상계본』에 ‘無’로 되어 있다.

8) 近見……哀哉 : 『초초본』,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저일자로 되어 있다.

【答鄭子中】 2)

【滉再拜，伏承來書，具審孝候支勝，襄期且近，伏想倍難堪處，前來挽幅，謹已寫訖，并拜一狀，封送于從孫宗道家，令其傳上，明日當有歸人云，已囑之丁寧矣，其人未去而煩³⁾有伴來，深負不及事之愧，今⁴⁾使來人歷取而去，惟照，領定兆出於不得已，雖若有異，亦無如之何矣，油蜜果不欲用之，滉意亦然，但前於母喪，諸兄欲用而用之，今年來歸墓所焚黃祭，亦循俗用之耳，常時則不用，且欲遺戒兒孫，令勿用於吾前，若全不用未安，可作平排一二櫟，以代果實之不足，則無甚害也，此老生平日之志如此故云云，非欲以導人爲之也，伏惟純孝俯就順變，不具，謹拜白。】

1) (1569년, 69세) 8월 15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八月十五日]’로 되어 있다.

3) 煩 : 『상계본』에 ‘頗’로 되어 있다.

4) 今 : 『상계본』에 ‘令’으로 되어 있다.

答鄭子中別紙²⁾

題奉祀左方，以神主左方爲是者，不勝其多，不獨今人爲然。何氏『小學』圖等古書，亦或有之，故金慕齋亦從之。許·魏兩使所云如此，無足怪也。然滉所以不敢遽信彼，而直欲從『家禮』者，亦有說。試言今人展紙寫字，一行既寫了，次寫第二行者，其先寫第一行，必在人之右，次寫第二行，必在人之左，以此分上下，故例稱在³⁾右者爲上，在左者爲下矣。朱子於題幾主後，既明言其下左方題云云，此必以先所寫一行爲上，故以次行爲其下，以在上者爲右，故以在下者爲左耳。然則其分左右，正與⁴⁾『大學』序次如左之說同，皆以人對書而稱其方位。恒言莫不爲然。豈於此獨舍恒言，而遽易其方位向背，以先寫在人右爲上

1) (1569년, 69세) 9월.

2) 『초초본』에 ‘答鄭子中別紙[九月]’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去答鄭子中四字只存別紙二字’가 있다.

3) 在 : 『상계본』에 ‘左’로 되어 있다.

4) 與 : 『초초본』, 『중초본』, 『정초본』, 『상계본』에 ‘如’로 되어 있다. 『초초본』에 상란부전지 ‘■……■如本草亦作■……■與字之誤也’, 『중초본』, 『정초본』에 교정기 ‘與’가 있다.

者，變爲在神右爲上？又以當在人左爲下者，遷就在神左而爲下耶？此必無之理也。況於書標石處，謂刻自左方，轉及後右而周焉。豈可謂自標石左始而乃及後右耶？此亦爲證，無可疑也。『家禮圖』，雖或有誤，豈容皆誤。『大明會典』，既從『家禮圖』，我國『禮圖』，又從『會典』，今必欲舍先賢時王之制，而從何氏，易恒言方位，而強立無據之方位，豈爲當乎？然今人主彼說者，皆以神道尙右爲說，滉又以謂今入啓單子書狀之類，初面，先具銜書姓名，神座自西而東，題奉祀於神主右邊，安知其不與此同意耶？然今既已從何氏說書之，改書恐亦未安。但金字宏兄弟，初從何氏說，後自覺其非，以書來問，欲改書當於何時改乎？滉答以“必改書，得失未可知。欲改則不可以非時，或於小祥，爲之何如”云。未知彼如何耳。

卒哭後有吊者，亦如其前。非但卒哭後，以古禮言之，似三年內皆然。

【葬後朝夕上食，家禮不言，罷亦不言，行不知何意然以朱子，葬後恒居墳庵⁵⁾，朔望來奠几筵，觀之疑其并罷上食，故如此，若不罷，則豈容在他耶，但今人

5) : 『상계본』에 ‘菴’으로 되어 있다.

終三年上食，已成俗禮，宜從厚義，亦無害終三年上食爲善，其上食節次，自初至終，只焚香斟酒，拜食頃，點茶[代以熟冷]而輟有何異乎.】

朔望奠，在禮亦無三獻等依祭之文，恐當從禮. 而滉兄弟喪中，依祭行之，今思之，恐未爲得也. 【曉燈眼暗草⁶⁾恐.】

6) : 『상계본』에 ‘艸’로 되어 있다.

答鄭子中²⁾

近有過客自云，歷拜廬所，微有愆候。 窩子來云，因
伴候所聞亦然。殊用懸懸。今承手字，且問³⁾權君，
知今復常，慰釋曷喻⁴⁾。至如神思損減等項，在憂疾
中，理應如此，讀『禮』餘力，持攝得宜，豈不反爲益
勝平昔之資也耶。 滉方此老昏之劇，退屏以來，緣
被⁵⁾從前衆家煎囑墓碣文字之類，不勉強作猥酬之計。
一了復有一，葛藤不斷，見今尚未斷訖。衰殘心力，
受困不少。擬謂已受者今垂斷訖。明年七十，并與致
事⁶⁾而斷之，更不被衆侵矣。不意沈方叔又送其先公
行狀，欲強取碑製。此則素定難改，固不能應副。必
多得嗔怒於其人，奈何奈何。時議紛沓⁷⁾，其初勢似⁸⁾

1) (1569년, 69세) 11월 9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至月初九日]’로 되어 있다. 『정초본』에 행간
부전지 ‘己巳十一月’이 있다.

3) 問 : 『상계본』에 ‘聞’으로 되어 있다.

4) 曷喻 : 『초초본』, 『중초본』, 『번남본』, 『정초본』에 ‘曷喻曷喻’로 되
어 있다. 『정초본』에 뒤의 ‘曷喻’에 밑거표시가 있다.

5) 被 : 『상계본』에 ‘彼’로 되어 있다.

6) 事 : 『상계본』에 ‘仕’로 되어 있다.

河決，得稍寢息，專賴君相明⁹⁾良之力。然舊紛雖息而猶在，新紛又兆而更厲。不知天意如何而有此景象，甚可憂懼。近得奇明彦書，亦自言其爲當路所憎¹⁰⁾疾之故，且云欲去而爲朋儕所絆，不果。愚恐古人處此，似不應如是也。安有不合如許，而可強留之理乎。朴子進出身，可喜。但此人處此際，亦甚難，不知彼將如何而得善其道耶？憲兒得近邑，出於意料之外。闔境皆親舊，其於官方，必多妨礙，衆怨必興，又有妻親田莊，尤爲未安。初謂法當換，竟不遂而來赴，適爲老父之憂惱，何喜之有。餘在別幅¹¹⁾，惟愼嗇孝履萬萬。【謹奉復¹²⁾。】

7) : 『상계본』에 ‘畚’으로 되어 있다.

8) 似 : 『상계본』에 ‘若’으로 되어 있다.

9) 明 : 『상계본』에 ‘朋’으로 되어 있다.

10) 憎 : 『상계본』에 ‘憎’으로 되어 있다.

11) 『초초본』에 상란부전지 ‘別幅不錄何耶’가 있다.

12) 謹奉復 : 『중초본』에 산거부전지가 있다.

【與鄭子中】 2)

【隆寒，未審孝候何似，常切馳戀，滉近患痰證爲悶，就中吳守盈來，傳諭意，此事於滉，亦非不切，所謂經濟者，乃家兄外孫壻也，欲掄之情，何限，但故出入人罪自古以爲大罪，敬差之官，受耳目之任，勢難緣私請有所寬縱，若請囑之言騰播，則在滉得謗，不但如李剛而³⁾已將，必有得罪之虞，故不敢爲營掄之計，坐而待天，何痛愧如斯，且尹子固亦知事體如此，未結事之前，必不來見我，雖欲來，我亦不敢見矣，以此不得如諭，恨仰恨仰⁴⁾，餘筆凍不具，謹拜.】

1) (1569년, 69세) 11월 30일(그믐).

2) 『초초본』에 ‘與鄭子中[十一月晦日]’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행간 부전지 ‘誠一’이 있다.

3) 『중초본』에 추가 ‘傳本無而字’를 한 상란부전지 ‘而下恐闕而字’가 있다.

4) 仰 : 『상계본』에 없다.

【與鄭子中_[庚午]】 2)

【改歲，不審孝候何如，滉寒疾痰涎，保至新陽，亦云幸甚，京報無聞，時事莫知如何，鄉間凡事，甚敗人意，況於左右之心乎，然亦無如之何矣，惟冀勉抑萬萬，謹拜問.】

1) (1570년, 70세) 1월 5일.

2) 『초초본』에 ‘與鄭子中_[庚午正月初八日]’, 『상계본』에 ‘與鄭子中’으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행간부전지 ‘去誠一’이 있다.

【別紙】

【傳聞監司謂人曰，似聞鄭司諫方有造成乃小家也，此非尋常人之比，今在服中有此事，深³⁾恐招人指點，誰能爲告此意乎云云，聞之未安，故敢白.】

3) : 『상계본』에 ‘甚’으로 되어 있다.

答鄭子中別紙 [庚午]²⁾

題主左右之得失，滉亦未敢質言之．但朱子『家禮』所謂左方，定指人左，非神主左也．近又見『濂洛風雅』南軒『諸葛忠武侯贊』末注，“南軒作此贊，文公跋其左方”云云，亦謂人左爲左方，是亦明證，不獨前書所引“標石刻左”之“左”字爲證也．改題之說，如欲爲之，當如來喻³⁾．

時祭，極事神之道，故齊⁴⁾三日．忌日墓祭，則後世隨俗之祭，故齊⁵⁾一日．祭義有不同，齊⁶⁾安得不異？

大祥日，只云杖斷棄，不言衰與經⁷⁾處之如何．

1) (1570년, 70세) 1월 9~12일.

2) 『초초본』,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重答鄭子中’으로 되어 있다.

3) 喻 : 『상계본』에 ‘諭’로 되어 있다.

4) 齊 : 『초초본』, 『중초본』, 『정초본』, 『갑진중간본』에 ‘齋’로 되어 있다. 『갑진중간본』에 두주 ‘齋當作齊’가 있다.

5) 齊 : 『초초본』, 『중초본』, 『정초본』에 ‘齋’로 되어 있다. 『갑진중간본』에 두주 ‘二齋字同上’이 있다.

6) 齊 : 『초초본』, 『중초본』, 『정초본』에 ‘齋’로 되어 있다. 『갑진중간본』에 두주 ‘二齋字同上’이 있다.

7) 經 : 『상계본』에 ‘經’으로 되어 있다.

按『禮』云，祭服敝⁸⁾則焚之，衰經⁹⁾似亦如此。然『禮』無明文，不敢臆說。

10) 虞祭朔望奠，則降神之禮，焚香酌酒，各行再拜。時祭則二者并¹¹⁾行一再拜，何以不同？

按非獨虞祭，其於祔¹²⁾及祥禫，皆各再拜。夫虞朔之類，禮宜簡節而反備，時祭，禮宜繁縟而反略，皆不可曉，徐更詳之。

銘旌¹³⁾，初立於右，終立於左，何？

按尸南首而靈座在其東，則疑其初所謂立於靈座之右與其後立於柩東者，同是爲右。蓋自尸南首而言，則東爲右，非左也。如何？

【小祥練冠練服。而衰獨不練。衰重故然乎。】

【檀弓練衣云云。註¹⁴⁾練衣者。以練爲中衣也。正服不可變。中衣非正服。但承衰而已。此所謂正服不可變。

8) : 『상계본』에 ‘弊’로 되어 있다.

9) 經 : 『상계본』에 ‘經’으로 되어 있다.

10) 『초초본』에 상란부전지 ‘■……■之詛’가 있다.

11) 并 : 『상계본』에 ‘(並+八)’로 되어 있다.

12) 祔 : 『상계본』에 ‘附’로 되어 있다.

13) 旌 : 『번남본』에 ‘ ’으로 되어 있다.

14) 註 : 『초초본』에 ‘注’로 되어 있다.

正與來喻所謂衰重故然之語合矣.】

挽章，納于壙中。禮雖無據，從俗恐無害。蓋不納則置之無所宜故也。

15) 【禮庶母之有子者服總。而大典加給假二十三日。當從大典否.】

16) 【古總三月。而今總只行七日。庶母服以古之月數言。則不可加。以今之日數言。則太薄不近情。故國典加二十三日。然視古總。猶僅得三之一耳。時王之制。何可不從耶.】

庶人，只祭考妣？

來喻¹⁷⁾論辯¹⁸⁾，恐皆得之。蓋『禮』既有妾子爲祖後之文，又『喪服小記』云，“妾祔¹⁹⁾於妾祖姑”。萬正淳嘗舉此以問，朱子所答，亦以『疏義』妾母不世祭之說，爲未可從，[²⁰⁾說見『節要書』第十卷]。然則庶人只祭

15) 『』에 상란부전지 ‘■……■大典本■……■杖期非加’, 『중초본』에 주목상란부전지 ‘此條去’가 있다.

16) 『중초본』에 주목상란부전지 ‘此條去’가 있다.

17) 喻：『상계본』에 ‘諭’로 되어 있다.

18) 辯：『상계본』에 ‘辨’으로 되어 있다.

19) 祔：『상계본』에 ‘附’로 되어 있다.

20) 『중초본』에 주목상란부전지 ‘註單行’이 있다.

考妣，只謂閒雜常人耳。若士大夫無後者之妻子承重者，不應只祭考妣。故『大典』只云，“妻子祭其母，止其身而已。” 如今韓明澮奉祀之類，未聞朝廷以只祭考妣之法禁之也。

妾子之於嫡母，稱於人則曰“嫡母”可也。但以方言，稱於母前及家內，則別無可當之稱，恐只得如今人家婢御稱主母之辭而已。蓋於父既不得稱曰父主，於母安得而直稱曰²¹⁾母主耶？

庶母於己妻，貴賤雖不同，猶是姑婦之行，其行坐位次・飲食先後，當如何處之，^[22)嫡女²³⁾同]

此亦未有明據。然父在而母死，父不得已使一妾²⁴⁾代幹內事，一家之人，豈可不稍以攝母之義事之乎？故古有攝女君之稱。雜記曰“攝女君則不爲先女君之黨服。” 註²⁵⁾，“妾²⁶⁾攝女君則稍尊也。” 又曰“主妾之喪”云云。“殯祭不於正室。” 註²⁷⁾，“攝女君之妾²⁸⁾

21) : 『상계본』에 없다.

22) 『중초본』에 주목상란부전지 ‘註單行’이 있다.

23) 女 : 『상계본』에 ‘母’로 되어 있다.

24) 妾 : 『상계본』에 ‘婬’으로 되어 있다.

25) 註 : 『초초본』에 ‘注’로 되어 있다.

26) 妾 : 『상계본』에 ‘婬’으로 되어 있다.

死，則君主其喪，猶降於正嫡，故殯祭不得在正室也。”以此觀之，攝女君稍尊於衆妾²⁹⁾可知。如是而子妻與諸女諸孫女・直以貴賤之分，每事輒先於彼，則非但於庶母，不知有攝母稍尊之義，其於事父之禮，亦有所未盡。故謂宜坐位則當避，食則當讓。^[30]讓食之節，在家內當然也。若成衆燕會，或他有壓尊處，或不得讓矣。]惟同出於一路，乘馬者先於乘輜³¹⁾者，事體殊異，故不得不輜先而馬後矣。^[32]若可相避則避之。未可避則如上云。]

33)古人謂正寢爲前堂。蓋古之正寢，皆在人家正南，故祠廟皆在其東而無所礙。今人正寢，或東或西。其在西者，祠堂難立於其東矣。弊門繼曾祖小宗家在安東，西寢而東祠，勢甚不便，近年，方移置西軒之後。蓋隨地勢，不得不爾耳。遺衣服祭器，依古制藏於廟固善，而密爲防盜之策亦可。若患此而藏於他，各在

27) : 『중초본』에 ‘注’로 되어 있다.

28) 妾 : 『상계본』에 ‘妄’으로 되어 있다.

29) 妾 : 『상계본』에 ‘妄’으로 되어 있다.

30) 『중초본』에 주목상관부전지 ‘註單行’이 있다.

31) 輜 : 『상계본』에 ‘驕’로 되어 있다.

32) 『중초본』에 주목상관부전지 ‘註單行’이 있다.

33) 『중초본』에 주목상관부전지 ‘別條’가 있다.

其人善處，他人似難爲說也。

國俗，既有奴婢相傳，與田宅無異，則置承重奴婢，豈有不可？況兄弟衆多之家，不置承重奴婢，泛同於衆兄弟，亦非尊祖重宗・崇奉祭祀之義，甚不可也。

滉嘗推得伊川“引哭則不歌³⁴⁾”之說，正與來諭同矣。朱先生乃以伊川爲不是，竊有疑焉。蓋是時，一慶一吊，皆同朝共舉，一日之間，吉凶相襲，旋罷旋集，禮瀆情散，恐不如翌日早吊之爲得。不宜以恒人聞親戚之喪，卽趁奔赴³⁵⁾者例論之也。伊川豈不思而失言於其間哉？

『左傳』不可盡信處，非但『易』占夢驗爲然。凡有死喪成敗之類，必先借作當時有名人先知先見之說，以爲張本，而後著其事以應之，種種皆是，直是令人厭觀。可見其人之浮誕巧言，多不足尙也。

程嬰當初與杵臼約皆死，而後不死，則果如所諭。觀史云，杵臼謂程嬰曰“子爲其難云爾。”則是杵臼但勸程嬰立孤，而自期以死保孤耳。非約以同死。故劉向以爲不必死。然先儒又以此事不見於『左傳』等書，

34) : 『중초본』에 ‘可’로 되어 있고, 주목상란부전지 ‘歌’가 있다.

35) 赴 : 『상계본』에 ‘走’로 되어 있다.

疑其本無是事，而後人爲之。不知此說如何也。

『禮』曰“外患弗避。”則當靖康禍難之極，臣子固無可去之義。然不可執一論也。是時排禍難・掄君父之責，在李忠定一身。身存策用，則君可掄國可存矣。乃爲小人所扼。策不用而君將虜國將亡。如此而獨存其身，欲何爲哉。徒殺其身，亦何益哉。忠定所以欲去者，庶幾因此而少悟君心，以³⁶⁾反其所爲，則或可用“取日虞淵”之手耳。瓊山擇義未精，好惡多謬，至以宋朝士大夫必謹進退爲非，何足以知此³⁷⁾義哉。

理宗爲彌遠所立，其事近篡³⁸⁾。千載之下，尚令人扼腕憤歎³⁹⁾，況當時之人乎。然猶不可以篡⁴⁰⁾論者，彌遠以太后之命立之也。且西山於王府爲教授，乃處賓師之位，非如王・魏爲宮⁴¹⁾僚之比。又其在王府，見王過失，竭誠直諫，不用而後，力請外而去。及理宗卽位，召除講職，卽至不辭。蓋以前非爲臣於彼，故

36) : 『상계본』에 ‘心’으로 되어 있다.

37) 此 : 『상계본』에 없다.

38) 篡 : 『상계본』에 ‘篡’으로 되어 있다.

39) 歎 : 『번남본』에 ‘難’으로 되어 있다.

40) 篡 : 『상계본』에 ‘篡’으로 되어 있다.

41) 宮 : 『상계본』에 ‘官’으로 되어 있다.

後可爲臣於此. 是以後之論者, 以前去爲先見之明, 後至爲能擇其君, 斯言當矣. 其於理宗⁴²⁾初, 又極陳⁴³⁾濟王之冤, 力主贈典之舉, 乃以此爲羣小劾逐而去. 既不負濟王之分義, 亦不徇⁴⁴⁾理宗之過惡. 大賢之所爲, 衆人固不識, 而輒肆攻貶, 恐我輩不當助爲害正之論也. ⁴⁵⁾濂溪·明道仕州縣⁴⁶⁾, 卽孔子可以仕則仕之意. 伊川止晚年⁴⁷⁾一出, 是人君不致敬盡禮, 則不足以致之之義. 大抵君子之道, 或出或處, 或去或不去, 何可同也. 歸潔其身而已⁴⁸⁾.

茅纏紙裹 [此下, 『朱書節要』.]

以茅纏之, 以紙裹之, 是苟且行禮者假物作眞之爲. 此必古有是說, 而先生引之. 恨未知出何書耳.

42) : 『상계본』에 ‘宗理’로 되어 있다.

43) 陳 : 『중초본』, 『정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諫’으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두주 ‘諫疑陳字’, 『정초본』에 교정기 ‘陳’, 『번남본』에 원두주 ‘諫疑陳字’, 『상계본』에 두주 ‘諫疑陳字’가 있다.

44) 徇 : 『상계본』에 ‘循’으로 되어 있다.

45) 『중초본』에 주목상란부전지 ‘濂溪以下爲條’가 있다.

46) 縣 : 『상계본』에 ‘懸’으로 되어 있다.

47) 『중초본』에 추가 ‘傳本同’을 한 주목상란부전지 ‘{止}晚年更詳’이 있다.

48) 濂溪明道……而已 : 『정초본』에 별행으로 되어 있고, 상란부전지 ‘別條’가 있다.

大拍頭

“拍”音“白”。『樂』書，“樂有拍板”，如今樂所用拍板也。“牛僧孺以拍板爲樂”句，韓退之大稱賞。又王維見『按樂圖』曰“此霓裳第三疊拍也。”又“虞美人草，有爲『虞美人』曲則應拍而舞。”又『霓裳曲』“散序六遍無拍，中序始有拍。”今以此等語參詳，拍者，乃樂節之名，合九板或六板，繩穿而手拍之，出聲以表樂曲之節，故謂之拍。如蔡琰胡笳分爲十八拍也。頭者，如歌頭・詞頭，是一拍之題頭也。其曰大拍頭者，言大張皇作曲拍，如今云大作長歌之類。以比子靜平日，自是已見，其於論學，大張皇作氣勢・厲聲色・胡亂說道無忌憚也。

代翕代張

翕，斂闔而欲去之也。張，張開而復作也。言欲去人欲，而更迭復作也。

天上，無不識字神仙，

言此，以比自古無不博學之聖賢也。叔昌，浙人。當時浙⁴⁹⁾中諸人，尙史學，以通古今・討世變爲務，不於根本上做工，先生力辯⁵⁰⁾其非。故叔昌答以此言，

49) : 『상계본』에 ‘浙’으로 되어 있다.

乃揜過遂非之辭. 先生又斥之如下文所云也.

【郢書燕說.】

【韻府以爲出韓非子⁵¹⁾.】

驀直之義

來諭⁵²⁾以爲 “直截”, 得之. 蓋不爲左牽右掣, 而直前做上去也.

【杜撰扛夯作壞了.】

【扛⁵³⁾舉也. 夯音向. 用力擔荷之意. 謂誠之撰造. 無義無實底見識言語. 又以是強費力擡舉擔荷. 皆其爲學病處. 故爲此等伎倆所壞了也⁵⁴⁾.】

【小祥不練衰. 往者國恤時. 臣僚議此事. 有朝報草一幅送上. 考後因便風見還.】

50) : 『상계본』에 ‘辨’으로 되어 있다.

51) 郢書燕……韓非子 : 『중초본』에 산거부전지가 있다.

52) 諭 : 『초초본』에 ‘喻’로 되어 있다.

53) 扛 : 『상계본』에 ‘杜’로 되어 있다.

54) 杜撰扛夯……壞了也 : 주초본에 주목상란부전지 ‘此段不書’가 있다.

答鄭子中²⁾

【滉拜.】伏承垂答，縷縷滿紙，審悉示意曲折.【且知嘗有患寒今已痊差無任慰釋之至滉身在屏廢未免外來之撓恒不知其故近因歲時應接益煩護寒保病皆不得如意殊可悶也云云事此中所聞亦云京官之意只據其一事狀啓已定似無發明之路天下果有此事乎不忍言也】今士大夫服中有³⁾營造等事，固多有之，人亦不以爲怪.當初左右所料，必出於此.然想李按使之意，欲責備於左右，又以其小營故，以爲言耳.不往監，善矣.然安能家到而戶說耶？不如聞謗速改之爲得也.但已豎者，不可付之腐倒⁴⁾，此則似可量處也.所云“監司處有求，故爲其所詆.”滉所聞於人者，亦正舉其事而言之云云.古人有言曰“見人輒有求，所以事事賤”.嘿觀世間事，正是此一字爲病，而來

1) (1570년, 70세) 1월 13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正月十三日]’로 되어 있다. 『중초본』에 상란부전지 ‘■…■欲取 取之恐是’, 『정초본』에 행간부전지 ‘庚午’가 있다.

3) 有 : 『정초본』에 없다.

4) 倒 : 『상계본』에 ‘到’로 되어 있다.

諭之言，眞箇實見得非也。滉年來於此，極著⁵⁾力激昂，深覺有味，而今欲爲先塋石物之故，爐炭不足⁶⁾，不免求數石於官以補之。以此爲心，將恐不獨⁷⁾此一事，深懼破戒之害也。爲人作請簡，雖與自己之求有間，然亦多爲人所賤惡，故尋常所聽從者十居二・三，往往猶有⁸⁾羞吝。欲一切不爲，則又不近情。可否之擇，眞不易也。大抵吾輩既有志於學問，事事不放過，乃爲得之。而持身行世，率多疎闊，招人謗議，豈不可畏可警耶？【別紙所詢，多非愚見所逮。今未及奉報。徐俟後便照遲。朝寒筆凍，不宣。謹拜。】

5) : 『정초본』에 ‘着’으로 되어 있다.

6) ‘足’ 뒤에 『초초본』, 『중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勢’가 있다. 『갑진중간본』에 두주 ‘足字下本有勢字’, 『계묘교정본』에 원두주 ‘一本足下有勢字’, 『번남본』에 원두주 ‘印本足下無勢字’가 있다.

7) 不獨 : 『정초본』에 없고, 교정기 ‘不獨’이 있다.

8) 猶有 : 『상계본』에 ‘有所’로 되어 있다.

【與鄭子中】 2)

【比來未審孝候安否何如，滉老昏日甚，以今年七十，上箋乞休致，非但未遂所懇，反承召旨之下，雖非因此而有復進之理，然畢竟事歸蹉跎，未免更乞期於得請之勢，豈謂賜退之後，猶有此等撓悶耶，聞奇明彦已作南行，和叔則雖免銓長，復長春官，於去就極有拘牽不如意處，可念可惜³⁾，領相再辭再不允，期欲不出云，又不知何意也，餘事不敢多云，想亦已聞之矣，前辱詢諸條，久乃畧報去，其不中理處，裁量去就，甚者反以鐫喻，冀得因有開⁴⁾發處也，明彦不能制酒之病，已於書中痛言之，但惜此人豪習未除，學力尙淺，恐未必能聽人說話也，又曾不知子進亦好酒，其書之來，尙未報，報則當如示，餘在小紙⁵⁾，不宣。】

1) (1570년, 70세) 2월 26일.

2) 『초초본』에 ‘與鄭子中[二月二十六日]’로 되어 있다.

3) 惜 : 『상계본』에 ‘借’로 되어 있다.

4) 開 : 『상계본』에 ‘改’로 되어 있다.

5) 『초초본』에 상란부전지 ‘小紙亦闕’이 있다.

答鄭子中²⁾

辱垂問書，來自奉化。承悉練變以來，孝履支順，甚慰瞻邇，不遠伊邇，非但一未趨慰，至如修問，亦多闕然，深覺愧歉。滉自被調來之旨，苟偷時月之間³⁾，然頰肩未釋，一日難安。擬復上箋，煩瀆惶恐，將發且已。在廷諸公之誤人，不亦甚乎？愁撓不可名言。承諭讀『朱書』有味，甚善甚幸。人苟於此，得味之深，其久也必得力之多矣。如滉者，纔味其味，年來蹤跡蹉跎，不復嚙齧，奄忽星霜。今夏陶山，可讀其書，緣諸人溫繹『啓蒙』，又不果，今移來避暑於易東，始欲料理舊業。祇⁴⁾恐更被他人・他業所轉了也。多口，可怪亦可愕。然古人處此，惟云“莫如自修⁵⁾”。今詳來示，正得此義。若能實踐無謾，而行己如處子，則鑠金漂⁶⁾山，當變爲雲消霧散矣。第慮於根本上培養，

1) (1570년, 70세) 7월 3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七月初三日]’로 되어 있다.

3) 間 : 『갑진중간본』에 두주 ‘間當作閒’이 있다.

4) 祇 : 『중초본』에 ‘ ’, 『상계본』에 ‘祇’로 되어 있다.

5) 修 : 『상계본』에 ‘脩’로 되어 있다.

不甚牢厚，則所謂不覺其依舊發出者，爲可畏耳．屢空之歎，吾輩常事，又因連饑，沉重以喪祭之事，勢應至此，稱貸非便，窮裏所同患．然朱子云，“窮須是忍，忍到熟時自好．”此言當深味也．“廷臣發大論”此意甚好．但丁巳年事得請，已爲大幸，若乙年⁷⁾事，有至難之⁸⁾勢，極未安之義．爭之不得，莫如速已之愈也．傳聞去月廿日後，猶不得⁹⁾停啓．天語嚴峻之劇，似無聽許之望．假使或從，亦有大可憂者．不知諸公何故如此？殊不可知．明彥，節使參望，不受點矣．且大成之除，亦無來意云，“若非命召之職，此人不應率爾來也．”朴子進名太早，實不掩．尋常爲其人憂之，果然踰躓，可惜可惜．安道只一男，奄爾失去，所系非偶，悼念何已．議草領得，惟冀毖衛加重，不宣．【謹拜復．】

6) : 『초초본』에 ‘飄’로 되어 있다.

7) 乙年 : 『갑진중간본』에 두주 ‘乙年當攷’가 있다.

8) 之 : 『상계본』에 ‘事’로 되어 있다.

9) 得 : 『중초본』, 『정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없다. 『갑진중간본』, 『계묘교정본』에 원두주 ‘一本停上無得字’가 있다.

別紙

近趙士敬持示草本一紙，乃滉往年妄報來書別紙論格物等說也。其中說“費隱”處，引“體用一源，顯微無間”之語一段，今更詳之，有未穩，故改之曰“費隱”。子思·朱子既以道言，皆是形而¹⁰⁾上之理也。以散在之廣且多言，則謂之費，以無形象可見言，則謂之隱。非有二也。若以形而下者爲費，則是分道爲二，而認其一端以器當之，其可乎？禹景善以下，如舊不改。

【去四月間，有旨下來，其間極多未安之辭，滉不勝惶駭憂惱，方閉戶草辭謝書狀，有儒生一人來欲見，應門僮兒輩，以主翁方在憂恐中，奉旨來人，尙守門不去，當此際，通見京來儒生甚非，其時辭不得通報其人，自云我初欲受業於鄭司諫而來，司諫不許留，故往見安東官員，自彼來此，今又如此奈何，拂衣而去，既去乃始聞之，慙恨何極何極，雖不得留，相見後具告難留之意而遣之，可也，直自外絕拒之，甚埋¹¹⁾沒

10) : 『상계본』에 ‘以’로 되어 있다.

也，欲以一紙書追謝之，不知其姓名誰某，居住在某坊，未果，尤恨，想左右必知之，須細示及爲望，似聞是琴應鍾族屬人，果然否¹²⁾，并示破幸幸.】

11) : 『상계본』에 ‘理’로 되어 있다.

12) 否 : 『초초본』에 ‘否否’로 되어 있고, 뒤의 ‘否’에 교정표시가 있다.

答鄭子中²⁾

【滉拜復. 近殊阻音. 伏承惠書. 具審孝候支勝. 無任慰豁. 滉保拙依然. 第昏眩特甚. 雖云老病常理. 深怪耗荒之早. 絕異於他人也.】示及悔吝之救治, 工夫之易奪, 皆出於諳歷之餘惓惓之言. 以此自勵, 加以歲月之久, 橫渠所謂庶游心浸熟, 脫然如大寐之醒, 豈不有其日乎? 所謂『心經』・『節要』等書, 此亦頗從事於其間, 日用應接, 持守體驗, 方是³⁾眞實用功⁴⁾. 往往不覺有心融神會, 若有所得, 乃知古人之言眞不我欺, 然後又知前此雖曰有志於此事, 實未嘗造其堂・躋其域也. 亦歎衰病之極, 屋舍頽敝, 來日無多, 恐不能究竟此一大事耳. 廷爭事, 所憂正如來諭⁵⁾, 雖曰忠憤所激, 自古豈有如此而可回天之故事乎⁶⁾? 假使幸而得回, 亦恐不得爲正當道理, 甚可憂

1) (1570년, 70세) 9월 6일.

2) 『초초본』에 ‘答鄭子中[九月初六日]’로 되어 있다.

3) 是 : 『초초본』, 『정초본』, 『번남본』, 『상계본』에 ‘始’로 되어 있다.

4) 功 : 『상계본』에 ‘工’으로 되어 있다.

5) 諭 : 『초초본』에 ‘諭’로 되어 있다.

鬱，然敢出此言，亦恐未安耳。明彥之去，差強人意。其兩疏亦皆得見，亦非有大不可。但以此施於今日，駭俗深矣。逢怒劇矣。似聞以此言及於鄙人，以爲彼之爲此，某人之所使然也。此其根連株逮，收司連坐之兆已見矣。朴子進，名過其實，而昧於自處，躋踞無怪，而其意亦不止於此一人，然當⁷⁾靜以俟⁸⁾之⁹⁾，尙何爲哉。李季眞之意如此，亦好，但以近侍受由來，雖欲不還，勢恐難得如意耳。“格物”說，謬見不過如此。明彥必欲以“到”字爲“理到”，今又合聚得“理到”字出處三・四條來爭，時未答去，又恐或愚見自誤而不覺，姑留以深思之耳。【李生首末。今始承悉。當日適值召命壓頭捧書人。守門不去。閉戶草¹⁰⁾狀。惶¹¹⁾遽窘迫之際。僮奴輩妄料徑¹²⁾自辭謝。致令其人重趼誤求之誠意。竟至於空返。何愧負若此之甚乎。本欲作一書。致意於其人。今適因客至淹晷。

6) : 『상계본』에 ‘耶’로 되어 있다.

7) 然當 : 『상계본』에 ‘當然’으로 되어 있다.

8) 俟 : 『상계본』에 ‘俟’로 되어 있다.

9) 之 : 『상계본』에 ‘一’로 되어 있다.

10) 草 : 『상계본』에 ‘艸’로 되어 있다.

11) 惶 : 『중초본』에 ‘惶’으로 되어 있다.

12) 徑 : 『상계본』에 ‘經’으로 되어 있다.

客去始修¹³⁾此書。而來使立俟。未暇修¹⁴⁾書。尤恨。
伏願任君處。歷數此曲折。懇伸謝意。庶令傳布。是
望是望。惟照諒。霜寒¹⁵⁾。更冀勉重。不宣。謹拜
復。】

【季應如此。曾是不意。人固不可知也。】

13) : 『상계본』에 ‘脩’로 되어 있다.

14) 修 : 『상계본』에 ‘脩’로 되어 있다.

15) 寒 : 『상계본』에 없다.

【與鄭子中別紙】

【朝爭乙巳事，昨得親舊書報，兩柳伸雪，既已得請，甚賀。但臺諫就職後，仍論削勳事，朝意必以爲上既知兩柳之冤，而洗雪則奸兇構捏之罪益顯，洗冤削勳不可以一舉一否，自是爭之必尤力。愚意或不然，昔管仲射帶鉤，魏徵勸先發，桓公·太宗猶收而用之，況今上無爭國之事，二人無射鉤勸發之罪，今特雪其冤，豈不美舉乎？與用管·魏事，事不同而義實同矣。然則削勳事，雖未得請，自可并行而不相悖。蓋大尹無異謀，不能明知，則苦請削勳，似有傷於聖上孝慈之至，不審朝意於此將何如也？流聞時議以滉無一疏及此事爲非者，滉謬見如此，有疏則不敢不露此意，恐反有害於同朝共請一國輿情之間，故不敢發，如何如何？今以告左右，亦甚未安。然左右職帶秉筆，尤不可不知此義，故聊及之，然不可輕發於人，千萬千萬。其隨衆所處至難，極宜審度，姑以既明二柳之請。此一事既有臺諫，可停史院之爭云云。如何如何。】

1) (1570년, 70세) 11월 6일.